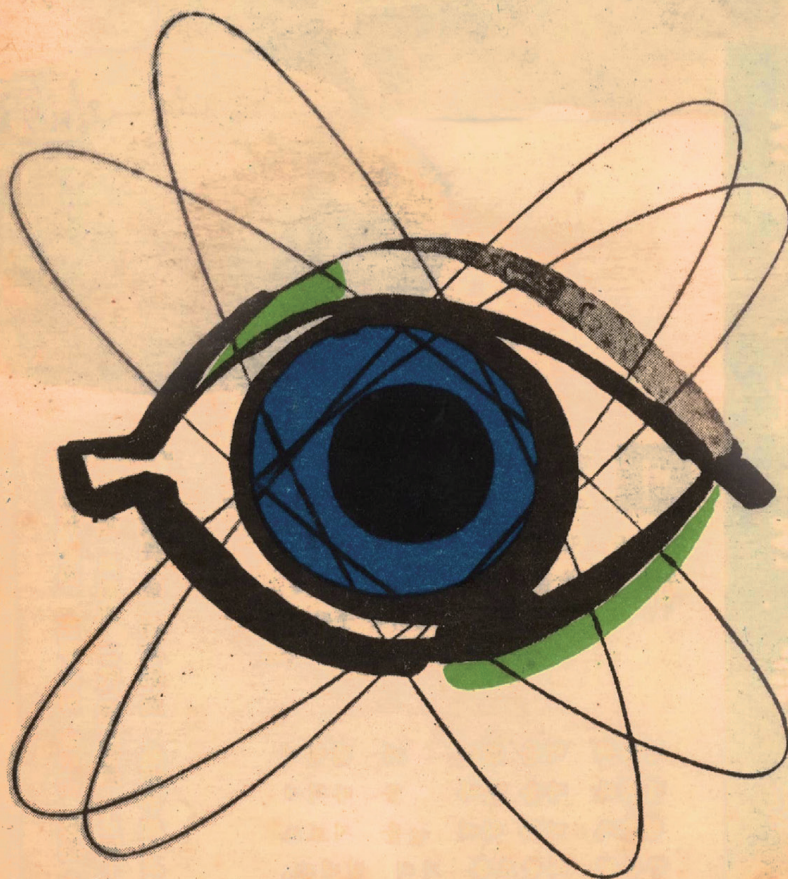


THE COMET

코메트



第
6
號

表紙二圖・原子構組圖

공군항공병학교



사진은 군세계 자라나는
항공병학교의
부감도(圖)와 그 정문(正門)과
군기(軍紀)를 빛내는
위병(衛兵)의 자세



비행장 활주로에 은익이 뜨면
고요한 잔디 속에 먼동이 뜨고
계룡산 아침안개 헤치고 가는
우렁찬 폭음소리 희망도 크다.
군세계 자라나는 우리 학교는
대한에 빛나는 항공병학교

배움의 터를 닦아 군기 빛내며
정의와 자유 찾아 이 몸 바쳐서
침략자 머리위에 불을 지르고
항공의 화랑도를 기리 빛내자.

★ 최용덕 장군 작사, 윤서영 여사 작곡
공군항공병학교 교가

항공의 화랑을 키워내기에 힘쓰는 이들

초대교장 공군대령 김성태
교장 대리 공군 중령 홍종남
2대(현) 교장 공군 대령 신동우
부교장 겸 행정부장 공군 중령 홍종남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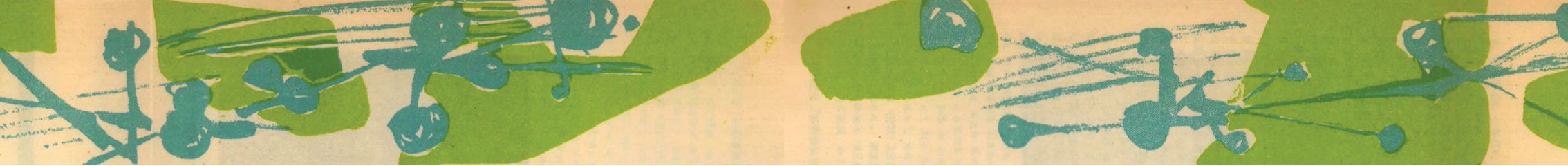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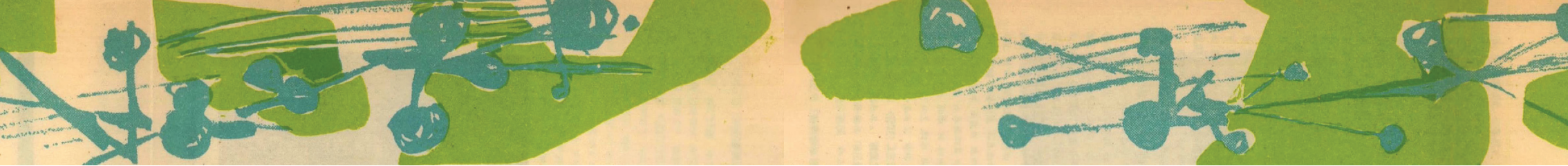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줄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피에테 → 피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봐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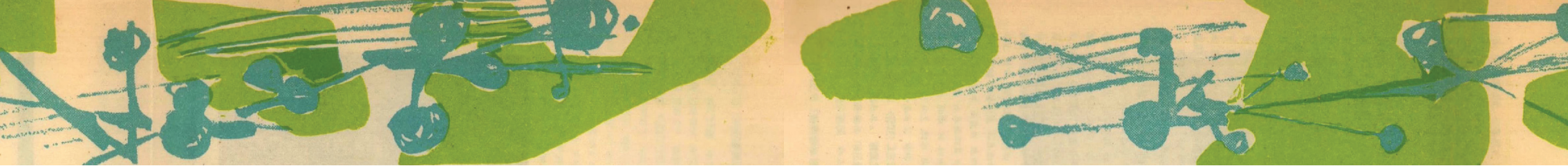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잡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았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랭캐 → 오랑캐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삼펜 → 삼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아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6호 목차(目次)

결장 그림 편집실(編集室)

목차(目次) 그림 편집실(編集室)

본문(本文) 커트

조병덕(趙秉惠) 화백(畫伯)

★ 토마의 「종교교육(宗教教育)」화(畫) 〈명화감상(名畫鑑賞)〉 이안세(李安世)

코메트 화보(畫報)

★ 공군본부(空軍本部)에 내림(來臨)한 손원일(孫元一) 국방장관(國防長官)

각하(閣下)와 요담(要談)하는 최(崔) 총참모장(總參謀長) 각하(閣下)

★ 노오랜드 미(美) 상원의원(上院議員)을 환영하는 최(崔) 총참모장(總參謀長) 각하(閣下)

★ 8.15 기념(記念) 대시위비행(大示威飛行)의 위용(偉容)

★ 시민(市民)들의 꽃다발 화환(花環)을 받는 우리 「보라매」의 준자(俊姿)

★ 공군(空軍)의 역대인물(歷代人物)·이근석(李根哲) 소장(少將)

〈권두언(卷頭言)〉 관용(寬容)

서임수(徐壬壽) 1

한국(韓國) 정치회담벽상관(政治會談壁上觀)

박기준(朴琦俊) 14

획기적(劃期的)인 신식지도(新式地圖)

마이크 흰레에 140

해아(海牙) 공전법규(空戰法規)

유필우(柳弼宇) 128

★ 나의 처녀비행(處女飛行)

전숙희(田淑禧) 5

★ 현재진행형(現在進行形)

김효성(金曉星) 7

★ 지망(志望)파일럿

이흥우(李興雨) 4

★ 수난(受難)의 회고(回顧)

오춘목(吳春睦) 11

★ 속(續) 낙태(落胎)된 여수(旅愁)

최광렬(崔光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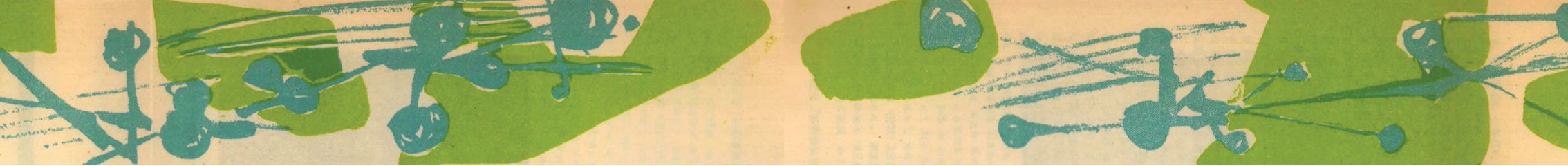
적색제국(赤色帝國)의 붕괴(崩壞)는 가까워 온다

외지(外紙)에서 112

[세계기풍(世界奇風)]

초(抄) 왕관(王冠)보다도 훌륭한 소의 관(冠) 외(外)

윤규섭(尹圭燮) 118



마천루(摩天樓)의 결혼식(結婚式)과 장미(薔薇)들의 탄생(誕生)	이활(李活)	122
-------------------------------------	--------	-----

특집(特集)

건군(建軍)과 항공의학(航空醫學)의 제문제(諸問題) 공군병원(空軍病院)

★ 좌담회(座談會)

공군(空軍)의 발전(發展)과 공군병원(空軍病院)	사회(司會) 이한직(李漢稷)	36
	(창공구락부(蒼空俱樂部) 특파(特派))	

★ 군대결핵(軍隊結核)의 예방(豫防)	공군대령(空軍大領) 박병래(朴秉來)	29
★ 건병강장(健兵剛將)과 저작(咀嚼)	공군중령(空軍中領) 김규택(金逵澤)	33
★ 항공의학(航空醫學) 발달사(發達史)	공군소령(空軍少領) 서순규(徐舜圭)	52
★ 항공의학(航空醫學) 소고(小考)	공군중위(空軍中尉) 박소희(朴昭會)	43
★ 공군병원(空軍病院)을 찾아서	이한직(李漢稷)	47

★ 세계낙수(世界落穗)		92
★ 입체영화(立體映畵)		110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코메트 시화전(詩畵展) 제5회 시(詩) 오상순(吳相淳) 화(畵) 정점식(鄭點植)		60

오늘의 미(美) 공군(空軍)	김경수(金敬洙)	18
-----------------	----------	----

올챙이 시대(時代)

★ 스케이트와 다리	허송(許松)	79
★ 로마시대(時代)의 다리	허송(許松)	85
★ 최초(最初)의 배	허송(許松)	87

〈명시문(名詩文) 감상(鑑賞)〉

월탄(月灘)의 시세계(詩世界)	최인옥(崔仁旭)	126
------------------	----------	-----

『죽음의 수용소』 삼년기(三年記)	M 산들	74
소련인(人)의 진정(眞正)한 마음	하리 슈왈츠	116

★ 계록집(鷄肋集)

각방(各房) 거처(居處) 못한 나(羅) 사부(士夫) 형제(兄弟) 외(外)	이제희(李濟熙)	130
--	----------	-----

★ 특집(特集) ★

『하늘의 영웅(英雄)』 프로필

박희동(朴熙東) 중령(中領)	이상로(李相魯)	101
강호륜(姜鎬倫) 중령(中領)	최인옥(崔仁旭)	100
유치곤(兪致坤) 소령(少領)	이상로(李相魯)	106
윤응렬(尹應烈) 중령(中領)	박두진(朴斗鎭)	103
옥만호(玉滿鎬) 소령(少領)	이상로(李相魯)	102
김금성(金錦成) 소령(少領)	이상로(李相魯)	104
박재호(朴在浩) 소령(少領)	유주현(柳周鉉)	105
이기협(李基陝) 소령(少領)	이상로(李相魯)	108
오춘목(吳春睦) 중령(中領)	방기환(方基煥)	107
(이상(以上) 창공구락부원(蒼空俱樂部員))		

폭격명수(爆擊名手) 고광수(高光壽) 대위(大尉)를 말함		
장지량(張志良) 대령(大領) 외(外) 고향유지(故鄕有志)		64
일기초(日記抄) 〈고(故) 고(高) 대위(大尉) 일기(日記) 중(中)에서〉		70

★ 시(詩) ★

붉은 벽화(壁畵)	김종문(金宗文)	92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 할 때	박인환(朴寅煥)	95
홀로 거리를 지나치며	박훈산(朴薰山)	98

고전명작(古典名作)

가난한 애인(愛人)들 (완(完))	임옥인(林玉仁)	143
--------------------	----------	-----

공군문예현상모집입선작품(空軍文藝懸賞募集入選作品)

파경(破鏡)	공군중위(空軍中尉) 현경호	147
나의 초출격(初出擊)	공군중위(空軍中尉) 이관모(李寬模)	138

토마의 「종교교육(宗教教育)」화(畫)

북유럽의 근대화가 중에서 여기 스웨덴의 칼 라루송과 도이취의 한스 토마¹⁾를 택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에는 18세기 무렵부터 각각 그 나라의 그림이라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대체로 말할 것 같으면 19세기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좋으며 그것은 대체로 처음에 도이취의 뒤셀도르프²⁾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는 프랑스의 감화를 받아서 새로워졌다는 경로를 밟고 있다. 이들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그림은 우리에게 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져 있다면 스웨덴의 안텔스 소온, 노르웨이의 몽그 정도일 것이다. 소온은 극히 사실적(寫實的)인 화가로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북국(北國)다운 금발로서 과부가 된 부인이 수욕(水浴)하고 있는 것을 유하나 동판(銅版)으로 얼마간 그리었으나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해수욕복을 입지 아니하고 수욕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여 소온은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농민 미술의 재미 있는 것이 남아 있었다. 소온의 그림에도 그러한 시골 풍경의 짙은 색의 이상한 의상을 한 여자를 그린 것이 있다.

칼 라루송도 소온과 거의 동 시대의 스웨덴의 화가로서 젊었을 때 프랑스에 유학하여 수채화를 그리고 귀국하여서부터 스톡홀름시의 미술관 총계를 연(沿)한 벽 위에 그 나라의 미술사(美術史)에 관계있는 벽화를 그리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의 우회치화가에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들의 자상화(自像畵)가 걸려 있는 실(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라루송의 자상화도 있다. 그의 그림으로 어깨에다 어린 계집아이를 두둥 세우듯 앉히고 서있는 삼화풍의 그린 □□는 □□을 보아도 라루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낙천적인 호인풍의 사람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는 다레카리아라는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의 안팎과 일가의 생활 장면과를 여러 가지의 삼화풍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에다 『밝은 집』이라는 화제(畵題)를 붙이고 있다. 그 집은 그리 크지 않은 소박한 것으로서 그의 그림은 화실, 식당, 아이들 방, 부엌 등의 면으로 보아 그곳에 사는 가족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대단히 친밀감이 있고 온화한 그것이다. 묘사법

은 그리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 어느 편이나 하면 딱딱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품(品)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 두셋이 □실에 걸터앉아서 식용의 콩겍질(莢)을 까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가정 생활과 □작이 분별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재미있다. 라루송의 그림은 아동용 그림책의 삽화로서도 더할 데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한 재미있는 삽화가 되어서 일반 가정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으려만 한 사람의 화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여 언제나 급작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정이다.

이 칼라송이라는 사람은 가장 스칸디나비아적 화가라 하여 그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온도 라루송도 지금은 이미 무도 고인이 되어 있다. 전(前)의 구주(歐洲) 전쟁이나 지난번의 세계 전쟁에도 스웨덴만은 중립이었으나 미술이 어찌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도이취의 그림도 15, 6세기의 3인(주라, 룰바잉, 크라나하)의 대가가 나온 후에 잠시 중단된 셈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 부흥하였다. 프랑스의 사정과 다른 점은 프랑스의 미술은 파리가 중심으로서 그 밖의 조그만 도시는 그리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이취에서는 베를린뿐이 아니라 뮌헨이라든지 드레스덴³⁾ 제가끔 중심이 되어 있다. 특히 뮌헨에는 미술관과 미술학교, 그 밖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는 상당한 미술가가 많이 나왔다. 근대의 도이취에는 표현파 그 밖의 극단적인 것이 꽤 행하여졌으나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이 되고서부터 그러한 과격분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말았다. 또는 그러한 이상스러운 것, 과격한 것을 그리는 것은 유대인에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 배척』과 함께 되어 버렸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미술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이치로서 어느 나라에게도 통할 수 있는 것을 유행시킨 것이다.

파리도 유대인의 소굴이 되어 있었으나 도이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서부터는 □□ 유대인이 건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의 유대인이 도피하여 있는 곳은 주장 아메리카와 영국일 것이다. 그리하여 전의 소위 『새로운 도이취에서』는 우선 도이취 정신의 미술이라는 것발 아래 그제까지 있는 중에서 특히 도이취적인 것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예전 것으로 주라나 크라나하는 부동(不動)한 것이며 19세기에 들어서부터는 아돌푸 멘첼 등이 그중 도이취적이라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 멘첼이라는 사람은 확실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공장을 그린 대작은 유명하다. 그에 관하여 시골사람의 모양을 정직하게 그린 라이볼이란다든지 동심적인 것이나 우화적(寓話的)인 것을 그린 한스 토마가 거들려진다.

한스 토마는 바야렌의 베루나우라는 곳에서 낳아 카르스루에⁴⁾, 쯤셀틀, 뮌헨 등지에서 그림을 배우고 나중에는 프랑크푸르트⁵⁾에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는 칼수푸에의 미술학교 교수와 □당장이 되어서 거기서 1924년에 80여세의 고령으로 죽었다. 토마라는 사람은 근대 회화의 변천을 보고 있으며 동시에 옛 그림을 연구하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의 그림은 분명한 기술과 등직한 무게를 보이고 있다. 대체 도이취 사람의 그림은 딱딱하기 쉬운 것인데 이 사람의 것은 온화성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감상화도 별면(別面)에 계시하는 그의 『할머니와 손자』(종교 교육)라는 그림에도 이 사람의 화풍이 잘 표시되어 있다. 안경을 쓴 좀 수다스럽게 보이는 할머니가 책을 무릎위에다 놓고 종교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손자는 다소곳이 듣고 있다. 두 인물은 원래 차근차근히 그리고 친절히 어디 한 군데 빈틈없이 그려져 있으나 후면의 틀을 막고 있는 판자 울타리와 그 곁에 서 있는 수목,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쪽으로 보이는 야산, 그러한 곳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꼼꼼히 그린 것이 좋다.

이 밖에 싸우는 5인의 아동을 그린 일도(一圖)와 닭에게 모이를 주는 소녀의 그림이 있는데 모두 인정미가 있는 그림이다. 또 석판(石版)으로서 동화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그린 것이 있는 이것들의 □□가 평민 □□에 언급된 것에도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안세(李安世)



〈코메트 명화감상(名畵鑑賞)〉6

- 1) 원문은 한스 토우마. Hans Thoma
- 2) 원문은 쯤셀들푸파. Düsseldorf
- 3) 원문은 드레스덴. Dresden
- 4) 원문은 칼수루에. Karlsruhe
- 5) 원문은 후랑크홀트. Frankfurt



新選軍歌集附譜

空軍・陸軍・海軍의 3軍 軍歌에서 主要한 軍歌를 뽑고 거기다 國民歌謠를 加篇한 60의 名曲集! 靑鹿社 발행

新刊

自選 25篇

歸路・平은構圖・餓送記・海邊抄・忍冬序・南方早春・冬栢姿・地下詩抄・乾土・昏衢에서・訣別土曜目・별빛아래・失樂園・粉伊・行路・구름의日記・한가위・門・迷色진하늘아래・밤이세면・어느가지품에・殺戮의地域에서・寒鴉抄・傾斜의影像

李相魯詩集歸路

發行・서울 白鳥社
印刷・鮮美印刷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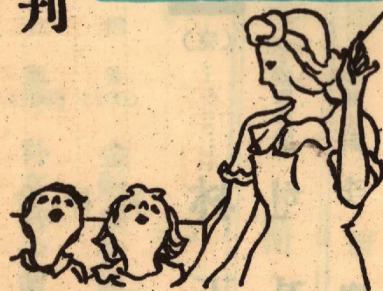
要約된知識의集成

우리들은 흔히 다이제스트란 말을 듣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뜻이 우리나
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리미트스. 다
이제스트, 어림이 다이제스트, 혹은 스루
우테르. 다이제스트 등등이 주목은 되어
미한 類似名의 錯이 나옴직 모르겠지만 어
찌 분할! 그 다이제스트란 뜻을 여기서
알는 것으로 한 걸 찾아보면 이해됩니다.
『大要를 말한다, 摘要한다, 類聚한다, 消
化한다...』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은 오늘날 너무 길지만 分量 많은 책을 읽
고 있을 수 없을 만큼 生活 時間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즉『要約된知識』은 說教,
消化해야 할 것입니다. 그『要約된知識의
集成』은 가장 實 效 있는 책이『靑鳥다이
제스트』입니다.

靑鳥다이제스트

總販 每月定期刊行
韓國出版物販賣株式會社 靑鳥社 發行

新刊



Is that the ceiling?

Yes, it is.

圖解英語讀本

崔枝洙 著

靑鹿社 發行 280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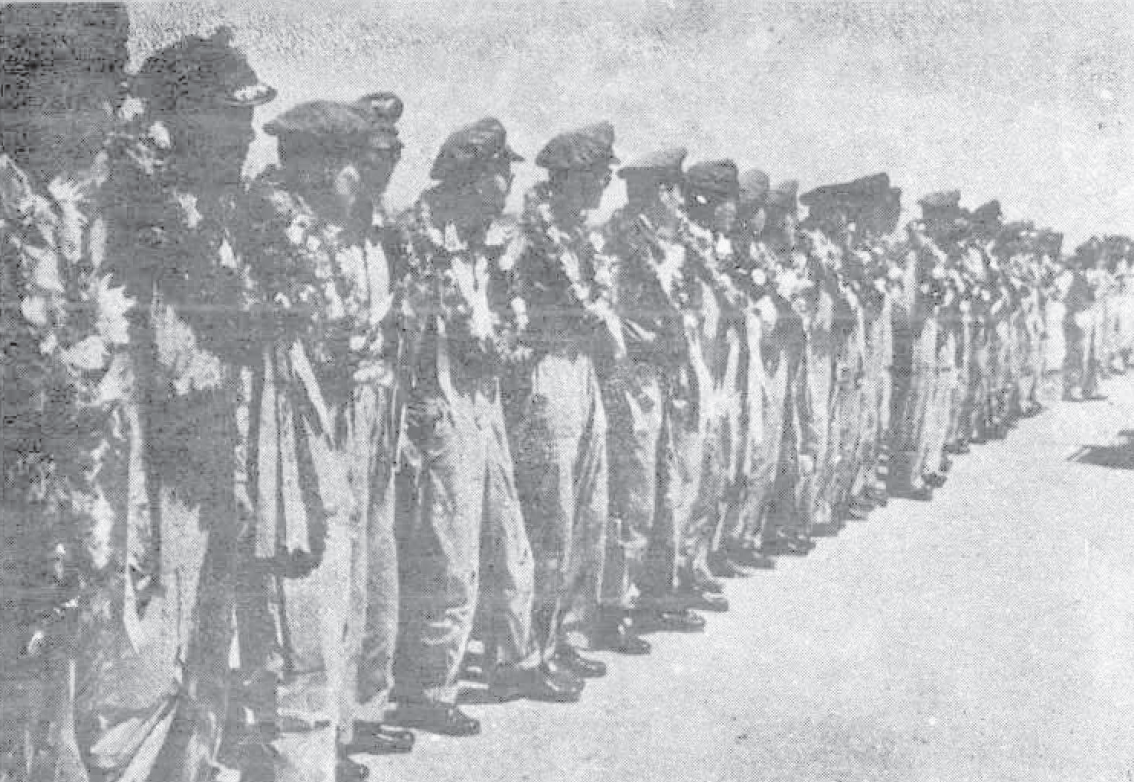
8.15 記念 우리 “보라매” 들의 偉容 大示威飛行 우리



8월 15일을 記念하여 우리 空軍 第〇〇戰團飛行團의 보라매(雄鷲)들은 團長 金英煥大領의 機를 비롯하여 60餘機의 戰團機가 午前 10時 45分 各地를 떠나 서울 上空을 雄飛하여 首都市民의 熱狂적인 환영을 받고 12時 45分에는 大邱市民이 苦待하는 空軍에 爆音 장면의 飛行을 하고 뒤 그로 反의 飛行이 일어났다. 이날 〇〇飛行場에서는 우리 戰團을 率인 “하늘의 英雄”들을 맞이하려고 慶北道와 大邱市民을 代表한 愛國團體와 學生團體들의 代表들이 손에 손에 花冠과 꽃다발을 들고 雲集하였다.



지난 9월 3일에 來韓한 美上院議員 노오랜드氏를 맞이하여 握手하는 崔用德總參謀長閣下 (於K 2)
지난 9월 5일 오후 2時 孫元一 國防長官은 陸軍總參謀長 白善燁大將을 帶同하고 空軍本部를 視察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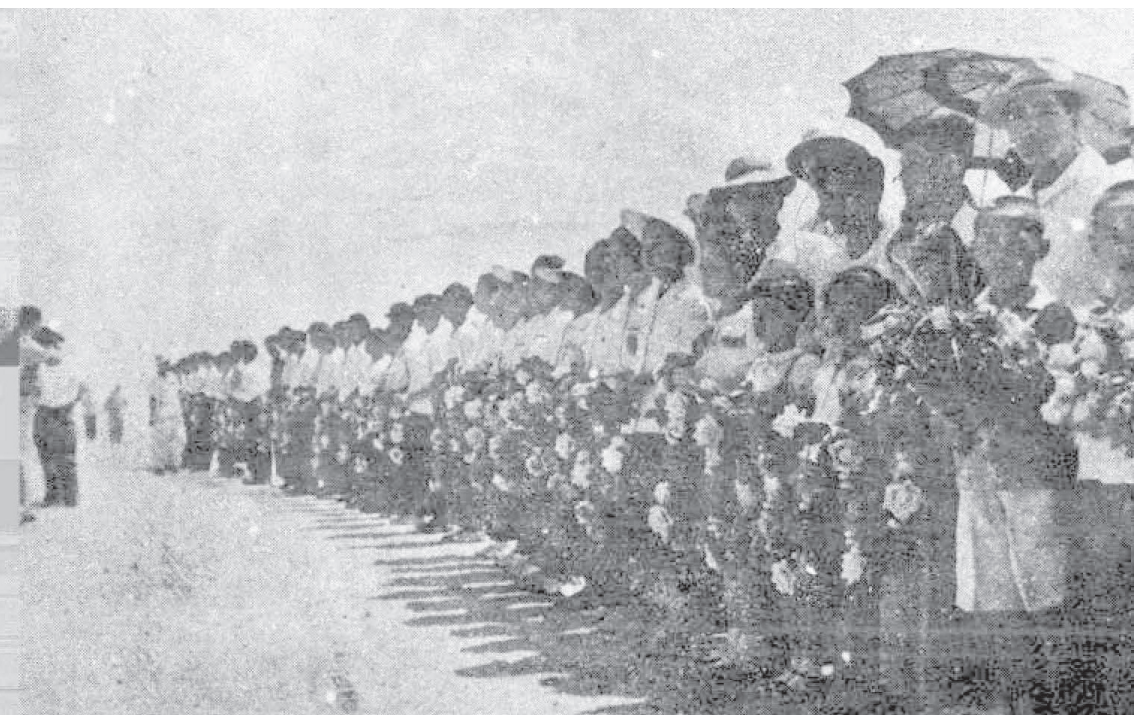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귀 익은 안창남 비행사도 있었지만 우리 공군은 창설된 지 불과 5, 6년
이만큼 든든한 위용을 갖추도록 발전하였다. 사진 상(上)은 국민들의 손으로 엮은 환영의 화환
목에 걸고 있는 김영환(金英煥) 대령, 장지량(張志良) 대령 이하 우리 준취(俊鷺)[㉠]들.
하(下)는 환영 나온 국민들의 일부



상(上) 전투출격 200회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수립한 하늘의 영웅 유치근(兪致坤) 소령에게 마음의
화환을 목에 걸어준 귀여운 소녀에게 유 소령은 감사의 악수를 한다. 하(下) 김영환 대령에게 화
환을 드린 어린이와 그것을 기뻐하는 김신(金信) 대령

6) 뛰어난 독수리





거리가 메어지게 운집한 가운데 환영대회로 향하는 지프차 위의 「하늘의 영웅」들. (사진 선 지프차 앞에 탄 사람이 공격 백발백중의 김금성(金錦成) 소령) 하(下) 중앙국립극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보라매들.



이근석(李根皙) 준장

4250년 1월 17일 평남 평원군 구원리에서 생(生). 4266년 평양고보
4267년 일본 구마다니(熊谷) 비행학교 졸업. 특히 일지(日支)사변 당시부터

최우수 비행부대인 요시오카(吉岡)부대에 배속되어 조종사로서 용명을 떨쳤다. 4280년 3월 7인 간부의 한 사람
서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 4284년 5월 수색(水色)학교 경유 태릉 육사교 특별간부 교육 수료. 육군 소위 임
4281년 12월 육군 중령. 4282년 2월 육군항공기지사령부 비행단장. 4282년 7월 육군 대령. 4285년
공군 독립과 동시 공사(空士) 교장을 피명(被命). 4283년 4월 공군비행단장. 4283년 6월 사변이 발발하자 세인이
지하는 바와 같이 L형(型) 연습기로 출격 감행. 미 공군으로부터 신에 전투기 10대를 1차로 인수. 4283년 7
일 안양(安養) 가로(街路)를 남침하는 적 전차대를 공격 중 장렬히 산화(散華)



권두언(卷頭言)

관용(寬容)

서임수(徐壬壽)

삼국지는 재미있는 책이다. 등장인물과 무대가 거대 웅장한 것도 흥겹지만 그 속에 스며있는 약간 구식인 중국인다운 꿈들이 우리들의 공상(空想)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 한 구절을 들어보자.

유비(劉備)의 군사(軍事) 공명(孔明)은 강적 조조(曹操)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 갇은 책략을 다하여 또 하나의 강국인 오나라의 손권(孫權)을 움직여 이를 적벽(赤壁)에서 대진(對陣)케 하였다. 그 후 손권의 진중(陣中)에서 작전을 지도한 공명은 동남풍에 화계(火計)를 세워 조조의 패배가 결정적으로 된 것을 보자 급거 자기의 군진(軍陣)으로 돌아 왔다. 유비에게 적벽의 전황을 보고한 다음 그는 조조의 퇴로가 될 요소요소에 거미줄과 같이 자군(自軍)의 전(全) 맹장들을 복병하여 패잔(敗殘)의 조조를 일거에 포살(捕殺)할 만전의 진을 쳤다.

그런데 이 중대한 작전에 당대 제일의 용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관우(關羽) 장군만이 임무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 사유는 전에 그가 유비 부인과 함께 조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조조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으므로 의리 깊고 눈물 많은 관우의 성격은 조조의 포살(捕殺)에 적당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관우는 자기가 그와 같이 사물의 경중과 공사를 혼동할 위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다음 새로이 배치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용약 달려갔다. 옆에 앉아 종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비는 관우가 나가자 공명에게 과연 관우를 보내서 틀림이 없겠는가를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한 공명의 대답이 좋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소 천문 지리를 연구하여 약간 천지 운행의 법칙을 해득하는데 이번 조조의 운수를 보니 그의 패전은 역력(歷歷)의 운이나 그렇다고 그의 명맥이 이로써 끊어질 수는 아니므로 그렇다면 이 기회에 관우로 하여금 한번 의리를 다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사태가 공명의 예측대로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관우는 유비의 눈물로 하는 애걸이 없었던들 군율(軍律)에 의하여 목이 베어질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명이 '천지운행의 법칙'이라고 한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역사의 진행 법칙이나 대세라고나 할 말이었다. 그의 말이 우리들에게 일종 상쾌한 무엇을 주는 것은 군령(軍令)에 위반한 마직(馬稷)을 울면서 처단할 만큼 준엄한 그가 역사의 대세를 냉철히 통관(通觀)하여 그 속에서 인간적인 온정과 용사(容赦)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관용이란 바로 이와 같은 원칙과 예외 엄격과 온정의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계기가 대세의 달관(達觀)을 매개로 하여 초극(超克) 조화되는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을 고수하는 엄격성만이 고창(高唱)된들 거기는 관용의 여지는 없을 것이요, 원칙의 엄격성과 무관한 온정이란 안가(安價)한 인정주의(人情主義)는 필망정 진정한 관용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인생을 의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고수되는 여러 원칙이 인생의 필연적인 유동(流動) 속에서 필요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승화함으로써 인생을 보다 풍부히 하는데 관용의 진의(眞意)가 있고 묘미가 있는 것이다. 자기를 죽인 자를 용사하고 "그대의 적을 사랑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박애 관용은 자기 신앙에 대한 순일(純一) 무난(無難)하고 유례없이 엄격한 그의 성품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그 존엄성이 주장되는 것이며 인류 역사의 최후 심판과 영생에 대한 그의 불굴의 신념을 토대로 해서 무원칙한 타협과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無常)세계의 현실 부정과 무한지옥의 공포에 대한 인식 없이 석가모니의 화홍류록(花紅柳綠)의 현실 긍정과 중생에 대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리했다.

현하(現下) 우리들 사회에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일철(一轍)한 성격이 부족함을 무엇보다도 슬프게 여기는 우리들은 또 타방(他方)에 있어서 대국적(大局的) 견지에서 남의 흠점(欠點) 단점을 용사하고 덮어주는 따뜻한 심정의 흠핍(欠乏)⁷⁾을 한없이 서운하게 여기는 바이다. 대의를 위한 멸친(滅親)의 결단성과 함께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제쳐 놓고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는 심정이 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이는 자식의 잘못을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숨기는데 인(仁)이 있다는 공자(孔子)의 말의 봉건성을 지적하면서

7) 빠지거나 이지러져서 모자람



도 아버이는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은 아버이를 규탄(叱彈)하는 것을 영웅적 행위로 하는 공산주의 세계가 결코 살기 좋은 세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신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인생인 것이다.

원리에 대한 엄격성을 고수하면서 인생의 흐름을 달관하고 그 속에서 남을 용사하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관용의 덕이 현하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망(志望)파일럿

이흥우(李興雨)
★교원(敎員)

요야하시진(遼野何時盡)
일순불견산(一句不見山)
효성비마수(曉星飛馬首)
조일출전간(朝日出田間)

연암(軟巖) 박지원(朴趾源)⁸⁾ 선생이 요동(遼東) 칠백리 넓은 벌을 읊은 시이다.
옛적 그 어느 날, 태마(馱馬) 위에 앉아 멀리 망망하게 넓은 요동 벌을 바라보며 가
는 연암 선생의 모습이 아련한 아지랑이 저편에서 아득히 솟아나올 듯도 하다.
열흘을 다 가도 다함이 없고 해가 밭에서 뜨고 밭에서 지고 새벽 별이 또한 밭머
리를 가는 말 머리를 스치는 넓은 요동 벌, 그는 참으로 이 옛 문인의 가슴을 활연(豁
然)⁹⁾히 탁 트이게 했을 것이고 삼천리가 오히려 좁음을 탓하도록 해놓았을 것이다.
넓은 벌, 망막(茫漠)한 광야. 대륙. 그것이 얼마나 좁은 인간의 마음을 웅장히 넓혀 주
는 것이며 대지의 개척자로서의 또 하나 잠재해 있을 인간의 의욕을 자극하여 주는 것
인가?

그러나 나는 그 넓은 요동 벌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
은 내가 어느 땐가 바다에 가보고 바다를 알면서 부터의 일이었다.

바다. 대해. 양양한 창파. 일망무제 눈이 가는 곳에 고도(孤島)의 척영(隻影)도 없는
무한—한강(漢江) 어귀의 물이 그대로 태평양에 통하고 대서양으로 흐른다는 평면적
이고 무변화한 이 정도를 넘쳐 넓고 넓게만 퍼진 무감각한 괴물, 그러나 그곳 그곳마
다 또한 무한한 조화의 묘(妙)와 무잔(無盡)한 보배의 고(庫)를 간직하고 역학의 운동
이 항상 끓을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마땅히 바다는 남아(男兒)의 개척지요 활
약할 무대라고 생각하며 혼자 가슴을 움켜쥐고 울렁거리려도 보았다.—이 실로 새로
운 정복의 야욕을 충족하여 줌이 어떠한가.

하나 그런 나의 웅도(雄圖)?가 이루어질 듯도 못한 채 나는 또 달리 묘연(杳然)한
미래를 동경하게 되었다.

하늘! 그 무진(無盡). 그 무한(無限). 그 무량(無量). 대지와 창해가 제 맘만 넓고 크
대도 그것은 면(面)으로 일본, 이 양적으로 막대무비(莫大無比) 무한한 하늘이야말로
만드시 미래를 창조하는 현대의 사나이의 개척지라는 것을 나는 여기게 되었다.

내가 하늘에 대한 달리는 듯한 동경을 새로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은 제트의 출현

8) 원문의 朴趾源은 朴趾源의 오기임.
9) 앞에 가로막은 것 없이 환하게 트임

이후(爾後)였다.

생각하는 적마다 무엇인가가 온 몸에 달아오르는 6.25—피란길—그 무렵 하늘에
는 이 새로운 하늘의 개척자가 나타났었다. 그리하여 천체(天體) 새에 그 일점(一點)
처럼 미소한 입자들은 종횡무진 하늘을 치닫고 내리닫고 꿰뚫고 감돌았다. 화살처
럼 달한다는 말은 오히려 너무나 진부한 구시대의 표현 방식이다. 보라매니 해동청
(海東靑)이니 독수리니 솔개미가 다 고루(固陋)한 옛날의 이야기다.

지구를 가운데다 두고(도리어 품에다 안고) 위잉 위잉 감돌 수 있는, 그 '위잉' 소
리, 총알처럼 오고가고 솟고 가라앉고, 보기만 해도 상쾌한 줄기—줄기—줄기—의
비행운(雲)……혜성(慧性)! 이것이 참말 하늘의 개척자요 정복자의 늠름한 용자(勇姿).
상쾌한 기상(氣象)!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다.

내가 만일 15세의 소년이고 그리고 날더러 “장래 지망은?”하고 묻는 선배가 있다
면 나는 거침없이

“파일럿”

하고 가장 똑똑한 어조로 대답할 것이다. (끝)



나의 처녀비행(處女飛行)

전숙희(田淑禧)
★여류작가(女流作家)

13 후퇴 이후 부산(釜山)에 와서, 그러니까 벌써 3, 4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겨 비행기 표를 부탁했으나 여객기가 만원이
되어 며칠을 기다려야만 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말을 들은 P 선생
이 자기 친구 한 분이 내일 비행기로 서울을 가는데 서울서 올 때 자기 부인과 같이
왕복표를 사가지고 왔다가 혼자만 가게 되니까 어디 그 친구에게 부탁해 그 자리를
사서 가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물론 나는 빨리 갈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부디
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P 선생의 친구 되시는 분은 이왕 돈을 내고 비어 가
는 자리니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돈은 무슨 돈을 받겠느냐고 굳이 사양을
해 나는 처음 타는 비행기를 그야말로 돈 한 톨 안 들이고 공짜로 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객기 속은 환한 크립색으로 칠을 한데다 의자는 전부 연초록색 가죽으로 싸서 무
척 깨끗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씩 앉게 된 자리엔 하나하나 가죽 벨트가 달려
있고 벽에는 영문으로 그 가죽 띠를 허리에 단단히 비껴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같이 가는 K 선생은 무척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자기 먼저
끈을 비껴매면 다음 나에게도 잘 매라는 주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
업관계상 자주 항로로 내왕을 하니까 관계없지만 처음 타보는 사람은 멀미가 나기
쉽다고 그럴 땐 껌을 씹는 게 좋다고 미리 준비해 왔던 껌까지 내 주었습니다.



단 두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아주 모르는 남자와 나란히 앉았던들 차라리 나는 아무 마음의 구애 없이 볼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끼고 했을 텐데, 이진 공짜자리를 얻어 앉힌지라 어쩐지 마음이 달팽이처럼 오그라들어 거북스럽고 송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니 처음 보는 남자에게 취미가 어떤지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통 화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란히 앉아 신세를 지고 가면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기만도 민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불안해하고 있는데 K 선생은 또 심심한 모양이라고 초콜릿과 피아넷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비행기는 높은 하늘가를 마둥도 없이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솟은 산봉우리는 중턱에 걸려 있는 구름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상에서 우러러 볼 땐 그렇게도 웅장하고 높던 산들도 내려다보니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신(神)의 위치에서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 볼 때도 이런 것이라 생각키웠습니다. 비행기가 높은 산봉우리를 넘어 저 공을 날자 여기 저기 산 밑으로 부락들과 또 그 부락에 게마지 같이 웅기종기 붙어있는 집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사람들이 산다는 읍이니 도시니 하는 것들은 마치 산모퉁이에 바닷물 하나만한 면적이고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꺾꺾 놀랐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연과 산천 아래 우리 인간들의 존재란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저 높은 산 넘어 구름 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도 좁은 구석이 없이 무척 너그러워 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창밖만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K 선생은 또 어디 머리라도 아프냐고 기분이 나빠 보인다고, 대개 처음 타면 조그만 멀미가 나기 쉬우니 그런 땐 노오싱을 좀 먹으면 기분이 상쾌해 진다고 하시면 부득부득 포켓에서 노오싱을 한 봉 꺼내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른이 어린애 다루듯 세세히 마음을 써 주는 게 더욱 짐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겨우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앉았는데 K 선생은 또 왜 겁이 나느냐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몰이 하고 있느냐고 하시며 처음 타 보면 대개 그렇게 겁이 좀 나는 법이지만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한 20분간 더 있으면 김포(金浦)비행장에 내릴 테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께 너무 신세를 져서 서울 들어가면 점심을 뭘에 대접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인사 삼아 아무렇게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만나는 분에게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서울 내리면 점심이라도 내가 대접해야 할 텐데 단 둘인 가기 싫고 어쩔까, 차라리 서울선 모른 척 하고 부산 가서 다시 P 선생과 같이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K 선생은 내 말을 듣자 펄쩍 뛰며 신세는 무슨 신세냐고 그렇다면 점심은 내가 살 테니 와 주지만 하면 영광이겠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 아무렇게나 했다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도사리고 앉아 점심까지 같이 하고야 해방이 되



었습니다.

이렇게 공짜 비행기를 타느라고 나는 가장 유쾌하고 또 가장 인상적이어야 할 나의 모처럼의 처녀비행을 무겁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보고 자유로이 느끼지 못한 것을 아직까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공짜 비행기를 타 보고도 나는 아직까지 비행기를 못 타 본 친구들 틈에서는 얼마나 호화스런 여행이나 해본 것처럼 뽕뽕 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 가서 남의 집 아이보기나 소제부 노릇을 하다가 와서도 나는 미주 유학을 하고 왔노라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친구나 마찬가지로 이야기겠지요.

하여튼 공짜란 결국 이렇게 헛되게 부채(負債)만 되는 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행이란 이렇게 공짜로 궁상스럽게는 차라리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제2의 비행여행은 적어도 일등 여객기로 날아 일등 호텔로 마음 놓고 멋들어서 다녀갈 수 있을 때까지는 아예 차라리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현재진행형(現在進行形)

김효성(金曉星)

★ 시인(詩人)

‘휘노바 비탈’ 빛깔의 하늘에 교회당의 검은 지붕 꼭대기가 꽃혔다. 십자가다. 그 전후좌우로 F-84 쏜다아제트기의 ‘하나의 언어’로서의 유영(游泳)과 그 뇌성(雷聲) 같은 호흡을 시진(視診) 혹은 청진하며 잠깐 로터리¹⁰⁾에 머물러 본다. 봄이 아니다. 달려 시세처럼 분주한 통행인(通行人)의 팔의 휘저음과 다리의 걸음걸이다. 눈이다. 그 체취에는 언제 다시 비행접시가 출현할는지 모른다는 서러우리만큼 충분한 가능성에의 예감이 묻어오고 묻어간다. 비행접시는 로터리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봄이 아니다. 그러나 방금 나온 다방(茶房) 찬돌(냉성(冷石)) 테이블 위에는 ‘춘광운운(春光云云)’, ‘봄은 청춘의 운운’하는 오늘의 말이 아닌 것만 같은, 어제의 말인 것만 같은 것이 활자화된 오늘의 신문지가 있었다. 어찌면 그것은 쑥스럽기도 한 말이었다. 태양의 광선은 국도(國道)와 그 ‘NO PARKING¹¹⁾’에 유난히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다.

끊어지게 허리를 졸라맨 슈오 샤인 뽀이의 눈이 시린 밑가루 떡, 거기에 앉는 진애(塵埃), 굵고 있는 여인은 전쟁미망인일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을, 나무다리에 의지하고 메마른 손에 연필을 내밀며, 오고 가는 사람에 실 새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창백한 청년에게서 꼭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는 상이군인 같다. 그들은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모란이 피리라고 기다릴 수 있는 봄이 전보(電報)도 없

10) 원문은 로오타리

11) 원문은 NO PAKING



이 와, 강가에서라도 만나서 굉장히 훌륭한 무엇을 가져다 줄 것만 같다고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의 주위에는 숨었던 봄이 들어나지 않고 있으며, 고양이처럼 노곤할 수도 없는 것이다. 봄은 이미 침대커녕 그들과 나의 가난한 시각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가벼이 떠가는 것이 아니라, 탄피 색깔의 하늘에 제트기가 장렬히 달려가고, 강 너머 푸르려야 할 언덕에는 가시 돋친 철조망이 빛나고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DDT 같은 초연(硝煙)이 보얀 산수(山水)는 오롯이 한 폭의 그림은 아니고, 그것은 무참히 와해된 현실이다.

그러나 봄이 소유하여 온 어휘(語彙)의 위기는 시적(詩的)이다. 위기는 봄을 마주한 나의 비인격화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나는 봄을 믿지 않으며 봄은 나의 것이 아니며 봄은 가까이 할 나의 아무런 다정다감한 것도 지난날처럼 환기시키지 않는다. 이제 봄은 그것이 속하여야 할 어떤 의미도 부여되거나 침투되지 않은 적나라한 '것'일 따름이다. 그것은 내적인 모호성과 외적인 허식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지난날의 어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국 제단(祭壇)을 부동켜안고 있는 이 봄은 투명한 것이요, 나의 시선은 그것을 횡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봄이 그렇게 수다스레 지니고 온 의장(衣裝)과 관습을 벗어 버리고 이처럼 처절하나 풍요한 현실에 젖어 들수록 그것은 나에게 무서울 정도의 신선미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봄은 지난날의 낡은 시어(詩語)로서의 마지막 하나까지 일단 포기함으로서 굴욕(屈辱)의 백서(白書)를 쓰고 있다. 모든 모순된 것의 제한(際限) 없는 현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숙한 카키색의 현재진행형 속에서 하나의 '있는 것'으로서의 봄이 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이 상징처럼 영위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은 그것은 천편일률(千篇一律)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거기서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 상상된 것으로써 탐식(貪食)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끝)

속(續) 낙태(落胎)된 여수(旅愁)

최광렬(崔光烈)

★ 교유(敎諭)

무한계도가 원시(遠視)되고 그리고 터널의 흑점(黑點)에서 흡수되는 그 산록(山麓)의 지점과 레일이 병행되는 과정 마멸(磨滅)되는 열차의 기적이 산간에 무슨 신호를 하는 그러한 한적한 레일로 새 도시와 연결된 그 산역(山驛)과 승객 속에서 브랜디에 곧장 수면의 엄호를 피지 못하는 나와 열도(熱度)로써 백화(白花)한 태양과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 메가닉에서 단절된 자연의 조화(調和) 속에 한갓 로컬¹²⁾한 리듬을 내어 뿜고 있었다.

교착(交錯)이 부딪침이 곧장 불안한 동인(動因)이 되고 물질의 메마른 구조가 나날이 개신(改新)되는 도시와 시체가 시체 옆에서 덩굴고 파괴된 무기와 무기의 산재(散在)로써 풍

12) 원문은 로오칼. local



경이 좀 찌그러진 지면과 자꾸만 예고와 애피코오네이 산발하는 인간 사바(娑婆)와 그런 것들이 산의 차폐¹³⁾와 들의 넓이로써 공간 속에 지형을 형성한 그런 단막(斷幕) 속에 오늘의 약간의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

목적이 결정되고 티켓이 명시하는 활자(活字)의 시일(時日)에 출발이 있고 종점이 있고 또 열차의 인생들이 가장 목적 있었다. 6월이라는 한계가 7월로 옮겨 들고 유리와 같은 하늘이 있는 곳에 때로 인간의 운명이 비유되고 믿음, 기도가 있고 또 저주가 있었다.

현상 변화의 본질을 찾는데 나의 욕구가 있었다면 나는 내가 소재하는 열차의 이동에 따라 차창의 카메라 앵글적인 각도 이동에 따라 자연과 나의 심리의 무언의 다이얼로그¹⁴⁾가 내 분비되는 것이다.

3월색보다 녹(綠)과 청색의 휴식의 위안은 정말 대자연의 성면(性面)이 현명한 것을 감취(感取)할 수 있다. 홍수로 말미암아 청우계(淸雨計)의 숫자가 급속도로 기록을 그어 가는데 그것이 연선(沿線)의 주변에서는 수제라기보다는 물의 풍족한 위세를 부리고 넘쳐 과다 현상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지질학과 지정학(地政學)의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광산가(鑛山家)의 투기가 때때로 광부노동자들의 생활에 복음과 위협을 주게 된 P 촌(村)의 비극을 상상해 본다.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 비슷한 것이 있고 마을 같은 것, 상자 같은 역(驛)들보다 작은 산협(山峽), 산협의 신비, 과수원의 살인사건, 빨치산의 출몰 그리고 그 분명히 미래적인 경사진 레일의 직선의 선명한 인상(印象)과 녹색의 인상과의 대조와 문명과 자연을 대조하며 나는 갑자기 허허하고 웃어 버린다.

그러면 좌석에서는 나의 사고의 그 발작적(發作的)인 행위화(行爲化)에 어떤 미지의 의혹에 걸린 동자(童子)¹⁵⁾가 쏠려 온다.

아침이 물러갈 시간 모호한 대기의 교체가 바로 두, 세 시간 전의 항구의 이별 상태, 그 우기(雨氣)가 있고 마스크가, 기중기가, 선박의 굴뚝이, 그리고 또한 미래적인 반(半)곡선과 반직선의 중간선, 곧 선체의 경사진 스코프¹⁶⁾의 품이며 건축 이상의 그 수물적(數物的)인 흐름에 내가 브랜디¹⁷⁾의 미취(微醉)보다 조금 더 강한 놀라운 조선술(造船術)과 그 작별(作別)한 매음부의 반육(盤肉)의 하지의 곡선미의 조형술(造型術)과를 아울러 대조해 보고 또 한 번 나는 실소한다. 아니 시니컬한¹⁸⁾ 그 버어너어드썬적(的)인 웃음을 상상해 본다.

열차의 지점이 분명치 못한 그런 역시 레일 위 열차 속에 이번엔 나의 카메라 앵글¹⁹⁾은 산협을 묘신(妙深)하게 무형의 공중곡예의 이것은 초단파적인 라인을 긋고 가는 비행술과 그 제트라는 분사전투기의 클로즈업을 몽타주화(化) 했다. 그러나 다음 그 초단파적인 현상과 시간은 이미 나의 지각에 영상(映寫)된 투영도(投影圖)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갔다. 갔다. 분명히 일체가 갔다. 오는 것을 위해 있는 대로 있는 나와 그리고 가고 있는 나의 여로(旅路)가 차라리 라인강의 스위스²⁰⁾를 저만치 바라보고 포도를 만끽할 수 있는 지대

13) 원문은 차폐.

14) 원문은 파이아로오그. dialogue

15) 눈동자

16) 원문은 스코오프

17) 원문은 부란데. brandy

18) 원문은 시니칼. cynical

19) 원문은 앵글. angle

20) 원문은 스위스

으로 결사 돌입하는 길—그런 로맨스²¹⁾를 가상해 본다.

무한극자—인간의 무한에 대한 동경이 견잡을 수 없는 시추에이션²²⁾(상태)을 향하여 천의 무봉(天衣無縫)한 상상 심리의 승천을 꾀하여 신격(神格)의 절대가(絕對價)를 호가하는 처지²³⁾의 설교사, 가상보다 그 설교사의 화술이 더욱 그리고 그 성의와 충증의 삼엄이 차라리 종교 정책의 기간이 되는 그 로맨타이 K촌의 중심 지대 언덕 위에 그 창고 아니 감옥 같이 보이는 처지의 설치에 관여했고 그리고 애반젤²⁴⁾(복음(福音))을 위해서 성나체(聖裸體)의 프란세스 앞에 처녀 클라라는 기도로 맹세하는 그 미켈란젤로²⁵⁾의 종교화적(宗教畫的)인 종교와 빠이 불, 일체를 위하여 일체를 버리는 교서(敎書)의 극한가에 애스가 살고 있고 바로미터의 지침에 중석(重石)광업가(鑛業家)의 황금에 대한 극한가(極限價)가 있고 그리고 나의 심리의 절정에 내가 있는 이 위기가 어쩌면 태양보다 중대할지 모르는 착오—그리고 공동된 인간의 발생의 착오를 내가 부정 못하는 나의 긍정한 삶, 그래서 종점이 좀 그리운 여로(旅路)이다.

도시의 도시적인 비애(悲哀) 이면(裏面) 교환(交還)과 농촌의 소박한 풍경이 평화롭지만 않고 전쟁의 그 긴급한 스타일이 자못 흥미 깊고 내가 입대하던 그 소집장(召集狀)에 내가 도장을 찍을 때 그 후에 오는 것을 일체 몰랐고 속수무책의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제법 나는 MG의 공기 진조를 말하므로 소대장의 “너희들은 돼지새끼에 지나지 않다.”라는 설교와 더불어 다음에 오는 때때로의 기합과 산악호(山岳壕)의 발굴 작업 도중에 내가 다른 소대장의 칭찬을 받고 하루는 신병생활이 끝나고 소등 직전 독일어로 잊었던 린텐바움(보리수)의 노래를 적어보던 그 연습 지대와 병사(兵舍)가 있는 T 도시의 그 주변 하천의 철교에 열차가 닿았을 때 출발 직전의 그 기적(汽笛) 비슷한 기적이 울렸고 그래서 브랜디가 깨이고 나는 때로의 그 둔중한 치매증이 걸려 하차의 결정과 미결정 속에서 망실(忘失)해 버리는 것이었다.

일본의 아쿠타가와(芥川)가 TRATA, TA, TRATT, TA'로만 표현의 바퀴의 음향에 무슨 여운이 없을까. 금속이 현대가 내어 뿜는 음성 가운데는 일종의 신경질이 있는 것 같다. 성(聲)의 음질이 성량과 통일된 의미의 음태(音態)가 완성될 때 음은 비로소 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레일이 마지막 바퀴와 알룩하는 음향은 내게 피살인의 절규가 연상된다.

내 목숨 같은 목숨의 절단 순간과 나와 내가 타고 있는 열차의 바퀴와 그 레일의 금속이 부딪쳐 절규하는 소리, 그 소리에 나는 대각적(對角的)인 초점의 상태에서 비로소 흥미를 상실하고 종점의 품과 개찰구의 그 인생 종점의 티켓을 아낌없이 주어 버렸다. (끝)

시집(詩集) 오도(午禱) 박두진(朴斗鎭)

21) 원문은 ‘로맨’으로 되어 있으나 ‘로맨스’로 보여짐.

22) 원문은 시투에이션, situation

23) 원문은 처어치, church

24) 원문은 애반제틴, evangel

25) 원문은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수난(受難)의 회고(回顧)

오춘목(吳春睦)

★ 공군중령(空軍中領)

6.25 사변이 발발한 직후 우리 공군에게는 L-4 혹은 L-5라고 부르는 연습기 몇 대가 있을 뿐이었다.

이 연습기에는 기관포도 로켓포도 장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속도도 대단히 느린 것이었다.

그런데 전선에서는 적의 탱크부대가 물밀 듯 내려와서 우리 육군의 전우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공군은 무엇을 하느냐. 적 탱크에게 폭탄을 떨어주어다오!”

이러한 부르짖음이 연달아 들어 왔다. 쓰러져 가는 전우들의 비통한 호소를 듣고 우리 젊은 파일럿들의 피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는 주먹을 부둥켜 쥐고 이를 갈았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우리에는 아까 말한 연습기 몇 대가 있을 뿐이니. 적 탱크를 쳐부수려면 적어도 로켓이 달린 전투기라야 하는데 로켓포는 고사하고 기관총 하나 장비되어 있지 못한 연습기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전우들의 호소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논 끝에 한 사람이 조종을 하고 또 한 사람이 폭탄을 손에 들고 타서 적 탱크에게 갖다 떨어뜨리자고 의논이 되었다. 이것은 실로 비장한 결심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적에게는 최신품으로 무장한 ‘야아크’기가 있다는 정보까지 우리는 듣고 있었다. 만약에 그 무장을 한 ‘야아크’기만 만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격추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주관을 놓지 않았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명어리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연습기를 타고 가서 적 탱크를 폭탄으로 때려 부순다. 이런 일은 어느 전사(戰史)나 항공사에서 보지 못한 일이다.

한강 이남 여의도비행장에서는 수류탄을 손에 든 용사들이 뒤이어 북쪽으로 날아갔다.

6월 27일 오전 9시.

나도 드디어 떠나기로 되었다. 내가 조종하는 전투기 아닌 전투기에 폭탄을 들고서 동승한 전우는 윤석준 상사(그는 지금 소령이며 비행단 작전처장 대리도 있다)였다. 나는 그 당시 중위였다.

비행복을 입고서 조종석에 앉으니 윤 상사가 백 파운드짜리 폭탄 두 개를 손에 들고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폭탄이지 한국제로 성능이 대단히 약간 화약의 일종이다.

나는 발동을 걸었다. 전우들이 손을 흔든다. 기운이 솟아오른다. 흔드는 전우들의 손에서 거꾸러지는 적 탱크의 환상이 벌써 떠오른다.

애기는 이륙한다. 전우들이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푸른 한강물도 각각으로 기늘어진다. 방향은 북쪽, 적들이 집결했다는 의정부 일대다. 나는 전우에게서 마음을 돌

리고 북으로 적을 찾아 행해 갔다.

의정부다. 내려다보니 과연 정보대로 적의 탱크부대가 무수히 내려온다. 이백 대나 될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연달아 내려온다. 놈들은 의기양양 검은 거미와 같이 보기 흉한 꼴을 하고 남으로 남으로 굴러오고 있다. 저 무지한 바퀴 아래 쓰러진 전우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불이 달라 오르고 가슴이 뜨겁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뒤에 앉은 윤 상사를 돌아보았다. 윤 상사의 두 눈에는 치열한 적개심이 타오르고 있다.

“투하 준비!”

나는 윤 상사에게 지시를 하고는 고도를 낮추었다. 애기는 내려간다. 그리고 적 탱크가 점점 가까워 온다.

“투하!”

윤 상사는 무릎에 안았던 폭탄을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일어난다. 또 하나를 떨어뜨렸다. 다시 검은 연기, 그리고 꺼꾸러지는 적 탱크의 보기 흉한 꼴! 나는 그제야 가슴 속이 환해 지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가 어째서 안 오는가!”

“적 탱크를 폭격해 다오!”

소리치다가 쓰러진 수많은 전우들의 원수를 이제야 갚아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순간의 생각이었다. 갑자기 시야에 하얀 것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등체에 붉은 별... 적의 ‘아아크’기다! 속력이 내가 탄 L-4보다 훨씬 빠르며 또 단단히 무장을 한 적기다.

어쩌면 좋을까. 아아, 만약에 적을 행해서 단 한방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 한 대만이라도 장비되어 있었더라면..... 그러나 내가 탄 연습기에는 아무런 장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피할 수밖에 없다. 이가 갈리고 눈물이 났다. 젊은 피가 끓는 파일럿으로서 적을 앞에 두고 도망치지 않을 수 없다니.

그러나 도망을 치려해도 그러한 여유조차 없었다. 적은 벌써 가까이 나타났는데 내 비행기는 적보다 속력이 늦다. 얼마를 도망가지 못해서 적의 흉탄에 격추될 것은 뻔한 일이다.

나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적의 탱크가 여전히 시커멓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다. 아무래도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저 아래 적 탱크들에게 부딪쳐 자폭이나 하자. 적탄에 맞아 값없이 죽느니 보다는 적 탱크 한 대라도 부수고 죽는 편이 옳을 것이 아닌가.

나는 조종간을 힘차게 잡았다. 하계가 점점 가까워 온다. 동산의 소나무들이 점점 크게 다가온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감은 눈 속에 고향집이 떠오른다. 늙으신 어머니가 떠오른다. 친구들이 떠오른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윤 상사의 음성이 귀를 찌른다. 눈을 번쩍 떴다.

“적기가 간 모양입니다!”

소리치며 윤 상사는 조종간을 잡아서 수평으로 자세를 고쳐 놓았다. 보니 실로 아슬아슬하게 애기는 소나무 머리 위를 스쳐서 다시 상승하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 적 탱크 잔등이 아니면 행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우리는 죽어 있었을 것이다.

애기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마음을 놓고 둘러보니 적기는 어느새 사라져 없었다. 아마 우리가 격추당한 줄 알고 안심하고 돌아간 모양이다. 나는 숨을 돌렸다. 등에는 땀이 흠뻑 배어 있었다.

위기는 변했다. 적기는 물러갔다. 이제는 기지로 돌아가자. 나는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폭탄은 떨어졌다. 적의 ‘아아크’기로부터의 공격도 면했다. 그리고 마음 놓고 기지로 돌아간다. 그러니 내 마음은 즐겁고 밝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일일까.

어느새 서울 상공에 이르렀다. 양쪽 날개에 무엇인지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보니 적기가 뿌리고 간 뼈라가 채 떨어지지 못하고 공중에 날다가 부딪치는 소리였다. 그 뼈라가 날개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자니 내 가슴은 저려든다.

저 아래가 독섬이다. 푸른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보트 한 척이 주인도 없이 강가에 매어 있다. 그 보트를 보니 지난 토요일 즉 사변이 터지기 전날인 24일 그리고 놀라웠던 생각이 났다.

그날 바로 저렇게 생긴 보트를 지으면서 나는 벼들과 더불어 유쾌한 오후를 보냈었다. 즐거운 오후였다.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했었다. 38선상에 바야흐로 무시무시한 구름이 옮겨 가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우리 다시 와서 종일 유쾌히 놀자고 벼들과 약속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조용할 뿐이다.

비행장에 돌아오니 전우들은 달려들며 야단이었다.

“자네 어떻게 살아 왔나?”

“우리는 꼭 죽은 줄만 알았네.”

그동안에 이곳 비행장에 적기가 내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우들은 내습했던 적기에 들켜서 내가 탄 비행기는 틀림없이 격추당했으리라고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아까 적기를 만났다네. 시뻘건 별을 달았더군. 정말 격추당할 줄만 알았어. 그래서 자폭까지 하려고 했지.”

이렇게 윤 상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전우들은 더욱 반가워하며

“다행이야, 아무튼지 다행이야.”

그러나 그러한 기쁨 속에 나는 쉽사리 싸이지 못하고 묵묵히 북쪽 하늘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뻗어버리듯이 소리 질렀다.

“젠장. 전투기만 있더라도.”

나의 그런 말이 전우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전히 떠들썩하고 즐거워만 하고 있었다.

(끝)



한국(韓國) 정치회담벽상관(政治會談壁上觀)

박기준(朴琦俊)

☆ 룯치 외교(外交)의 승리(勝利)

이 논문을 쓰고 있는 8월 30일 현재의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기상도(氣象圖)는 한국과 미국을 위시(爲始)한 민주진영을 위하여 전초전적인 성공으로 표시되고 있다. 왕년의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이요, 외교전문가인 룯치 유엔 미국대표가 처녀외교전에 커다란 승리를 획득한 것도 여기서다. 사실의 내용인즉 정치위원회에 참가할 국가 가운데 인디아인도까지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과 공산진영의 필두로 한국전쟁 발발에 있어서의 숨은 원흉격(元兇格)인 소련을 중립적인 유엔대표단에서 규합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휴전협정 제5조에 명시된 소위 '공산 측'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느냐가 우선 문제되었던 것이다.

인디아가 중립감시위원단의 일원으로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을 산(算)하는 군대를 한국 중립 지대로 파견하면서 어찌 중립적인 처지에서 공산 측과 대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엔대표단의 한 멤버로서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디아의 참가를 반대하는 미국의 지론(持論)이었다. 거기에다가 인디아의 참가에 관해서는 정작 대한민국이 철두철미 반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접은 한미 간의

'서울회담'에서 승인되었던 터이다. 한미의 이러한 주장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연방 제국(諸國) 및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과 적잖게 대립되었다. 휴전 교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데 있어서의 인디아의 커다란 역할을 고려하며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인디아의 국제적 비중과 유엔의정단상에서 이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지반(地盤) 등을 계량하여 휴전협정의 실천상 인디아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그래서 표결의 귀추가 자못 미묘한 정세 가운데 예단을 불허할 정도였던 터이다. 그러나 주로 중남미 제국의 일치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안(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듯하다. 인디아 메논 대표는 석연(釋然)히 자진 참가 포기를 선언한다는 극적인 장면을 빚어냈다. 이로써 인디아 참가 문제를 예워싼 민주진영 내부의 다소간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고 도리어 조화(調和)있게 낙결(落決)되었다는 것은 정치회담의 전망을 위하여 많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물

론 인디아의 자진 참가 거부와 함께 소련이 유엔 측의 대표단으로서 참석하는 것도 부결되어 공산 측 외교의 일대 패배를 가져왔다.

☆ 파란중첩(波瀾重疊)의 앞날

이것과 전후(前後)에서 휴전협정의 실천은 벌써부터 상당한 난관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12,000명의 유엔군 포로 중 반수(半數)만이 판문점에서 석방되리라고 약속하였을 뿐, 반측(反側) 포로에 대한 자의적(恣意的)인 처벌이 귀환 포로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립지대를 거쳐 벌써부터 공산 스파이들이 대량 이남으로 잠입하고 있음은 유엔군 당국의 확증된 발표를 통해서 역력하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체포된 스파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미하(幾未何)에 공산군의 반격을 말하고 있느니만치 적의 행동을 수없이 체협해 온 나머지의 우리로서 어찌 휴전 전망을 낙관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정치회담에 대해서 벌써부터 개회 일자와 장소 문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참가 문제에 대한 유엔의 표결은 내려졌다 할지라도 공산 측이 금후 어떻게 나올지는 상금(尙今) 예단키 어려운 형편이다. 정치회담은 휴전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열려야 한다고 협정되었지만 11월 개회설이 떠도는가 하면 명춘(明春)이나 되지 않을까하는 편도 있어 이에 대한 추측이 자못 구구한 가운데 있다. 우리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정문(頂門)의 일침으로서 휴전회담 금후의 발전 여하에 대비하기 위한 국군의 강화를 역설하면서 언제든지 실력 행사의 용의(用意)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일방(一方) 제1성(聲)에서 실력에 의한 공산 세력의 타도를 강조하고 자유 아시아인이 단결하여 공산 독재의 연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도쿄(東京)에다가 본거를 둔 미 극동사령부는 오키나와로 천이(遷移)되리라는 것이며 유엔군 사령부도 한국의 모지(某地)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이것들은 미국의 휴전이 명예로운 성취를 실력으로 가져오자는 행동 표시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 정책이 보다 더 태평양 및 아시아 무대로 그 중점을 옮기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 애로(碍路)는 무엇?

정치회담을 에워싼 몇 가지 애로는 여전히 애로로서 남아 있다. 첫째로 위북(緯北)을 접수하려는 한국의 통일원칙에 대해서 공산 측은 제대로의 주책없는 욕심—남한 접수론을 떠벌려 델 것이 예측된다. 이에 대한 절충안 운운하면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묘미(妙味) 있는 지대(地帶)로’, 다시 말해서 한국을 중립화한다든가 이에 따르는 남북 총선거나 연립정부론 등등이 터져 나올는지 모를 일이다. 베리아 숙청의 뒤를 이어서 감행된 북한 괴뢰집단 내부의 숙청극(肅清劇) 일막(一幕)을 말하더라도 단두대에 오를 공산간부의 죄명이 대남합작 및 용미(容美) 간첩행동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말렌코프²⁶⁾는 김일성(金日成) 크렘린 일파(一派)를 기간(基幹)으로 북한 괴뢰집단을 강화하여 닥쳐올 대남 정치투쟁에 대비하자는 것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중공의 레닌²⁷⁾인 마오쩌둥(毛澤東)을 여러 가지 구실로서 추방하고 보다 더 무지각(無知覺)하게 친소적이라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일파를 내세우려는 말렌코프의 근자(近者)의 획책은 중공 및 한국, 인도지나(印度支那) 일대에서 민주진영을 상대로 촛토불양(寸土不讓)의 정치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통일에 관하는 한 닥쳐올 정치회담이 세기의 기적을 빚어낼 수 없는 이상 미소(美蘇)공동위원회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남는 것은 시간의 경과뿐인데,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이쪽과 공산 측 중 그 어느 편이 득을 많이 보느냐가 문제다.

☆ 금후(今後)에 오는 것

정치회담을 에워싸고서 악령(惡靈)과 같이 따라 다니는 것은 중공의 유엔 가입에 관한 오랜 시비론(是非論)이다. 이 시비는 중국 및 동아시아 일대에 대해서 절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 및 그 진영에 속하는 영(英)연방의 몇몇 국가(이들은 대부분 중공을 승인하였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 미국이 저반(這般) 정치회담 참가에 관한 표결에 있어 인디아를 보이콧한 것은 인디아가 중공 승인 및 중공의 유엔 가입을 조장해 온 급선봉이었다는 것, 만약 중공 가입 문제를 한국을 위한 정치회담에다가 개입시킨다면 중공 불승인 원칙을 견지하는, 미국을 위하여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인디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치회담 결실 시에 그 확대위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극동회의를 열어서 인디아를 규합하고 중공 승인 문제뿐만 아니라 극동 전체의 여러 숙제를 토의할 수 있게끔 룯치 미 대표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26) 원문은 마렌코프

27) 원문은 레에닌

소련은 정치회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진영과의 거두(巨頭)회담을 희망하고 토의 사항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대상(代償) 원칙에 의한 수많은 국지적 분쟁 해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가장 급박한 구체적 제쟁(繫爭) 사항부터 실시 행동으로서 해결할 용의 없이 막연하게 회담한다는 것이 유해무익함을 지적하여 왔다. 한국문제를 에워싼 미소 쌍방의 태도는 그 좋은 실례다. 소련은 그렇게 함으로서 대(對)민주정치 전쟁을 통하여 시간을 획득하여 1일 스탈린이 죽은 뒤의 내분을 정리하고 2일 군비 및 생산력의 후락성(後落性)을 하루바삐 극복하자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말렌코프의 평화 정세가 부드러운 비로도 장갑에다가 애교만을 피운다는 것도 아니다. 수폭(水爆) 실험에 관한 말렌코프 성명은 소련의 원자—수소무기가 미국만의 전매특허가 아님을 경고함으로써 붉은 평화공세의 간주(看倣)가 민주진영으로 하여금 공산세력의 약체성(弱體性)의 표시로서 간주되는 것을 국력 방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일면 아시아에 대한 가일층의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 반면에 북대서양 국가와의 단결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정전(政戰) 양략(兩略)의 숨가쁜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 대소(對蘇) 열전 중이면 단결되던 것이 붉은 평화공세 가운데서는 종전의 협동 태세가 균열(龜裂)을 제래(齊來)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민주진영 공동의 귀문(鬼門)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치회담은 어느 모로 보나 동서 양대 진영 금후 수개월 내지 수년의 귀추를 좌우하는 청우계(晴雨計)가 될 것이다.

(8월 30일 대구(大邱)에서)

★ 새로운 지식(知識)의 ★ 청조(靑島) 다이제스트

10월호 값 60환

인공회임(懷妊)은 어떻게

여성(女性)에게 보내는 교서(敎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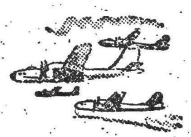
젊은 황제(皇帝) 보오드 왕(王)의 슬픔

세계최신(世界最新)의 종교(宗教)

프랑스의 모로코

청도사(靑島社) 발행

계몽사(啓蒙社) 총판(總販)



오늘의 미(美) 공군(空軍)

<미(美) 공군사(空軍史) 1907~1953년(年)>

김경수(金敬洙) 역(譯)

금년 즉 1953년은 미 공군으로서는 동력 비행의 50주년이며 미국 군 항공의 46주년이며, 또 국군 편성에 있어서 공군이 독립하여 존재하게 된 6주년이다.

미 공군은 1947년 9월 18일 그해의 국방법 규정에 따라서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07년 창설되어 재차 대전□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육군 항공 작전의 여러 전통을 계승하였다.

☆ 제1차(第1次) 대전(大戰) 전(前)

미 공군의 역사는 육군이 비행기가 대지(對地) 정찰, 신속한 수송에서 발휘하는 가치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1907년 8월 1일 비행기를 연구하고 또 이를 군용(軍用)에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항공반(航空班)이 육군 통신감실에 설치되었으며 그 인원은 차알스 찬들러 대위와 사병 2명이었다.

그러나 국방성이 군 항공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 훨씬 전부터 육군은 군 항공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정찰장교는 이미 내전 때 항공 작전의 기능을 입증했으니 즉 포토막의 육군을 위하여 기구(氣球) 정찰을 했고 1898년 육군의 기구는 '산장'능선을 공격하는 포병을 지도했었다. 8년 후에는 육군 기구병이 제1회 국제 기구경기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후 포오트 라이엔워이스의 육군통신학교에서는 장교 학생을 위하여 기구 조종 과목을 두었다. 그러나 1907년까지의 군 항공이란 사실상 계류기구(繫留氣球) 또는 부동(浮動)기구 작전이었다. 군 입장에서 보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보다 중량이 큰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이외에는 비행한 것이 없었으며 이것도 미 국민은 갈채보다도 오히려 회의(懷疑)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항공반이 창설된 후에 있어서라도 기구는 군 항공의 기본이었다. 그 후 1908년 토 오마스 S 발드윈 대위가 비행선(飛行船)을 발전시킨 임무를 맡게 되었다. 설계상으로는 시속 20마일 체공(滯空) 2시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해 여름 시험비행에 있어서 발드윈의 비행선(飛行船)은 소요 2시간을 떠 있었고 다만 시속은 평균 19.61마일에 불과했었다. 이 비행선의 가격은 6,750달러였는데 소요 속도에 39/100마일이 미달이라고 해서 15퍼센트의 벌금이 징수되었었다.

그러나 공기보다 중량이 큰 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1908년 2월 10일 항공대는 라이트 형제와 최초의 미 군용기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 동(同) 비행기는 2명을 탑승시켜 시속 40마일 이상으로 1시간 항속(航續)해야만 했었다. 1909년 7월 30일 최종 인수 시험비행은 완수되어 버지니아 주의 포오트 마이아와 알렉산드리아 간을 왕복하였다. 동 비행기는 체공 시간 1시간 12분, 시속 42마일로서 설계 계약을 이행했던 것이다. 이 완성으로 말미암아 라이트 형제는 5,000달러의 상여금을 받았

으며 동 비행기의 구매 가격은 3만 달러였다.

군 항공의 존속(存續) 여하는 1910년에도 미확정 적이었다. 동년(同年) 중기까지 육군 항공업무 담당 장병은 장교 2명, 사병 9명에 불과하였다. 장비로서는 비행기, 비행선 각 1대, 기구 3대가 있었고 그 발전은 지지하였다. 통신감은 되풀이하여 군 항공에 대해서 국회가 납득하도록 역설했으나 성공을 못 보았다. 그러던 것이 1911년 3월 3일 그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즉 국회는 처음으로 항공 발전을 위하여 12만 5,000달러 지출의 결정을 지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훈련과 정찰용의 신(新)장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행학교가 매리랜드 주 파이크대학에 창설되었으며 정찰 업무를 위한 항공사진 실험을 하였고 비행기로부터 기관총을 발탄(發彈)하는 시험을 했었다.

육군이 처음으로 구매한 비행기는 상용(商用) 수송기였다. 그러므로 비행장교들은 동력, 속력 및 적재력이 군용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리하여 순 군용기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설계가 작성되었고 1912년 육군은 그 최초의 신형기(新型機)를 인수하였다. 금일의 표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저 비행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것으로 라이트와 카이타스의 추진식 비행기였다. 라이트의 것은 6기통(汽筒) 50마력의 기관으로서 체인 운동의 저속기아의 쌍(雙)프로펠러이며 카이타스는 그보다는 약간 더 튼튼하게 되어 8기통 8마력의 기관으로서 단발(單發)이었다.

파이크대학은 계속해서 항공 활동의 중심이었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관총, 사진, 라디오에 관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1912년 11월 1일에 이르러 항공대는 12명의 항공 장교와 39명의 사병으로 증가했고 내리랜드 지방에 8개의 격납고에는 12대의 비행기가 있었다. 그 밖에 산 안토니오와 포오트 라이엔워이스에도 격납고가 있었다.

파이크대학은 텍사스 주 텍사스시가 인계하였고 익월(翌月)에는 또 비행학교가 포오트 막킨리와 필리핀에 그리고 7월 14일에는 하와이에 세 번째의 비행학교가 각각 개설되었다. 이리하여 1913년 9월 3일에는 장교 23명, 사병 91명이 항공 업무에 종사했고 15대의 비행기로 증강되었다.

군 항공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증대되어 1913년 3월 2일 국회는 35퍼센트의 비행 가봉(加俸)을 지급하기로 했고 장교 수를 30으로 정했다. 그리고 항공반을 통신대의 예하 단체로서가 아니라 그와 동격의 지대(支隊)로 승격시키려는 법안이 제출되었었다. 1914년 7월 18일 비행반(飛行班)이 입법으로써 설정되었다. 이리하여 비록 아직도 통신대에 예하에 있다고는 하되 이 비행반은 모든 군용기와 그 부분품, 비행기에 장비되는 통신기재의 조작 및 항공 훈련에 대한 전(全)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장병의 수가 법률로서 장병 60, 사병 260으로 되고 '군 조종사'와 '초급 군 조종사'의 등급을 만들어 그 지급률을 각각 75퍼센트, 50퍼센트로 인상하였다. 60만 달러가 그 발달을 위하여 지출되어 1914년 1년간에 군 항공은 급속히 확장되어 비행기를 군 항공이 사용하는데 거대한일보(一步)를 내딛게 되었다.

☆ 멕시코 지역(地域) 작전(作戰)

제1차 세계대전의 도래(到來)는 군 항공에 대하여 선례 없는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투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동안 광범한 실험 업무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이동이 가능한 야전용 비행장이 안출(案出)되었으며 이에 기계공장 저장연료 여분의 장비와 예비 부품품 그리고 천막형(天幕型) 격납고까지도 완비되어 있는 것이었다.

1913년 12월 산디아고에서 미국 최초의 전술비행부대로서 편성되었던 제1비행대가 1916년 3월 15일 뉴멕시코의 콜럼버스에서 멕시코 지역 원정대의 일부분으로서 작전을 개시하였다. 동 대대는 장교 11명, 사병 82명 그리고 민간 기술자 1명으로 편성되었고 벤자민 D 홀로이스 대위(후에 소장으로서 퇴역)가 지휘하였다. 장비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13명 중 7대의 비행기가 있었고 그 상태도 전부 좋지 못하였다.

미국의 이 최초의 항공 작전은 실패였었다. 최초의 출격으로서 8대의 비행기를 가진 이 대대는 명에 의하여 직접 작전차 멕시코의 캐사즈 그랜스로 출동하였다. 그 중 한 대는 기관 고장으로 콜럼버스에 돌아왔고 또 3대는 근방 다른 멕시코 몇몇 고장에 불시착하여 상실되었다. 야암(夜暗)으로 말미암아 4대는 부득이 지상에 남아 있게 되었다. 다음날의 정찰은 더 한층 곤란에 봉착하였다. 한 대는 시아라 마드리 산맥을 넘을 수 있을만한 고도를 잡지 못했고 또 한 대는 착륙 시에 파손되었다.

동 대대는 그 지역에 1개월 동안 주류(駐留)하여 우편, 문서 등을 가지고 콜럼버스와 플로리다 터볼란 간을 왕래하고 또 정찰도 하였다. 4월 22일 콜럼버스로 돌아와 이로써 최초의 전투 작전은 끝났던 것이다. 8대 중 6대는 이미 파기 또는 파손되었고 잔여의 2대도 폐품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경험은 유익한 결과를 맺었으니 보다 더 동력이 큰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리하여 비행반은 50만 달러의 신(新)설계로 제작된 당시의 최대의 비행기 카이티스 R-25 12대를 구매하게 되었으며 동 비행기는 160마력의 기관을 가진 것으로서 종래 사용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마력의 것이었다.

1916년은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의 해였다. 6월 3일 국방법이 통과되었으며 그 규정 가운데 비행반을 강화하여 장교를 148명으로 하고 또 대통령은 5개년간에 소정(所定) 편성으로 완성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6월 말에는 비행반의 인원은 장교 61명, 사병 248명이었다.

☆ 제1차(第1次) 세계대전(世界大戰)

1917년 4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는 라이트 형제가 북카롤리나의 키터 허이크 사구(砂丘)에서 12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지 13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의 진보는 고통스럽게도 지지(遲遲)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몰이해(沒理解)와 정부의 원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항공 공업은 명목뿐이며 육군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인수한 후 거의 8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불과 142대가 납품되었을 뿐이었다. 비행반은 131명의 장교와 천 명 이상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7개 대대로 나누어 있었다. 그러나 조종 장교는 불과 78명이었고 또 전투를 할 만한 충분한 비행 경험을 가진 자도 없었고 또 전투에 쓸 만한 비행기도 55대가 못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1917년 5월 23일 프랑스 정부는 실로 놀라운 요구를 해왔다. 프랑스는 미국이 조종사 5천 명, 비행기 4,500대, 지상 근무자 5만 명을 1918년 초까지 차출함으로써 서부전선에 공군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9,900대의 훈련기 외에 12,000대의 실전기(實戰機)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략 43,000대의 기관(機關)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상으로는 이와 같이 크다고는 하되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증가인 것이었다. 1917년 6월 27일 이 요청이 인정되어 익월(翌月) 국회는 6억 4천 달러를 지출하여 미 공군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1917년 가을에 이르러 미 비행부대는 프랑스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랄푸 포이스 소령이 지휘하는 제1비행대대가 9월 3일 도착했고 다른 8개 비행대대와 기구(氣球)대대가 뒤이어 도착하였다. 최초의 전투로서 영국 스파드 복좌(複座)정찰기로 출격한 제1비행대대가 정찰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다. 2월 후 알란 F 윈슬로우 및 다글라스 겔프웰 양(兩) 중위가 독일비행기를 토울비행장 상공에서 격추시킴으로서 미군이 최초의 공중 승리를 얻었다. 6월 12일 96대대는 프랑스 부레게포격기로서 메쓰 근방 도마리 바코코트에서 철로를 폭격하는데 성공하였다. 9월 10일 최초로 주간(晝間)폭격기전대(戰隊)가 창설되어 제1, 제20, 제166대대는 제96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주력은 프랑스에 있었으며 1918년 11월 11일 종전 시에는 45대대가 있었고 조종사 767명, 정찰수(偵察手) 25명, 그리고 각 육군부대에 배속된 비행기는 740대였다. 적진 상공 비행시간은 35,000시간 이상이며 비행기 대수도 타국보다 최대 다수였었다. 전쟁 말기에 있어서 미 추격(追擊)비행대대는 영국의 스파즈기(機)와 소푸위스 카펠기(機)를 가졌었고 11개 정찰대대는 영국의 살튼손기(機)와 프랑스의 부레게 A-2기(機)를 장비하고 있었다. 종전 시에 5개 정찰대대와 5개 주간폭격대대가 유명한 이라어티 기관의 미국 미다빌랜드기(機)를 장비했었다고는 하되 일선 미국부대로서 미국비행기로 장비되었던 것은 25퍼센트도 못 되었었다. 그러나 미국 비행사(飛行士)는 추격비행 13,000회, 정찰비행 6,000회 이상을 했고 폭격비행 400여회에서 22만 5,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했고 미 측 비행기의 손실은 확인된 적의 손실의 반도 못 되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여러 항공 영웅을 배출시켰으며 이들은 '에이스'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최대의 에이스는 에디 리켄백카 대위로서 그는 퍼어싱 장군의 조종사로서 도불(渡佛)했고 항공대의 수속 비행사가 되었던 것이다. 병으로 3개월간 지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켄백카는 25회의 공중 승리를 거두었었다. 후랑크 J 류크 중위는 1918년 9월 29일 죽기 전 2주일간에 18회(그 중 14회는 기구)의 승리를 거두었고 코네티컷 주 윌링포드 출신 라오울 루푸베리 소령은 유럽 파견군에 편입되기 전 프랑스군과 더불어 17회의 전승(戰勝)을 했고 또 부루우클린 출신 포오쥬 A 보오근 소령은 13회,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란카스타 출신의 엘리엇 W 스푸링즈 대위는 12회의 승리를 각각 거두었던 것이다.

☆ 양차(兩次) 대전(大戰) 중간기(中間期)

동 대전은 항공대가 육군에 있어서 확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1919년 그 가치를 평가 시에 적용하여 항공대는 칼포르니아의 산화(山火)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 순찰을 시작하였다. 동 순찰은 헨리 H 아아놀드 소령이 지휘했으며 유명한 리바리리 동력기관의 디하빌랜드기(機)로 장비되었었다. 화염은 처음에는 전서구(傳書鳩)나 낙하산으로 통보되었던 것이 후에는 라디오 통신설비가 설치되었다. 산림 공중 감시자는 중요한 업적을 완성하였다. 4년간 산화를 보고한 것이 4,000건, 수백 달러의 목재를 살렸다.

1920년 6월 4일 국회는 육군 개편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에 의하여 장교 1,516명, 사병 16,000명의 신항공대가 '별개의 육군지원부대'로서 창설되었다. 규정에 의하여 전 장교의 90퍼센트는 조종사 또는 정찰장교라야만 했고 각 비행부대는 비행장교가 지휘해야만 하였다. 이 법률이 통과되었을 때 155명의 정규장교와 1,013명의 보충장교 그리고 약 7,800명의 사병이 항공대에 있었다.

2개의 비행단사령부가 하나는 버지니아 주 랑글레비행장에, 또 하나는 텍사스 주 켈리비행장에 각 설치되었다. 동 비행단은 예하에 7개의 전대(戰隊)를 가졌는데 4개 전대는 미 대륙 내에, 3개는 국외에 있었다. 즉 국내에는 디하빌랜드 4-D형 비행기로 장비된 제1주간폭격전대와 SE-5A로 장비한 제1추격전대가 켈리 피일에 있었고 디하빌랜드기를 가진 제1초계(哨戒)전대 텍사스 주 포포트 볼리스에, 그리고 역시 디하빌랜드를 가진 육군 제정찰전대가 랑글레 피일에 있었다. 해외에는 제1정찰전대가 마니라에, 제2정찰전대가 호놀룰루에, 제3정찰전대가 카날존에 있었었다.

한편 항공대는 경(輕)비행선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고위층의 합의에 의하여 경(輕)비행선의 확장 업무는 해군이 맡게 되었다. 두 대의 반경식(半硬式) 비행선 이외에 항공대는 단 한 대의 경식(硬式) 비행선 밖에 없었다.

경식이 아닌 비행선으로는 조디아크호(號)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 프랑스의 것으로서 1920년 초 항공대가 인수한 것이다. 이 최대의 비행선 조디아크는 260피트 장(長)이며 32만 8,000쿠비트 피트의 가스 용량을 가진 것이었고 항공대는 이것을 DZ-1로 재명명하여 주로 폭격 라디오 및 항공사진에 관한 실험에 이용하였다.

1920년 말경 빌리 미첼²⁸⁾ 장군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대는 당시 세계 최대의 반경식 비행선 로마호(號)를 이태리(伊太利)로부터 구입하였다. 1922년 2월 21일 동 호(號)는 버지니아 주 노오포크에서 파쇄되었다. 즉 동 비행선이 약 600피트 비행했을 때 돌연 지면으로 돌입하여 고압선에 부딪쳐 폭파, 화염에 싸였다. 13명의 장교와 16명의 사병, 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구출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 경(輕)기구에는 헬륨이 수조로 바뀌었다. 경기구에 대한 관심은 1937년까지 고조되었으나 동년 항공대는 최종의 비경(非硬) 연습용 비행선 TC-13, TC-14를 해군에 이양하였다.

28) 원문에는 발리 밋첼. Billy Mitchell

1921년 2월 항공대는 신(新)전함(戰艦)의 가격보다 약간 많은 6천만 달러의 설계를 요구하였다. 이보다 3년 전 미첼 장군은 전함은 구식이며 공중 공격에 대하여 약하다고 선언한바 있었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공군력은 군함에 대해서 결정적 손해를 줄 수는 없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이 준비되어 육군과 해군의 비행기들은 군함에 대한 그들의 효력을 표시하려고 하였다.

시험은 6, 7 양월(兩月)에 버지니아 해안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었다. 6월 21일 해군비행기가 4마일 상공에서 12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노획한 독일잠수함을 16분에 침몰시켰다. 8일 후 해군 및 해병대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적 군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니 2,500평방마일 해상에서 1시간 57분 만에 미선(美艦) 아시오와호를 찾아낸 것이다.

7월 13일에는 항공대가 시작하였다. 미첼 장군이 작전을 지휘하여 11대의 공격기가 300파운드의 폭탄을 1,500피트 상공에서 투하하여 독일 구축함 G-102호를 19분만에 침몰시켰다. 5일 후 마아틴 포격기 편대가 35분 만에 독일 경순양함을 격침시켰다.

항공대는 7월 21일 가장 중요한 시험에 참가하였는데 목표는 중무장의 독일 거함(巨艦) 오스트푸리슬랜드호였다. 7대의 마아틴폭격기가 각 2,000파운드의 폭탄을 가지고 최초의 유효 발사로부터 7분 내에 이를 격몰(擊沒)시켰다.

중전 후 1922년 6월 정식으로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 켈리비행장이 중비행기 훈련장으로 되었고 일리노이스 주의 스코트비행장이 경비행기 훈련에 사용되었다.

항공대의 조종사들은 이제 기록 수립 비행에 착수하였다. 1923년 5월 오오클리 G 켈리 중위와 존 A 마클레디 중위가 최초로 무착륙 대륙횡단 비행에 성공하였다. 5월 2일 정오 뉴욕 주 루우스텔트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이 두 육군 조종사는 산디아고의 록월비행장까지 26시간 50분으로 날았다. 비행한 비행기는 포카아 T-2 단엽(單葉)으로 익장(翼長) 75피트이며 725갤런의 연료를 가지고 갔었다.

1923년 8월 27일 로월 H 스미스 대위와 존 P 리히타아 중위는 디하빌랜드 4B기로 37시간 15분 체공(滯空)하였다. 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동안에 다른 디하빌랜드기가 공중 급유를 해 주었던 것이다.

익(翼) 1924년 6월 23일 랫셀 모간 중위가 재(再)급유로 5차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켈리와 메크레디보다 5시간이나 단축하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간을 비행하였다. 사용 기종은 카아티스 P/W-8이며 모간은 2,570마일을 21시간 48분 30초로 날았고 공중에서의 소비 시간은 불과 18시간 36분이었다.

1924년 9월 28일 항공대 비행사는 최초로 세계 일주 비행을 완성하였다. 4대의 다글라스 쌍익기(雙翼機)는 4월 6일 워싱턴 주 시애틀 근방 호수에서 이륙하여 26,000마일 이상의 비행이 시작되었다. 175일 후 그들은 출발지점에 돌아왔는데 실제 비행시간 363시간 만에 지구를 일주한 것이다. 동 업적에 대하여 항공대에 골이어 상(賞)(Collier Trophy)이 수여되었다.

☆ 육군항공대(陸軍航空隊) 설립(設立)

1926년 7월 2일의 법령은 항공대란 명칭을 폐지하고 항공대장실을 신설하였다. 이리하여 메이슨 M. 패트릭²⁹⁾ 장군이 초대 대장에 임명되었다. 군 항공은 이제 확대되었으며 5개년 확장계획이 장교 1,514명, 사병 16,000명 비행기 1,800대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1926년 12월 21일 이 신(新) 항공대는 중남미로 친선 사절을 파견하였다. 복좌(複座)수륙겸용기 5대가 켈리비행장을 출발하여 1927년 5월 2일 워싱턴의 볼링비행장에 돌아오기 전에 22,000마일을 비행하였다. 1개월 후에 동 사절은 돌아왔는데 두 명의 비행사가 하와이까지 최초로 무착륙 미 대륙 횡단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조종사 레스터 J 매이트랜드 중위와 항공사 알바아트 F 헤젠버거 중위는 가주(加州) 오오 크랜트로부터 호놀룰루의 켈리비행장까지 라디오의 도움을 받으면서 3발 토오카기로서 25시간 50분에 비상하였다. 1927년 6월 동 비행이 끝났을 때에는 2,400마일 이상을 날았던 것이다.

1929년 1월 1일 카알 스쓰파 소령 과 아이라 C 이카아 대위는—후에 각각 공군총참모장 및 참모부장이 되었다—3발 포카야기로서 유명한 ‘의문(疑問)비행’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스미스-리히타이의 업적을 능가하는 인내(忍耐) 기록으로서 로산젤스에서 이륙하여 ‘의문’비행은 중간 공중 연료 보급으로써 약 151시간이나 체공했고 11,000마일을 비상하였다. 1월 7일 동 기는 그중 발동기 하나의 고장으로 부득이 착륙하였다.

항공대의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주 란돌프비행장이 비록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1930년 6월 20일 준공되었다. 이 낙성식 당일 란돌프에는 162명의 장교와 1,432명의 사병이 있었으며 동 기지는 항공대의 훈련사령부였고 1931년 10월 25일 초급 기본비행학교의 토대가 되었다.

1930년대(代) 초기에 있어서 항공기 설계에 두 가지 중요한 발전을 보았다. 그 하나는 신(新) 단엽기(單葉機)이며 또 하나는 전체를 금속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즉 1931년 보잉회사는 항공대의 최초의 전 금속제 폭격기인 B-9를 만들었는데 이는 중익(中翼) 수장(收藏式) 착륙 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두 개의 600마력의 푸라트 휘트니기관에 시속 188마일이었다. 동년에 카이티스회사도 전(全) 금속의 단엽 공격기 A-18을 소개하였다.

1932년 마아틴회사도 쌍발(雙發)단엽 금속제의 B-10을 만들었는데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이며 그 당시 세계 최대 최고 속도의 폭격기였다. 1934년 7월 아이놀드 중령은 30명의 장병을 지휘하여 이 비행기 10대로서 알라스카의 정찰 비행을 하였다. 동 비행의 처음 목적은 비상시에 있어서 알라스카를 공중에서 실제로 방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였다. 이 비행으로 말미암아 화야방쓰에 비행장이 되었고 알라스카 지역 20,000마일을 촬영하기 위하여 3주간을 소비하였었다.

29) 원문은 매슨 M 패트릭. Mason M. Patrick

1935년 3월 1일 항공 총사령부가 신설되어 후랑크 M 안드루스 준장이 맡게 되었는데 이는 명칭에 있어서 변경일 뿐만 아니라 육군의 한 단독부대였다. 총사령부는 항공대장실과 동격의 것으로서 항공 작전부이며 한편 항공대는 보급과 훈련 관계를 계속 담당하기로 되었다.

1935년 11월 11일 항공대는 고층 기류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공헌을 했다. 즉 오르빌 앤다슨, 알바아트 스티븐 양(兩) 대위는 세계 최대의 기구 ‘탐검호(探檢號)II’로 72,395피트까지 상승하였는데 이 상승은 남(南)다코타의 래퍼드시(市)에서 시작하여 8시간 이상 계속된 것이었다.

1936년 2월 보잉회사는 공중 요새 B-17을 소개하였다. 이 B-17은 항공대장 B D 홀로이스 소장이 장거리 항속(航續) 고속도 고공 작전이 가능한 새로운 거대한 일반 폭격탄을 만들려는 욕망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최초의 B-17은 1937년 3월 1일 랑글레이비행장에서 총사령부에 인수되었고 동 비행장에서는 제2폭격전대가 이 요새 기(機)의 조종사와 승무원의 훈련을 하고 있었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13대의 B-17이 인수되었을 뿐이다.

장거리비행이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1938년 2월 17일 6대의 B-17이 마이아미를 출발하여 알렌턴으로 친선 비행에 올랐다. 당시의 제2폭격전대장이었던 로바아트 올즈 중령의 지휘 하에 공중 요새는 도중 페루의 리마에 착륙하고서 비행시간 33시간 반에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5,225마일을 비상하였다. 동 친선 비행은 2월 27일 랑글레이비행장에서 돌아 왔었는데 11,000마일 이상을 순항한 것이다.

☆ 항공군(航空軍)의 창설(創設)

1939년 3월 1일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총사령부가 항공대장실의 예하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1840년³⁰⁾ 1월 19일 동격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체적 행정 지휘가 필요함이 명백하게 되자 1941년 6월 20일 육군 항공군이 창립되어 항공대장이었던 H H 아이놀드 소장이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수평선 저쪽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1941년에 육군 항공군은 거대한 확장을 보았다. 동년에 양성한 조종사 수는 33,000[명]에 달했으며 갈프해안 훈련장은 약 12,000을 훈련해야 했고—가장 큰 할당은 란돌프비행장으로서 매 5주마다 400명의 신입반을 보고(報告)하기로 되었다. 한편 기술전문가에 대한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차누트 스코트 및 로우리비행장에 있는 제(諸) 학교들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수용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민간 기술학교에 위탁해야만 했었다.

☆ 제2차(第二次) 세계대전(世界大戰)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眞珠灣)을 공격하였다. 이 기습은 해공군(海空軍)의 미증유(未曾有)의 확장을 결과하였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했던 당시에는 미 항공

30) 원문에는 1840년으로 되어 있으나 1940년의 오키임.

군은 사병 27만 5,000, 장교 23,000, 장교 후보생 16,000, 12,000대의 비행기로써 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8개의 항공부대가 있어 4개는 미국 내에 있고 필리핀(比律賓), 하와이, 알래스카, 카리비안에 각 1개 부대가 있었다. 진주만의 기습은 200대 미만의 전투기를 가진 하와이의 항공군이 태반을 상실케 하였으나 이러한 패배에 있어서도 항공군 용사들은 그들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힐러비행장에서 그래도 이룩한 14명은 공격해 온 일본기 10대를 격추시켰다.

전투의 초기에 있어서 항공군은 주로 방위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6개월 내에 주요한 공격 기습을 감행하였다. 즉 지미 두우리를 증령은 함상(艦上) B-25 폭격기를 지휘하여 일본 본토를 공격하였다. 1942년 4월 18일 16대는 호오네트호 갑판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8대는 동경을 공격하고 나머지는 요코하마(橫濱) 요코스카(横須賀), 나고야(名古屋), 고베(神戸)를 폭격하였다. 이 기습은 일본을 공격한 대공세의 전조로서 일본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다.

6월 제11항공군은 알류산 열도(列島)³¹⁾의 아쑈 키스카에 상륙한 일본군에 대하여 반격 작전을 개시하여 연속적 공습으로 일본군의 복진을 저지하였고 후에 적을 동도로부터 완전히 구축(驅逐)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3항공군의 중(重)폭격기들도 솔로몬 군도에서 보급 중심지 및 왕래하는 선박을 계속 강타함으로써 일본의 동 군도에서의 전진을 저지시키는데 도움을 하였다.

한편 항공군은 유럽전쟁에도 참전하고 있었다. 제8항공군은 1942년 8월 17일 적에 대하여 최초의 공격을 가하여 B-17 12대로써 프랑스의 루앙시를 격파하였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공격으로서 그 성패는 미 공군전략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었다.

미 공군 작전 기획자들은 주야 전략 폭격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들은 독일에 대한 전략적 공중 공격을 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험적인 것이며 그 성부(成否) 여하가 유럽에서 아직 입증되지 안 된 것이었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주간(晝間) 정조준(正照準) 폭격은 최소한도 무모한 것이며 대공(對空)포화 및 독일의 주간 전투기에 의한 손실은 막대하여 폭격기의 전력을 대단히 감퇴시킬 것이라고 논했던 것이다.

스라아쓰 장군이 친히 나와 요새기가 루앙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 문제의 귀추를 보려는 미영(美英) 기자 약 30명이 장군과 동석하였다. 이 출격은 성공이었다. 전탄(全彈)이 목표에 또 목표 가까이 떨어졌으며 전사자는 하나도 없었고 고사포의 피해도 적었다. 실전은 이 가설의 공적을 입증하고 이로부터 주간 공격이 발전하여 그 결과 독일의 전력은 약화되어 갔다.

제8항공군은 이 공격의 선봉(先鋒)³²⁾이었다. 육군 항공군은 루우르 지방의 공업력을 분쇄하였다. 전쟁 수행에 공헌할 수 있는 독일의 심장부로서 이 공격을 면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베를린, 콜른, 마그데부르크, 드레스덴, 만하임, 하노바, 함부르크 등은 반복하여 폭탄 세례를 받았다. 1945년 4월 16일 스파아쓰 장군은 전략전은 이

32) 원문은 先鋒으로 되어 있으나 先鋒의 오기임.

31) 원문은 아류우상 열도. Aleutian Islands

미 끝났다고 성명하였다.

이 전략전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독일의 연료 및 유지(油脂)생산은 정돈(停頓)되어 독일 공군은 사실상 격멸되었다. 독일의 수송기관도 강타되어 종전 전(前) 수주(數週)에는 이미 대개 인마(人馬)에 의지하는 형편이었다. 전후(戰後) 여러 신문서(新聞書)를 보면 괴에링으로부터 주(州)공장 지배인에 이르기까지 독일 패배의 주요인은 항공력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독일 야전사령관 월헬름 카이텔까지도 서부전선에서의 승리는 항공력이 주요한 공훈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는 제15 및 제12항공군이 제8 및 제9항공군—이는 유럽 상공에서 전술 작전에 주력을 썼다—과 같은 역할을 했다. 즉 제15항공군의 폭격기들은 북부 이태리, 체코슬로바키아 및 오스트리아의 전략적 목표를 분쇄했으며 제12항공군은 북부 아프리카, 시실리 및 이태리에서의 연합군의 전진을 지원했으며 독(獨)일(獨逸)독일과 이태리의 선박을 설 새 없이 폭격하여 판텔레리아의 주둔군으로 하여금 1943년 6월 11일 백기를 들게 하였다.

1944년 6월 6일 북불(北佛) 상륙일에는 항공군의 위력을 과시할 기회였다. 즉 8,000회 이상 출격하여 제8, 제9항공군은 해협안(海峽岸)을 공격했고 한편 제12, 제15항공군은 남불(南佛)에 대한 견제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8항공군의 중폭격기 2,500대는 노르망디 내외에서 해안포대(海岸砲台) 수송기관 및 보급로를 강타하였고 제9항공군은 4,000회 이상 출격하였으며 그 부대 공수사령부는 제르부르크 반도에 2개 사단의 공정(空挺)부대를 낙하시켰다.

공격 개시 후 수일간 육군 항공군은 독일의 공업을 강타하고 공장, 조병창(造兵廠), 정유소 및 유도탄 발사 지점을 분쇄하였다. 한편 지중해의 항공군은 차기 작전을 위하여 남불을 공격하였으며 이 작전은 1944년 8월 15일 감행되었다.

지상군이 프랑스를 횡단 진격하는 동안 육군 항공군은 보급물 공수, 공중 기습 등으로 작전의 기동성을 과시하였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은 굴복하여 유럽의 전쟁은 끝이 났다.

독일(獨逸)³³⁾과의 전쟁 중 육군 항공군은 그 절정에 달하여 13,000만 이상의 전투기와 6만 9,000명의 인원을 가졌었다. 폭격출격 75만회 이상이며 100만회 이상의 전투출격을 감행하였으며 150만 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35,000대의 적기를 격멸하였고 야방의 비행기 손실은 18,000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로서는 도저히 육군 항공군이 궁극의 승리에 공헌한 바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공헌은 참으로 항공군의 용감성이 적의 군사력과 군사 자원을 파괴해 버렸는데 있는 것이다.

히틀러의 소위 요새 유럽이 분쇄되자 육군 항공군은 일본의 응징을 강타하였다. 1944년 4월에 편성된 제20항공군은 일본 본토를 연속적으로 강타하였다. 일본의 공업 5도시—동경(東京), 오사카(大阪), 요코하마(橫濱), 나고야(名古屋), 고베(神戸)—는 초기의 공격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1945년 여름에는 B-29의 폭격이 본토 전역에

33) 원문은 독수(獨逸)로 되어 있으나 독일(獨逸)의 오기임.

확대되었다. 60개 도시가 공습으로 파괴되었다. 6월에는 유럽의 계획에 뒤따라서 공격을 비행기 생산 유지 보급에 집중시켰다. 8월 1일 800대 이상의 B-29가 6,000톤의 소이탄(燒夷彈)과 폭탄을 일본의 공업 지대에 투하하였다.

8월 6일 공습의 노화(怒火)에 허덕이는 봉괴 직전의 일본에 인류 최대의 파괴력이 투하되었다. 즉 포을 티베쓰 대령이 조종하는 B-29 에놀라 게이호는 히로시마(廣島) 원자탄 1개를 투하하여 전시(全市)의 60퍼센트를 파괴하였다. 2일 후 차알스 스위니 소령이 조종하는 그레이트 아이티스트호는 나가사키(長崎)에 제2의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드디어 이것이 최종의 공습이 되었고 일본인은 전쟁을 계속할 의사를 버렸고 8월 14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사상(史上) 최대의 전쟁의 종말을 지었다.

대일(對日) 전쟁에서 육군 항공군은 66만 9,000회의 출격을 했고 제20항공군은 4만 회를 산(算)했다. 50만 톤의 폭탄이 일본 및 그 주도(周島)에 투하되었고 제20항공군도 17만 톤에 달한다. 10,000대 이상의 일본비행기가 격멸되었고 육군 항공군도 4,500대의 손실을 보았다.

세계 최대의 공군은 1945년 8월 이후 급속히 복원(復員)되어 1944년 최고 241만 1,294명에 달한 인원을 1946년 1월 1일에는 73만 3,786명으로 축소하였다. 비행기도 전투 중 8만대에 달했던 것을 약 4,000대로 떨어뜨렸다. 축소는 계속되었고 드디어 1947년 6월에는 20만 5,827명으로 되었고 38개 전대 중 다만 11개 전대만을 편성함이 작전상 유효하다고 생각되었다.

(미(美) 공군(공보空軍公報) 편람(便覽)에서) (미완(未完))

☆ (58면(面)에서 이음)

그의 기능(機能)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결어(結語)

이상 항공의학의 발전 역사를 간단히 기술하고 항공의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극히 불충분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 조잡한 설명을 통하여서도 독자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항공의학이란 것은 다른 전문과학과는 달라서 한 개 한 종류의 질병 또는 인체의 한 기관 한 계통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전체에 대하여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공중근무자의 선택 분류는 물론 그들의 최고도의 신체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 한 가지, 항공의학의 특성은, 그것이 4차원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3차원은 수직 차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고도와 고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해 작용이 문제가 되며, 4차원은 시간 요소이며, 여기에는 공중근무자의 전(全) 근무 생애를 통한 간단(間斷) 없는 의학적 보호가 주(主)로 된다.

(필자(筆者) 의무감실의무과근무(醫務監室醫務課勤務))

건군의학(建軍醫學)

병원특집(病院特集) 1

군대결핵(軍隊結核)의 예방(豫防)

공군대령(空軍大領) 박병래(朴秉來)

★ 공군병원장(空軍病院長)

☆ 군대결핵(軍隊結核)의 특성(特性)

약 1800년 전 촉(蜀)나라 제갈공명(諸葛孔明)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쏟아지는 객혈(喀血)에 이루지 못한 심원한 계략을 품은 채 증원에 진몰(陣沒)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촉군(蜀軍)의 사기가 저쇄(沮衰)한 것은 물론이요, 우리는 이를 타자원석(他之元石) 삼아 비단 장병만이 아니라 개개 병사의 건강 여부가 군의 사기에 미치는바 심대(甚大)하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아 공군에서도 병원(兵員) 감모(減耗)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실로 이 폐결핵 및 늑막염(肋膜炎)으로 현재 전 환자의 38퍼센트 이상이 병상에 있다. 각 선진 국가에서의 통계를 보면 군대결핵이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군대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폐결핵은 군대 내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만이 두서너 줄 기대되어 있을 따름이다. 유래(由來), 군대라는 것이 학교, 공장이나 마찬가지로 각자(各自) 천차만별의 생활양식을 가졌던 또 결핵학상으로 가장 위기라고 볼 수 있는 20세대 청년들이 더욱이 결핵 처녀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산간벽촌 출신의 장정들이 모여 일조(一朝)에 그 생활양식을 변경하고 제한된 영양과 과격한 운동 등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니만큼 결핵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일본에서의 통계를 보면 군대가 민간에 비하여 폐결핵이 9배, 늑막염이 5배로 이것만 보아도 군대 내 결핵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물론 군대결핵이 국민결핵 만연의 반영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 군대의 특수조건, 특히 병과(兵科) 차이에 기인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제 군대결핵 예방의 대요(大要)를 약술(略述)하면.

☆ 예방(豫防)의 대요(大要)

정신을 쾌활 안정시키고 충분한 영양, 신선한 공기, 점진적 운동에 의한 신체의 단련, 일광욕, 냉수마찰에 의한 피부의 연고(軟膏)³⁴⁾ 등 최대한으로 신체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심신의 과로를 피하는 것이 군대결핵 예방의 근본이 된다. 이밖에 피복, 침구의 청결 및 일광소독, 식품 양소(養素)의 적절, 음식의 섭생(攝生), 병사(兵舍)의 청결, 건조, 통풍, 조광(照光) 등을 완전히 하고 공동생활에 있어 전염원(傳染源) 즉 배균(排菌) 배제(排除)하고 매개체로 볼 수 있는 피복, 침구, 소지품 등을 여하한 경우에도 위험물로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소 각 부대에 수(數) 배트 정도의 격리실을 설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대 시의 인체 검사를 더욱 세밀화하여 본 질환의 배제에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복무 중인 장병에 대

34) 원문에는 練固로 되어 있으나 軟膏의 오키임.

하여도 정기 건강 진단의 강화 등으로 말미암은 상시의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 독수입(毒輸入) 방지(防止)

가. 입대시(入隊時)의 신체검사

입대시의 신체검사는 군대결핵의 병독 수입에 있어 그 제1관문이 된다. 면밀 주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각 부대에서 상당수의 폐결핵 환자를 산출하고 있으니 이는 결핵 발병의 병리상 단 1회의 검사만으로 본병(本病) 침입을 전연 두절시킬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나. 군대출입자(軍隊出入者)

출입 상인, 단기 소집 훈련자, 견학자, 면회인 등의 외래인에 의하여 병독이 수입되는 수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시도 필요한 것이다.

☆ 전염원(傳染源) 삼제(埶除)

가. 환자의 조기발견

환자 특히 개방성 폐결핵 환자는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긴급함은 논할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ㄱ. 정기(定期) 건강진단(健康診斷)

이는 입대시의 신체검사와 달리 충분한 시간과 검사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세밀 확실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가능하면 X선 검사, 적침(赤沈), 투베르쿨린³⁵⁾ 반응 검사 등이 요망된다. 이 정기 건강진단에 있어—특히 체중 감소자 및 특별한 원인 없이 일시에 체중이 격감한 자에 대하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된다.

ㄴ. 객담(咯痰) 검사

타각적(他覺的)으로 이렇다 할 소견 없이 외관상 건강한 자에서 객담 중에 결핵균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영외 거주자를 포함한 부대 전 장병의 객담 검사를 가끔 실시하여야 된다.

ㄷ. 상관(上官)의 보건상(保健上) 착의(着意)

상관이 평소부터 부하의 건강상태를 지실(知悉)하고 상시 군의관과 상호 연락함은 환자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즉 혈액이 좋지 않은 자, 식욕이 없는 자, 활기가 부족한 자, 피로하기 쉬운 자, 기침, 숨이 찬 자 등 여하튼 건강상 의심 있는 자를 주의할 것은 물론 타호(唾壺), 세면소 등에 혈액의 유무를 조사하여 군의관과 상호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전염로(傳染路)의 두절(杜絶)

다. 병사(兵舍) 내의 청결, 내무반의 조광(操光) 환기를 충분히 하고 결핵균을 매개한다고 생각되는 물체의 소독 등 각종 소독 전파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또한 중요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각항을 구분할 수 있다.

ㄱ. 식기(食器) 소독(消毒)

가열소독법으로 첫째, 증기소독은 금속 식기는 섭씨 100도에서 15~20분이면 충분하고 고압이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둘째, 자비(煮沸)³⁶⁾소독은 식기 청결상 가장 이상적

인바 설비가 불완전할 때는 소요 온도에 달하지 않고 또 부위에 따라 차가 있으니만큼 소독당번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 외 주보(酒保), 식당 등에서의 '컵'의 공동사용은 결핵 예방상 부적당하니 이에 소독 설치를 두든가 개인 소지품을 사용케 하여야 된다.

ㄴ. 객담(咯痰) 처치(處置)

환자로 하여금 담을 아무데나 뱉지 않게 주의시키고 신문지에 받아 소각하거나 대변소(大便所)에 버리게 하는 동시 타호에는 크레졸 액 석탄산수(石炭酸水) 등을 넣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ㄷ. 전화기(電話器), 이발(理髮) 기구(器具), 나팔(喇叭) 등의 소독 이것도 역시 크레졸 액, 석탄산수 등으로 청식(淸拭)하여야 된다.

ㄹ. 피복(被服), 침구(寢具)의 소독, 특히 환자(患者) 발생시(發生時)의 처치(處置) 제대자의 피복, 침구 등을 엄중히 소독하여야 되고 환자 발생 시의 소독범위는 발병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 광범위하여 되며 동시에 주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최소 동 내무반의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ㅁ. 개인(個人) 지급품(支給品)의 혼용(混用)

수건 등 혼용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ㅂ. 침대(寢臺)의 두족(頭足) 교체(交替) 배열(配列)

이는 취침 시의 비말(飛沫) 전염 예방상 중요한 사항으로 폐결핵 뿐 아니라 기타 인플루엔자, 폐렴 등의 예방에도 필요한 것이다.

ㅅ. 실내(室內) 비진(飛塵)의 방지(防止)

내무반 내의 먼지에 의한 결핵 전파가 식기에 의한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므로 최소 병부(柄附)걸레로 청식할 것이며 비(簾) 또는 털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침구 특히 모포(毛布)의 제진(除塵)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ㅇ. 감위(感冒) 예방

폐결핵의 최대 유인(誘因)인 감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피부 단련을 실시하는 이외에 불침당(不寢當)의 지도, 양치질(含水(含漱))의 여행(勵行), 피복 침구의 사용법, 실내 온도의 조절, 욕탕의 설치, 훈련 후의 발한, 습윤(濕潤) 후의 처치 등 주의할 사항이 많다.

☆ 체력증진(體力增進)

체력을 증진시키고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또한 군대결핵 예방의 요강(要綱)이 되어 있다. 즉 적절한 훈련은 양호한 급양 및 피로 회복법 등과 더불어 체력증진에 기여하는바 크지만 일단 그 적절성을 상실하면 오히려 체력을 소모하고 저항력을 저하시킨다. 상술한바 군대 및 민간의 결핵발생률의 차이가 불합리한 훈련이 기인함을 생각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가. 과로회피(過勞迴避)

영내 생활이 상시 심신의 긴장을 요구하며 특히 초년병은 수면 시를 제외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할 바 못됨은 주의할 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대 생활에 익숙지 못하고 훈련에 시달리는 신병에 소비 에너지가 많고 근육 피로가 큰바 조교 등이 경이(輕易)한다고 생각되는 훈련에서도 흔히 과로에 빠지는 것이다. 과로가 내장(內臟) 제(諸) 기능의 실조(失調)를 초래하고 저항력을 저하시켜 소모성 질환의 원인이 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35) 원문은 튜버쿨린. tuberculin

36) (물 등이) 펄펄 끓음

군대결핵이 이 과로에 그 근원을 두었다고 지적할 바 한두 가지 아니니 특히 훈련과 휴양의 합리적인 조절을 도모하여야 될 것이다.

나. 점진적(漸進的) 훈련(訓練)

이(易)에서 난(難)에 급(及)함은 일반 통칙인바 특히 심신 노작(勞作)을 수반하는 훈련에서는 가장 경하다는 부동자세, 구보(驅步), 기타의 각개 교련에서도 신병은 극도의 심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 교관은 이에 유의하여 기상(機上)의 예정표에만 구속될 것 없이 점진적인 훈련을 하도록 할 것이다.

라. 피로회복(疲勞恢復)

이는 피로의 축적 방지 및 과로 회피에 유효하다.

ㄱ. 입욕(入浴)

이로서 정신이 진정되고 상쾌감을 느끼는바 그 여행에 노력함은 물론 시설의 완비에 노력하여야 된다.

ㄴ. 수면(睡眠)

제량(諸糧) 기능이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동안 소모된 역원(力源)을 보충하여 피로를 가장 용이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더욱이 그 효과가 깊이와 길이에 관계되니 만큼 취침 중은 안면(安眠) 방해가 될 제 원인을 제거하고 흑한, 성하(盛夏) 시(時)에는 실온 조절, 환기, 공기 오염 등에 유의하여야 된다.

마. 영양보급(營養補給)

이미 말한바 영양 보급이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원을 부여하여 체력 유지(保持)에 불가결한 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다. 신병에는 입대 후 당분간 칼로리가 많은 식사를 줄 것이며 동기(冬期)에는 간유(肝油)를 투여하는 등 최소 신병 기간에는 점진적인 체중 증가가 있어야 한다.

☆ 보호병제(保護兵制)

유래(由來) 약병(弱兵)에 대한 보호제란 입대 시의 일양(一樣)치 못한 체력, 체질, 소양, 능력, 습관, 직업, 빈부 등을 가진 각계각층의 장정에 집단생활을 강요하고 급격히 균일한 군사 훈련을 부하하는 징병제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에서 산출된 필연적인 제도인 것이다.

현재까지 지원제로 되어 있는 아 공군에서도 입대 시 면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日日) 폐결핵환자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실로 장래를 위하여 우려할 바 있으며 보호병제의 실현을 통감하는 바이다. 발병의 동기가 입대 전에 있다면 검사 방법의 불비(不備) 검사관의 부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동(一同)의 검사로서 결핵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력으로서의 불가능한 이상 또 그 발병이 입대 전에 있던 후에 있는 간에 일단 발견된 장병을 하등(何等) 보호함이 없이 무조건 제대시킴으로서 그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나아가 국민이 가진바 군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이라고 손상함이 있다면 이는 건군의 장래를 위하여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므로 보호병제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대한 동례(同例) 신체검사, 건강진단, 객담검사, 체온측정, X선 검사법, 상시 조기 진단에 노력하는 일면(一面), 내무 기타에 있어 그 상관과 연락하여 경(輕) 근무 훈련의 조절, 적극적, 보건법의 실시 등 예방에 최선을 다 함이 이상적인 것이다. (끝)

공군병원특집(空軍病院特集) ②

건병강장(健兵剛將)과 저작(咀嚼)

김규택(金逵澤)

★ 공군중령(空軍中領)



(사진 필자(筆者))

우리가 일상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을 신체 영양분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화기의 힘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화기 중에는 물론 중요한 부분으로서 위와 장(특히 소장)이 틀림없으나 구강 치아도 소화 작용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구강 안 소화를 등한시할 뿐 아니라 구강은 소화 작용에 하등 관계가 없고 단지 음식물을 씹어 식도를 거쳐 위에 내려 보내는 작용밖에는 없는 듯이 인식하기 쉬운 것이다. 장병 체력 향상에 극히 유감천만이다. 보건의 기초가 구강 위생으로부터 기인되어야 할 것이고 구강 위생의 인식을 다시하지 않는 한 보건문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질병은 대부분이 구강으로부터 체내에 침입(浸入)하고 있다. 구강 위생에 시급한 교육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음식물 소화가 안 된다는 소화기병 환자의 대부분이 치아의 질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알고 있으면서도 하등 치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고가 약 처방만 강요하는 예(例)가 허다하니 한심 무쌍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소화라는 것은 구강으로부터 섭취한 음식물 중에 포함된 영양소를 기계적 혹은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소화기 점막, 장 점막으로부터 신체 조직에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식물(食物) 중에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 지방, 함수(含水) 탄소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인체의 영양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식물 중에 단백질, 지방, 함수탄소 등 영양소의 구조는 우리 신체가 요하는 영양소의 구조와 다른 것이 많은 관계이다. 그러므로 식물 중의 영양소는 신체 내에 적합한 영양소로 개조치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소화와 저작(咀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으로서 구강, 치아,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밖에 담즙을 분비하는 간장(肝臟), 췌액(胰液)을 분비하는 췌장(膵臟) 등으로서 우선 구강에 들어간 식물이 치아의 저작 작용으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세세히 분쇄되며 화학적 소화의 전(前) 준비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식물이 구강 안에서 저작되는 동안 한편 타액(唾液)과 혼합되며 타액 중요 성분인 '푸치아린'이란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서 식도를 통해서 위에 넘어가는 것으로 위는 이것을 받아서 위액 즉 염산페프신 등의 효소의 작용으로 일부분 소화시키고 다음 소장에 가서 위에서와 동양(同樣)으로 간장으로부터를 담즙, 췌장으로부터 췌액을 혼합시켜 소화 작용을 계속 시키는 것이다. 이곳 소장에서 소화 작용은 대개 완료되는 것이다.

그 소화된 영양물은 장벽 점막으로부터 흡수되며 우리 신체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다. 이상과 같이 소화기에서 분비하는 액체 타액, 위액, 담즙, 췌액 등을 소화액이라고 하고 이 소화액으로 인하여 식물이 변화되는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한다. 구강에서는 저작 작용 즉 기계적 소화 작용으로 고형함물(固形含物)을 세밀히 분쇄하여 타액과 혼합하는 동안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가용성 물질을 용해시키고 전부 죽 같이 만들어서 식도에 보내서 작용을 계속하게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저작 작용이란 것은 물론 구강 안에 있어서 타액에 의한 화학적 작용을 조력하는 이외에 위장에 있어서 소화액의 침윤(浸潤)을 용이하게 하며 신속히 화학작용을 하는데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학적 소화 작용은 저작이 완전히 된 후에야 비로소 그 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환언하면 충분한 저작이 되어야 위와 장에서 기계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치아가 불완전하든가 그 밖의 타 이유로서 저작이 불충분하면 그것을 소화시키려는 위장에 무리가 되며 동시에 위장이 약해지거나 소화가 불완전한 식물을 그대로 배출해 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다른 동물과 달라서 우리 사람에게 32개의 치아를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작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치아 자체를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보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부(頭部)가 뾰족한 대치(大齒)나, 절단부(切斷部)³⁷⁾가 칼날 같은 절치(切齒)는 식물을 절단기 쉽게 되어 있고 후부(後部)의 소구치(小白齒)는 교합하는 면이 넓어서 구마(臼磨) 운동에 의해서 식물을 분쇄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천여지이기(天與之利器)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습관과 인식을 깨우치 하지 않는 한 우리 장병의 체질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문제는 인체 내에 자기 자신의 완력(腕力)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치아의 교합력이다. 이 저작력을 측정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나 부락크 씨(氏) 연구에 의하면 전치(前齒)에 있어서는 17파운드, 대구치에 있어서는 240파운드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물론 개인 치아 건강 여부, 각인(各人)의 습관, 식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차가 있을 것이다. 저작에 요하는 시간을 논하면 일괄해서 말하기 곤란하나 1만입(萬粒)의 밥을 10분간에 완전히 저작할 수 있다는 학자도 있고 세 공기의 백반(白飯)은 30분을 가져야 충분히 저작할 수 있다는 학자 또 그 반(半)인 15분으로서도 충분하다는 설도 있다. 요(要)는 식물이 타액에 충분히 혼합되며 죽과 같이 될 때까지 저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또는 식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가급적 오래 충분히 저작할 것이다. 저작방법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렛차 씨의 저작법을 소개하겠다.

☆ 푸렛차 씨(氏) 저작법(咀嚼法)

푸렛차라는 사람은 미국인으로서 식물 저작법을 연구해서 푸렛차 씨 저작법이란 것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선전해서 이것이 건강의 복음이라고 고창(高唱)하여 오늘날까지 구강 위생에 적지 않은 충동을 주고 있다. 푸렛차 씨는 의학자도 아닌 1개의 실업가

37) 원문은 切端部로 되어 있으나 절단부(切斷部)의 오타임.

로서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 대단히 불량하여 40세 당시에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생명보험을 거절당하였다. 그 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법을 연구한 결과 텍사스 주에 어떤 노인이 실행하고 있는 건강법을 몰랐던바 그것은 순전히 음식을 잘 씹는 법이었다. 여기에 음식물 저작에 연구를 거듭하여 이것을 실시한바 건강을 회복하고 두뇌가 명석해졌다고 한다. 그것이 『푸렛차 씨 저작법』이었다.

1. 구강 안에 들어간 식물 1괴(塊)라도 충분히 저작해서 타액을 충실히 혼합시켜 자연히 식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씹어야 한다.
 2. 가급적 식욕이 왕성하고 공복감을 느낄 때에만 식사를 취하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식사는 중지해도 무방하다.
 3. 과분한 취식을 삼가야 한다. 소위 대식가가 결코 유리함이 없다. 언제든지 8할 정도의 만족(滿腹)이 상책이다.
 4. 음식선택을 너무 학술적 이론에 치중치 말고 실지 식용에 맞기는 것이 좋다.
 5. 식사 시간 중에는 가급적 유쾌한 기분으로 할 것이며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식사 중에는 염두에 두지 말 것이다. 단지 지금 입속에 음식이 어느 정도로 저작되어 가는가만을 생각하라.
- 전(全) 정신을 총집중시켜서 식사할 것이다. 그러면 타액이 충분히 분비 혼합될 뿐 아니라 위액의 분비도 왕성할 것이다.
6. 가급적 수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편이 양호하다. 액체가 많으면 충분히 저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액 혼합이 불완전하다.

이와 같이 푸렛차 씨 저작법을 참고로 하여 항상 음식 중에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를 전부 흡수할 것을 노력한다면 그리고 구강 위생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한다면 건병강장이 무난할 것이다.

(필자(筆者) 공군병원부원장(空軍病院副院長))

★ (125면(面)에서 이음)

루우바드 다아리를 비롯한 현대의 지적 왕자(王者)들의 투쟁 풍습은 피카소의 범후머니즘의 관용을 바웃으면서 현대시(現代詩)의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앵글로 색슨이 미웠던 나치스 독일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소형의 렌즈에 투광된 살인(殺人)광선의 확대로서 영경(英京) 런던을 일순(一瞬)에 휴지처럼 소각해 버릴 수 있는가 하고 도오바 해협에서 측량 연구에 몰두했다는 악지(惡知)를 우리가 전멸할 수 있는 지혜의 레이더 장치, 그것이야말로 그 시대 그 민족이 갖는 단순한 서정(抒情)의 단층(斷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에 살고 있는 사루바야드 다아리의 CANNIBALISM³⁸⁾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험 삼아 제군(諸君)들은 제군들의 두뇌에 침식해 오는 메커니즘의 인해전술을 이 카니발리즘의 현재적 양식으로 방어해보라. 그래서 다아리는 예언한다. 메커니즘에 핀 장미(薔薇)들의 시절(時節)을. (끝)

38) 원문은 carnivalism으로 되어 있으나 cannibalism의 오타임.

좌담회(座談會)

공군(空軍)의 발전(發展)과 공군병원(空軍病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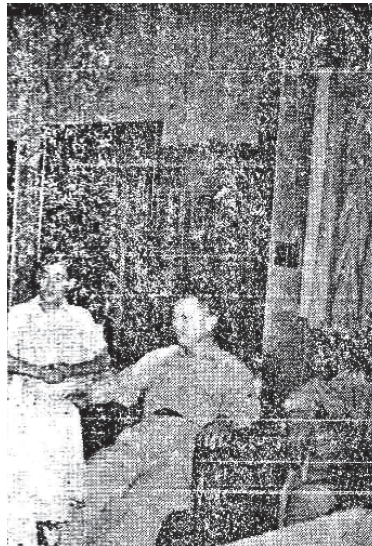
때 4286년 8월 12일

곳 마산(馬山) 공군병원(空軍病院) 원장실(院長室)

사회(司會) 이한직(李漢稷)

창공구락부(蒼空俱樂部) 특파원(特派員)

사회: 이 좌담회는 한국공군 발전의 일익(一翼)을 담당하시고 각기 전문 분야에서 일상 피어린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군의관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이 방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병원의 실정과 요청을 「코메트」지(誌) 지면(紙面)을 통하여 관계 요로(要路)에 전달함으로써 병원 발전의 일조(一助)가 되어보자는 뜻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탄(忌憚) 없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부원장께서 본 병원의 연혁을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김달택(金達澤) 중령: 공군이 아직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즉 육군항공

대로서 행세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의무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본 병원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겠지요. 발족한 것은 4282년 6월이었는데 현 의무감 장덕승 대령께서 대장이 되셨는데 군의관은 통틀어 네 사람뿐이었습니다. 군의관 30명으로도 일이 바쁜 병원의 현세(現勢)에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습니다.

사회: 당시 대(隊)는 어디 있었습니까?

김달택 중령: 김포(金浦)입니다. 그 후 병원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4283년 2월이었는데 초대 원장에는 현재 군수국장(軍需局長)으로 계신 박건원(朴健源) 대령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을 당하여 9.28 수복 후에는 일시 충무로(忠武路)에 있던 송죽원(松竹園) 자리에 개원하였었고 재차 후퇴에는 잠시 동래(東萊)에

있다가 마산으로 옮겨온 것인데 현 병원 장 박병래(朴秉來) 대령이 취임하신 것은 4286년 2월이었습니다.

사회: 본 병원과 항공과학연구소나 요양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병래 대령: 편제상 연구소, 요양소, 교육대 등이 모두 본 병원의 예하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군의관은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병래 대령: 군의관은 현재 30명으로 환자 수에 비추어 보면 다른 군 관계 병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본 병원의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사회: 아까 원내(院內)를 한 번 돌아보았는데 내과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환자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동원(李東源) 소령: 본 병원의 최대 수용 능력은 약 200명인데 현재 병원 환자 수는 100명으로서 그 80퍼센트가 내과 환자로 또 그 대부분이 결핵환자들입니다.

사회: 외과 환자가 총수의 20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것도 거개가 일반 외과의 환자인 모양인데 전상(戰傷)환자의 수가 이처럼 적다는 것은 군 병원을 찾아 온 외부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이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박진영(朴鎭泳) 중령: 그러한 의문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전사(戰死)나 무사 귀환이나 하는 공중 전투이고 보면 전상이란 것이 극히 드물밖에 없습니다.

사회: 결핵환자가 많은데 공군에는 특히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나요?

박병래 대령: 타군에 비하여 특히 고율(高率)인 것도 아니고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군에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요양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김달택 중령: 조기 발견이 요양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완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각 단대(團隊)의 대장이 위생에 많은 관심을 두고 항시 부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래 대령: 결핵의 조기 발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방이라는데 주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본 병원 내에서는 「건강 메모」라는 제호(題呼) 아래 위생 상식



보급을 위한 푸린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면 의무감에도 상신하여 전군에 보급시켜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회: 결핵은 비교적 장기에 금(金)한 요양이 필요한 병이라 생각되는데 병원에서는 무기한하고 환자를 수용해 둘니까?

이동원 소령: 본인의 근무 연한에 따라 층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치 못한 환자를 그대로 퇴원시킨 일은 없습니다.

김달택 중령: 장기에 금한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 후에도 재복무가 곤란할 정도의 환자는 제대심사위원회에 걸어 심사를 마친 다음 제대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병(依病) 제대자의 비율은 환자 총수의 약 3퍼센트 가량입니다.

사회: 제대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동원 소령: 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각부 소장님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또는 강간(巷間) 소문으로는 소위 사바사바 제대라고 하여 병도 없는 사람이 입원을 한 다음 제대 운동을 하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달택 중령: 본 병원에서는 절대로 있을 없는 일입니다. 병원장님이 손수 진단하시고 또 어떠한 배경 있는 환자라도 원장 방침으로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회: 환자 개중(個中)에는 근무를 꺼려 사병(詐病)하고 입원하는 자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영 중령: 있어도 그런 사람은 끝내 발견되고야 맙니다.

사회: 두서가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만 병원 운영에 있어서의 원장님의 방침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래 대령: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치료부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행정장교가 장관(掌管)하던 식사관(食事官)이나 병실관(病室官)의 업무를 내가 취임한 후로는 일체 군의관이 맡아 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가 치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장관하는 것이 더욱더 능률적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취하고 있는 영양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달택 중령: 환자는 소화 능력이 비교적 약기 때문에 부식에서 주로 그 필요 열량이 높은 부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현재 환자들의 부식비는 매인당 얼마로 되어 있지요?

박병래 대령: 일반 수준의 2배로서 현재 매인당 4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만 실지에 있어서는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부식비 문제는 부원장 김(金) 중령이 진두에 서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는데 행정적 면에 있어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김달택 중령: 국가 예산을 쓰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구속은 받고 있습니다만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갖은 방법을 다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면 같은 돈으로도 더 좋은 부식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선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조리 방법 개선책으로 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 유지(有志)들의 봉사로 지도도 받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소유의 채전(菜田)에서 병원 수요량을 충당시킬만한 소채(蔬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중령: 부원장께서 고심하고 계십니다만 욕심으로는 장기 환자에게는 좀 더 좋은 부식을 주었으면 합니다.

김달택 중령: 물론 향상에 여지는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 그러한 상태이니 이렇다 할 간식도 주기 힘들시겠군요.

김달택 중령: 네 여의치는 못합니다만 간혹 과실(果實)이라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 항공의학연구소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인규(金仁圭) 중령: 연구소가 정식으로 실무를 개시한 것은 작년 즉 4285년 6월이었습니다. 공군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여야 할 기관입니다만 발족한 지 일천(日淺)하여 기재 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 소장은 서순규(徐舜圭) 소령이고 제가 취임한 것은 금년 2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의학의 당면 과제는 선진국가의 연구 결과를 한국 사람들 체위(體位)나 체력에 적응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종사의 적성 검사 표준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 연구소의 멤버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인규 중령: 티오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1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의학 각과 심리학 기타 항공의학의 관계를 가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구소의 기관지로서 항공의학이라는 잡지를 두 호(號)째 간행하였습니다. 발족 이래 지난 2월에는 마산에서 5월은 대구(大邱)에서 각각 연구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원 중에는 각 대학에서 강의를 받고 계신 분도 있어서 이번 하 기휴가를 이용하여 강릉 전투비행단으로 현지 연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오는 9월에 사천(泗川)에서 발표한 예정입니다.

사회: 현재 연구 시설은 어떤 정도입니까?

이인규 중령: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점점 정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기압실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 다음엔 이종호(李鍾濤)께서 요양소의 현황을 들려주실까요?

이종호 소령: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산은 결핵 요양지로서 입지 조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즉 공기가 맑고 기후가 온화하고 풍토가 수려합니다. 결핵요양에는 새삼스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안정요법과 대기(大氣)요법과 식이요법의 세 가지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마산은 이 중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만한 곳입니다. 본 요양소도 작년 5월에 발족했는데 병원은 몰라도 요양소만

은 이 마산에서 떠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시설로써 만들어야 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매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증축 중의 건물도 요양소 건물로서는 적당치 못한 설계여서 이것도 시정하느라고 많은 고심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상부에 서 좀 더 요양소의 실정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사회: 신축 구득(求得) 같은 점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이종호 소령: 아직은 제5공군에서 제반 보급의 편의를 보아주어 비교적 아쉽지 않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점으로는 본 요양소의 환자들은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최용국(崔龍國) 대위께서 의무교육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용국 대위: 의무교육대는 위생 하사관 약성을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인데 창립한 것은 작년 8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 1년간에 7기 35명의 위생 하사관을 양성했습니다. 매기(每期)의 교육 기간은 2개 월이었는데 현재는 각 대에 배속했던 위생 하사관들을 재소집하여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피교육자들의 교육 수준은 대강 어떤 정도이지요?

최용국 대위: 중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사회: 부대 운영상의 애로가 있으면 말씀 해보십시오.

최용국 대위: 환자가 아니니까 부식 같은 것에는 별 주문이 없습니다만 교육 시설이나 완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사회: 본 병원에는 부인(婦人) 간호원(看護員)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달택 중령: 현재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20명입니다.

사회: 그러시면 더 모집하시지요.

김달택 중령: 그것이 대우 문제 때문에 여의치 못합니다. 공군에서는 이들 부인 간호원들에게 현역 계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문관으로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는 유(有)자격 간호원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상부에서 좀 실정을 살펴 아시고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 이분들의 근무 성적은 어떻습니까?

김달택 중령: 대단히 우수합니다.

사회: 거개가 미혼여성이라고 들었는데 환자들과의 풍기(風紀)상 문제는 없습니까?

박병래 대령: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용국 대위: 오히려 이런 미담이 있습니다. 지난 번 6.25 기념식에 우수 간호원으로 서 감점숙(甘點淑)이라는 간호원이 표창을 당하였는데 이 분은 상급으로 받은 돈을 다 들여 달걀을 사서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회: 그것 참 기특한 일로군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기합(氣合)을 주는 풍습은 병원에는 없습니까?

이종호 소령: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병원군기가 확립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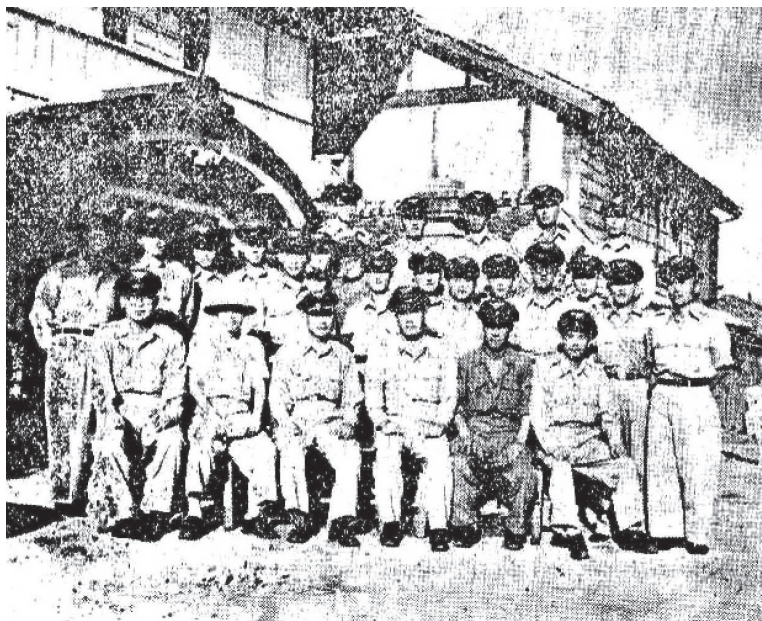
(사진 공군병원의 간호부들)

이 전연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소에 입원 중이던 장교 하나가 계급이 알은 군의관에게 기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저는 그 장교의 원(原)대장에게도 통고하고 사고(事故) 퇴원시키겠다고 심히 꾸짖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사과로서 일은 낙착(落着)하였으나 이런 일은 환자가 잘 자각을 차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니까 계급은 물론 존중하여야 하겠지만 당사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의관이니 조금 다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결국 환자들 각자의 양식(良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소위 기합이란 군 통솔상 필요한 악(惡)이라고들 젊은 장교들이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결국에 있어서 사적제대(私的制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겠습니까. 하물며 병원에서 그것도 환자가 군의관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인간 교육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병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김달택 중령: 글쎄요. 본 병원의 특색이라고 하면 병원장께서 솔선 진두에 나서서 일을 보신다는 점일 것입니다. 원장님은 병원 전체의 통솔뿐 아니라 매주일 1 회씩은 반드시 손수 원내 총 회진(回診)을 하시며 요양소에도 특진(特診)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병원의 가족적인 분위기도 특색의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사회: 여러 가지로 참고 되는 말씀을 많이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실정이 상부 당국자들의 눈에도 띄어서 그분



(사진 공군병원의 의무관 일동)

들의 병원에 대한 인식이 보다 넓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병원 운영에 많은 편의가 제래(齊來)되게 된다면 좌담회 사회자로서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에 건투를 빌면서 이 좌담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142면(面)에서 이음)

표시선(오전, 오후의 시각 및 군용의 24시제(時制) 시각의 쌍방이 표시되어 있다)에 의하여 임의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의 비교 시간을 알 수가 있다.

누구든지 보통의 제도기구(製圖器具), 예를 들면 나침반(羅針盤) 지침면(指針面) 테레카아브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 대권(大圈) 루트 위의 어느 지점에서든 나침반 위의 똑바른 방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루트 극(極)으로부터 대극(對極)까지의 대권의 전 거리는 테레카아브 지도 위에 몇 개나 되는 루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하여도 모두가 약 12,430 스타츄유트 마일(5,028피트를 1마일로 한다)이다. 이들의 루트는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실제 '이동하는 자오선(子午線)'이며 따라서 그 어느 것이나 모두 등거리인 것이다.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지(紙)에서)

항공의학(航空醫學)

그 발달(發達)의 소사(小史)



서순규(徐舜圭)

★ 서언(序言)

항공의학 발전사는 항공기 발전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와 항공의학 발전의 큰 계기(契機)가 되었다. 제2차 대전 중과 그 후의 항공의학의 발전은 항공기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찬란한 바 있으나 각국에서 그 부(部)를 일일이 발표하지 않은 관계도 있고 또 최근의 발전을 전망할 수 문헌도 입수하기 곤란하므로 최근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시작까지의 발전 과정으로서 항공의학의 발전 경로와 그 의의는 대체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이하 제2차 대전 초까지의 항공의학 발전 과정을 개관(概觀)하고자 한다.

★ 항공의학(航空醫學)의 기원(起源)

항공의학적 연구는 항공기가 발명되기 전부터 생체에 관한 환경위생학적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즉 비행기가 발명되기 약 12년 전인 1783년에 Montgolfier³⁹⁾ 씨(氏)가 연기(煙氣)를 충만 시킨 기구(氣球)를 이용하여 닭, 오리, 염소, 각각 한 필을 공중에 상승시킨 후 그 동물에 관하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한 것이 항공의학적 연구의 시초였다. 이 동물실험에서 하등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동년(同年)에 인체실험계획이 되어서 프랑스의 젊은 귀족 Pilatre De Rozier 씨가 자원하여 기구(氣球)를 타고 공중에 상승하여 최초의 인체실험이라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고 2개월 후에 재차 상승실험을 하여 이통(耳痛)이 심하였던 것이 보고되어 비행으로 발생된 유해 작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가 되었다. 1785년 미국의 의사 John Jeffreys 씨는 기구로써 도버 해협을 횡단하였고 항공의학적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으나 항공의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62년 Glaisher와 Coxwel 양(兩)씨는 기구를 타고 약 29,000피트(8,839미터)까지 상승하여 시력과 청각이 소실되고 사지가 마미 상태에 빠지고 Glaisher 씨는 의식이 소실하는 등의 제(諸) 인체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록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프랑스의 유명한 생리학자 Paul Bert 씨의 문하(門下) Tissandier, Corce, Sevel 3씨는 기구를 타고 상승실험을 하여 상승 고도와 인체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 발표하였고 이 실험 중 Corce, Sever 양씨는 상승 시에 고공에서 사망하여 항공의학 건설에 귀중한 희생이 되었다. Paul Bert 씨는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연구를 추진시키고 1785년에 「La Pression Barometrique」를 출판하여 그 연구 성적을 발표하였고 상승에 의한 인체의 영향이 대기압의 증감 및 특별 산소(酸素) 분압(分壓)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39) 원문에는 Montgolifier로 되어 있으나 Montgolfier의 오타임.

것을 명시하고 또 저압 상태의 호흡과 혈액 중 Gas 문제에 관하여 제 연구를 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리하여 계통적이며 조직적인 항공의학적 연구는 Paul Bert 씨에 의하여 전개되어 Paul Bert 씨는 항공의학 건설의 시조라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Flight Surgeon의 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씨의 우수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세인(世人)은 항공의학적 문제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방면에 대하여서 점차 망각되어 가고 말았다.

★ 제1차(第一次) 세계대전(世界大戰)까지의 항공의학(航空醫學)

Paul Bert 씨의 업적 후 1910년까지는 1903년에 비행기가 발명되었으나 추상적인 연구 업적이 산발적으로 있었을 뿐이고 별 진전을 없었다. 1910년에 이르러 Curchet와 Mmoulinder 양씨는 조종사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Air Sickness」라는 제목으로써 항공의학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을 출판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었고 동년 초에 독일 육군은 조종사 선택에 관한 문제에 착안하여 세심히 조직적으로 연구하여 공군 근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최초 표준을 작성하였다. 1913년에 Ernest Koschell 씨는 그 적성검사 규정을 개정하고 광범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고 1915년에 독일 국내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조종사의 의학적 관리업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독일은 세계 각국에 앞서서 조종사의 항공의학적 취급 문제에 착안 추진함으로써 제1차 대전에서 탁월한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12년에 조종사 선택에 관한 문제에 착안하였으나 1915년까지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1908년에 비행사고가 발생하여 1912년에 조종사 신체검사 규정을 발표한 바 있었으나 활발한 진전은 별로 없었고 미국은 전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제1차 대전 초에는 전선(前線) 근무가 불능한 자를 공중근무에 배치하는 상태였다. 이리하여 Tissandier의 실험 전후 때에는 공중상승에 의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학적 관심사였으나 비행기 발명으로 인하여 의학자는 점차 조종사 선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제1차(第一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중(中)의 항공의학(航空醫學)

1차 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에는 각국에서 항공기가 우수한 무기인 것을 인식하고 항공기는 급속도로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항공의학 발전이 자연히 요구되었다. 세밀한 항공의학적 검토를 받은 독일 조종사들의 우수성에 반하여 영국의 조종사는 그 50퍼센트가 훈련 중에 신경쇠약 상태에 빠져 입원하게 되고 비행기 사고의 90퍼센트가 조종사 자체가 비행에 부적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참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당황한 영국은 조종사 항공의학적 검토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항공의학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조종사 적성검사에 관하여 예의(銳意) 연구하고 그 이듬해에는 부적합성으로 인한 조종사 사망률이 9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소되고 2년 후에는 12퍼센트로 감소하는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1916년에서 1917년에는 각국에서 우수한 조종사 선택을 위하여 적성검사 방법을 연구 발전시켰으며 심리학적 검사 방법을 신(新) 방법으로서 도입하였고 한편 항공기의 발달로 비행 상승 고도가 높아져서 산소 부족

증과 산소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항공의학 연구가 늦게 시작된 영국에서는 1916년에 Ralph Green 대령이 군의관으로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조종하였고 1917년에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항공 의학을 연구시키고 동년 T C Lyester 소령과 W M H Wilmer 씨는 유럽 제국(諸國)의 경험을 참작하여 미 육군 조종사의 적성검사 규정을 개량하였고, 동년 미국이 대전에 참전하자 Lyster L H Gones 씨에 의하여 적성검사 규정은 재개정 일신되었다. 1918년에는 미국에서 Flight Surgeon(비행군의관)이라는 어(語)를 새로 제정하였고 Hazelhurst에 항공의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산소 부족증, 고공 내성 시험, 평균 감각, 지남력(指南力), 반응 시간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연구하고 단시일에 그 성과는 자못 컸으며 항공의학 발전에 공헌한바 지대한 것이었다. 1919년에는 미국 Mitchell Field에 School For Flight Surgeons가 설립되어 비행군의관의 교육 훈련을 개시하고 항공의학 전문의학자 양성의 기관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학교는 1922년에 School Aviation Medicine이라고 개칭되었고 1931년 Brookfields로 1956년에 Randolphtild Texas에 이동되었다.

이로서 미국은 항공의학의 발족이 비교적 유럽보다 늦었으나 1차 대전을 계기로 획기적인 진전을 보았으며 미국의 Anderson, Birely, Pouglass, Dreyer, Falck, Haldane, Pridestly, 이탈리아의 Agogzzati, Gladenil, Heizitzka, 프랑스의 Beyne, Camus, Cruchet, Garsanx, Nepper, Maublan, Movlimer, Ratie, 독일의 Anders, Kostchell, Krontfield, Von Schrotter, Selz, Sterz, Stern Zzde의 제씨(諸氏)는 이 시대 항공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학자들이다.

★ 1차(一次) 대전(大戰) 후(後)의 항공의학(航空醫學)

1918년에서 1920년간은 항공의학에 관한 연구는 아주 활발하였고 1920년에 Maublan과 Raties 씨는 「Medical Examination of Airmen」을 출판하여 이 당시에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52년까지는 항공의학에 그다지 큰 발전은 없었다. 1926년에 와서 미국의 David A Mayer 소령은 맹목 비행에 관한 생리적 문제를 연구하여 현재 맹목 비행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확립시켰고 동년에 Braver 씨는 「Aviation Medicine」을 출판하고 이 책이 항공의학 전반을 취급한 최초의 단행본이었다.

1929년 미국에 「Association of Flight Surgeon」이 창립되었고 1930년에는 「The Journal of Aviation Medicine」이 창간되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어서 1932년에 「Review of Aviation」이, 1936년에 「Lufttarmedizin」이 발간되었다.

1933년 초부터는 각국의 항공의학 연구소가 다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까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소련, 헝가리, 폴란드, 일본, 알제틴 등 각국에서 항공의학연구소를 창설 혹은 확장하여 항공의학 연구에 대한 태세를 완비하였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1933년 Grow 중령이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비행 속도, 상승 고도, 항공기의 기동력, 중량, 기형(機型) 등의 변동에 따라서 군 조종사에 미치는 생

리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항공기 제작에 생리학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항공기 설계와 항공의학의 제후 및 여기에 필요한 연구기관 창립에 노력하여 1935년에 Wright 비행장에 Grow, Armstrong 양씨 지휘 하에 항공의학연구소가 설치되었고 1937년에 그 운영이 시작되었다.

그 연구 결과로써 조종사의 개인 장구 제작과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에 항공의학적 검토를 하게 되고 안전비행과 공중 전투에 다대(多大)한 성과를 올려 비행과 항공의 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군 항공의학발전에 따라 민간항공에서도 점차 항공의학적 검토가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1926년에 탑승원의 신체검사 규정이 제정되고 1937년에는 항공기에 산소 공급 장치를 비치하게 되고 1940년에는 여압기밀실(與壓氣密室)을 장비한 항공기까지 출현하였다.

★ 결어(結語)

이상 개관(概觀)한 바와 같이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시작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항공기의 진보에 따라서 항공의학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항공의학 연구기관 및 항공의학 전문학자 양성기관을 완비하고 그 항공의학의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그 성과로써 비행의 유해 작용 제거 및 예방에 대한 기본 태세를 갖추었다. 2차 대전을 지난 오늘날 항공기종은 제트기로 변하고 공중 전투는 조종사에 가일층의 무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의학의 문제는 아직 산적되어 있고 세계 각국은 시간을 다투어 항공의학 연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항공 의학을 떠나서 항공과 공중 전투는 있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필자(筆者) 항공의학연구소원(航空醫學研究所員))

☆ (154면(面)에서 이음)

렸다. 거울에 상희의 얼굴과 철수의 얼굴이 나란히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순간의 일이었다. 거울은 산산이 깨어졌다. 경식은 가만히 깨어진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흥분한 김에 거울을 던지기는 던졌으나 그것이 바로 5년 전 영화가 경식에게 선사한 거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미쳤나?” 경식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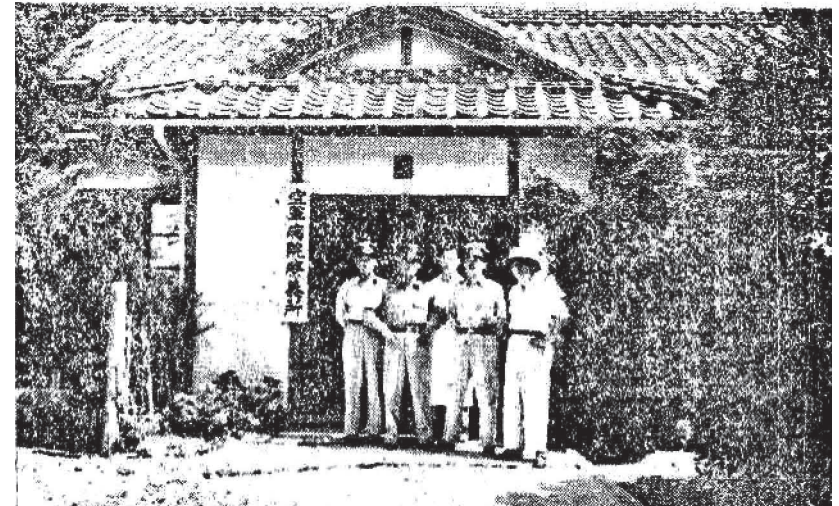
거울조각을 책상 위에 모아왔으나 제대로 맞을 리가 없었다. 없어진 조각이 많았다. 얼굴이 여러 개로 보였다.

경식은 깨어진 거울 중에 제일 큰 조각을 들어 자기 얼굴을 비쳐 보았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안색은 무서울 만치 창백했다.

“영화” 경식은 옛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진 거울 위에 엮드려져 흐느꼈다. 울음은 한참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

(1956⁴⁰⁾. 3. 15)

40) 원문은 1986년으로 되어 있으나 1956년의 오기로 보여 수정함.



공군병원특집(空軍病院特集) ⑤

르포루다쥬☆

공군병원(空軍病院)을 찾아서

이한직(李漢稷)

☆ 항공구락부원(航空俱樂部員)

공군병원은 진작부터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던 곳이다. 특집(特輯)자료 수집차 왕방(往訪)해 주지 못하겠느냐는 정훈감실의 청을 언하(言下) 승낙했다. 예하의 다른 어느 단대(團隊)에도 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곳이면서도 일의 성질상 그 공이 세상에 뚜렷이 알려지지 못하는 기관이 바로 이 병원이라 할 수 있다.

부산(釜山)에서 다른 소관(所關)을 마치느라고 예정했던 아침 버스를 놓쳐 마산(馬山)에 가닿은 것은 긴 여름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무렵이었다.

공군병원은 신(新) 마산 한 복판에 놓여 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전에는 여관 영업을 하던 건물이라는 것이 목조 3층으로 된 그 건축양식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위문(衛門) 보초에게 내의(來意)를 전했더니 친절환 응대로 일직 장교에게 연락해 주었다. 위병의 거조(擧措) 태도는 곧 그 부대의 군기의 거울이다. 영내에 첫 걸음을 들여 놓으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과업(課業)이 끝나고 모든 장교들이 퇴영(退營)한 뒤였으나 영내는 구석구석 알뜰히 청소되어 있으며 정숙한 가운데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간취할 수 있었다. 미리 연락해 놓은 방문이 아니나 남에게 보이려고 특별히 정돈해 놓은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본부 정훈감실에서 써준 소개장을 내놓고 정훈감 김(金) 대위를 찾았으나 공교롭게 길이 어긋나 정훈관은 대구(大邱)로 출장을 떠나고 없다는 대답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시찰은 어차피 내일 일이니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살까 하는 생각이 앞섰는데 중학교 선배 한 분이 결핵요양소장으로 있다는 것이 문득 가슴에 떠올랐다. 전화로 연락을 해 보니 과업 후인데도 이종호(李鍾濤) 소령은 다행히 퇴근 전 이어서 곧 차를 보내주었다. 이(李) 소령 이야기로는 원장 박병래(朴秉來) 대령 덕도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이었으나 예고 없는 방문이 혹시 폐나 되지 않을까 하여 이튿날 아침 병원으로 찾아가기로 하고, 그날은 그냥 이(李) 소령 댁에서 묵었는데 이튿날 아침 식전에 뜻밖에도 원장께서 찾아 오셨다.

원장은 착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드리시고 돌아오시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모시 바지저고리에 성경을 드신 차림은 촌부자(村夫子) 그대로였으나 관후(寬厚)한 가운데 위엄이 있고 자상한 성품이 유로(流露)하는 모습이었다. 뽕기는 처음이었으나 우리나라 도규계(刀圭界) 특히 호흡기 내과에서는 대선달(大先達)이신 박(朴) 박사의 성명(聲名)은 일찍부터 듣고 있었던 터이며 공도(公道)의 지인도 몇 사람 화제에 올라 조금도 서툴지 않은 인사를 여쭙 수가 있었다.

마중 온 지프차에 박(朴) 대령, 이(李) 소령과 동승하여 병원으로 향하였다. 깨끗이 정소된 낭하(廊下)를 지나 우선 원장실로 안내되었다. '충성, 신의, 지덕(智德)'이라고 벽면에 써 붙인 통솔 방침은 그다지 눈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현 원장 박병래 대령이 취임하신 후부터는 병원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식사관(食事官), 병실관(病室官) 등 행정을 관장하는 장교도 일체 군의관으로 대치하였다는 것을 보면 병원이 지금은 완전히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 부소장 회동이 있는 날이라 회의에 참석하려고 모인 병원 간부들에게 원장님 소개로 일일이 인사를 하였다. 이 병원은 진찰부, 행정부, 요양부, 항공의학연구소, 의무교육대 등 5부소(部所)로써 구성되어 있다.

대원과 환자들의 어머니로써 병원의 모든 안살림을 맡아 보고 있는 부원장은 김달택(金達澤) 중령이라고 원래는 치과를 전공한 분이라 한다. 진료부장은 세균학 전공인 박진영(朴鎭榮) 중령, 행정부장은 이동원(李東源) 중령, 요양소장은 이종호(李鍾濤) 소령, 항공의학연구소장은 이인규(李仁圭) 중령, 의무교육대장은 최용국(崔龍國) 대위, 모두 군복만 벗으면 사계(斯界)의 우수한 교수감들이다. 부원장실에서 시찰 일정을 타합(打合)하고 난 다음 몸소 안내해 주시겠다는 원장님의 뒤를 따라 원내를 일순(一巡)했다.

일본식 건물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나 이와 같은 종합병원으로 살기에는 적당치 않은 감이 들었다. 침대를 놓아야 할 병실로는 방들이 모두 좁고 변소 수도 부족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습시다만 학교를 접수하여 아동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는 것이 공군의 방침이니까요." 원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규모는 작으나마 모든 시설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다. 약제실에서는 각 대에서 모인 위생 하사관들이 실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치과도 있고 광선과(光線科)도 있다.



(사진 원장 박병래(朴秉來) 대령)

현재 수용 중의 환자는 110명이며 그중 20퍼센트가 외과 환자로 나머지가 내과 환자인데 이 내과 환자의 대부분이 결핵환자라는데 놀랐다. 외부에서 처음 찾아온 사람이 하나 기이하게 느끼는 것은 군병원이면서 외과 환자 특히 전상(戰傷) 환자(患者)⁴¹⁾이 의외에도 적다는 점일 것이다.

"공중 전투란 시체 수색도 전사(戰死)가 아니면 무사 귀투(歸投) 중 양단간(間)의 하나이니까요."하는 설명을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럴법하다. 언제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공중군무자들의 일상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찡른다.

"환자들 중 조종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극히 적습니다. 총수의 약 4퍼센트쯤 될까요."

원대(原隊)에서 입실이 15일 이상 되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후보생은 반년 입원해서 치료치 못하면 퇴교(退校) 처분을 당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환자는 1년까지는 입원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원장을 장으로 하는 제대심사위원회가 정

기적으로 소집되어 이 회의에서 제대자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의병(依病) 제대자 수는 총 환자수의 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때로는 제대를 목적으로 사병(詐病)하는 환자도 더러 있겠지요?"

"네. 때로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 군의관들이 넘어가나요."

"한 번은 양기(癡紀)한 환자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학적 검사를 거쳐 거짓이라는게 탄로가 나서 기합(氣合)을 단단히 받았습시다. 이 환자는 그 후 갱생을 맹세하고 원대에 복귀하여 지금은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병이라면 일종의 병이겠지요"

현 원장은 병원의 통솔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몸소 총회진(總回診)을 한다고 하며 요양소에도 특진(特診)을 나간다는 것이다.

의료 자재는 현재 제5공군의 보급을 받고 있어 부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부식비는 일반 환자가 40원(일반 단체의 2배)이며 조종사 환자는 원대에서 조종사 부식비를 보내오는데 이 부식 향상 문제는 원장의 통솔 방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써 부원장이 항상 진두에 서서 여러 가지로 그 방법을 연구 실시 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병원에는 환자 전원의 수요를 충당할만한 채전(菜田)이 있으며 부식 조리에도 있어서도 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 회원을 매주 5명씩 초빙하여 조리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41) 원문에는 환중(患中)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환자(患者)의 오기로 보임.

각 병실에는 라디오 스피커가 비치되어 있어 레코드 음악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데 오락기구 또는 이 이외에 영화, 바둑, 장기 등이 있고 도보 환자에게는 때로 인차(引車) 외출을 허가하고 있다.

낭하(廊下)를 간호원들이 이리저리로 바쁘게 거닐고 있었다. 현재 이 병원에는 7명의 간호원이 근무 중인데 모두 유(有)자격 간호원이며 근무 성적은 대단히 우수하여 6.25 기념식에는 표창당한 간호원도 있다고 한다.

“이 간호원들이 매일 한명씩 일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약 20명 정도의 유자격 간호원이 필요한데 현재 대우 문제로 말미암아 그 채용이 여의치 못합니다.”

부원장 김(金) 중령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공군에서는 타군과 같이 간호원들에게 현역 계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문관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우로서는 도저히 우수한 간호원의 필요 수를 확보하지 못할 현상이라고 한다.

항공의학연구소는 현재 본원 건물 내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무가 개시된 것은 작년 9월이라 한다. 현재 12명의 각 학계 엑스퍼트⁴²⁾들이 각종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마산에서 5월에는 대구에서 각각 연구 발표회가 있었으며, 오는 9월에는 사천(泗川)에서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리라 한다. 연구소에서는 46판(板)으로 「항공의학」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호가 간행되었다고 한다. 아직 기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실험을 위한 저기압실 건조(建造)도 계획 중이라 한다.

좌담회 참석자가 모일 동안 이종호 소령과 최용국 대위의 안내로 의무교육대와 결핵요양소를 돌아보기 위하여 본원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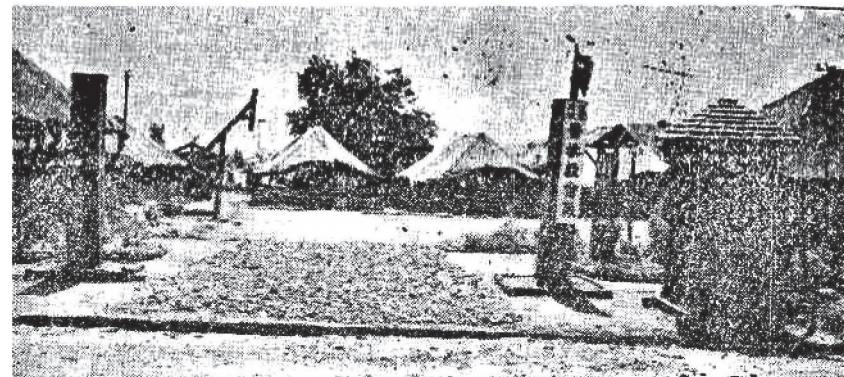
의무교육대는 본원으로부터 불과 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지(空地)에다 막포(幕包) 9개를 지어놓고 교육 자재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이 빈약한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육대에서는 7회에 걸쳐 350명의 위생 하사관을 양성 졸업시켰다고 하며 현재는 각 대에서 재소집한 위생 하사관들의 실무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한다. 빈약한 재정과 여러 가지 애로와 싸우며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장 최용국 대위는 경영상의 고충을 이와 같이 호소한다.

“비가 새는 천막도 천막이지만 교육에 불가결한 자재의 구득난(求得難)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비근(卑近)한 예로 저기 있는 인체 모델 하나를 구입하는데 몇 달이 걸려 졸업생의 반수는 배워야 할 것도 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였습니다.”

마산은 제종(諸種)의 입지 조건이 폐결핵 요양지로서 적합하니 국립요양소를 비롯한 각 군의 결핵요양소도 규모는 작으나마 공기 맑은 언덕 위에 별장 건물을 한 채 연어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다.

요양소는 병원과 달라 앞으로 마산에서 떠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군의



항구적인 시설로써 현재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락실 1동은 가까운 장래에 준공을 보리라 한다. 이곳 역시 일본식 건물이라 요양소로 쓰기에는 좀 좁은 감이 있으나 현재 입원 중에 있는 환자는 그런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환자 가운데에는 조종사도 두 명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1년 나마의 요양 생활을 겪은 다음 오래지 않아 치료 퇴원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원장 이종호 소령의 설명에 의하면 발명된 모든 요법과 신안(新案)을 골고루 써 볼 수 있어 이 요양소에 수용되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어느 요양소의 환자보다 행복하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읽을 서책(書冊)과 위문단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었다. 장기간의 지루한 요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니 이러한 청도 무리가 아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이 모였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요양소를 떠나 다시 본원으로 향하였다.

본원에 돌아가 보니 마침 시회의원(市會議員)들이 위문차 찾아와 원장실에서 환담(歡談)하고 있었다.

시회의원들이 돌아간 후 우선 병원 간부들과 좌담을 하였다. 모인 분들이 모두 진지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말해 주어 고마웠다.

건강하지 못한 병정 그리고 병들고 부상한 병정들을 옹케 고쳐주지 못하는 군대를 한 번 생각해 볼 때 군의 병원이 가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낄 수 있었다.

공군은 두루 째잘한 사람들만 모아 놓았다는 게 항간(巷間)에 도는 소문인데 이것은 공군병원에서는 그런대로 들어맞는 말이라 느꼈다. 군인이면서도 너그러운 융통성과 지성이 엿보이고 그러면서도 추상(秋霜)과 같이 엄한 군기가 지켜지고 있는 곳이다.

공군병원이여 공군을 위해서 감사하다 하며 마산을 떠났다. (끝)

소설(小說) 동침(童妾) 방기환(方基煥)

42) 원문에는 ‘엑스파아트’로 되어 있으나 ‘엑스퍼트’임. experts

항공의학(航空醫學) 소고(小考)



박소회(朴昭會)

항공의학이란 것은, 항공의 의학적 모든 문제를 취급하는 의학의 특수 분야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항공의학은 비행에 관련된 생물학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임상의학, 기초의학 및 그 밖에 과학 전반의 원칙을 통합 응용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를 말하는 것이다. 이 항공의학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 발전의 역사를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 항공의학(航空醫學) 발전(發展) 소사(小史)

원래 항공의학에 대하여 큰 추진력을 준 것은 제1차 대전 중이었으며 그 후 40년간에 항공의학은 한 확고한 조직된 학문으로서의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산악지대 여행으로부터 얻은 지식, 기구 상승으로부터 얻은 지식, 그 밖에 순 과학적 연구로부터 얻은 수조(數條)의 지식이 있기는 하였다.

고산생리학(高山生理學)

항공의학은 고산생리학에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는데 이 고산생리학은 한 개의 과학으로서 그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고산병은 이미 1588년에 Jose de Acost가 기술한 바 있고 이 공기의 희박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쾌한 증세(症勢)에 대해서는, 히랍(希臘) 문헌에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1만 피트 높이의 테사리의 올림푸스 산정(山頂)에서는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물에 적신 해면을 통하여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관찰을 한 것은 아리스코틀이었다. 고산생리 및 그 모든 후계(後繼) 학문의 탄생지는 제우스 신 또는 주피터 신에게 봉헌(奉獻)을 드린 성산(聖山)이었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기구(氣球)

비행기가 발명되기 약 120년 전인 1783년에 몽골피에⁴³⁾ 씨(氏)가 연기를 충만 시킨 기구를 이용하여 닭, 오리, 산양을 각각 한 마리를 공중에 상승시킨 후 그 동물에 관하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한 것이 항공의학적 연구의 시초였다. 이 동물실험에서 하등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동년(同年)에 인체실험계획이 되어서 프랑스의 젊은 귀족 피아트르 드 로제⁴⁴⁾ 씨가 자원하여 기구를 타고 공중에 상승하여 최초의 인체실험이라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고 2개월 후에 재차 상승실험을 하여 이통(耳痛)이 심하였던 것이 보고되어 비행으로 발생된 유해 작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가 되었다. 1785년 미국의 의사 존 제프리스 씨는 기구로써 도버 해협을 횡단하여서 항공의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62년 글라이쉬와 콜스웰 양(兩)씨는 기구를 타고 약 29,000피트까지

43) 원문에는 '몬트고리피어'로 되어 있으나 '몽골피에'임.

44) 원문에는 '피아트르 드 로제'로 되어 있으나 '필라트르 드 로지'임.



(사진 필자)

상승하여 시력과 청각이 소실되고 사지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글라이쉬 씨는 의식이 소실하는 등의 모든 인체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록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프랑스의 유명한 생리학자 폴 베트 씨는 고공에 상승함으로써 받는 생체의 모든 영향을 상세히 연구하였다. 폴 베트 씨의 문하(門下) 타싼디에, 코올쎄, 쉼블 3씨는 기구를 타고 상승실험을 하여 상승 고도와 인체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 발표하였고 이 실험 중 코올쎄, 쉼블 양씨는 상승 시에 고공에서 사망하여 항공의학 건설에 귀중한 희생이 되었다. 폴 베트 씨는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연구를 추진시키고 1785년에 「La Pression Barometrique」를 출판하여 그 연구 성적을 발표하였고 상승에 의한 인체의 영향이 대기압의 증감 및 특별 산소(酸素) 분압(分壓)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또 저압 상태의 호흡과 혈액 중 가스 문제에 관하여 모든 연구를 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리하여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항공의학적 연구는 폴 베트 씨에 의하여 전개되어 폴 베트 씨는 항공의학 건설의 시조라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비행군의 시조가 되었다.

20세기(世紀)의 항공의학(航空醫學)

20세기 초에는 세계열강에서 공군사관생도의 선택 문제에 관하여 그 신체검사의 최저 기준(基準)이든가 적성검사의 기준 문제에 대하여 전심하였으며 그 후 점차로 산소 부족 증, 고공 인내성 시험, 평형감각, 지남력(指南力), 반응 시간 등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연구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뒤를 이어 항공의학연구소를 창설 혹은 확장하였다.

미국에서는 1933년 그로우 중령이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비행 속도, 상승 고도, 항공기의 기동력, 중량, 기형(機型) 등의 변동에 따라서 군 조종사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항공기 제작에 생리학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항공기 설계와 항공의학의 제휴 및 여기에 필요한 연구기관 창립에 노력하여 1935년에 라이트비행장에 그로우와 암스트롱 양씨 지휘 하에 항공의학연구소가 설치되었고 1937년에 그 운영이 시작되었다. 그 연구 결과로써 조종사의 개인 장구(裝具) 제작과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에 항공의학적 검토를 하게 되고 안전비행과 공중 전투에 다대(多大)한 성과를 올려 비행과 항공의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 항공의학(航空醫學)의 이론(理論)과 실제(實際)

서언(序言)의 정의에서 항공의학은 "비행에 관련된 생리학적 제 문제에 대하여 임상의학, 기초의학 및 그 밖에 관한 전반의 원칙을 종합 응용시키는 의학 분야"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의학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다음의 아홉 가지 종류와 또 항공의 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비행군의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 | | |
|-------------------------------|------------------|
| 가. 공중군무자의 선택과 분류 | 바. 항공 위생과 국제적 면역 |
| 나. 일반적(一般的) ⁴⁵⁾ 의료 | 사. 공중 후송 |

45) 원문에는 '一般的'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의 오기로 판단됨.

다. 공중근무자 관리 아. 공중 구호
라. 비행에 특이한 질병 및 손상의 치료 자. 연구
마. 승객의 안전과 안락 차. 비행군의관

★ 공중근무자(空中勤務者)의 선택과 분류

1. 선택

비행훈련을 지원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은 공군군의관의 극히 중요한 임무인데 여기에 서 군의관은 복잡한 장구와 그에 대한 수기(手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선택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잘못 하면 그 결과 비행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귀중한 비행기를 상실할 불행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까닭에 이 선택이야말로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또 그 선택의 기준은 엄격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1차 대전 때의 영국의 예를 들기로 한다. 즉 제1차 대전 초기 영국의 조종사 중 적에 의하여 생명을 잃은 자는 단지 2퍼센트이고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자가 8퍼센트이며 나머지 90퍼센트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또 피로, 공포 또는 부주의한 탓으로 병원에 이송(移送)⁴⁶⁾되거나, 혹은 묘지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종사를 선택, 분류, 관리하는 것이 군사적인 중요성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이에 착안하여 조종사의 선택, 분류, 관리에 대한 주의 깊은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신체 부적성으로 인한 조종사의 사고율은 60퍼센트로 감소되었다가 다음해에는 20퍼센트로 저하하고 대전의 최종 년에는 12퍼센트로 저하되었다. 공중근무 지원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의 하나는 지원자의 태도 문제이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임상의학에 있어서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 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찾아오는 것이며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 병력과 현 병증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 자세하게 진술하여서 의사에게 적극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공중근무 지원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지원자는 자기의 신체적 결함을 은폐하려고 하며 따라서 완전 정확한 과거 병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그 결과 과거 공중근무 지원자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큰 약점은 검사의 완전성이 결핍한 탓으로 어떤 결함을 간과하거나 또는 지원자의 과거 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넘기는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2. 선택

공중근무자 분류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비행 훈련에 대한 지원자의 분류인데 여기에서 검사관은 심사를 하고 훈련에 대한 가장 좋은 소질을 가진 자만을 선택하려는 견지에서 각종 객관적 검사를 시행한다. 분류의 둘째 종류는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자 또는 훈련을 종료한 자에 대한 소질을 결정하여 가령 전투기, 또는 폭격기 근무 등 특수한 종류의 배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 밖에 후자(後者)에 속하는 분류에서는 야간

46) 원문에는 이도(移送)로 되어 있으나 이송(移送)의 오키로 보임.

전투, 고도비행, 작전, 시험비행 등에 대한 특수한 소질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일반적(一般的) 의료(醫療)

비행군의관은 자기 담당 하에 있는 모든 공중근무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진료를 할 책임이 있으며 또 동시에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이 비행군의관이 공중근무자와 또 그의 가족까지도 진료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즉 첫째로 이로 말미암아 비행군의관은 임상의학의 실체적 경험을 갖는 것이며 둘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서 공중근무자의 병상(病傷)과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또 셋째로는 공중근무자와 그 가족을 진료하는 것은 공중근무자의 건강관리 수행에 불가결한 것이다.

★ 공중근무자(空中勤務者) 건강관리(健康管理) 문제

이것은 공중근무자가 항상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특히 비행 때에 최대 능력을 보지(保持)하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주로 예방적 성질의 방책을 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적당한 식사를 처방하는 문제로부터 긴급 시 탈출 방법에 대한 강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항공의학의 초기에는 비행에 대한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주의를 하지 않았고 그저 어떤 비행 환경이든 잘 인내할 수 있는 자를 처음부터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차차로 변경되었으며 현금(現今)에 와서는 공중근무자로 하여금 비행 중에 최고 능력을 유지토록 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공중근무자를 제반 악조건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결과 항공의학은 비행기의 구조와 특수 보호 장구에 더욱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 둘째로 중요한 요소는 현금에 와서 비행사가 고도의 속도, 중심력, 상승 속도, 기압 변화 및 기타 수년(數年) 전만 하여도 몽상(夢想)하지 못한 각종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자연적으로 응용항공의학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셋째 요소는, 비행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조종사 이외에도 다수의 기상(機上) 근무자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 이 각종 기상 근무자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행의 성공 여부에 관해서는 그들의 중요성이 조종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또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하게 된다. 공중근무자의 건강관리는 그 최초의 선발 시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공중근무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금시 훈련을 마친 조종사를 볼 때에, 그는 젊고 건강하고 이지적(理智的)인 청년이다. 그는 보통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과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중근무에 관련된 불량한 환경과 사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직무는 이학적(理學的) 면으로 보면, 좌업(坐業)이라고 하겠지만, 그 신경 정신적 견지로 본다면 대단한 노력이 드는 일이며, 항상 최고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필요로 한다.

비행이 각 개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정신적 압박을 주는가 하는 일례(一例)로서, 조종사 중의 약 5퍼센트가 그 생애 중 어느 때든지 한 번 기능적(機能的) 신경병을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면 충분할 것이다. 비행 때의 정신적 압박 긴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행사

는 1개월 중에 평균 85시간 이상 비행 근무를 못하는 예가 있다. 이 내성(耐性)은 각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 비행의 종류에 따라서도 큰 영향이 있다. 더군다나 가정적, 경제적 혹은 사업상의 이유로 인하여 고뇌하는 자는 그 밖에 자보다도 내성이 약하다. 비행군의관이 공중근무자의 개인적인 생활면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서 이다. 조종사가 과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세(症勢) 중에는 첫째로 불안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정신, 육체의 피로가 출현하며 비행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경한 기능적 신경병을 발생하게까지 된다. 만일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급성 기능성 신경병을 초래하게 되고 그쯤 되면 공중근무는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비행군의관이 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자기 담당 하에 있는 모든 공중근무자에 대하여 그 과거 병력, 현 건강 상태, 그 일반 경제적 상태, 사회적 상태, 그 개인의 습성, 인격 및 비행과 비행군의관에 대하는 태도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면 공중근무자의 복지에 대하여 성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군대에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민간항공회사에서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의 어떤 민간항공회사에서는 매 3개월에 한 번씩 조종사에 대한 정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근무자를 보호 감독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노파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감독한다면, 공중근무자의 대부분은 이지적인 청년들인 까닭에 때로 불쾌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으니, 이런 점은 극력 피하여야 할 것이다.

★ 비행(飛行)에 특이(特異)한 질병(疾病)과 손상(損傷)

비행에 특이하게 발생하는 질병과 손상을 치료하는 데에는 일반 개업(開業)에서 필요한 것과 동일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것도 항공의학 교육을 받은 자의 한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

★ 승객(乘客)의 안전(安全)과 안락(安樂)

이것은 주로 민간 항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 항공에서는 승객에게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타 방법으로 승객을 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회사는 대중의 공수(空輸) 문제에 있어서 원기 왕성한 건강자(健康者)는 물론, 남녀노소, 절름발이 불구자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취급하여야 한다는 큰 곤란성에 부딪치게 된다. 공중 수송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비행기의 사고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밖에 유해 또는 불쾌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군의관의 역할은 이중(二重)이 된다. 즉 첫째로, 그는 의학적 견지로 보아서 비행기 승무원의 적성을 확인하고, 둘째로, 비행기 제작에 있어서 승객에게 안전과 안락을 줄 수 있도록 고안 설계를 할 때에 이에 대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 항공위생(航空衛生)과 국제면역(國際免疫)

항공위생 문제에는, 단지 비행기 자체 내의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에 장거리 지점에 병원균을 수송하여 질병을 전파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질병의 잠

복기에 있는 사람 내지는 병원(病原) 매개 동식물을 국경선 너머로 운반하여서, 과거에는 그러한 감염이 없던 나라에 질병을 전파시킬 때에는 특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비행기는 엄격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그 승객에 대하여는 소정의 면역접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공중후송(空中後送) 문제

공중 후송은 근래 군부에서나 민간에서도 펍 현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의무 요원이 항상 주의 깊은 감독을 하면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요원은 단지 각 환자에 대한 임상병리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비행에 따르는 비정상적 환경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잘 고려(考慮)에 두고 비행기로 환자를 후송할 때에는 반드시 비행간호원 내지 비행군의관이 소요의 특수 기재를 가지고 탑승하여야 한다.

★ 공중구조(空中救護) 문제

공중구조라면, 종종 행방불명이 된 자를 탐색하여서, 곧 비행기, 글라이더, 헬리콥터, 낙하산 등의 조력(助力)으로 의학적인 구조를 베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 중 낙하산 구조는 낙하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대단한 모험이며, 따라서 구조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에게는 이러한 훈련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부상자를 탐지하고 그 근처에 갔다 하더라도, 그 후 어떻게 그 지점으로부터 구출하는가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 특히 북극지대, 정글지대, 대양(大洋) 또는 사막 등지에서는 그 곤란성이 크다.

★ 연구(研究)

항공의학에 있어서 연구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비행군의관은 누구나 다 그것을 자기 임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비행군의관은 항상 비행 효과와 비행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광장한 연구실과 교묘(巧妙) 고가(高價)한 기구와, 유명한 과학자만을 연상하기 쉬운데, 연구라는 것을 가령 정의하여 본다면, 그것은 “일정한 사실 또는 원칙을 찾기 위한 주도면밀한 조사 내지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의의 견지에서 본다면, 연구는 기구(器具)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응용의 문제이다. 항공의학은 대단히 진척이 빠른 학문이며, 또 비행기의 크기, 중량, 속도 및 사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또 그 기술적 복잡성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진보의 템포는 더욱 빨라져가고 있다.

★ 비행군의관(飛行軍醫官)

의학의 어떤 전문부면(專門部面)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자칭하려면 적어도 수년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타 부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항공의학에 있어서도 그 성공의 가장 불가결한 요소는 그것에 대한 강력하고도 성실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부가한다면 항공의학 전반으로써 또 특히 비행에 대한 적극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왜 비행군의관이 항공 및 비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흥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비행군의관은 비행을 함으로써만 비로소 공

중군무자의 감정적 및 생리학적 곤란성에 관한 의학적 문제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까닭에 비행 훈련은 비행군의 교육 중의 극히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다. 혹자는 공중군무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책만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나 이것은 마치 책만 보고 조종사가 될 수 있고 또 책만 보고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論)과 동일한 것이다. 여하튼 간에 비행군의 관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중군무자에 대하여 항공생리학을 강의하고 보호용 비행 장구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는가를 교수할 자격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실제 비행을 하여야 한다. 공중군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핸디캡이 아니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외과 수술학을 배우고 또 비행기를 한 번도 타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비행 훈련을 교수 받는 것과 비등(比等)한 일이다. 또 동시에 가장 단순한 비행기도 탈출 못하거나 혹은 타기를 무서워하는 전혀 이 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행군의 관에 대하여 공중군무자가 여하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열강에서는 이미 이 원칙을 인정하여 공군에 복무하는 자격 있는 군의관에 대하여 비행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비행군의관(飛行軍醫官)의 연령(年令)

비행군의관이 그 사무를 만족하게 수행하는 데는 그 연령이 또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35세 이상 되는 군의관은 대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였다. 그것은 여러 연수(年數)가 경과한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런지 혹은 배우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하간 장년기 후에 항공의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신(新)직무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기가 곤란하고 또 젊은 군의관처럼 숙달하기가 어렵다.

★ 일반적(一般的) 체격(體格) 운동력(運動力) 육체적(肉體的) 기민성(機敏性) 및 건강(健康)

공중군무자의 건강, 신체적성 및 영양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비행군의관의 업무인 까닭에 이런 내용을 역설하는 군의관 자신이 좋은 신체적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비행군의관 자신은 30파운드나 표준 체중보다 무거우면서도 5파운드의 체중 초과가 있는 공중군무자에 대하여 과음(過飲), 과음(過飲)의 폐(弊)를 강의하다면 이것은 희극 무대에서는 꽤 적합할는지 모르나 적어도 공중군무자로 하여금 항공의학 또는 항공의학에 종사하는 자를 더욱 존경 신뢰하게 하는 데는 낙제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장래성 있는 비행군의관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유쾌하고 호인(好人)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핍하면 비행군의관으로서의 성공은 매우 위태롭다. 특히 전시(戰時)에 있어서 공중군무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뇌하고 또 이런 문제를 좀처럼 군의관과 상의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군의관이 형안(炯眼)으로써 이러한 고난성(困難性)을 통찰(洞察)하고 이에 대하여 건설적인 조언을 주며 필요에 따라서 신속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28면(面)으로 이음)

영화해설(映畫解說)

탈옥자(脫獄者)

1871년 겨울. 캘리포니아 주 몬테 디아부로 호(湖) 근처 어느 작은 부락에 여섯 명의 무지무지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네바자 주 카노슨시티 형무소를 탈주한 제임스, 존, 쾰라리 등의 죄수들이었다. 그즈음 이 부락에는 마침 청년들은 물론 남자란 모두 금광을 발굴하려 멀리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탐광자(探鑛者) 루디와 약혼 중인 마노샤, 파노파라의 아름다운 딸 바아바라, 중년 여자 레리출, 젊은 여자 스노잔 등의 여자들 뿐이었다.

이들은 제각기 총을 들고 이 불법 침입자를 부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투하였다. 그러나 한 여자의 부주의로 부락에 불이 났다. 그 타오르는 불을 약한 여자들의 손으로는 건잡지 못하고 있는 중 번개같이 나타나서 꺼준 남자들이 있으니 그가 바로 그 6명의 탈옥자들이었다.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대하자 그렇게 완강히 배척하던 여자들도 마음이 풀려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 들였다.

루디와 약혼 중인 마노샤는 그 중의 한 사람이나 탈옥자라고는 볼 수 없을 만치 암전한 제임스에게 차츰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제임스는 이 부락에 들어온 목적이 4만 달러라는 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탈옥자인 쾰라니 그 밖의 몇몇은 그것을 나누어 먹자고 야단이었으나 제임스의 목적은 전혀 다른데 있었다.

어느 날 마노샤의 집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던 제임스는 별안간 태도를 바꾸더니 마노샤에게서 총을 빼앗아 들었다. 마노샤는 완강히 저항했으나 힘센 남자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제임스는 마노샤에게 자기의 교수형(絞首刑)의 판결문을 내어 보이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판결을 받게 됐는지 알어? 너와 약혼 중인 루디 때문에 죄도 없이 잡혀 들어갔던 거야. 이 원수는 꼭 갚고야 말지.” 이렇게 소리친 제임스는 그냥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마노샤는 즉시 루디에게 자수를 시켜 제임스의 무죄를 증명하려 광산을 향해 떠났으나 어느 새 뒤를 따랐던지 제임스가 나타나서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가 마노샤를 따라 나간 그 밤새에 부락에서는 다른 탈옥자들이 총을 빼앗고 말을 몰고 여자들을 괴롭혔다. 그 이튿날 새벽 탈옥자가 부락을 습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부락의 청년들과 죄수들 사이에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루디의 집에서 4만 달러라는 돈을 빼앗고 달아나던 쾰라니 등 죄수들도 추격을 받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제임스는 그 4만 달러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 그 4만 달러가 분명이 루디의 집에 있었다. 이것을 안 제임스는 분개했다. 제임스는 루디를 찾아 한 주먹에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자수하려 했으나 달려온 마노샤는 굳이 말렸다. 얼마 후 보안관이 나타나서 무덤 위에 새로 선 여섯 개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것이 모두 죄수들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다. 보안관은 사라졌다. 그러자 새 행복을 찾아 마을을 떠나는 제임스와 마노샤의 즐거운 모습이 있었다.

(20세기(世紀) 폭스사작(社作), 마이켈 고오든 감독(監督))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시(詩) 오상순(吳相淳)

아시아는 밤이 지배한다. 그리고 밤을 다스린다.

밤은 아시아의 마음의 상징이요 아시아는 밤 현실이다.

아시아의 밤은 영원의 밤이다. 아시아는 밤의 수태자(受胎者)다.

밤은 아시아의 산모요 산파이다.

밤은 아시아를 지키는 주인이요 신이다.

아시아는 어둠의 검이 다스리는 나라요 세계이다.

(20세기(世紀) 폭스사작(社作), 마이켈 고오든 감독(監督))



아시아의 밤은 한 없이 깊고 속 모르게 깊다.

밤은 아시아의 심장이다. 아시아의 심장은 밤에 고동(鼓動) 한다.

아시아는 밤의 호흡 기관이요 밤은 아시아의 호흡이다.

밤은 아시아의 눈이다. 아시아는 밤을 통해서 일체 상(相)을 뚜렷이 본다. 올
빼미 모양으로—

밤은 아시아의 귀다. 아시아는 밤에 일체 음(音)을 듣는다.

밤은 아시아의 감상이요 감각이요 성욕이다.

아시아는 밤에 만유애(萬有愛)를 느끼고 입을 포옹한다.

밤은 아시아의 식욕이다. 아시아의 몸은 밤을 먹고 생생(生生)한다.

아시아는 밤에 그 영혼의 양식을 구한다. 맹수 모양으로—

밤은 아시아의 방순(芳醇)한 술이다.

아시아는 취해서 노래하고 춤춘다.

밤은 아시아의 마음이요 오성(悟性)이요 그 행(行)이다.

아시아의 인식도, 예지(叡智)도 신앙도 모두 밤의 실현이요 표현이다,

오오, 아시아의 마음은 밤의 마음—아시아의 생리계통과 정신체계는 실로
아시아의 밤의 신비적 소산(所産)인저.

코메트 시화전(詩畵展)

화(畵) 정점식(鄭點植)



밤은, 아시아의 미학이요 종교이다.
 밤은 아시아의 유일한 사랑이요, 자량이요, 보배요, 그 영광이다.
 밤은 아시아의 영혼의 궁전이요, 개성의 터요, 성격의 틀이다.
 밤은 아시아가 가진 무진장의 보고이다. 마법사의 마술의 보고와도 같은—.

밤은 곧 아시아요 아시아는 곧 밤이다.
 아시아의 유구한 생명과 개성과, 성격의 역사는 밤의 기록이요 밤 신(神)의 발자취요 밤
 의 조화요 밤의 생명의 창조적 발전사—

보라, 아시아의 산하(山河) 대지(大地)와 물상(物相)과 풍물과 인물과 품격과 문화—유
 상(有相) 무상(無相)의 일체 상(相)이 밤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 있는가를—.
 아시아의 분맥(分脈)은 아시아의 물의 리듬을 상징하고 아시아의 물 리듬은 아시아의
 밤의 리듬을 상징하고—
 아시아의 딸들의 칠빛 같은 머리의 흐름은 아시아의 밤의 그윽한 호흡의 리듬

한손으로 지축을 잡아 흔들고 천지를 함토(含吐)하는 아무리 역세고 사나운 아시아의
 사나이라도 그 마음 어느 구석인지 숫처녀의 머리털과도 같이 끝 모르게 감돌아드는
 밤물결의 흐름 같은 리듬의 곡선은 그윽이 서리어 흐르나니—

그리고 아시아의 아들들의 자기를 팔아 술과, 미와 한숨을 사는 호탕한 방유성(放遊性)



은 감당키 어려운 이 밤 때문이라 하리라.
 밤에 취하고, 밤을 사랑하고, 밤을 즐기고, 밤을 찬미하고, 밤을 숭배하고—
 밤에 낳아서, 밤에 살고, 밤 속에 죽는 것이 아시아의 운명인가.

아시아의 침묵과, 정밀(靜謐)과, 유적(幽寂)과, 고담(枯淡)과, 전아(典雅)와, 곡선과, 여운
 과, 현회(玄晦)와, 유영(幽影)과, 후광(後光)과, 또 자미(滋味), 삼미(三昧), 제호미(醴酬味)
 —는 아시아의 밤 신들의 찬연(餐宴)의 교향곡의 음보(音譜)인저—향연
 오오, 숭엄하고 유현(幽玄)하고 신비롭고, 불사의(不思議)한 아시아의 밤이여—

태양은 연소하고, 자극하고, 과장하고, 오만하고, 군림하고, 명령한다.
 그리고 남성적이요, 부격(父格)이요, 적극적이요, 공세적이다.
 따라서 물리적이요, 현실적이요, 학문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투쟁적이요, 물체적이
 요, 물질적이다.

태양의 아들과 딸은 기승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돌진한다. 백일
 하에 자신 있게 만유(萬有)를 분석하고, 해부하고, 종합하고, 통일하고.
 성(聖)할 줄만 알고 쇠하는 줄 모르고, 세기(勢氣) 좋고, 모험하고, 제작하고, 외치고,
 몸부림 치고, 피로한다.

차별상(差別相)에 저회(低徊)하고 유(有)의 면(面)에 고집한다.
 여기 뜻 아닌 비극의 배태(胚胎)와 탄생이 있다.



폭격명수(爆撃名手) 고광수(高光壽) 대위(大尉)

좌담회(座談會)

곳: 광주황제다방(光州皇帝茶房)

때: 7월 25일

정명섭: 오늘의 고(故) 고광수 대위님의 추도 좌담회는 그의 출신지인 광주의 사회 인사와 동창이 중심이 되어 열려어진 만큼 고인의 동창을 대표하여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출신 고 고광수 대위의 장례식을 마치고 유가족 그리고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분과 또는 그 밖에 여러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참석하신가운데 고 고광수 대위가 남기신 빛나는 공적이며 그의 재세시(在世時)를 회상하여 주심으로 뜻 깊은 좌담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는 고 고 대위와 가까우시고 동시에 상관이신 장지랑 대령께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지랑: 제가 장지랑이올시다. 고(高) 대위와는 서중(西中)에서 친형제 같이 지냈고 군에 있어서는 전쟁 완수를 위하여 공군에서, 그것보다도 전투기지에서 친밀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면으로 가깝게는 지내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더욱 요령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중에는 모든 각도로 고 고 대위에 대하여 잘 아시고 계실 터이시니 될 수 있으신 대로 고 고 대위의 여러 가지 빛나는 말씀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이처럼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라 하여 제가 일일이 말씀 여쭙지 않더라도 생각되시는 대로 각기 좋은 말씀 많이 하여 주십시오.……최 중위와 송 중위는 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우리 공군의 전진기지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송 중위! 강릉에 전진한 후 첫 출격을 하였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송오섭: 고 고 대위의 과거 행동을 말씀하기 전에 고 고 대위가 산화한 그 비보를 접한 당시의 감상을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고 고 대위와는 관계가 깊고 또는 같은 고향 친구로서 같이 사관학교에 입교한 전우입니다. 애석하

출석(出席)하신 분

장지랑(張志良) 대령(전투비행단 부대장)

강영철(姜永哲) 대위(동 조종사)

송오섭(宋梧燮) 중위(동)

최규순(崔奎淳) 중위(동)

이경모(李炯謨) (호남신문사 부장)

최성대(崔成大) (전남도청 계장)

김창석(金昌錫) (광주(光州) 수창(壽昌)국민교장)

이세훈(李世勳) (변호사)

윤형재(尹炯載) (광주 교육구청장(區廳長))

정해규(鄭海圭) (광주군 내무과장)

강봉재(姜鳳宰) (광주 서중(西中)교장)

민태금(閔泰金) (전남도 사회과)

정명섭(鄭明燮) (서중동창대표)

송강화(宋康樞) (서중동창)

정광섭(丁光燮) (동)

임기석(林麒錫) (광주신보기자)

선은규(宣銀奎) (시사통신기자)

박석창(朴石蒼) (전남일보기자)

고광악(高光嶽) (제형(季兄))

고광천(高光天) (제제(季弟) 시사통신 목포지사)



게 전사하였습니다만 그의 영웅적인 죽음은 길이 청사에 빛날 것입니다. 그는 공사고 제1기 출신이며 정규장교로서 엘파이브(L-5), 티씩스(T-6)를 거쳐서 에프 51(F-51) 등 정규 코스를 밟은 우수한 파일럿이며 과단성이 풍부하고 정의감이 강한, 투지력을 가진 모범 장교였습니다. 이같이 훌륭한 우리 공군의 한 사람이며 친구의 한사람을 잃은 분한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이경모: 하실 수 있는 한 고 고 대위님이 전사할 때의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들이 간 고(高) 대위(大尉)

—출격직전(出擊直前)에 구두를 닦아 신다.

장지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고 대위는 기지 작전실에서 주로 작전계획을 하였는데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오늘은 자기가 한번 나가(出擊)겠다고 하며 직접 상급 장교에게 허가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급장교는 일단 허락을 아니 하였는데 자기가 최대의 기록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어코 출격 허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격을 나갔었는데 아침에 동기생들과 친밀히 있던 한 미군 장교가 자기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됨에 그와 만나 작별을 하였습니다. 원래 출격전이란 상당히 바쁜 것입니다만 그러한 중에서도 그날 고 대위는 여유를 가지고 애기(愛機)에 오르기 전에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무슨 구두를 닦느냐고 하였으나 그때 고 대위는 구두를 아주 번질하게 닦고 나간 것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 다. 그날은 날씨도 나빴습니 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공군이 최대의 기록을 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7월 18일 인데 유엔 공군이 최대의 출격을 한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공군으로서도 최대의 기록을 내인 날입니다. 그래서 미 5공군 사령관으로부터 찬사의 전문이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더욱 빛나야 할 것이었는데 애석한 고 대위의 전사를 더욱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 폭격명수(爆撃名手) 고(高) 대위(大尉)

임기석: 고 고 대위님의 전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면……

장지랑: 고 고 대위는 자진해서 출격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격에 있어서 무슨 긴장된 것을 보이지 않는, 늘 태연하였습니다. 전공에 관하여 이 자리에서 자세한 것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못 말씀드려 유감이오나 주로 동해안 ○○ 군단지구의 우리 육군에 대한 엄호작전에 출격하였는데 그의 폭탄투하 상황의 기록은 항상 우수하였습니다. 전투기에는 기관포와 로켓탄이 있어서 비행기 한

대의 전과는 육군에 비할 것 같으면 일개소대 내지 일개중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대위가 올린 전과는 개인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여기서 하나하나 셀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전투 조종사로서의 남긴 공적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대개 공중전에 있어서 특별전투 전공이 나오기란 어렵습니다만 고 고 대위의 '전투출격 52회'를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가령 351고지를 폭격할 때 일입니다만 전투기를 가지고 급강하해서 폭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때 고 대위는 폭탄을 틀림없이 적진에 투하한 기록을 보아 그의 기술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임기석: 어떠한 표창이나 훈장, 그 밖의 수공(授功)이 있을 터인데요……

장지량: 있습니다. 미국공군 조종사들은 일정한 출격 횟수만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종사들은 계속 출격을 원하고 있고, 후방으로 가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 고 대위는 3월엔가 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많은 횟수의 전투출격을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수한 폭격을 해서 공중전의 성적을 올린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며 또한 실수 없이 정확한 폭탄의 투하를 한 조종사에게만 수여되는 것입니다. 고 대위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훈장인 '을지무공훈장'의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경모: 52회 출격이면 시간으로 얼마나 됩니까?

장지량: 1회 출격이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거리는 신의주, 평양, 함흥 이러한 지대의 적지출격으로서 두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군단(우리 지상군)의 엄호작전에는 한 시간 걸리는데 공중전에 있어서는 한 10분의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경모: 하루에 2회, 3회 거퍼세(연거푸) 출격할 수 있습니까?……32회면 몇 달 걸립니까?

장지량: 작전에 따라서는 2, 3회의 출격도 합니다. 고 대위가 전진기지로 올라온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임기석: 그러니까 첫 출격이 12월이군요?

장지량: 그렇습니다. 12월 10일이던가? 아까 조문에도 있었습니다만……아, 12월 1 일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출격하였습니다. 백회의 전투출격을 하려면 8개월 내지 9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고 대위의 출격기록은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우리 전투 조종사들은 출격하였다가 한 명을 잃게 되면 적개심이 백배합니다. 3,000피트 날던 것이 1,000피트 혹은 500피트까지 저공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전우가 전사를 하면 나머지 비행기는 끝끝내 목표물을 부셔 버려야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공군의 전투조종사들이 가진 사기입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고 대위였었던 것입니다.

★ 밤을 새워 일한 고(高) 대위(大尉)

임기석: 고 대위를 혹 지나치게 사랑해서 시기를 받게 된 일은 없습니까?(소성(笑聲))

장지량: (웃으면서) 없습니다. 고 대위는 성격이 쾌활하고 사병에 이르기까지 친구가 많았습니다. 고 대위와는 5월 달부터 사령부 작전실에서 일을 하였는데 밤 2시, 3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 신앙청년(信仰靑年) 고(高) 대위(大尉)

임기석: 그러면 동기생으로서 그의 일상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순: 저와 고 고 대위는 같이 있었고 같이 출격하였으며 사관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고 대위는 평소예 말이 없는 사람으로서 결단심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출격하여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폭격의 명수'입니다. 저화들이 근간에 출격하는 중에는 우리 지상군(육군)에 대한 엄호작전이었는데 전선에 출격하여 폭격이 개시되면 하나하나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폭탄이 명중됨에 따라서 지상군의 사기는 충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고 대위는 실수 없는 폭격의 명수로서 그의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임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 고 대위는 어머니께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일주일만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부하를 통솔하는 데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하의 신망이 컸으며 작전처에서도 일반장교 중에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지량: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 대위와는 직접 같이 싸워왔습니다만 고 고 대위는 평소예 늘 신앙적인 생활을 하여왔습니다. 강릉에서 전투 조종사라 할 것 같으면 한 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불교도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말을 부르게 됩니다. 고 고 대위는 강릉(江陵)에 있는 중에 고아원을 다녔습니다. '성남(城南)고아원'에 가면 어린애들에게 과자를 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애들을 안고 즐겨 논다든지, 천진한 어린애들과 사귀고 놀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니 성서에 "……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 천국은 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한, 어린애들을 지극히 사랑하던 예수의 심정을 깊이 느꼈나 봅니다. 더군다나 그 어린애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형제를 잃은 고아들……무도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인한 그 고아들을 대함으로 그는 정의의 적개심이 불타았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고 대위는 특히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에 있어서 연락할 때는 고 대위가 여러 가지로 활약을 많이 하였습니다.

★ 공회형제(孔懷兄弟)하는 고(高) 대위(大尉)

이경모: 고 고 대위의 국민학교[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광주에 계신 분이 없으신지요?……

고광석: 삼남여객의 조(曹) 선생이십니다. 그 선생께서 국민학교 때 가르치셨어요.
정해규: 제가 수창(壽昌)학교장으로 있을 때 형님이 교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휴가로 돌아오면 학교에 와서 인사하고 만나고 하였는데 그때에 보면 형제간에 우애가 짝이나 지극했습니다. 그때 저의 학교는 문교부 지정의 '연구학교'로 되어있었는데 그 교원인 형님을 위해서 일본에 가는 길이 있으면 신교육 도서를 많이 구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이 형님을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항시 만나서 보면 아주 온순한 중에도 건실하다고 할까.……참, 비보를 접한 저는 실로 감개 무량합니다.

임기석: 입대 후에 몇 번이나 집에 왔습니까? 또 최근에 왔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어떠한 인상적인 점을 남긴 것은 없습니까?

고광석: 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오면 일가친척을 비롯해서 동무들 만날 사람은 전부 만나보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면 특히 어머님께 효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최후적인 인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임기석: 이번 비보를 접하시고……

고광석: 어머님께서 이렇게 공군에서 일부터 오시고 그전에는 대구에서도 추도식을 하셨다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그 애가 쓸 애 같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죄송하고 미안할 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 애가 국가에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죽었다는 데 대해서 심히 미안할 따름이오며 고 우제(愚弟)로 말씀하면 해방 후 교원을 하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이 제실 때 하루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동정을 보고 오더니 남의 자식을 죽이느니 교원 생활은 앓는 것이 좋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로 미군들이 오자 흥미를 가졌어요. 서중시대부터 영어를 잘 하였는데 미군 한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당시 미군병원이었는데 거기서 통역으로 미군들과 상당히 오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공군에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썩어질 줄은 몰랐다고 공군에 가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휴가로 와서도 말하는 것을 보면 현 사회에서 비접하고 더러운 놈들은 전부 권총으로 쏘아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는 평소에 말이 없었어요. 항시 침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장지량: 고 대위는 목소리가 커서 공중전에서도 소리를 들으면 그의 소리는 확연하였습니다. 형님의 말씀같이 군내에서도 평소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쾌활한 성격으로 전우들로 하여금 호감을 샀으며 영어는 미군 같았고 아주 여유 있는 우수한 전투조종사였습니다.

★ 항일투사(抗日烈士)의 아들 고(高) 대위(大尉)

임기석: 결혼은 안하였던가요?

고광석: 네, 안 했습니다. 저희 집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친께서는 일제 때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많이 살으셨고 그러시다가 병환으로 해방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그러한 중에 광주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지금 양동(良洞)에서 저와 돌이서 자취를 하였습니다.

임기석: 안항(雁行)은?

고광석: 7남매입니다.

임기석: 고 대위가 남긴 무슨 기록은 없습니까?

최규순: 그는 뭔지 열심히 쓴 것이 있습니다. '자유일기'첨인데 커다란 노트에다 우리 말 혹은 영어 또는 간단한 일어로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는 4월 23일 장창갑(張昌甲) 전우의 죽음에 대해서도 썼는데 한 가지 읽어보면……(그 말에 이어 곧 장지량 대령께서 그 글을 읽으신다).

장지량: 창갑이! 지금 나는 병실에 누워 있어. 잠을 이루려야 이를 수 없어, 다시 일어나 펜을 들었소. 밖에서는 때 아닌 찬바람이 요란히 불어 병실 문을 두드리오. 그 대가 며칠 전에 나를 위하여 꽃을 가져다주며 '꽃과 같은 인생 영원히 행복하시라.' 그대를 사모하는 사람으로부터 '마리아'라고 했지요. 꽃과 같은 그대의 청춘을 즐기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서 저버리는 벼룩처럼 그다지도 애석히 저버렸단 말이오! 숙소에 기본족 그대의 침대만이 쓸쓸하였소. 모자와 빨간 마후라만이 돌아오지 못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소. 오늘아침에 그대가 음조를 조절하던 하모니카만이 주인을 기다리오. 권총을 쥐고 짙은 그대의 조카 사진만이 외로이 붙어 있소. 창갑이! 며칠 전에 누이를 보고 갈려고 그다지도 휴가를 원했소! 그대는 20평 생을 대관령의 수호신이 될라고 속세에 태어났던가?

강봉재: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은 언제입니까?

송오섭: 4284년 7월 10일입니다.

강봉재: 성적은 어떠하였습니까?

송오섭: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모범적이었습니다.

★ 유감스런 보도(報道)

강봉재: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신문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저 미군이 어떻고 유엔 공군이 어떻다는 것만이 보도되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공군은 그저 대구에서 광주로 갔다, 광주에서 대구로 갔다하며 상무대(尙武臺)에서 연습하는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고 고 대위만 하더라도 52회의 전투출격을 나갔는데 왜 그러한 보도가 국민에게 없습니까?

장지량: 물론 그렇게 생각되셨을 것입니다. 그저 저희들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전투조종사들의 욕심은 좀 더 우리들이 올린 전과를 일반 국민에게 알렸으면 하는 것입니다만 그와 같이 보도기관에 대하여 무엇이랄까요.……안타깝고 때로는 불평스럽기도 합니다.

고(故) 고광수(高光壽) 대위(大尉)

일기(日記) 초(抄)



☆ 1952. 2월 17일

- ① 나에게 직접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치 마라.
- ② 말에 있어서 좀 낮게 부드럽게 하라.
- ③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남이 좋아한 줄 알아라.
- ④ 가능한 한 항상 미소를 띠라.

☆ 2월 18일

이곳은 사천(四川). 오늘부터 비행훈련 개시, 이제야 비로소 태만하지 않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소질의 유무보다 연구심의 유무가 너의 진보를 좌우한다."

☆ 3월 4일

나만을 제외하고 전원이 유행성감기에 걸린다. '병은 마음에서'라 듯이 8할은 긴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가장 귀중한 기본조종 기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를 막고 이 고비를 넘자. 더구나 조적이 잘되지 않는 나에게 있어서야. 끊임없는 지상연구!

임기석: 방금 말씀하신 데서 얻은바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고 대위의 전사에 있어서도 서울신문 같은 데서는 그 기사가 겨우 일단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으로서 볼 때 아까 말씀한 정도입니다. 예전 일본시대 같으면 그 지면이 팽창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광주에서는 그의 고향이어서일까 그 향토 정신의 발휘에서랄까 제2면의 톱으로 보도되었었습니다. 그 같이 중앙의 신문이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는 것은 나쁜 점입니다. 귀공군의 공보기관으로서도 이 점에 크게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향토정신(鄉土精神)과 전우애(戰友愛)

임기석: 고 고 대위 전사의 기록이 영화로 남아있으면 하는데요.....

장지량: 이곳을 장례식지로 택한 것도 종래에는 대개 공군본부에서 거행하였습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그들의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와 친척들을 모시고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고 대위를 사랑하여서 또는 공군 장래를 위해서 향리인 광주로 하였습니다. 그런 영화적 기록은 지금의 우리 실정으로 좀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모든 애로의 극복! 이것이 절대적이다. '인생은 대립물과의 전쟁의 과정'이다.

☆ 3월 15일

청춘의 이상형은 인류사회의 이상형과 일치될 수 있다. 그것은 흔히들 쓰는 말로서, 참다운 청춘의 자유가 없는 곳에

☆ 고인의 필적

.....일기(日記)에서

참으로 건설적이며, 발전적인 사회란 있을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맞잡아 가는 것이다. 청춘이 불행한 사회는 모든 인간이 불행하다.

"사천의 거리에는 골목마다 내 청춘의 꿈이 어려 있다."

☆ 5월 7일

★ 故人之筆跡.....日記에서

청춘은 靑年의 整理士가 大騷動!! 整理士의 職으로 戰鬥不能狀態에 不在할수 있는 일인가? 民間航職도 分限하기 困難하다. 此 일어난 現象이 此러하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操縦校가 經過를 하고 此가 想像도 못할 일이다. 經過改善問題 등을 왜 으로 보아서는 操縦士가 飛은 1주 마쳐가며 눈치를 보아가며 修養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광섭: 공군조종사 중에는 전남 출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지량: 전남 출신에 옥만호(玉滿鎬) 소령이라고 있는데 그도 오늘 여기에 오겠다고 하였다가 전투에 바빠서 오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전남도 철교를 유엔 공군이 끊으려다 못하고 우리 공군에 돌아왔을 때 그 옥 소령이 단번에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버스타'라고 하는 미 공군에서 영웅적인 일을 하였을 때라는 훈장을 받았습시다. 공군에는 전남출신이 중령, 소령급 대위, 중위, 소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F-51을 가지고 조위(吊慰)비행을 하였는데 그 편대의 편대장이 박희곤(朴熙坤) 중위라고 송죽리(松竹理) 경찰서에 그의 형님이 있으며 그는 100회 출격을 마치고 지금 교관으로 있는데 고 대위를 위해서 자기가 오겠다고 원하였습니다.

임기석: 이 기회에 공군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요청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 밖의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순: 종종 고향학교에 가면 비행기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시다. 조종사가 되려면 첫째 신체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조종간부후보생이라고 민간에서 모집해서 그들을 양성하여 일선에 내보냅니다. 그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기술자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또 그들

연일 우천으로 말미암아 매일 무위도식하다. 내무반에서 할 일 없이 자리에 누워 잠을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설을 읽다. 오랜만에 답답증을 풀려고 사천공원에 올라간다. 아! 오늘도 하루는 무사히 흘렀고나! 어머님 일생에 한 번 있는 즐거운 환갑의 복된 자리에 참석 못할 것 같다. 어머님 용서하세요.

☆ 6월 2일

어제부터 비행단으로 전속된 후부터는 바쁘고 긴장된 하루를 보낸다.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행복일 것이다.

☆ 6월 21일

고상한 이념도 좋고 깨끗한 인생도 좋으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금전이다. 세상만사가 자기중심이다. 그렇다. 자기 없는 세상이란 허무일께다. 늙으신 어머님께 보내드린 소액이 환갑날에 조금이라도 복된 그 자리를 빛내고 어머님을 행복케 해드릴 수 있었다면 이불효자식의 다시없는 영광, 기쁨이겠다.

☆ 12월 8일

신중, 주의 분배력, 건강, 연구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다.

☆ 12월 11일

훈련 중 정주량(鄭周良) 대위님이 순직하시다. 아! 이게 무슨 청천의 벽력이나. 그다지도 원만하시고 정열적이며 부하를 사랑하는 참다운 교육자! 영령이여 고이 잠드소서.

☆ 1953년 2월 18일

오늘까지 30회의 출격을 무사히 완료하다. 사랑하는 이여! 무슨 일로 그다지 소식 없이 내 마음을 괴롭히느뇨? 이해키 곤란하다.

☆ 3월 6일

은 사관학교에서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방면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하여 조종, 통신, 정비의 각 부문에 있어서 제가끔 완성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으로 나오면 절대로 미군 조종사에 손색이 없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아까 그 실례도 나왔습니다만 유엔 공군보다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고 고 대위도 그러한 우수한 조종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고 고광수 대위의 귀중한 죽음은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후배들로 하여금 '고 선생, 고 선생'하고 우리를 것을 믿으 오매 고 대위는 우리의 국토방위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 고 대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저희들은 고 고광수 대위의 뒤를 받들어 용진할 것을 각오합니다.

장지량: 그러면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고 대위를 위하여 좋은 추도가 된 것

아침에 그다지도 활발하던 임택순(任宅淳) 중위님이 구원(久遠)의 객이 되고 말았더니! 애기 7호와 더불어 148고지에 불명어리처럼 자폭한 그의 모습! 초로인생(草露人生)이라더니 그대여 고이 잠드소서.

☆ 4월 10일

49회의 출격을 마치고 최규순 중위의 초출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내에 나갔다 돌아 오는 도중 트럭 사고로 어깨가 탈골되다. 수술대에 누우니 기가 막하다. 전투 파일럿이지 상사고로서 병상에 눕게 되다니, 불명예스럽기 짝이 없다.

☆ 4월 13일

전우들은 모두 경포대로 꽃놀이를 가고 나 혼자만이 남아 사투 조용하다. 이 몸은 쓸쓸한 병실에서 신음하는 신세. 공보관이 경포대 벚꽃 경치를 사진으로 찍어다 주기에 벽에다 붙이고 봄을 맞이하다.

☆ 4월 23일

장창갑(張昌甲) 중위, 서동규(徐東圭) 소위 전사!

창갑이! 지금 나는 병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어 팬을 들었소. 며칠 전 나를 위하여 그대가 꽃을 꺾어다 주며 "꽃과 같은 인생 영원히 행복하시라." 하였지요. 바람에 휘날리는 꽃

잎처럼 그렇게도 애석하게 져버렸단 말이요? 숙소에 가보니 그대 침대만이 쓸쓸하고, 모자와 빨간 마후라만이 돌아오지 못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소. 아마도 그대는 20평생을 대관령(大關嶺)의 수호신이 되려고 속세에 태어났단 말이요?

이 밖에 꼭 이 「일기초」에 넣고 싶은 것이 있었으나 여러 면으로 생각하여 기위(忌胃)될까싶어 못 넣은 것이 유감이다.

(편집자(編集者))

센치는 배놓고

다음 이야기는 19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의 파르보오의 이야기이다.

파르보오는 다섯 살 먹은 어린이의 대단히 곤란한 수술에 성공하였다. 미칠 듯이 기뻐한 그 어린이의어머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자식 높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감사한 예(禮)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수놓아 만든 돈지갑을 받아 주세요."

고명(高名)한 의사는 돈지갑을 받고 조금 거만하게 그것을 보았다. "부인! 내 기술은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내 생활에도 그것에 필요한 것이 있고 감정은 이러한 필수품에는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로 실례입니다만 당신의 귀엽고 매력 있는 선물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선량한 부인은 대단히 난처한 듯 얼굴을 붉히며 다음 같이 말하였다. "그러면 선생님, 얼마큼 감사의 뜻을 표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천 프랑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조용하게 의사가 그에게 돌려준 돈 지갑을 열고 4천 프랑 지폐 열장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그 속의 다섯 장을 세어서 그 부인은 외과의사에 게 그것을 내주었다. 그리고 더 한마디 지껄이지도 않고 돈 지갑과 남은 돈을 가지고 부인은 사무실을 나가 버리었다 한다.

을 기뻐합니다.

고광석: 오늘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유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

(주: 이 기록은 고인의 계제(季策) 고광천(高光天) 씨에 의하여 속기된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체계 하에 각 발언을 취사(取舍) 선택하여 개편 구성 것이다.

편집자 이상로(李相魯))

『죽음의 수용소』 삼년기(三年記)



(사진 필자(筆者))

M 산들

★ 승전(承前) 나는 북한(北韓) 포로(捕虜)였다.

★ 최악(最惡)의 날이 오다

1950년 10월 8일. 우리들은 이미 '휴가(休暇)캠프'라고 불리던 수용소를 나와서 우리들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휴가캠프 생활 후의 '죽음의 행진'—그 표현을 발견하여 온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극단으로 비참한 일에는 저절로 같은 표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0월 초순경 공기가 어찌 이상스러워져 왔다. 만포욕장(滿浦浴場)의 캠프에서도 파수병이 신경질이 되어 지고 좌불안석이 된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의료의 돌보아줌도 점점 이상하여지고 종종 우리들에게 진찰을 오던 군의(軍醫)도, 담요도 없고, 따뜻한 옷도 없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미국병의 포로를 구하기에 이 이상 어찌할 수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북한군사령부 발표'의 매일의 「전황보고」를 읽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들의 캠프가 사용하고 있던 우물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소문을 수군덕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내 켓전애다 대고 미군이 재물포(濟物浦)에 상륙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북한군이 붕괴하듯이 패주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였다. 사실 일시(一時)는 우리들을 내버려두려고 하였는가 보다. 연합군의 진격으로 평양이 위협되었을 때 '정부'는 만포로 이주할 준비를 시작하고 이 캠프를 거점으로 하여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들에게 절리적거리고 또한 우리들로서도 다시없는 호기(好機)였다.

10월 8일. 함께 감금되어 있던 조선인 동수(同囚)들이 우리들은 강을 건너서 출발하는가 보다고 일러주었을 때에는 모두들은 미칠 듯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다. 연합군은 강행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겨우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압록강 하구(河口)에 있는 적십자선(赤十字船)으로 옮겨질 듯하다는 이야기였었다. 우리들의 생각은 낙관으로 기울어 갔다. 퇴각에 당하여 베르민 군(軍)에게 끌려 간 프랑스 민간인의 비극적인 화상 같은 것은 극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들을 인질로 삼아 데리고 가려고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지품을 전부, 밥을 짓느라고 사용하고 있던 가마솥까지도 전부 반출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왔다.

그것은 단순히 감금소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 시설도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97명의 민간인 피수용자의 맥없는 행렬은 캠프를 나와서 거기서 5리정(里程)에 있는 조그만 천연항(天然港)으로 향하였다. 우리들은 때가 절어서 뺨쩍거리는 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나 자신은 어느 파수병의 짚 이불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그 빈대와 이가 내게 얹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솔이나 땀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로 몸이 꼬부라지고 있었다. 그는 폐병이 더해졌다. 칼메리트 파(派)의 니승장(尼僧長)인 고드리에부 수도니(修道尼)를 널판에 실어서 운반하였다. 강둑에서 12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모두들 설사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약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서로 떨어지는 것은—변소에 가는 것까지도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일행의 감독 자리에 있던 감시장은 우리들이 찌푸리는 낯을 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였으며 파수병들은 '놈'이라고 하였다. 놈이라는 것은 사람을 개, 돼지 같이 욕하는 뜻으로서 그 이후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통례(通例)였던 '사람'(人間)이라고 불리던 것이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튿날 트럭에 태워서 저녁때 28킬로 정(程)의 하류의 소촌(小村) 고산진(高山鎭)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들의 기적의 표류는 이 동네 중앙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와서 일시의 휴식을 할 수 있었다. 강 건너 쪽으로 뻗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중국의 모습이 보였다. 조선보다도 훨씬 무한히 인간적이며 풍요할 것 같이 우리들의 눈에는 비치었다. 노새의 무리가 오고 가고 하였다. 살찐 시꺼먼 돼지의 떼가 언덕 중턱의 옥수수대 시들어 쌓인 위에서 애비달을 치고 있었다.

우리들 쪽에 있는 것은 그냥 풍우(風雨)에 남아 빠진 오막살이 집들이며 묵어 나자빠진 논밭들이며, 그곳에 말라 바틀어진 명색만의 소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들의 행진의 제1행정(行程)은 고산진에서 남으로 산중(山中)을 14킬로 걸어서 '취안'리(里)의 빈집에서 끝났다. 산을 올라가는 것은 힘들었으나 천기(天氣)는 좋았다. 행정도 그리 길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다. 산 중복(中腹)에서 쉬고 있을 때 미국인 포로의 1대(隊)가 앞서 갔다.

그 건강 상태는 우리들을 겁내게 하였다. 열사람쯤의 부상병이 감시병에게 뒤몰리며 간신히 걸음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느 사람은 눈에 경련을 일으켜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다. 우리들 일행의 니승들은 그들을 위하여 옛 프랑스 노래를 불러줄 생각이 났다. 처음에는 겁을 내었으나 차츰 힘 있게 「피레네의 노래」가 산울림을 하여 왔다. 아메리카병(兵)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어 원기를 얻게 하여준 니승들에게 감사하였다. 취안이라는 헛간 같은 부락이었다. 흙벽의 조그맣고 얇은 오막살이집들이 있었다. 불이라고는 종이도 바르지 않은 창으로 그것도 날이 좋은 날만 켜졌다.—우리들은 평양을 출발한 이래 유리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중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영영 보지 못하였다. 보잘 것 없는 우리

간의 가축 사이에는 깊숙한 흠이 패어 있고 말라빠진 돼지가 무엇을 쭈시고 있었다. 나무 한 그루 없었다. 지저분한 회색 풍경을 보고 있으면 가슴을 압박하여 왔다. 우리들은 취안리에 웅크리고 있던 나흘 동안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푸나무를 주우러 다니기에 시간을 보냈다. 이 조선식 난로 온도는 방바닥 밑으로 흠을 판 일종 운하의 조직을 가진 것으로, 그리고 연기를 통하여 흠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들은 또한 연합군이 그곳까지 진격하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수일(數日) 전(前) '보안대'의 '소좌(少佐)' 한 사람이 우리들을 모아 놓고 이상한 그리고 어째 대단히 난처한 어조로 짧은 연설을 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 소좌는

“북한의 좋은 점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우리들이 수행한 개혁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과히 나쁜 인상을 가져주지 말기를 바란다.”는 뜻의 말을 하였다.

산중의 길이란 길에는 패주한 북한군의 병졸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들 있었다. 그들은 만포 쪽으로 향하여 갔다. 재편성을 하고, 재장비를 하고 재훈련을 하는 셈이었다. 우리들에게 증오에 찬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감시병의 어느 자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친절하여 졌다. 자기는 병정을 그만 둘 작정이다. 연합군이 왔을 경우에는 관대히 취급하여 주도록 조언을 하여 달라고 고배하는 자도 있었다. 북한군은 분명히 의기소침하여 있었다. 우리들보다 좀 높은 곳에서 휴지(休止)하고 있던 아메리카 병의 포로는 고산가도(高山街道) 쪽에서 전차가 달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27일 우리들은 다시 산중을 헤치고 고산, 만포 방향으로 향하여 마음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지니고 이주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최후의 목적지가 중강진(中江鎭)인 것을 그때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곳은 조선 안에서 그중 추운 곳이라고 이름난 곳이며 취안리에서 2백 킬로나 되었다. 여자나 노인은 남겨두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나중에 우차(牛車)로 오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인 동수(同四)들은 북쪽으로 전진하는 것은 되도록 지연하는 작전을 우리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가까이 임박하였으리라 생각되는 연합군의 도착을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안(案)에 대하여 우리들 일행의 '지휘관'인 젊은 대위의 목인을 얻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도리어 그 편이 훨씬 피로할 만치 놀라울 정도로 더디게 행진하였다. 얼마 아니하여 우리들 중의 두 세 사람은 주저하면서 이 작전의 효과를 의심하여 결국은 이러한 책략은 모두 그만두고 말았을 정도였다. 이튿날 고산진 근처에서 48시간에 가까운 휴지를 하였을 때 우리들 가운데서 8명이 탈주를 하고 말았다. 호주머니에 팔과 생선가루를 잔뜩 쳐넣고 한 사람의 젊은 중사와 감시병 한사람을 데리고 지름길을 따라 마음 가득히 취안리로 뒤돌아 가기로 되었다. 이 탈주계획을 한 것은 조선인의 동수자(同四者)의 한사람이었다. 산중을 가로 질러 연합군이 있는 곳까지 당도하자는 계획이었다. 취안리를 내려다보는 고개 마루턱까지 왔을 때 우리

들의 감시병 두 사람은 갑자기 저희들이 범한 죄의 책임이 중대함을 겁내고 온 길로 다시 가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산중에는 도처에 중공군이 패주하는 북한병을 격려하고 있었다. 그 진지를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할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10월 30일, 우리들은 만포 교외에 도착하였다. 일행의 책임자인 대위가 전날 밤 도중에서 내 곁에 다가와 감동된 연성으로

“나는 제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당신들을 마치 범죄인이나 처럼 비인도적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앞으로가 더 고생스럽습니다.”하였다.

진실로 그 말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의 암담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다 떨어진 벽만이 남아 있는 한 채의 집에서 쉬기로 하였다. 노인들은 이미 그곳에 모여 와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미국인들에게는 바람을 막는 벽마저 없었다. 그들은 얼음과 같이 찬바람이 불어가는 보독 위에 둘러 누워 있었다. 군방에는 완전한 집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너무도 지독한 행진계획을 짜낸 그 소좌가 말한 듯이 이것은 우리들을 '벌하기' 위한 것에 틀림없었다. 저녁때가 되자 파수병들은 우리들이 몸을 녹이려고 지핀 불을 사납게도 구두발로 문질러 끄러 다녔다.

11월 1일, 일행은 미국인 포로들과 합류하게 되어 우리들이 곧 '호랑이'라고 별명을 붙인 지휘관이 일행의 취급을 맡게 되었다. 행진을 또 시작하였다.

민간인의 일단(一團)이 선두 서게 되었다. 우리들 앞에 서있는 자는 무기를 가진 수명(數名)의 파수인 이었다(무기라 해야 구식 일본제의 보병총과 캐나다제 카빈총이다). 그들은 감옥의 간수가 입는 푸른빛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제1열에는 월모어 신부가 있었다. 신부는 83세나 되는 노인이로서 중국학자와 같은 새하얀 턱수염이 있고 고행승과 같은 얼굴로 팔은 거의 항상 십자로 하고 신부에게 비교하면 아직도 젊은 두 사람의 포교승(布教僧)에게 몸을 부축당하여 걷고 있었다. 훨씬 뒤 떨어져서 산 폴드 샤들 파(派)의 니슨장 베아트리스 수도니(修道尼)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 여자도 아직 80전후의 연배로서 고생으로 아주 수척하여져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을 만치 쇠약하여져 있었다. 프랑스 영사 줄주 페투스는 여전히 전(前)의 손가방을 새끼로 묶어서 잔등에 메고 서울 영사관부(領事館附) 무관의 어머니인 말텔 부인의 손을 끌고 있었다. 부인은 75세라는 나이에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어 걷고 있었다.

우리들은 만포 어귀에서 대단한 수의 피난민의 떼와 엇갈렸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나을 것 없이 참혹한 꼴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비실비실 도망하고 있었다. 한 대의 거머쥔 리무진형의 자동차가 길가에서 고장을 내고 있었다. 구주인(歐州人)의 일단(一團)이 난처한 낯으로 길을 비켜 우리들을 통과시켰다. 포로가 된 이래 처음으로 보는 구주인이었다. 그중의 한 사람은 페투스를 보더니 외면을 하고 말았

다. 그는 오래 전부터 아는 소련의 외교관으로서 베이징(北京)에서 페룽슈의 집에 몇 번씩이나 객으로 온 사나이였다.

그런데 ‘호랑이’는 아주 눈깔을 희번덕거리면서 화가 나 있었다. 출발에 당하여 병자는 모두 압록강 강안에 내버려 둔 채 죽음의 손에 맡기고 왔으나 새로운 낙오자가 속출하여 일행의 걸음은 지지부진하였다. ‘호랑이’는 미군인 포로 장교들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고 위협하였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소지품을 전부 버릴 것. 한명이 라도 낙오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들은 그날 밤을 만포에서 수(數) 킬로 떨어진 강계가도(江界街道)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작은 산의 중턱에서 지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몸뚱이는 빙화(氷花)에 쌓여 있었다. 몸을 녹이기에는 옥수숫대를 주어도 태운 약간의 불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공중(公衆)의 면전에서 사형이 행하여 진 것은 이곳이었다. ‘호랑이’는 미국인 부대의 대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낙오자가 생기는 것을 못 본체 하였다는 것을 야단스럽게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당장에 5명의 장교를 총살시킨다고 말하였다. 구세군의 사관이었던 로오드와 미군의 소령인 당 두 사람이 열심히 ‘호랑이’에게 다시 생각하여 달라고 간원(懇願)하였다. ‘호랑이’는 간신히 한 사람의 희생으로서 참을 것을 승낙하였다. 하필 불운한 운명의 제비를 뽑게 된 것은 불을 피우려고 조그만 나뭇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한사람의 중위였었다. ‘호랑이’는 그 중위를 호출하였다.

“자네의 부하들은 더 걸어갈 힘도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어째서 자네는 나무를 걸머지고 있는가? 자네는 군율(軍律)에 위반하고 있다. 자네 나라에서는 군율에 배반한 장교를 어떻게 하지?”

중위는 깜짝 놀라 떨면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벌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마침 지나가는 북한군 병대(兵隊)의 일단(一團)을 정지시켜 가지고 이 미국 장교는 사형에 값하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그들은 일제히

“치워 버려라.”하고 외쳤다. ‘호랑이’는 손수 중위의 눈가림을 하고 권총을 일발(一發) 그의 머리에도 쏘았다. 시체를 길가 도랑에다 굴러 내버려둔 채 일행은 다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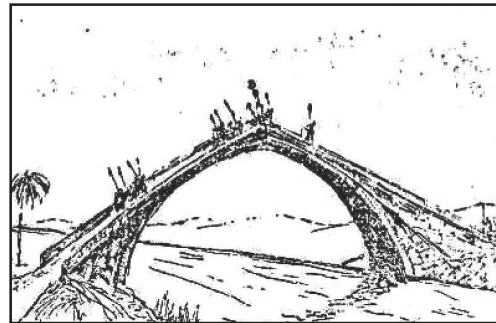
★ 죽음의 행진(行進)은 끝나고

11월 2일이었다. 우리들은 10월 8일부터 계속하여 걸었다. 우리들의 목전에서 행하여진 미국 중위의 살해가 연속 살인의 신호가 된 모양이었다.

같은 날 가다가 쉰 ‘노시’의 소촌(小村)의 소학교(초등학교) 앞에서 ‘호랑이’는 우리들에게 일장(一場)의 훈시를 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이번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 제군들은 금후 매일 숙영의 편지를 줄 것이다. 보행할 수 없는 병자는 인민병원으로 ‘보낸다.’고 ‘호랑이’는 말하였다.

이 연설의 골자를 우리들의 간수의 한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번역하여 설명하



★ 스케이트와 다리 ★

인간의 다리(족(足)) 대신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발명되므로 해서 거리에 대한 생각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시간과 속력이 온갖 경우의 중심이 되어졌다.

기관차나 자동차가 발명된 때까지는 스케이트로 활주하는 것이 속력이라는 것의 유일한 표준인 것 같이 생각되었었다. 그러나 스케이트의 속력은 오늘 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졌다. 근 백년 간에 우리들이 만든 기계의 속력은 대단히 진보하여 그것이 금후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모를 정도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일이 수상에 서도 일어났다. 자동차나 기차는 대하(大河)나 소천(小川)이 목적지에의 최단거리에 가로막혀 있을 경우에는 소용되지 않는다. 보행일 경우에도 만약 내(川)가 얇을 것 같으면 뚫을 수도 있고 마소를 타고 건널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온 짐을 바꿔 신기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발을 적시지 아니하고 내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기에 편리한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다리(교(橋))가 발명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올행이 시대(時代)

들은 그러한 사람을

“무슨 소리야. 걸어야 해. 도살된다니까.”하고 격려하였다.

여 주었다.

“제군은 하루 두 번 반드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 ‘공화국’에 대하여 음모를 기도하는 것은 용서치 않는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물론 수족을 씻을 물은 없고 또한 우리들의 상태로서는 ‘공화국’에 대하여 음모를 기도하기는 어려웠다. 하여튼 우리들은 다시 길을 계속하기로 되었다.

운이 나쁠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북한에는 한파가 습래(襲來)하여 왔다. 우리들은 산허리에 길을 낸 산길을 붙어 행군하기에 행렬은 날로 길어져 갔다. 안하(眼下)에는 정신이 들만치 빛의 향연이 전개되어 이러한 처지가 아니었었다면 얼마나 즐거운 경치였을 것이냐고 생각되었다. 오렌지 빛, 석류 빛, 붉은 빛과 가지각색으로 단풍은 나무들이 바위와 바위 사이를 연(連)하는 장대한 감벽(紺碧)의 흐름에 그림자를 던져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정지할 수는 없었다.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없었다. 뒤쪽에서 들리는 ‘인민병원’의 야단스러운 총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에다가 마개를 할 정도였다.

우리들은 그렇기나 했지만 노일들은 약간 쉬게 하여 주기 위하여 종종 지극히 짧은 동안 정지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노인들의 반수 이상은 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길가에서 변을 보자면 간수가 발길로 등살을 대었다. 너무 뒤늦으면 머리위에다 대고 총을 쏘았다. 어떤 사람은 피를 토하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대로 여기서 죽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동류자(同類者)

낙오자는 전부 처치하고 말았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눈으로서 ‘호랑이’가 바위등성이에 쓰러져 있는 다 죽어가는 병자를 관자 노리에다 권총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와 함께 기관총을 메고 행진을 독려하던 조그만 사나이의 상사가 주검⁴⁷⁾의 역할을 맡아 가지고 그 처치를 하고 있었다. 산 폴드 샤들 파의 니승장인 베아트릭스 수도니는 그 전날 한 번 기절하고 말았다. 그 여자는 간신히 길을 계속하였다. 우제니 수도니와 한 사람의 신부가 자기도 기진맥진하면서 그 여자를 부축하고 걸었다. 베아트릭스 수도니는 눈이 뻥뻥하고 그냥 서있는 채로 이미 기절을 하고 있었다. 암만 하여도 땅에 눕혀주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우제니 수도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간수들은 총부리를 갖다 대고 그 여자더러 어서 행렬에 따라 갈 것을 명령하였다. 베아트릭스 수도니는 간신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야 합니다. 가 주세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제니 수도니에게 자기의 염주와 시계를 넘겨주었다. 우리들은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제니 수도니는 울면서 혼자 역시 길을 계속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서로 부축하고 조력하는 힘을 잃고 있었다. 이같이 날마다 약해져 갈뿐이었다. 그들은 우정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지불한 셈이다. 키리나는 백계노인(白系露人)의 젊은 여자로서 미인이며 전형적인 슬라브 민족의 여자였으나 세 어린 것을 데리고 일행에 끼어있었다. 그 여자는 ‘호랑이’의 잔학성(殘虐性)을 보다 못하여 몇 번씩이나 격한 말로 ‘호랑이’에게 디리 다쳤다. ‘호랑이’는 그 여자를 ‘인민재판’에 돌린다고 위협하였으나 키리나는 겁도 안냈다. 우리들은 옥수수인지, 메밀인지, 쌀인지 그날에 따라 달랐으나 하루에 가루 □자를 두 개 지급 받았다. 그리고 아주 어찌다가 배춧국 물을 그야말로 두 숟갈이나 세 숟갈쯤 주었다.

입는 것이라고는 우리들 78명의 인수에 대하여 솜이 들은 헌 옷을 20벌 준 것뿐이었다. 미국병은 아직 하복을 입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어깨나 불기짝이 통째로 보였다. 밤에는 소학교 교실이나 텅 비어 있는 교회교회에 통나무 시루같이 발도 뻗칠 수 없었다. 신고 있던 여름 구두는 창이 나서 발은 얼음 같이 되어 있었다. 설사로 혼이 나가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북한 정부가 만주 국경에 새로 만든 자강도(自彊道) 지방에 있는 두 주요 도시의 하나인 ‘자산’에서 우리들은 간신히 부인과 노인은 트럭으로 미국 부상병은 우차(牛車)로 운반할 허가를 얻었다. 아직 앞이 70킬로나 있었다.

★ 죽음의 집의 기록(記錄)

11월 9일. 오후가 되자 우리들은 지평선상의 중강(中江) 가톨릭교회의 종루(鐘樓)

47) 원문에는 ‘죽엄’으로 되어 있으나 ‘주검’으로 보임.

를 발견하였다. 광야에서 해매던 끝에 비로소 강을 보았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도 이리할까 생각될 뿐이었다. 드디어 안정하여 쉴 수가 있으리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였다. 종루를 바로보고 있으니 눈물이 흘렀다. 부즈 신부는 이 지방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조금은 안도하였다. 우리들의 새로운 감옥은 옛적의 일본인 중학교였다. 나무와 벽돌로서 탄탄히 지어진 집이었다. 그 아무 장치도 없이 엄격히 서있으며 청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을 하늘 아래서 보고 있으려니 어쩐지 두려운 듯이 우리들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같기도 보였다. 우리들은 도중에서 근 백 명이나 되는 동행을 잃었다. 남은 몇 백 명이 그 행진의 피로와 슬래하기 시작한 무서운 추위 때문에 머지않아 죽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병자들은 교단(敎壇)을 뒤집어 놓고 그 안에다 눕혔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 관이 생각났다. 얼마 아니해서 안제리강 파의 수도니 마리 크렐이 죽었다. 그 여자는 해방의 날이 가까운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그 흑의(黑衣)와 모자를 단정히 하고 있었다.

한난제(寒暖計)는 영하 35도—때로는 40도를 보였다. 조그만 화로와 얼마 아니 되는 나무로서는 이 커다란 교실을 따듯하게 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우리들은 불 곁에 모여 웅크리고 앉아 몇 뼘씩이나 한잠도 자지 못하고 보냈다. 아침이면 ‘호랑이’가 권총을 겨누어 우리들을 밖으로 내쫓아 ‘체조’를 시켰다. 한눈은 절대로 팔지 못하게 하였다. 죽어가는 병자까지가 샤쓰 한 가지로 얼음과 같은 바람 속에서 15분 가까이 수족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방구석의 제자리에 다리를 끌고 돌아가 최후의 숨을 거두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었다. 물이 부족하였다. ‘포로’들은 서로 번갈아 여간한 고생을 하여 가면서 한 통의 물을 길러 근처의 개울로 갔다. 허덕거리면서 얼어 빠진 몸뚱이로 물을 들고 돌아왔다.

어느 날 아침, ‘병동(病棟)’의 병자가 전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불을 피워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이 새로운 ‘형무소’에는 당장에 공황 상태에 빠져 버렸다. 우리들은 항상 추운 중에 배가 고팠다. 이미 자는 사람이 없어졌다. 잠든 채 죽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병자는 그 근처에 똥을 누러 또는 토하러 가는 것이었다.

매일 전날보다도 사자(死者)의 수가 늘어 갔다. 어느 흐린 날 아침 패럿슈 영사는 당면 포로들과 함께 프랑스의 포교사인 장로 월모오 신부를 매장하러 나갔다. 신부는 그 행진에서 살해된 것이다. 패럿슈 영사가 나가고 없는 동안에 별안간 미국 폭격기의 편대가 거리 상공에 나타났다. 보안대의 장교들은 허둥지둥 앞을 다투어 학교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도랑으로 숨으러 가고 뒤에는 몇 사람의 간수밖에 남지 않았다. 겁을 먹은 그들은 한층 잔인하여 졌다. — 그들은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는 모두 사살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최후의 때가 왔다고 믿었다. 비행기는 이 지방에서 오직 하나의 표적 나는 건물인 학교를 향하여 급강하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폭격은 우리들에게는 맞지 아니하고 수백 미터 전방에 있는 석유

저장소를 태워버렸다.

이 공습으로 거리는 한 시간 정도의 사이에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들은 또 출발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11월 16일. 그것이 우리들의 저주스러운 행진의 최후의 행정(行程)이었다. 우리들이 끌려간 것은 중강진에서 8킬로쯤 전방에 있는 압록강(鴨綠江) 강안의 어구가 보이는 눈에 덮인 조그만 농촌이다. 그것이 하진리(里) 수용소였다. 남은 겨울을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된 '죽음의 수용소'였다. 우리들이 이 수용소를 봄이 되어 떠나게 될 때 애초에 왔을 때는 750명이었던 미군 포로가 200명이나 줄어졌다. 이 최후의 행정은 그리 길지도 않았으나 '호랑이'가 한 밤 중이건만 불어치는 겨울날에 우리들을 한데다 세워두지 않았더라면 그다지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을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이제로부터 우리들의 감옥이 될 오막살이의 할당을 정하기에 시간이 걸렸다. 하진리에서는 10인(人)의 외교관과 신문기자는 햇빛이라고는 한발도 들지 않는 2미터에 3미터 되는 조그만 방에 처 집어넣었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여 조금은 운김있는 온돌에서 잘 수가 있었다. 미국 포로는 그렇지 못하여 이번에는 그 담당을 알아 그들 편에서 동네 소학교의 조그만 세 교실에 숙영하도록 되었으나 그 방은 거의 덥게 하려야 불가능하여 모두들 손발이 지독한 동상에 걸려 버렸다. 매장(埋葬)의 당번을 정하는 것이 한 고생이었다. 동료의 시체를 공동 묘혈(墓穴)에 운반하는 일에는 구역질이 나고 싫어서 그것보다는 간수에게 매를 맞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였다.

'병동'이라고 하는 다른 별로 다른데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집이 두 채 있었으나 그것은 마치 시체수용소나 마찬가지였다. 1951년 2월 1일 우리들이 이 마을을 떠날 때에는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감이었다.

★ 불모독산(不毛禿山)의 북한(北韓)

포성이 끊일 사이 없고 죽은 사람이 썩어가고 산 사람은 끊일 사이 없는 공포에 떠서 요철(凹凸)의 길을 다리를 끌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나는 곧잘 '아침 해 빛나는 조용한 나라'란 어디를 말하는가 생각한 것이었다. 이곳은 나의 눈에는 폐허의 고장이요, 불모독산의 연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밟고 있다. 그곳에 일천만 인(人)— 거의 그것에 가까웁게 전재자(戰災者)가 비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조선의 모든 계절을 보고 왔다. 근 70에 달하는 도시 중에서 한 군데나마 전채를 받지 않은 데는 없다. 여름에는 옥수수나무 잎이 우거지고 끄슬린 벽, 구부러진 녹슨 철골(鐵骨)이 가려져 있다. 그것이 늦은 가을이면 죽은 거리의 나골(裸骨)이 길거리의 해골과 같이 다시 전개된다. 거주할 도시를 잃은 시민들은 그 옷과 같이 주름살투성이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하호(地下壕)에 살면서 악충(惡蟲)과 그 누기차고 어두운 주거(住居)의 쟁탈을 하고 있다. 동네란 동네는 공포에 싸여 길에

가까운 좁은 산골짜기에 처박혀 모습을 감추고 있다. 위험 지대에 가까운 곳은 주민이 철거당하고 있다.

나무도 없고, 풀밭도 없다. 36도선에서 압록강까지 전선(前線)과 중국의 기지를 연결하는 좁은 작전도로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수전(水田)이라고는 거의 없어져 있다. 붉은 토지 사이에 드문드문 동굴과 옥수수, 조, 호(胡)배추의 잎, 무밭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도처에 덩불과, 그리고 돌 자갈, 어디를 가나 돌 자갈이다.

중공과 달라서 조선에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없다. 사실상 있는 것은 농민 프롤레타리아뿐이다. 일본의 지배 하에서 발전한 공업은 전쟁이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다.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얼마 아니 되는 공장과 시설로서 그것은 거의 취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그 무엇이고 기초를 두지 않는 한 정권의 유지가 불가능한 김일성(金日成) 전능(全能)의 당은 농업 생산에 노력을 집중하고 그 선전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문은 통계나 보고를 만재하여 '인민공화국'은 그 공업력을 상실하여도 아직 생명력이 가득하며 생산은 정하여진 계획대로 증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소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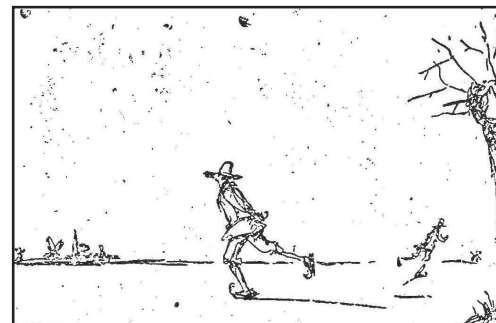
나는 종종 북한에는 지하공장이 있다는 것과 북한의 공업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가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두 개의 방직공장, 2, 3의 실험소, 인쇄공장이 지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생산력이란 뻔한 것이다. 작전의 수행이나 민간 수송에 필요한 것까지도 일일이 외국에서 가져오고 있다. 몽고(蒙古)에서까지 북한에 응분(應分)한 기여를 하고 있다. 몽고는 꺼병한 못을 박아 만든 구두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무기 탄약은 소련제이다.—그 밖의 미국제품도 역시 지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1948년 중공이 국민정부군한테서 그대로 먹은 것으로서 이것이 이번 전쟁에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트럭은 전부 소련제이다. 중공의 '의용군'은 상하이(上海)의 경공업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물자를 경주(傾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저희로서는 대국(大國)인체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군인의 제복은 사치스럽다. 가슴에는 훈장과 휘장이 즐비하다. 평양(平壤)의 지하 대(大)호텔에서는 세계 중의 모든 종류의 요리가 나오고 있다. 평양에 몇 천 명씩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영화관이 네씩이나 있어 집회 때문에 징발되지 않는 날은 소련이나 중공의 연화가 영상(映寫)되고 있다. '국립양조장(國立釀造場)'에서는 위키(공산당에는 으레 나오는)나, 과주(果酒)나, 맥주나, 연료유(燃料油)까지 만들고 있다. 북방의 중국에서는 비스켓, 가비야, 소시지가 풍족히 오고 있다. '정부수뇌부' 사람들은 다 파괴된 '수도'에 살면서 지하 생활의 신산(辛酸)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은 소련의 복제(複製)이다. 생각건대 여느 인민공화국이나 다른 점이 없다. 당은 제도 속에서의 귀족 계급이며 그 지점(支店)인 파루 도구가 각 지방의 주인이 되어 일체를 좌우하고 있다. 온갖 정부명령은 극소수의 정식 당원으로 성립하고 있는 지방위원회를 통하여 전달

된다. '보안부대'라고 칭하는 당의 친위대는 각 부대마다에 백만인 가까운 개인의 소성(素性)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은 일종의 경관(警官)으로서 도처에서 닥드리게 된다. 술을 먹기도 하며, 민중을 위협하기도 하며, 장기를 두기도 하며, 열심히 당의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저희들 권력의 본질과 그 정당화의 근거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 온갖 것이 결정적으로 비밀이다. 나는 어느 정거장에서 역장이 자동식 저울을 너무 가까이에서 드러다 보고 있는 여객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일체의 것이 '조직화'되어 있다. 구(舊)제도의 기생층과 교체된 신제도의 기생층들은 매일 오전 아홉 시에서 열한 시까지 또는 종종 오후 일곱 시에서 아홉 시까지 '공부'를 한다. 배반자에게 태형(笞刑)을 가하고 이단자를 처벌한다. 당의 신문기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숙독(熟讀) 완미(玩味)한다. 예전, 난징(南京)의 장제스(蔣介石)의 젊은 장군들이 상하이(上海)의 영어 학교를 나와서 미국말 악센트를 흉내 내어 영어를 씌브렁거리 듯이 북한군의 풋내기 장교들은 러시아말을 씌부렁거리고 있다. 가바진의 바지를 입고 있으나 그 천은 어찌 소련제는 아닌 듯하다. 그들은 오고니오크나 프라우다를 읽고 있다. 조계지 시대 구주(歐洲)에서 돌아온 중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듯이 신문 잡지의 스크랩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젊은 장교들은 거의 전부가 하바롭스크의 '마르크스주의연구동양학원(研究東洋學院)'에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외고 있는 것을 그대로 외워 놓는 셈으로 언제 들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로서 '정치교육'은 다만 쓸데없는 파분한 낭독의 연습이라고밖에 생각되고 있지 아니하다.

대(大)지주는 이미 전쟁 전에 땅을 몰수당하고 남한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 땅은 소농(小農)에게 분배되었다. '국가'의 손으로 토지는 재분배되었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당의 지배하에 있는 '농민위원회'가 전답(田畠)의 구분을 재조정한다. '악질농민'은 토지를 빼앗긴다. 농민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토지와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의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분명치 아니하다. '정부'는 농민에게 비료와 농구의 공급을 약속하고 있었으나 이번 전쟁으로 그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골웁스에 이르러서는 평양 평원에 두 셋이 남이 있을 뿐이다. 거기서는 아직 트랙터의 이용이 된다. 다른 지방에서는 농구는 지극히 원시적이며 그 거의가 목제이다. 한 필 이상의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거의 없다. 살피지는 않았으나 소는 1가(家)에서 가장 중요한 식구이다. 농촌 영감들은 화룻가에 앉아 지내거나 길가에 앉아서 담뱃대를 물고 통행인들과 객담(客談)을 하고 소일을 한다. 일년에 두 번 농번기의 시작과 끝, 4월과 9월 이외에는 힘을 들여 일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빨나무와 진초를 굽어 온다. 이러한 습관을 변혁하기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아주먼네는 일 년 열두 달 매일 같이 일하고 있다. 물을 짓고, 부엌일을 하고,



★ 로마시대(時代)의 다리 ★

최초에 다리(교(橋)) 구실을 한 것은 협곡에 걸친 그것이었다. 큼지막한 장목(長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무에는 길이의 한(限)이 있으며 우마차를 끌고 그 위를 지나가는 곤란하였다. 이 곤란을 없게 한 것이 로마인들이었다.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들도 로마인들 만치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거의 바다만이나 한 대하(大河)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대하를 건너려고는 생각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리 넓지 않은 토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서 이웃나라로 급작스럽게 가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토를 지배하기에 필요한 병사들을 항상 조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도로와 다리를 완전히 하여 두지 아니 하면 아니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시대의 다리는 대부분이 군용으로 상업상의 필요에서 된 것은 적었었다.

현재로서는 다리는 교통상 없어서는 아니 될 설비로 되어 있으나 그 이상 토목가들은 다리 대신에 강과 해협의 밑을 가는 해저터널을 만들어 대안(對岸)으로 건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올챙이 시대(時代)

파종을 한다. 아이들은 겨울에도 변변히 옷을 입지 못하고 읍(邑)에 학교가 있으면 추위에 떨면서 학교를 도보로 다닌다. 그 도중에서 양친을 위하여 음식물이나 담배를 구걸한다. 이상으로서 아마 공산주의 이전의 조선 농민생활의 묘사는 다 되었으리라. 그러나 지금도 그와 다른 점은 한 가지도 없으리라고 보인다. 생활은 거의 전부의 인간으로서 고생스럽다. 특권계급인 보안부의 대원일망정 예외는 아니다. 그들의 배급도 곡분(穀粉)과 채엽(菜葉)이다. 관리(官吏)의 전부를 통해서 다 그렇다. 보안대원도 전에는 제법 나은 제복을 입고 있었으나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해져서 꼬맨 자리가 나오고 위신도 그와 동시에 감소되고 말았다. 그들의 급료(給料)는 부대장급으로서 2천 5백 원이다. 평대원은 천백 원이다. 보통 담배 피우는 사람의 담뱃값밖에 아니 된다. 경관의 월급은 고무창을 댄 구두 한 켤레의 값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폐의 유통을 적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화폐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거의가 물물교환제도에 가까워 졌다. 농민은 수확의 25퍼센트를 납세 대신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두고 식량 삼든지 교환하든지 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먹을 것이라고는 극소량의 쌀이나 조나 옥수수나 채엽 뿐이다. 집에서 치고 있는 돼지의 고기마저 먹을 권리가 없다. 육식은 연(年)에 한 번이나 두 번 될 것 같으면 아주 좋은 편이다. 봄과 가을에는 개를 잡아먹는 일도 있다. 타면(他面) 지배계급의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당과 보안대의 본부(本部)지

들이지만 '철저 항전(抗戰)'을 부르짖을 경우 그들은 지극히 참답게 그것을 믿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들의 연설을 요약하면 대개 이러한 것이 된다.

"우리들은 패하지 않는다. 조선인 1인은 미국인 2인에 필적하다. 우리들은 전 세계의 군대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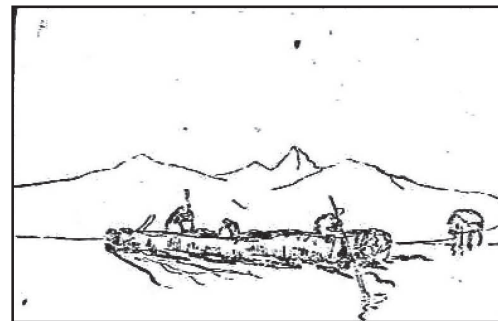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말을 중공병(中兵)이 있는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상대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951년의 5월 북한군의 '소좌'는 나를 불러내어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우리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우리들은 두터지 같이 지하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적대할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보낸다. 얼마 아니 되는 교통로마저 파괴하여 버리지 않았느냐! 비록 원자폭탄을 가지고 올지라도 이 상태를 더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아주 밑바닥에 빠져버렸으니 우리들에게는 이미 두려운 것도 잃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 하다."

묘한 것은 장교나 하급 군인의 대부분은 휴전이 성립될 것 같은 것에 관하여 결코 기뻐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것이란 텅빈 것에는 틀림없으나 전쟁은 사실 그들에게 뜻하지도 않았던 이익을 가져 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평화가 돌아오면 그들은 필경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농민의 생활은 편해본 일이 없었다. 그들은 전쟁이나, 평화나, 한난계를 보면서 그때그때를 청담(淸潭)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그것을 보아서도 이 표면상 계급이 없는 '나라'에 특권 사회가 생기고 있는 것을 이내 알 수 있다. 견장도 제복도 없는 일반 백성은 그들과는 판판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반민은 마음속으로부터 전쟁이 끝나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의 자(者)에게는 영화(榮華)와 권력의 지휘를 주고 자기들에게는 경작과 가축을 없애지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지금의 상태가 하루라도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신문에는 '극비정보'라고 칭하는 것이 크게 나고 있다. 나는 소비에트 세계에서 '신문기자'의 직업적 특권이 인정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북한의 신문은 본 바에 의하면 독자에의 봉사자와 같은 것이다. 북한의 2대 신문—당의 기관지와 '정부'의 기관지인 것은 모스크바의 프라우다와 이스빠스차를 모방한 것인데 특권 계급에밖에 배부되지 아니하며 그들은 어지간히 고맙게 그것을 읽고 있다. 민중의 대다수는 신문을 읽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지, '지도자'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흐리멍덩하게밖에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다. 김일성은 결코 공중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며 일반인으로서의 미지의 인물이다. 그의 전기(傳記)(공식(公式)의)는 작년에 처음으로 그의 40세 탄생일에 제(際)하여 공간(公開)되었다. 그의 초상은 도처에 걸려 있으나 항상 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의 초상과 함께 걸려있다. 마치 이 두 사람의 호위가 조작된 이 젊은 자의 지나치는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조선은 이전에 중국에 식민지



★ 최초(最初)의 배 ★

강에 비교하면 바다는 커다란 자연의 방해물이었다. 바다는 장구한 동안 인간에게 정복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정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서 착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사람은 고기(魚)나 해표(海豹)를 모방하여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물속에서 건널 수는 없다. 그래서 수족을 사용하여 바다를 건너기에는 전연 다른 방법이 생각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동물은 홍수 때 등에 있어서 떠내려 오는 나무토막 위에 타고 죽음을 면할 수 있으나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배를 만들 것을 착상(着想)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최초에는 통목을 타고 다녔으리라고 생각되나 그것은 좀 풍세(風勢)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서는 금세 뒤집혀지기 때문에 불편하였다. 그래서 누군지 불(火)과 돌의 도구를 사용하여 나무토막을 확 같이 파서 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띄우고 기다란 당대(竿)로서 그것을 움직이기에 성공하였다.

그 다음에 역사상 최대사건의 하나로 된 것은 한 사람의 두뇌 좋은 사나이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나무에 꿰어 매어 간단한 돛(帆)을 생각하여 낸 것이었다. (허송(許松))

울쟁이 시대(時代)

였으며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나의 명에서 다른 명으로 옮겨져 젖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노예이다. 어디이고 중요한 관청에 갈 것 같으면 중공인이나 소련인이 있다. 시골도 가면 교통기관인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중공인이다. 군민을 불문하고 몇 만(萬)이라는 중공인이 북한 전토(全土)에 배치되어 있다. 각 성(省)에는 반드시 소련인의 고문이 있는 것은 중공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커다란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있다.

조선인의 눈으로도 그들의 '나라'가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 상대국이 다르다는 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자기들이 노예인 것은 다름이 없다. 조선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 어느 때이고 필경에는 조선인도 노예인 것에 권태를 느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노상의 사람들이 사물을 생각하는 것에서 추정할 수가 있었다.

★ 북한(北韓)의 중공(中共) 식민지화(植民地化)

1950년 10월 26일 우리들이 취안리에서 중강으로 향하는 행진 도중에 제1회의 쉴 참에서 우리들은 비로소 길을 남쪽을 잡아—그것은 전선(前線)으로 향하는 분명한 외국병 일대(一隊)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젊은 병정이었다. 몸이 크고 체격이 튼튼한 조선인과는 몹시 다른 더 피부가 황색이었다. 가을도 이미 늦었지만 그들은 노리끼한 천이 거친 무명으로 만든 하복을 입고 있었다. 견장도 금장(襟章)도 계급 지위의 표시가 없이 장교는 붉은 형짚 조각을 꿰매 단 권총을 가지고 있

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마치 보이스카우트가 캠핑에 나가는 것 같이 온갖 물품을 어깨에 허리에 걸머지고 있었다. 잔등에는 비스듬히 커다란 순대 같은 자루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쌀이 들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중공의 의용군이다.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 바로서는 의기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들로서는 전쟁의 확대 심지어는 제3차 대전을 의미하였다. 우리들은 이 이상 구원 받지 못하리라고 느꼈다.

확실히 중공이 참전한다는 소문이 수일 내로 전하여져 있었다. 전투를 38도선까지 밀어 넘긴다는 유엔의 결의 이래 평양(平壤)과 베이징(北京)의 라디오 방송은 중공의 참전을 예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정확히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아니하였다. 북한병이 총 봉고하여 조그만 때를 짓고 가진 것이라고는 총 하나, 먹을 것이라고는 조선에서 가장 간단한 음식물이며 어딜 가든지 으레 담는 김치를 씹으면서 북으로 북으로 패주하고 있을 때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여 행진하는 중공군은 연합군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정복국군(征服國軍)이라고 할 면모가 있었다. 우리들이 만포로 가기 위하여 저녁때 압록강 안 고산진의 벽촌(僻村)을 통과하였을 때 거기에는 이미 중공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별안간 총검을 내밀고 우리들 일행에게 정지 명령을 하였다. 우리들의 간수들은 완전히 움츠러져서 골 백 번씩 꾸벅거리며 점령군에게 길을 계속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튿날 강이 내려다보이는 산길에서 우리들은 노새에게 걸린 중공의 짐차의 행렬과 마주쳤다. 그치들은 주먹과 기다란 가죽 끈을 단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쌀 포대를 실은 짐차 위에 쉬고 있는 그 동료들은 문란한 몸짓을 하면서 장난삼아 총질을 하고 있었다. 조선인 간수들은 엉터리 중국말로 환영의 인사를 하였으나 상대는 콧물도 흘리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대 받고 격멸당하는 것뿐이었다. 고산진에서 11월 중공군이 철수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정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나 역시 우리들은 그 거짓 뉴스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허전(虛傳)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노새와 같이 짐을 진 중공병의 열(列)은 언제 그칠 줄 모르게 이연(蛇蜒)히 압록강에 걸린 조그만 다리를 건너 여전히 남으로 남으로 행진하였다.

‘하잔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통역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새로운 미병(美兵)의 포로 심문을 입회하였다. 미병 포로 언명은 북한 장병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포로의 말은 중공병에 관한 것뿐이고 북한군은 존재마저 의심하는 어조였다. 한만(韓滿) 국경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보다는 북한의 인플레이를 앞서서 중공 측에서는 전전(戰前)에 이미 엄중하였던 세관 단속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북한 측의 극소수의 고급장교만이 특정된 목적과 체제 기간을 한정하여 만주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돌아오면 아주 부러운 듯이 별세계 같다고 만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만주에 가기 위하

여서는 미리 초콜릿 빛의 견장을 떼어 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며 먼저 말한 대로 제복에 휘장 같은 것은 일체 달고 있지 않는 겸허한 ‘의용병’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용의에서이다. 이에 반하여 중공 측의 세관리(稅關吏)는 종종 북한 측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들의 옥졸들은 자기의 지위 안전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을 멀리하려고 온갖 외교 수단을 쓰는 것이다.

고산진의 촌에 살고 있던 중공인들은 그 동포의 병정이 북한에 개입하여 왔다고 하여 무한히 위신을 갖는다. 경관에 대하여 대등하게—낮추어 말하라는 정도이다. 말 상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공인 뿐이다. 나는 이후 1951년 12월 끝 무렵 평양으로 송환되기까지 중공군대는 보지 못하였다. 평양에서는 몇 천이라는 중공병이 도로나 철교의 수리에 일하고 있었다. 교통 운수의 지배권은 중공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도처에서 무수한 중공 트럭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공 트럭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소련제의 지스형(型) 트럭인 것이다. 수리(修理) 자재(資材)는 실로 원시적인 것이다. 삽괘이, 커다란 나무망치 같은 것인데 좌우간 노동력은 무한하며 게다가 활기가 있어서 폭파된 자리를 두세 시간으로 메꾸어 버리는 것이었다. 중공인은 고역수(苦役者)와 같이 일하고 있었다. 게다가 기본 좋게 제나라에 있는 것처럼 제법 활기 있었다. 그들은 절대적 주인인 것이다.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것은 중공인의 일수(一手) 전매이며 그 허가 없이는 기차에 탈 수 없다. 조선인은 보급용 트럭에 편승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며 그것도 운전수나 책임장교의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토공(土工), 도로 수선, 철도 이원(吏員), 전기공부(電氣工夫) 무엇이고 간에 중공인이다. 곡창도 만들고 암산(巖山)을 헤집어 도로의 확장 공사도 한다. 북한의 노(老)송목(松木)을 아낌없이 잘라내어 가교도 만든다. 산림 벌채라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전통으로서 전형적인 특기라고 생각되나 그 열정이 조선에 와서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된 셈이다.

평양 평원의 도로란 도로에는—킬로 마다 중공병의 감시초가 와 있어서 교통의 단속과 감시를 하고 있다. 공습이 가까우면 하늘에 대고 소총을 발하여 경계경보에 대신한다. 자동차 운전수에 대해서는 몹시 관대하며 헤드라이트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부주의도 예사로 눈 감아 준다. 나는 중공병이 화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호인(好人)이며, 북한 경관이 신경질인 것과 좋은 대조였다. 중공의 북한 지배가 얼마만치 철저한 것인가를 역력히 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1952년 7월 10일에서 15일에 걸친 5일간 만주에서 트럭에 태워 북한 각지를 이리저리 코스를 취하여 돌아 왔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산중 소(小)부락에서 부득이 정지당하였을 때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거기서 중공 주둔부대의 부대장은 권총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일반병과 전연 구별이 닮지 않는 복장을 한 장교였으나 해가 저물면 몸소 부락의 집을 한집 한집 소정의 순시를 하고 다녔다. 그는

우리 일행의 포로 감시병의 신분 증명을 보자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심문을 당하고 서류 제출을 당하였다. 우리들의 북한인 감시병은 완전히 모욕을 느끼고 중공 장교에게 대들어 보았으나 상대는 북한인의 항의쯤은 귀도 기우리지 아니하고 유연(悠然)히 사무를 보며 순시를 계속 하였다.

부하 중공병의 염치없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서 어느 집에도 예사로 들어간다. 주민들은 참을성 있게 단념하고 그가 하는 대로 당하고 있었다. 조선인은 외국의 식민지화의 습관을 벗어 날 틈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은 위생 주간이었다. 중공병은 손에 손에 파리채를 가지고 거리로 싸다니고 있었다. 어느 자는 쥐뿔을 만들고 있었다. 식사 때가 되면 피보험자인 조선인들은 부러운 듯이 그리고 신기로워서 중공병의 식사를 구경하고 있었다. 식사 당번은 거의 순백의 앞치마를 하고 어느 자는 목대(木臺) 위에서 가루를 반죽하고 있으며 혹은 어색한 손으로 돼지고기와 다마네기를 기름에 넣고 지지는 것이며 오이채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들은 여기서 오래간만에 먹는다는 것이 단순한 필요사(必要事)가 아니라 동시에 지극히 유쾌한 것인 인간을 본 셈이다. 즉 문명인을 본 셈이다. 우리들 일행의 감시인인 북한 장교는 한숨을 쉬면서

“자네들에게도 중국요리를 먹여주고 싶으나 그러나 무리한 일이다.”

하였다. 그들 자신도 먹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여전히 김치 조각을 찢고 있었다. 북한인과 중공인 간의 융화는 없었다. 지금도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지극히 많은 수의 중국인이 몇 세대씩 계속하여 거주해 오고 있으나 그들은 결코 조선인과 동화하지 않았다. 고국의 풍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입는 것도 언어, 경작 방법도, 중국의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주거의 외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것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안다. 조선인의 집에는 유리창(유리창이라고 하였으나 유지(油脂)를 유리의 대용으로 하고 있다)의 출입구가 있을 뿐이나 중국인의 집에는 창이 있다. 중국인의 농가에는 말(馬)이 있으나 조선인은 소밖에 치고 있지 않다. 징발된 촌락에서는 점령군의 조그만 몽고말이 들어와서 오양간의 주인이 되고 있다. 조선인의 소는 쫓겨나서 밖에서 자고 있다. 나는 중공병이 저희들의 탄 짐승을 대단한 시중으로 봉대를 하여 주기도 하며 갈귀를 다듬어 주기도 하고 있는 것을 곧잘 볼 수 있었다. 중공과 북한이라는 이 두 사이에는 피차의 신뢰감이라는 것은 없다. 남한 측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스파이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중공병은 통행인을 함부로 체포하여 심문하며 신체검사를 한다. “조사를 다하기 전에는 석방하지 않는다.”고 어느 북한인 소좌가 나에게 마뜩치 않게 말한 일이 있다. 신문 라디오는 물론 중공은 전(全) 아시아를 지도할 운명을 부하한 국가이며, 그 자원은 무한하며 그 군대는 불패한 것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나 토착민의 생각은 결코 중공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아니다.

사실 몇 세기씩 걸려서 양국 간에 파져 있는 호는 공통된 이데올로기 만으로는 메울 수가 없었다. 조선인의 마음속에는 어딘지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인은 그들의 강력한 이웃 나라 보다도 먼저 마르크시즘을 체득하였다고 자각하고 있다. 중공의 군대 원조를 받음으로 그 굴욕적인 결과를 감수하고 있으나 지령을 받고 있는 것은 베이징의 오만한 정부로부터 뿐이 아니라 모스크바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이면서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런 시대는 없었으며 그들은 별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위성국일지도 모르나 중공 역시 같은 위성국이 아니냐고 그들은 말한다. 중공인의 기사(技師)가 와서 철도를 만지고 있으나 중공에서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소련 기사이다. 북한인은 대단히 유쾌하게 그리고 사실을 지적하여 들려준다. 중공인 쪽에서는 북한인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외국의 원조가 없다면 북한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북한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었던 공업 시설이 없어진 현재로서는 북한은 요컨대 만주의 조그만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 대체로 중공인이나 북한인도 북한의 공업 시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의 공통의 주인인 소련인이 점령 중에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빠뜨리고 있다.

중공 점령 하에 있는 공산주의 북한이라는 특수한 처지에서 과연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어떤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중공군이나 북한인들이 불만하다는 것이다. 북한인은 필요상 부득이 중공의 참례를 견디고 있다. 의용군은 명령으로 참전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자를 접근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중공인은 어디까지나 중공인이며 북한인은 어디까지 북한인이다. 현재의 북한은 두 번 노출한 사 진 필름과 같은 광경을 정시(呈示)하고 있다. 두 대상이 서로 융합하지 아니한 채 들려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의 도가니가 이것을 합체(合體)시킬지 어떨지는 장래의 일이다.

(이제희(李濟熙) 옮김)

붉은 벽화(壁畵)

김종문(金宗文)

백설 더미에 뒤덮인 크렘린궁
어둔 궐실(厥室)은
늙은 유령의 전설.

“나의 애처 나데즈다여
그대는 바라다보는가?
그대 일찍이 모델이 되었던
저 고벽(高壁)
붉은 미완성의 벽화를……”
일찍이 애처 나데즈다의 피
무수한 스랍인(人)의 피
그리고 또
무수한 인방인(隣邦人)의 피를 짜 널대로 짜내어
붉은 벽화를 그려 왔다는 전설에…….

“늙은 유령이시여, 고이 누워 잠드소서.



세계낙수(世界落穗)

- ☆ 개와 고양이에게도 화장료(火葬料)
- ☆ 오리올 부인(婦人)이 수상(受賞)
- ☆ 무료(無料)로 된金門교(金門橋)
- ☆ 새색시 왕녀(王女)는 어이 우는고?

★ 개와 고양이에게도 화장료(火葬料)

홍콩정청(香港政廳)의 위생국은 요즘 죽은 개나 고양이는 반드시 합법적인 시체수

당신의 벽화는
기어코 완성하겠소이다.
당신이 남기신 기다란 붓대로…….”
언제부턴가 발톱자리 아죽한
광대한 지도 위에
모든 좌표선에 아롱진 피, 피, 피를 그대로 짖어 옮기며
해골들은 궐실(厥室)을 제식(製飾)한다고
젊은 유령들 늘어진 제단의 전설에…….

오인치 두터운 진열장 속에
어디서들 현상된 재물들이나
무수한 구곡(具穀)의 화석을
제각기
오랫동안 숨겨온 언어와 같이
언제까지나 풍기는 비문자(緋文字)

크렘린궁 붉은 광장에
피를 보파리에 싸 들고
벽화를 구경 오는 우방 귀족들 앞에

용소로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길거리에 버리면 사주(飼主)는 250홍콩달러의 벌금에 처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반드시 소정된 장소로 가져오든가 또는 가져가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이들의 시체는 화장을 하는데 그 비용은 2홍콩달러로 사주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 오리올 부인(婦人)이 수상(受賞)

가장 우수한 여류비행가(女流飛行家)에게 수여되는 ‘하이만 트로피’의 금년도 수여자로는 작년에 연이어 프랑스의 오이롱 대통령 영식(令息)의 부인 작크리아누 오리올 부인으로 결정되었다. 수여식은 백악관에서 행하여지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트로피가 수여될 것이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작크리아누 부인이 제트기로 작성한 시속 855킬로라고 하는 여류비행가의 최고 기록에 대하여 수여되는 것으로, 그 후 이 성적은 미국의 작크리아누 고쿠란 양(嬢)이 시속 약 1,050킬로의 초음비행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깨어졌지만 고쿠란 양의 성적은 아직 공식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 까닭에 이번에도 오리올 부인으로 결정된 것이라 한다. (AFP)

무수한 걸인군(乞人群)
 무수한 매음녀군(群)
 그래도
 최후의 생활을 증명하는 미소들
 일진스카야 공원에 늘어앉은
 노동자들의 피부들은
 나날이 유령을 따라
 유령의 피부와 같이 황폐해가는 계절풍에……?

네푸리도우의 회색 루바슈—카와
 카츄사의 홍색 넥카초의 후상들이
 미풍을 타고 흐르면
 스코루니키의 장미 포도(鋪道)는
 이제 뒤서거니
 앞서거니
 또 뒤서거니
 무수한 유령의 행렬
 붉은 벽화의 전설이었다.

★ 무료(無料)로 된 금문교(金門橋)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요즘 개통 만 16년을 축하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다리를 통과한 자동차는 연 1억 900만대, 그리고 통행요금의 소득은 5천만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본전도 빼냈으니 통행료를 그만 두자는 이야기가 일어나, 시험적으로 1년간 무료 통행을 허가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서 가결되어 금추(今秋) 9월부터 곧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RP)

★ 새색시 왕녀(王女)는 어이 우는고?

지난번 결혼한 벨지움의 조세핀인 샤오롯데 왕녀가 결혼식장에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하여져 한동안 세간의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요즘 전(前) 룩셈부르크 주재 미(美) 공사 파알 메스카 여사가 미국 부인구락부에서 그 진상을 밝혀 여러 사람을 그만 실망시키고 있다 한다. 사실은 왕녀는 평상시 보통 안경을 쓰고 있는데, 결혼 예식복 모습에다 안경은 싫다고 하여, 난생 처음으로 콘택트렌즈(직접 안구에 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 할 때

박인환(朴寅煥)

나는 언제나 샘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인생(人生)의 복판에 서서
 전쟁(戰爭)이나 금전(金錢)이나 나를 괴롭히는 물상(物象)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 할 때
 한줄기 소낙비는 나의 얼굴을 적신다.

진정(眞正)코 내가 바라던 하늘과 그 계절(季節)은
 푸르고 맑은 내 가슴을 눈물로 스치고
 한 때 청춘(青春)과 바꾼 반항(反抗)도
 이젠 서적(書籍)처럼 불타버렸다.

워 박는 렌즈)를 끼고 식당에 나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렌즈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온 것을 열석 자들은 정말로 우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까닭. 룩셈부르크의 잔 전하와 결혼한 왕녀는 그 후 보통 안경을 쓰고 지극히 원만하다는 것이다. (PR)

★ 20세기(世紀)의 콜럼버스

지난 7월 5일 미국의 메리어랜드에 소형 범선(帆船)이 조용하게 입항하여 왔다. 승무원은 코린 폭스 군(君)이라 하는 32세의 영국인 1명으로 대서양 횡단을 하고 왔다고, 동군(同君)에 의하면 대서양 횡단을 계획하고 범선의 조종법도 모르고 영국을 단신(單身) 출항한 것이 바로 2년 전, 그 후 우선 프랑스에 상륙한 것을 선두로 스페인의 케지라, 리스본을 전전(轉轉), 마침내 북아프리카의 카사블랑카에 도착, 그곳에서 미국행 여비를 버는 사이에 1년이 지나갔다. 그리하여 동경(憧憬)의 대서양 항로를 취하였으나, 저 콜럼버스 이상(以上) 악전고투의 항해를 계속하는 사이에 또 1년이 지

가고 오는 그러한 제상(諸相)과 평범(平凡)속에서
슬과 어지러움을 한(恨)하던 나는
어느 해 여름처럼 공포(恐怖)에 시달려
지금은 하염없이 죽는다.

사라진 일체의 나의 애욕(愛慾)아
지금 형태(形態)도 없이 정신(精神)을 잃고
이 쓸쓸한 들판
아니 이즈러진 길목 처마 끝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들
우리들 또다시 살아나갈 것인가.

정막(靜寞)처럼 잠잠한
그러한 인생(人生)의 복판에 서서
여러 남녀(男女)와 군인(軍人)과 또는 학생과
이처럼 쇠퇴(衰退)한 철없는 시인(詩人)이

불안이다. 또는 황허(荒墟)롭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들
광막(廣漠)한 나와 그대들의 지나간
종말(終末)의 노정(路程)은
예나 지금이나 변(變)함없노라.

오, 난해(難解)한 세계(世界)
복잡(複雜)한 생활(生活) 속에서
이처럼 알기 쉬운 몇 줄의 시(詩)와
말라버린 나의 쓰디쓴 기억(記憶)을 위하여
전쟁(戰爭)이나 사나운 애정(愛情)을 잊고
넓고도 간혹(間或) 좁은 인간(人間)의 단상(壇上)에 서서
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서로 만난 것을 탓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 헤어질 것을 원할 것인가.

나고 겨우 이날 미국 대륙을 발견하였다고.

★ 진짜 샤므쌍생아(雙生兒)

‘샤므쌍생아’라고 하는 이름은 80년쯤 전에 죽은 유명한 쌍생아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몸뚱이가 맞붙어서 태어난 쌍생아를 말하는 것인데, 바야남 싸아 카수에 있던 이 유명한 샤므쌍생아는, 샤므(지금 타이국(國))에서 낳았으나 중국인 혈통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史上) 최초의 진짜 샤므쌍생아가 발견되었다. 이 쌍생아는 계집아이로 지난 6월 타이국 북동부 콘젠 부근 촌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농부, 모친은 23세로, 마침 이 지방을 여행하고 있던 의사가 발견하여 모자(母子) 함께 방콕으로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복부에서 붙어 있는 데, X선 투시의 결과 간장(肝臟)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몸뚱이의 다른 부분은 보통 사람과 다름없다고 (AFP)

★ 불(火)을 먹는 왕자(王子)님

아글이글 불타는 맹화(猛火)를 조용히 입속으로 처넣어 아무 일 없이 이것을 삼켜 버린다고 하는 조금 무시무시한 놀음은 방금 빈에서 상연 중인 서커스의 인기물인데, 이 놀음의 주인공은 웬걸 아프리카의 아산디란드의 왕자님. 빈에서 공연하는 도중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귀국 후 내무대신 직에 앉는다고. 어떠한 내정(內政)상의 수완을 보여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INP)

★ 개구리의 자손(子孫), 뱀의 선조(先祖)

양서류와 파충류와의 사이를 맺는 동물의 종족은 현재 아주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되어 왔었는데, 요즘 수백만 년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종족의 골격이라고 보이는 것이, 미국 캔자스 주 가아넷드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발견한 것은 캔자스대학의 조사단으로, 지휘자인 푸랭크 피이보리 씨(氏)는 이 발견에 대하여 작년 마다가스칼도(島)

홀로 거리를 지나치며

박훈산(朴薰山)

얼굴에 흠을 판
늙은 네와
지나칠 때마다
어디서 유언(遺言)했나
나의 홀어머니.

빠져린 회상(回想) 속에
그렇듯 휘청휘청
내가 또 견노라면
앞뒤에
탄력(彈力)진 젊은 여인.

나 하나만을
믿노라 더니
아니나 떠나버린
그를
못내 그려 보기도 하고

해안 부근에서 발견된 원시 어류 데나우스 발견에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INS)

★ 과연 거북은 만년(萬年)이라!

1940년 나치스 독일의 런던 폭격으로 에드워드 존스톤 씨(氏)의 집도 산산조각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 동씨(同氏)가 귀여워하고 있던 거북(龜) 조오이 군(君)이 행방불명이 되어 당연히 폭격의 희생이 된 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13년, 조오이 군의 생각도 거듭 해가 지남에 따라 존스톤 씨도 거의 잊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 불탄 자리에 집을 재건하였더니, 조오이 군은 대단히 원기왕성 목을 뽐족이 쳐들고 살랑살랑 기어 나왔다고, 지나치게 조그만 거북 조오이 군이지만 생명력이 강한 점은 보통 거북과는 조금도 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셈으로, 하수관 속에 기어들어서 이 13년 동안을 살아온 듯하다. (AP)

또 오다가다
그도 저도 아니건만
문득 찢릿해질 얼굴
이제는 없건 만도
비슷비슷한 얼굴
잊지 못할
나의 벗들아.

하나하나 또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슬픔을 넘지 못한
욕(辱)된 삶을
홀로 중얼거리고…….

모두 떠나 버렸는데도
오늘
이렇게 나는
여기 섰노라.

★ 선사어류(先史魚類)의 탐험대(探險隊)

작년 12월 아프리카의 불령(佛嶺) 마다가스칼에서 어느 어부가 아주 기묘한 물고기를 잡았다는데, 이것이 선사 어류 구라칸트였다. 그런데 이 보도가 전하여지자 온 세계의 학자들이 나도 나도 하며 모두 프랑스에 이 물고기 포획 허가를 신청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금번 구라칸트 포획을 위하여 국제 탐험대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내년 1월 런던에서 열리는 남(南)사하라지대(地帶)에 관한 아프리카 기술협력위원회 석상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AFP)

★ 왕녀(王女)의 새로운 파트너

타운젠트 항공 대좌와의 로맨스는 전 세계에 화제를 던진 엘리자베스 여왕의 매희(妹姬) 마가렛 여왕은 근근 23세의 탄생일 파티를 여는데, 이때 댄스의 상대로 명문의 카네기⁴⁸⁾ 경(卿)(24세)의 이름이 보여 또 새로운 로맨스의 꽃이 피우지나 않는 것인가고 성미 급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다 한다.

48) 원문은 카아네에기. Carnegie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사진 강호륜(姜鎬倫) 중령(中領))

강호륜(姜鎬倫) 중령(中領)

내가 강호륜 중령을 처음 만나기는 1951년 6월 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서다.

첫 인상은 소박하고 순직(純直)하기가 꼭 촌에서 배추를 팔러 온 농부 같았다. 입이 넓죽하게 크고 바른 쪽(?) 손등에 시꺼먼 점이 있다.

일본에서 비행술을 습득한 죄로 일군(日軍)에 편입되어 남양(南洋) 야자수(椰子樹) 그늘이 우거진 곳에서 실전(實戰)을 경험하고 사신을 넘어서 조국 행방과 함

께 귀국.

고향인 농촌에 돌아오니 비행술이란 씨 먹을 데가 없어 낮이면 들에 나가 소를 먹이며 풀밭에 한가로이 누워서 자유로 날아다니는 하늘만 쳐다보았다고 한다.

어느 날 자기가 누워 있는 산 위로 비행기 몇 대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후닥닥 일어나 앉아 손뼉을 탁 치며,

“제에길할, 비행기만 있었으면 마음껏 한번 날아볼 텐데…….”하고

흔잣말로 중얼거리면 탄식을 하였다는 이야기…….

아무런 과장도 수식도 없이 차근차근 늘어놓는 경상도(慶尙道) 사투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구수한 데가 있다.

빠른 비행기와 느린 소의 걸음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 소고삐를 잡은 강(姜) 중령의 심경이 과시(果是) 어땠을 것은 좋기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자유 대한에도 당당한 공군이 창설되어 날로 발전 도상에 있으며, 강 중령은 벌써 항공계의 선배로서 그 확고한 지위는 많은 후배들의 신망과 부러움의 적(的)이 되어 있다.

이제 또 미국 유학을 하고 오면 우수한 조종술로 우리 공군에 증추가 될 것이다. 씨(氏)의 앞날에 성공이 있기를 몇 줄 글로 축복한다.

비상하라 대한의 날개여!

그대의 앞날은 망망한 하늘.

청춘의 자라는 구름으로 피리니

꽃구름

꽃구름

보랏빛 하늘에 피는 꽃구름

(최인욱(崔仁旭))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사진 박희동(朴熙東) 중령(中領))

박희동(朴熙東) 중령(中領)

얼굴의 모습이 윤기 없어 보이고, 따라서 불임성 적어 보이고, 그런데다가 말이 적고 담울(曇鬱)하고 역세어 보이는 점은 타고난 외양(外樣)이기도 하겠으나 이 점은 내 생각 같아서는 그가 어려서부터 이역(異域) 일본 땅에서 장성했으니 그 일인(日人)들 틈에서의 고적(孤寂)과, 의식 무의식중에 놀리고 경원(敬遠)되고 하였을 그러한 부자연한 환경 속에서 커온 음영의 탓으로 명량해 보이는 점이 적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실상은 연접스럽고 정열적이며 아름다운 정조와 천진한 동심마저 지니고 있는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었다.

○

길은 널찍한데다가 관골이 큼직하게 솟은 얼굴은 마치 높지 않은 뒷산 같은 어느 한 모퉁이에 외로이 우뚝 배겨 있는 꺼치장한 바위와도 같아 보이나 친해 앉아서 혹은 담소 할 때면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도사리고 앉아 그 맨송맨송한 무릎을 연속 만지며 혹은 철썩 철썩 쳐가면서 좋아라고 웃어대는 그에게는 소탈한 인간미가 있다.

그러한 내면의 인간성을 가진 박희동 중령에게는 도리어 그러므로 해서 불타는 애국심과 동포애와 공군 조종사로서 승리에 찬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싸워 왔으며 앞으로 '대(大)공군'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헌신하는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장 벅차게 지니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 적은 그는 소위 '출세도(出世道)(승진)에 아예 약속받지 못하고, 난척 안하고 작수гүй '말은 바 임무'를 묵묵 수행하고 있는 것이니 나는 그에게서 건설 도상이기 때문에 더욱 치려야 할 무거운 짐뎀이를 두 어깨에 걸머져다 나르는 그러한 세대(世代)적인 난관을 개척해 가는 숙명적(宿命)적, 가혹한 역군(役軍)으로서의 바위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 박희동(49) 중령은 그같이 외식이나 과장이나 현요(衒耀)하지 않는 고박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그의 전투비행 시간은 전(前) 총참모장 김정렬(金貞烈) 중장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며 저 청사에 빛날 6.25때의 초(初)출격! 북으로부터 물밀듯이 남침하여 오는 공산 추적(肅敵)들을 쳐막으려 김영환(金英煥) 대령과 고 이근석(李根哲) 장군과 강호륜(姜鎬倫) 중령과 함께 안양(安養) 지구에 초출격을 감행하여 전과(戰果)를 올린 영웅의 한 사람이다.

○

그러한 인격과 혈투의 업적과 앞으로의 기대가 큰 박희동 중령은 현재 전투비행단의 비행전대장(飛行戰隊長).

앞으로 통일 조국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공군'의 추진력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박희동 중령이 있다는 것이 나는 펍 믿음직하다.

(이상로(李相魯))

49) 원문은 朴熙東으로 되어 있으나 朴熙東의 오키임.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사진 옥만호(玉滿鎬) 소령(少領))

옥만호(玉滿鎬) 소령(少領)

옥만호 소령. 그의 특징은 '초음속의 발언'이다. 그 전에 그 접한 일이 있지만 내가 모지(某誌)에서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출격하여 적지(敵地) 상공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즉 「하늘에서의 싸움」 실황을 집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릉(江陵)기지에 중군하였을 때다.

기초지식은 그 전일(前日) 마침 박재호(朴在浩) 소령이 내구(來邸)한 것을 붙잡고 물어 알기는 했지만 강릉브리핑실(室)에 들어가서 그(옥(玉))가 설명해 주던 중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씨령 5,000, 오오바캐스트……. 시정(視程) 6마일. 풍속 남동풍 20노트. 기온 섭씨 7°……” 운운이라든지

“동으로 입(入). 목표를 좌로. 이탈 동남쪽. 랑데부⁵⁰⁾ 포인트 AB 비행장……” 등. 그가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는데 있어서 그 ‘초음속의 발언’을 여간해서 나는 캐치⁵¹⁾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거듭 물기가 미안해서 후각(後刻) 다른 조종사를 붙잡고 문의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서 익숙지 못한 탓이지 현대전에 있어서는 과연 제트기적(的)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 초음속의 발언은 그의 용모와도 조화된다. 그는 항상 생그레 웃는 낯이다. 말이 ‘초음속’일뿐 아니라 행동 또한 빠르다. 언제나 쉬고 있지를 않는다. 현재 전투기지의 작전과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하나 시켜놓고 있는 식이 아니다. 기지 안을 일일이 지프차로 달려 돌아다니며 몸소 내려서 그 ‘초음속 발언’으로 명령을 하고 확인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놓이는가 보다. 그는 전투 출격 100회를 이미 마친 하늘의 영웅 중의 한사람이다.

“한국의 젊은 파일럿 중에도 몇몇 영웅들이 있다. 그 중에도 특출한 파일럿이 옥만호 대위이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은성훈장을 받았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옥(玉) 대위는 T-6 정찰기를 조종하여 모(某) 미국 장성(將星)을 주요한 회의 장소로 태우고 가야 했다. 일기는 험악했고 연료는 부족해 가는 중이었다. 그 때 옥 대위는 그 순간 치열한 전투의 목적이 되어 있는 비행장을 발견하여가지고 착륙했다. 그리고 그는 장군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활주로 가에 내버려져있는 가솔린 캔과 부서져 있는 C-47기(機)를 발견하자 거기 남아있는 가솔린을 자기 비행기의 탱크에 채워가지고 일기(日氣)의 험악과 적의 대공포(對空砲)가 집중 사격을 하는데도 자신만만하게 유유히 이륙하였다. 그리하여 무사히 장군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었다.

그의 희망은 제트기를 조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잉폴링지(誌)에 소개된 ‘한국공군’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50) 원문은 ‘랑데부’로 되어있으나 ‘랑데부’의 오키임.

51) 원문은 ‘캐치’로 되어 있으나 ‘캐치’의 오키임.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옥 소령의 조종사로서의 존재는 이미 세계적인 것이다. 조종사로서의 기능(技能)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는 아까도 말하듯이 무슨 일에 있어서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다.

또는, 이미 세평화(世評化)한 “우리 군관인(軍官人)은 남의 일 하듯 한다.”하건만 이 옥 소령 같이 성을 내어가며 일을 하다 시피 하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상로(李相魯))



(사진 윤응렬(尹應烈) 중령(中領))

윤응렬(尹應烈) 중령(中領)

아무리 기계력을 빌려서 하는 일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대지에 얽드린 채 짐승처럼 달려가는 기차의 유(類)라든가 파도를 헤쳐 가며 물위를 미끄러져가는 함정의 유와 달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조종사는 아무래도 그 생김생김부터가 가볍고 날쌔게 날짐승과 같은 인상이어야 한다. 소 같이 생긴 사람, 고래 같이 생긴 사람, 곰이나 말이나 불독 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리 후하게 보려 해도 조인(鳥人)의 인상이 안 난다.

그런데 내가 아는 조종사 중에 바로 나에게 갈데 없는 이 ‘날새’의 인상을 준 이가 한 분 있다. 백회 출격을 벌써 해버린 윤응렬 중령이 바로 그 분이다. 재작년 여름, 아직까지로는 내게 있어 단 한 번의 중군이었던 사천(泗川)기지에서의 일이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주로 우리 일행을 맡아서 안 내도 해주고 당시의 훈련 상황을 설명해 들려주던 이 윤(尹) 조종사의 인상은 그대로 내가 가지는 한국 전(全) 조종사에게 가질 수 있는 인상의 제1차적(的)요, 결정적인 것이었으며 또 전형적인 그것이었다. 그가 약간 피곤은 해 보이면서도 일관해서 열심과 성의를 다하여 말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내게는 생생하고 역력하다. 말해준 내용, 내가 얻었던바 소위 ‘지식’, 그것보다는 어쩌면 첫발에 “이분이 새 같고나.”하고 느낀 그 어딘지 꼭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날새’와 같은 그의 모습에 더 나는 호기심과 매력을 아울러서 느꼈던 것이다. 그의 표정, 그의 언어, ‘새’로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이 윤 소령을 나는 일전(日前) 2년 만에 또 만났다. 이미 아는 이로서 구면으로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지난번 8.15 시위비행 때 그것을 위로하는 장교구락부의 회합(會合)에 갔다가 처음 만나는 예(禮)로서 인사를 나눈 것이다. 아! 이분이구나! 하고 반가워할 새도 없이 의자에서 일어터니 “저 윤응렬입니다.”하며 손을 내밀지 않는가. 천성의 조인! 꼭 새, 매나 수리나 그런데서 얻는 것 같은 날쌔고 깨끗하고 투지적인 인상, 그것이 갈수록 더 농후해만 간다. 조종사 윤 중령은 천성의 조인이다. 그가 나는 하늘 앞에 영광 있으라.

(박두진(朴斗鎭))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사진 김금성(金錦成) 중령(中領)⁵³⁾)

김금성(金錦成) 소령(少領)

지난 10월 10일이었다. 우리 민국(民國)의 '날개의 성지(聖地)'인 사천(四川)기지에서 행하여 진 싸우는 우리 공군의 창립 제4주년 기념식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내 군관민(軍官民) 각계 인사들과 멀리 미국에서 오늘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내림(來臨)한 미 공군장관 등 으리으리하게 가득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에 뒤이어 우리 무스탕기(機)들이 대거 동원, 편대를 지어 공중 분열(分列), 특수 비행 등 온갖 묘기로 남(南) 하늘에 꽃을 피운 다음 공중 작전의 대(對)적지(敵地)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곤두박질로 쫓아 내려오면서 때리는 중 단발(單發)로 명중시켜 가상 목표물이 폭발 연소되자 관중들의 박수는 연발되었다. 그 때 누구였는지 곁에 있던 어느 고급장교가 나에게

“저, 단발에 바로 때린 사람이 백발백중의 꼬마 김금성 소령이었습니다.”

하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공군순보」에서부터 「코메트」자를 주무르느라고 나는 많은 공군 인사의 사진을 취급하여 왔으나 친히 인사한 사람 이외 특히 조종사에 있어서는 기지예를 거의 중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몰라 궁금하였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강릉기지에 중군하여 처음으로 그를 만났고 4, 5일을 한 콘서트에서 조식을 같이 했다. 처음이면서 구면 같이 여겨짐을 금치 못하였다. 과연 꼬마였다. 동시에 가무태태하고 땡땡한 체구가 틀지어 보였다. 나무꾼 아들 같이 소야(素野)하였다. 조금의 꾸밈이 없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사막히 연상되었다. “일제 때 시골에서 들로 소를 먹이러 나갔다가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놈아! 너만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알어!” 하고 하늘을 대고 외쳤다.”는 어느 호(號)인지 공군순보의 기사가 기억되었다. 운을 띄어 물었으나 아니었다. 그것은 강윤희 중령인 것을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다. 강릉에 4, 5일 머무르던 어느 날이다. 무슨 이야기 끝에 그는

“배가 자꾸 나와……”하자, 이기협(李基協)

소령이 곁에서 그 귀여운 농담으로

“7대 총참모장쯤 어떨까!”

하니까

“아아서, 너무 유명해지면 인민군이 잡으러 다녀!”하면서 우스갯말을 하는 것이었다. 7대는 몰라도 필경 대한민국 공군의 뒤를 이을 한사람! 그는 나무하다가 갈퀴를 비껴 놓고 한판 판죽어리 씨름이라도 씨근거리며 장난쳐 보는 그러한 순 조선적인 소야하고 친근성이 있으면서도 다부지고 만만찮은 위엄이 인격화하여 있는 젊은 파일럿이다.

(이상로(李相魯))

53) 김금성의 계급이 사진은 중령, 제목은 소령으로 되어 있음.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사진 박재호(朴在浩) 소령(少領))

박재호(朴在浩) 소령(少領)

그는 대화를 할 때에 머리를 약간 흔드는 습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늘 웃음이 얼굴에 피어오른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으로는 보기 드물게 부드러운 인상을 남에게 준다.

한가로운 비행 중에는 공중에서 곧잘 시상(詩想)을 가다듬어 보는 습성도 가졌다 한다.

비로소 그의 인품이 짐작된다.

언젠가 나는 사천기지에서 그를 만났다. 창공구락부 원이라 하나까 자진해서 안내역을 맡아 준다. 묻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물을만한 일은 미리 짐작하고 웃음 반, 말 반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었다. 사회적인 일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

나는 그에게 하늘 생활에 대하여 짤막한 글을 써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여러 번 있다. 그는 번번이 대답하기를

“제가 뭐 글을 쓸 줄 알아야죠. 기지에 돌아가면 부하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했다. 꼭 당신이 쓰라고 하니까.

“나보다는 더 젊은 사람들이 쓰면 고쳐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기를 조장하는 뜻도 되니까요”한다.

“막걸리 사실까요?”

“하실까요. 허허허”

이로써 나는 그가 점양지(之)미덕과 아울러 부하를 극진히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막걸리만은 일언 직하(直下)에 오케이. 구수한 인간성을 말함이 아닌가.

“연애는 많이 하시나요?”

“하려구만 하면 되는 건가요? 허허허”

그는 습성대로 또 머리를 흔든다.

그것이 애교 있어 좋다.

하나, 그는 6.25 당시 연습기를 가지고 폭탄을 안아다가 공산 추적(鵜藏)의 머리 위에 내리 갈리고 돌아오는 길에 조종석 바로 뒤를 맞아 뚫어진 비행기를 조종하여 가지고 평택(平澤)까지 내려 온 용사이며 이미 우리 공군의 100회 전투 출격을 한 영웅이다. 공지(空地) 협동작전을 지휘하여 청사에 빛나는 공훈을 세운 조종사 박재호 소령이 소년 시절을 하늘에서 살고 청년 시절을 하늘에서 살고 있고, 평생을 하늘에 살아 조국 강토를 침범하는 무리에게 불비의 천벌을 줌으로써 오로지 민족을 위한 생애를 갖자는 굳은 신념의 조인이다.

다시 말하면 박재호 소령의 인간적인 일면이다.

그의 무운(武運) 장구하기를 빈다.

(유주현(柳周鉉))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사진 유치곤(俞致坤) 소령(少領))

유치곤(俞致坤) 소령(少領)

지난 번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 기록인 유치곤 소령의 200회 '전투 출격'때 강릉기지에 종군하였던 박목월(朴木月) 시인(창공구락부원)은 그의 종군기(從軍記) 「왕자열전초(王者列傳抄)」에서 유치곤 소령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리부리한 두 눈, 생사를 걸고 하늘을 나는 조종사이기 보기는 차라리 농부 같이 소박한 인상이다. 농부 가운데도 군색한 살림에 뜻을 두지 않고 산천과 풍우에 운명을 맡겨버린 사람의, 일 하나 없는 청결하

게 부드러운 멍든 얼굴, 바로 그 얼굴이다.(중략(中略))

.....얼마나 싱거운 말(대답)이나. 그러나 구차히 생에 대한 구구한 소감의 그 번거로움에서 깨끗이 탈피한 데서 우러나오는 무심한 경지, 나는 그의 부리부리한 눈을 다시 한 번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표정이 돌지 않는 것이다. 위대할수록 평범한 것, 그것의 태(態)요, 정(情)이다.”

유(俞) 소령의 인상기로서는 더할 수 없다. 참으로 잘 보았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것은 내가 저번 강릉에 종군한 주요한 임무가 「정비사 좌담회」와 「하늘에서의 싸움」을 쓰기 위한 준비와 「조종사의 프로필」로서 그 조종사 프로필을 위하여 일부러 콘서트에서 놀고 쉬고 하는 중에 각 소태(素態)를 보고 비망(備忘)해 두었던 유치곤 소령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군색한 살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산천과 풍우에 운명을 맡긴 사람” 그것이며 “구구한 소감의 번거로움에서 차라리 탈피한 무심한 경지”며 “그의 눈에는 표정이 돌지 않는...위대할수록 평범한 것이 유치곤 소령의 태요 정”이다.

달인관(達人觀) 물외지물(物外之物) —채근담(菜根譚)

유치곤 소령에게는 하나의 ‘달인’적인 데가 있다.

내가 강릉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하루 강우가 심하고 해서 스탠다운 되었을 때 콘서트 안에서는 화투 놀음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었다. 나도 한몫 끼어 질러보기도 하였다. 유 소령은 더러 잃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움큼 따기도 하였다. 사람이란 이러한 때 그 소심(素心), 소태(素態)가 잘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그러는 유 소령은 그저 재미로 따고 잃고 하는 것이지 그 눈빛이나 태도에 또는 말에 조금도 어떠한 물욕적인 티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동료들이 이리저리 옮겨가고 혼자가 될 때면 그냥 서성거리다가 그 부리부리한 눈은 콘서트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속된 말로 하면 속스러우리만치 무미하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할수록 평범한 태(態)’ 그것인 것이다.

그 이튿날이든가는 클리어한 아침이었다. 근래에 드문 대(大)편대 출격이었었다. 파스화인타로 출격했다 돌아 온 유 대위는 대장 작전참모계서⁵⁴⁾ 마중 나온 자리에서 목표물을 찾아 래야 농무(濃霧)로 도무지 보이지 않기에 조그만 변전소인가를 때림에 있

54) 원문은 ‘서편’으로 되어 있으나 ‘계서’로 추정됨.

전투(戰鬪) 조종사(操縱士) 프로필

어서 미군에게 무전 연락을 하는데

“보통 땀 영어가 잘 돌지를 않는 적이 있는데 공중에서는 막 잘 나온단 말야! 사실 내가 영어 잘 하거든! 그만하면 미국 다이조 부지 뭐.....”하고 히히 웃는 것이었다. 그러한 말 중에 미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출격의 왕자’ 유 소령의 유일한 희망이 미국 공군 대학인지 싶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히히 깔깔 웃다가도 브리핑⁵⁵⁾이 끝나자 출격 성과에 대하여 각 편대원들을 앞에 차려 세우고 요점적으로 준절히 비평하는, 장으로서의 위엄은 작전장교의 완성된 품이 아닐 수 없다.

(이상로(李相魯))



(사진 오춘목(吳春睦) 중령(中領))

오춘목(吳春睦) 중령(中領)

길쭉한 안면에 두툼한 입술, 얼핏 보기에 딱 야생적인 인상을 주는 사나이면서도 그 검은 눈동자와 대하면 그의 총명한 정기가 곧장 육박한다.

일찍이 일본에서 유년비행학교를 마치고 우리 공군에 서는 초창기부터 활약한 투사. 6.25 적침이 시작되자 연습기에 사제(私製) 폭탄을 싣고 적 탱크에 손으로 떨어뜨린 눈물겨운 용사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공군의 성장과 더불어 그의 전공(戰功)도 높이 쌓여 갔다. 그는 연습기가 아니라 전투기를 날려서 전진(戰陣)에 불세례를 거듭 내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100회 출격이라는 파일럿으로서 가장 큰 영광까지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100회 출격의 용사 중령 오춘목. 그는 용사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을 만치 술도 잘 한다. 이 잘한다는 말은 술에 정신이 팔려 줄곧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량이 놀랄 만치 크다는 뜻이다.

그와 마주 앉아 술을 기울이면 밤이 새도 그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편은 곧드레만드레 눈도 뜰 수가 없는네.

누구든지 그를 대하는 사람은 30이 훨씬 넘는 장년으로 보건만 그는 아직 30이 먼 팔팔한 청년.

그의 할 일도 많거니와 그의 앞길은 더욱 멀다.

(방기환(方基煥))

55) 원문은 ‘데브리핑’으로 되어 있으나 ‘브리핑’으로 추정됨.



(사진 이기협(李基峽) 소령(少領))

이기협(李基峽) 소령(少領)

“저어, 언젠가 작전장교의 무슨 노트라는 글을 쓰셨죠?……”

내가 처음으로 그를 만나 인사하는 말끝에 실례되었던 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유협(申攸浹) 중령의 기고(寄稿)를 취급한 데서 받은 나의 착각에서였다. 이(李) 소령을 만나 인사한 인상과 더불어 그것(이를 착각의 실례)이 따라서 상기된다.

이기협 소령을 대함에 있어서 그는 까탈스럽거나 완만(頑慢)하지 않은, 상냥한 생김에 말이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는 심지어 귀엽기까지 했다.

기지 안 그의 숙소에는 좋은 대조(對照)의 세 사람이 침대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그 한사람은 고무땀땀한 몸집에 안미(眼尾)와 입매 등, 투계(鬪鷄) 같은 상에 과묵하면서도 얘기를 하면 다정스러운 인간성과 서울 가까운 충북 말씨의 친근미 있는 ○○대대장 김금성(金錦成) 소령과 지금은 진해(鎭海)에 가서 도미(渡美) 준비를 하고 있는 성실하고 겸손한 전 비행전대 부대장 윤응열(兪應烈) 중령과 어디로 보나 여성적이며 귀동형(貴童型)인 이기협 소령인 것이다.

“고향이 원산(元山)이신가요?……”했을 때

“아이입니다. 하암읍입니다”하는 함경도 말씨의 음성과 표정에는 애교가 다분하였다. 그의 예쁘장한 얼굴에는 눈매, 입매에 항상 웃음이 기어 다니는 듯 귀여운 데가 많다. 그러나 그는 웅(雄)하고 준(俊)한 우리의 ‘봉매’(봉취(鳳鷲)), 용감무쌍한 전투 조종사로, 벌써 백희의 전투 출격을 마친 나이 젊은 파일럿 중에도 몇몇 하늘의 영웅의 한사람인 것이다. 또한 그는 지금 ○○전투비행단의 대대를 인솔하는 젊은 대대장으로 커가고 있는 우리 공군의 간부급 조종사의 한 사람인 것이다.

솔직한 말이지만 나는 대구(大邱)에 와서 공군의 통신 하사 교육을 받고 있는 비당길(卮堂堊) 놈에게 어느 날 무슨 일에 견책(譴責)하는 말끝에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다.

“이놈아! 나이 20여세에, 중학이랍시고 졸업한 게 이제나마 하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이런 천둥벌거숭이! 되잖게 담배, 술은 처먹을 줄 알면서……이 놈아, 강릉엘 가봐! 너보다 몇 살 더 안 먹은 26, 7세에 소령일뿐더러 생사를 걸은 전투 출격 100회를 마친 ‘영웅’칭(稱)을 받고 있는 조종사들이 수두룩해! 그 사람들은 14, 5세에 소년비행학교를 들어가서 일찍이 일본 때 남방전선에 출전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야! 조종사라는 기술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됨으로도 현다하드라!

나이만 주워 먹은 이 철부지야! 서울도 가까운 고장에서 자란 것이 왜 그리 늦둥이냐?……”

이기협 소령 같은 분들을 표적(標的) 삼아 한 말이었다.

뉴욕 30일발 RP 통신의 보도를 보면 “이(李) 대통령은 한국군의 현재 병력 ○○을 ○○으로 증강하고 다시 이것을 전차와 대포로 증강하는 동시에 제트전투기와 폭격기로 되는 대(大)공군에다 대규모의 해군을 가지려고 결의하고 있다…….”하였다.

극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 국군으로서의 앞으로 그 ‘대공군’의 기동감의 한 사람인 이기협 소령은 위엄보다 인자성이 풍부하다. 부하를 다스릴 경우에도 추상(秋霜) 같은 엄벌이 아니라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중에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상관태(上官態)가 아니라 그의 천성일 것이다. 그 한 예(例)

사고로 헌병대에 구류 중에 있는 한 부하를 합법 수단으로 사유(赦宥)시키려고 비를 맞아 가며 돌아다니는 성의를 본 일이 있다. 그에게는 이러한 부하를 사랑하는 면이 있다. 우리 공군의 모토인 ‘단결’의 진의도 이러한 데에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상 상관이라고 부하에 대해서 무슨 일에도 ‘따따부따’식이란 감화적인 책벌이 못되는 도리어 경우에 따라서는 심중에 반항심을 뿌리박아 주는 폐가 될 것이다.

그러한⁵⁶⁾ 이(李) 소령의 일상생활면에는 한 낭만의 희구성(希求性)이 짙어 보였다.

“나는 왜 살아!” 이것은 기지 안의 통어(通語)였다. 읊에서도 십여 리나 들어가 있는, 전면(前面)으로 동해안의 파도소리가 바람 속에 번복될 뿐인 그러한 벽지(僻地)에서 일년 출격 이외에는 ‘장교구락부’도 아직 없이 쓸쓸히 지내야만 되는 기지 생활에서 생겨질 법한 하소연 투의 통어였다.

이기협 소령은 밤이면 침대머리맡의 조그만 라디오를 틀어 놓고 주로 음악을 즐기거나 약식(略式) 축음기에 몇 장 안 되는 레코드를 번갈아 걸면서 춤도 춰보다가 침대 위에 들어 누우면 어디 멀리 있는 듯한 애인을 그려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또한 조인예술가였다.

비행기라는 기계를 오직 의지하고 적지(敵地) 상공에 전투 출격을 감행하면서 으레 카메라를 목에 걸고 나간다. 그것은 혹은 운상(雲上) 운하를 가고 오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미의 캐처를 위해서와 적지의 목표물을 폭격하는 요기(僚機)의 용맹한 모습을 공중 촬영하여 가지고 와서 틈틈이 현상을 하며 즐기는 것이었다.

56) 원문은 ‘그러만’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으로 보임.



새로운 영화가 또 발명 되었으니 그 이름은 입체영화(立體映畵)

입체영화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것은 종래 있어 온 영화의 성능에 불만을 느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뉴욕 부로우드웨이 극장에서 공개된 시네라마라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영화사상 최대의 발명이라고 굉장히 선전을 하고 야단이었는데 이것은 같은 장면을 세 가지 렌즈로 각도를 달리해서 활용해 가지고 영사할 적에도 3대의 영사기로 높이 26피트, 폭 51피트나 되는 큰 스크린에 비친다는 것이다.

그러면 종래 있어 온 영화보다도 훨씬 입체감이 나며 소리도 입체 녹음이니 매우 실감이 날 것이다.

아직 시험도중이어서 결함도 많다고 하나 영화가 발명된 지 겨우 50년, 그 동안에 무성영화에서 토오키⁵⁷⁾, 그것이 천연색 영화로 발전했다가 다시 입체영화까지 생각하여 낸다니 참으로 즐거운 세상이다. 그런데 이 입체영화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공개했다. 이 영화를 보려면 포라로이드라고 부르는 얇은 젯빛이 나는 안경이 필요한데 이 안경까지 포함해서 입장료는 1달러 20센트라고 한다.

우선 최초에 스크린에서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통 영화가 나타난다. 그러다가 얼마 후

“자 들고 계신 안경을 쓰십시오. 이제부터 입체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마자 스크린에 비친 화면이 거울을 옆에서 슬쩍 본 것 같이 두 겹이 된다. 이것을 안경을 쓰고 보면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입체적 화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스크린에 비친 인물이 정말로 도드라져 보인다. 그런데 이 입체영화를 비치는 스크린은 보통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치수지만 윤곽의 선이 다소 강하기 때문에 스크린이 약간 작아 보인다.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름을 무나데벌이라고 하는 색채영화를 놀렸는데 이것은 1시간 20분쯤 걸리는 아프리카의 사자사냥⁵⁸⁾을 하는 입체영화다.

인물이 좌우로 움직인다고든 먼 경치라 이동할 경우에는 마치 파노라마와도 같아서 익숙해지면 그리 놀라지 않지만 아주 가깝게 인물을 크게 박힌⁵⁹⁾ 장면이

나타나면 그 인물의 손이라든가 얼굴이 정말 튀어나오거나 할 것 같아서 깜짝 깜짝 놀란다. 이 입체영화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경우는 토인이 카메라를 행해서, 다시 말하면 구경하는 사람을 행해서 창을 던질 때다. 이때에는 토오키로 썸 하는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구경꾼은 으악 소리를 치고 몸을 굽히게 된다. 또 사자가 으르렁댄다든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꽤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영화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입체영화를 구경하는데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은 안경을 쓰고서 본다는 점이다. 한 시간 반 이상이나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눈이 나빠서 처음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쓴 안경 위에 젯빛이 나는 안경을 겹쳐 쓰기 때문에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리의 발명가 알베르 벤티 씨(氏)는 일부러⁶⁰⁾ 안경을 쓸 필요가 없는 입체영화를 발명하고 그 실험을 공개했다. 이것은 활용할 적에는 두 대의 카메라 혹은 필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며 사진을 놀릴 적에는 두 대의 컨디션이 맞는 영사기 혹은 두 개의 렌즈를 가진 한 대의 영사기를 사용한다. 입체 효과는 스크린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스크린도 둘이 사용되는데 수직으로 걸린 스크린 앞에 약 구십 도의 각도로서 수평한 스크린을 놓고 두 스크린 사이에서 투명한 유리, 새카만 유리, 거울의 부스럭기로 만든 커다란 원반을 고속도로 돌린다.

구경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르면 완전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위치가 나쁘면 회전하는 원반에 점은 조각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최대 결함은 관객이 한 평면에만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층에서 본다면 입체감은 도저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입체영화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자막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외국에서 상영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되어 왔는데 이태리의 로마에서는 이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싱크론이라는 이상적인 영사기가 발명되었다. 이것은 입체영화용 영사기의 헤드에 다른 소형 영사기로서 자막을 스크린 어느 곳이나 적당히 따로 영사할 수가 있다 한다.

59) 원문은 '박인'으로 되어 있으나 '박힌'으로 보임.

60) 원문은 '일부러'로 되어 있으나 '일부러'로 보임.

57) 원문은 '토오키'로 되어 있으나 '토키'임. talkie

58) 원문은 '사자산양'으로 되어 있으나 '사자사냥'으로 보임.

귀로(歸路)

이상로(李相魯) 시집(詩集) 서울 백조사판(白鳥社版)



세계동향(世界動向) 적색제국(赤色帝國)의 붕괴(崩壞)는 가까워 오다.

☆ 억제(抑) 어려운 위성국(衛星國)의 자유(自由)에의 동경(憧憬)

외지(外紙)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아테나워⁶¹⁾서독 수상에서 보낸 서한 중에서 최근의 베를린 소련 점령 지구, 동독, 체코 등에 있어서의 반공 데모에 비추어 보아 20세기 중엽의 공산주의 제국은 붕괴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장래의 역사가가 이 공산주의 제국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엄연한 혼(魂)과 빈주먹을 가지고 폭군이 쏘아붙인 거포(巨砲)와 맞싸워 나간 이들 용감한 동독 국민을 특별하여 기본적 대의(大義)에 산 것으로서 일컬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뉴욕 타임지의 로오랜스 기자는 “이것은 공산주의 제국이 붕괴할 것이다.”로 말하는 대통령의 신념을 피력한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 텔레스⁶²⁾ 장관은 지난 7월 27일 행하여진 정례 기자 회견에서 “중공에 부당한 양보를 하는 일 없이 한국을 통일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여 “나는 위성 제국(諸國)을 소련으로부터 떼어 버릴 수가 있다는 희망뿐만 아니라 성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즉 나는 현재 유럽에서 위성화되어 있는 지역—베를린 소련 점령 지구, 동독 및 체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항은, 모든 이들 지역이 유럽사회에 끌려 들어가는 힘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소련의 지배자들이 있어선 그것들을 지배하에 두어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생각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다시 미국의 유수(有數)한 소련 권위자이며 전 주소련 대사였던 조오지 케난⁶³⁾ 씨(氏)가 최근 국무성에 와서 소련 제국이 붕괴하는 중대한 변화가 바야흐로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최근 귀국한 국무성의 동구(東歐) 전문가 후란씨스 스티 이븐슨 씨도 똑같은 것을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말하고 있다. 미 정부 수뇌부가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그것은



61) 원문은 '아테나우어'로 되어 있으나 '아테나워'임. Konrad Adenauer

62) 원문은 '텔레스'로 되어 있으나 '텔레스'임. John Foster Dulles

63) 원문은 '조오지 케난'이나 '조지 케난'. George Kennan

선전이나 또는 희망적 관측을 가진 처지에서가 아니라 더구나 소련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유수(有數)한 소련 엑스파아트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반면 미국의 정책이 이 방향으로 향하여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독 국민이 몸의 위험을 가리지 않고 서베를린의 미국으로부터의 식량을 받으러 오는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는 국무성의 모 고관(高官)은 “그 상황은 그들이 식량에 굶주림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에 굶주리고 자유의 매력이 얼마나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것도 결과로 본다면 미국의 이 정책 노선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산주의제국(共產主義帝國)의 붕괴(崩壞)는 어떻게 올 것인가, 미국(美國)의 모(某) 소련전문가(專門家)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동구(東歐) 제국(諸國) 사이에는 스탈린 생전부터 반(反) 모스크바적인 요소가 뿌리 깊게 침투하고 넓혀지고 있었는데 이들 제국의 국민은 스탈린의 죽음은 크렘린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연 이어서 일어난 평화공세는 이들 제(諸) 국민에게 크렘린이 약화하였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6월 중순의 폭동이 자연으로 더구나 대대적으로 발발한 것은 잠재적으로 반 모스크바 감정이 아주 막다른 한 도에까지 다다른 위에다 위로부터의 압력이 감퇴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 모스크바 폭동은 금후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크렘린의 내부를 보면 알 수 있다.

폭동 후 얼마 안 있어 베리아가 체포당하고 추방되었다. 베리아가 추방당한 이유는 그가 완화정책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틀리는 것이다. 비밀경찰을 쥐고 있던 베리아는 그의 처지에서 말하여도 그렇고 또는 그의 성격으로 말하여도 통제 제한을 강화하고 그것을 실시할 것을 주장은 하였을망정 제한을 완화하는 것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완화한다면 그의 임무의 수행은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완화를 주장한 일파(一派)와 서로 융합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주장을 관통하려고 비밀경찰을 군대와 당과의 위아에 두려고 하였다.

그런데 완화정책은 이미 그의 의지에 반하여 실시되었고 평화공세는 진전되어진 결과 호기에 다다랐다고 참고 참아 왔던 동구의 반 모스크바 감정은 불타 일어났던 것이다. 그 책임은 치안을 유지해야 할 비밀경찰에게 있다는 까닭으로 베리아가 희생당하였다. 베리아야말로 좋은 제물이었으나 이것은 바로 크렘린 내부에 있어서의 권력 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렌코프, 베리아, 몰로토프의 이름은 비교적 서구 측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렘린 내부의 권력 투쟁은 이 3자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다음은 몰로토프가 추방당하고 말렌코프가 남는다고 하

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번 모스크바로부터 합의제를 존중하는 뜻의 발표가 있었는데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합의제는 중간적인 과정인 것으로 결국은 한 사람의 독재자가 남는 것은 극히 변한 일이지만 누가 남는가 하는 것은 문제이다. 크렘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한 것은 위의 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많이 있으며 그들이 서로 혹은 합치고 혹은 반하여 투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몰로토프는 비상히 뛰어난 부수상(副首相)(보좌관)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고, 그는 일찍이 지난날의 권력 투쟁의 거센 물결을 헤엄쳐 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수상으로서 크렘린에 남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으며 수상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말렌코프 수상은 베리아 추방을 하기 위하여 군부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현재 군부에 대하여 머리를 들 수 없게 되었으며 그가 현재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확증도 없고 최후까지 남는다고 판단한다는 것도 할 수 없다. 군부로부터 다크호스가 나와 크렘린궁을 가로 챌다는 소문도 많이 떠돌고 있다. 그 가능성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 군인이 나와서 수상으로 된다면 현재의 공산주의 정책은 수정되고 소련의 성격은 일층 군국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로 될 것이다. 소련 군부 안에도 통일이 보지(保持)되고 있다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군부가 갈라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란이 된다는 가능성도 지금 전연 배제하여 버릴 수는 없다.

스탈린이 죽은 후 모스크바가 평화공세로 나온 이유는 크렘린 내부의 이와 같은 상태에 의한 것으로 종래와 같이 격렬하고 차디찬 전쟁에 인내할만한 힘이 없어졌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크렘린의 정세는 또 상당히 거칠어질 모양으로 위성 제국과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더욱 더 악화하여 가리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악화할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악화된 상태의 밑바닥을 찌른다면 점점 좋아져 온다. 밑바닥을 찌를 때까지 그 전에 벌써 위성국가가 뒤척거리 배신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것은 동구보다도 아시아에 더 짙은 모양으로 더욱 최근 마오쩌둥(毛澤東)의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동구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동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동구를 점령하는 소련군이 2년만쯤씩 교대하고 있으나 종전 이래 이미 백 수십만의 소련병이 동독에 주둔하였는데 서구적 문화의 매력에 마음을 남기고 소련으로 되돌아가는 소련병의 '세뇌'(아주 머릿속을 뒤집어 놓는 교육의 뜻으로 원래는 중국어)에 소련은 골치를 앓고 있는 형적(形迹)이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점점 반소(反蘇)적 감성이 강하여져 가고 있는 동독을 점령하여 주는 부담을 소련은 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의 통일 실현에 동의하는 가능성은 이

제 1, 2년 안에 비상이 높아져 온다. 그 조건으로서 그것은 서독으로부터의 미 영불(佛)군의 철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진 통일 독일은 아무래도 친 서구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련 위성국의 하나가 서구 진영으로 떨어져 갔다는 결과가 된다. 그 때에 다른 위성 제국 사이에서도 서구 제국 측에 되붙어 본거(本據)를 배반하는 자가 있어 크렘린으로서는 그것을 막을만한 힘이 없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공산주의 제국이 붕괴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련은 세력을 위성 제국으로부터 소 연방 내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보다도 다시 더 좀 나쁜 경우라 하고, 이것을 기회삼아 소련 안에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소련이 위성국 가운데서 무력무력 높아져 가고 있는 반소(反蘇)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는 최량(最良)인 경우에도 적어도 2, 3의 위성국은 자유진영으로 떨어져 간다는 가능성이 대단히 강한다. 소련의 지도자가 남은 위성 제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소련의 통제는 강화되고 서구 측에 대한 태도도 경화(硬化)하여 올 것이다. 소련이 전쟁을 먼저 도전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NATO군(軍) 사령관 그렌자이의 견해로 그는 최근의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서구 제군이 결속하고 있는 한 소련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최근의 동독, 체코 등의 폭동의 분석 결과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찍이 이태리가 에치오피아 전쟁을 시작한 것과 같이 소련이 내분을 짓누르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위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소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은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현재의 크렘린 내부의 상태를 본다면 극히 집안 끼리를 보아도 소련이 현재의 위성 제국 전부를 이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똑바로 본다면 적어도 셋 또는 네 개의 위성 제국은 가까운 장래에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갈 것이고 다시 소련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위성 제국의 대부분을 손 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 설명 상(上)의 원(圓) 텔레스 씨, 각(角) 아이젠하워 씨, 하(下)의 각 말렌코프, 중앙이 몰로토프, 하(下)가 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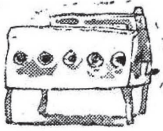
김종문(金宗文) 제2시집(第2詩集)

불안(不安)한 토요일(土曜日)

한정판(限定版)

소련인(人)의 진정(眞正)한 마음

하라이 슈왈쓰



2억 소련 인민의 진정한 기분은 어떠한 것일까.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조석(朝夕)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세계의 일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분분한 것인지.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크렘린에 반항하여 쫓겨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당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워싱턴이나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 모스크바 패킹⁶⁴ 등 세계 외교 중심지에서 열심히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 권태(倦怠)라 하는 것

소련의 인민이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다는 것은 1928년 이래 소연(驕然)한 소베트사(史)를 펼쳐보는 자는 용이하게 추량(推量)할 수 있는 바이다. 20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쳐, 그들은 고투와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사이에는 무서운 수년간에 걸치는 제2차 대전까지에 있어 그동안 그들은 잠시라도 마음을 놓고 손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일 본 항복 이래 8년이 흐른 오늘에 있어서도 전전(戰前)에 만들어지고 전시 중 쭉 취해져 왔던 가혹한 노동 입법은 여전히 효력을 상실치 않고 있다.

일을 게으르게 한다든가, 지각하든가 한 노동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철도 종업원은 지금도 계엄령 아래서 직무에 복역하고 있다. 집단농장제(制)에 대한 공산당과 정부의 지배력은 전시 중 한때 늦춰졌었으나 1946년 이래 또다시 강화되고 지금에는 전 보다도 좀 더 자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신선한 기력(氣力)과 열의(熱意)를 가지고 일에 당하려는 인민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소련 안에 있어서의 권태감이야말로 최근 국민의 분기(奮起) 촉진에 대한 광기적(狂氣的) 노력의 원인이라고 말하겠다. 스탈린의 탄생일로부터 한국동란에 이르는 모든 기회를 붙잡아 끊임없이 사회주의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다. 프라우다지(紙)는 이러한 경쟁이 각지에 있어서의 '노동의욕의 향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이렇게 부단히 자극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함구불언(緘口不言)이다. 또 프라우다지는 처음 다른 소련 신문이 이 사회주의 경쟁의 운명이 극히 형식적 또한 '관료적'이며 당해(當該) 노동자의 적극적 관심이나 참여 없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때때로 쓰이고 있음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저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할 만큼 충분한 사건이 최근 도룟드지(紙)에 게재되었다. 그것은 이와노프시(市) 티코프 방직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개월 전 이 공장에서도 사회주의 경쟁이 종(鍾) 또는 북으로 떠들썩하게 선전되어 생산 증강과 품질 개선을 목표로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도룟드지 특파원이 그 실정을 탐지하여 보니 사회주의 경쟁을 뜻 두고 있는 것은 이 공장의 노동조합 간부뿐이요, 당 노동자는 반수 이상 의무량(義務量)을 완수하지 않았으며 또 공장의 그 어느 한사람도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64) 원문은 '패킹'으로 되어 있으나 '패킹'으로 보임. packing

일찍이 보지 못할 만큼 때때로 또한 여러 가지 노동 촉진책이 시행되고 있는 사이에 있어서 소련 인민의 권태상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의 증거, 그것은 최근 각종 노동자에게 반(半) 군대풍의 제복과 계급이 제정되고 우수한 노동자는 상열(上列)에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대금(貸金)과 소득의 불균형이 점점 심하게 되어가고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스탈파노프 운동의 우승자는 1개월에 5,000 내지 10,000 루블의 수입이 있고 의류, 자전차(自轉車), 라디오는 물론 자동차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소수의 행운아가 되려는 욕망을 일으키기 위한 한 개의 수단인 것은 명확한 일이다.

소련 정부가 생산 증강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절망적인 노력의 또 하나 좋은 예는 도오넷(炭田)의 숙련공에 대한 새로운 대금 체계이다. 소련의 노동자는 단순 생산고(生産高) 지불이던 것이 보통인데 이 도오넷(炭田)에서는 누진 급여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노르마(작업 기준량)의 80 내지 100퍼센트를 올린 항부(抗夫)에 대해서는 단위 급여의 배액(倍額)이 치러지고 100퍼센트 이상을 생산한 자는 보통 액(額)의 3배가 치러지고 있다. 이러한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로 본다면 특별한 노동 촉진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 환멸(幻滅)이란 것

국민의 생활수준은 과거 5년간 뛰어나게 향상하여 오늘 날에 있어서는 1940년래 최고를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민 대부분이 환멸감을 품고 그 중에는 혐오감까지도 품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생활수준의 향상이 소련 인민의 욕구를 채울 만큼 신속하여도 전면적도 아닌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여러 곳에 엿보이고 있다.

스탈린은 1946년 2월에

“이제부터는 소비물자의 생산을 확장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여 기대를 장래에 이어 놓았던 것이지만 그 후 5, 6년의 시일이 흐른 오늘 날에 있어서도 육류, 버터⁶⁵, 달걀 등은 대부분 소련 인민에게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되어 있다.

의류 그 밖의 기초적 소비물품은—소련의 출판물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일반 대금, 농가 수입에 비하여 아직까지도 지독히 고가로서 내구적 소비물품은 2억의 소련 인민 가운데 극히 소수만이 입수할 수 있는 상태이다.

오랫동안 중대 문제였던 주택 문제도 역시 불만의 한 원인을 차치하고 있다. 한 가족에 대하여 1실(室)이라는 전전(戰前) 상태가 지금도 소련 각 도시에서는 보통 상태로 되어 있다. 주택 문제 해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멸감은 머지않아 잘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공약되었으며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끊임없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 등을 보아도 명확하다. 신발이든 양말이든 양복, 시계, 벽돌 등 일상생활에 관계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소련 시민이 응당 그럴 것이라 단념하고 있는 것의 하나로서 조그만 일이지만 모스크바의 세탁업을 들어보기로 하자.

작년 3월 도룟드지에는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세탁소가 모스크바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투서(投書)가 게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구식 세탁 설비밖에는 할 수 없는데 기

65) 원문의 '바다아'는 '버터'로 보임.

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관 관료에서는 세탁 기계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니까 머지않아 세탁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7개월 후인 10월 도룟드지에서는 재차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세탁 기계의 대량 생산은커녕 주관 관청에서는 그 대량 생산의 모형으로서 사용해야 될 시작품(試作品)도 만족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 중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수로써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비밀경찰의 끊임없는 협위(脅威)를 제외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순진한 소련 시민도 있다. 그들이 실망낙담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인 희망으로서 모든 보고기관이 일치하고 있는 의견은 나치 독일과 일본 몰락에 의하여 전쟁 위기가 없어지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 시민은 제2차 대전 후의 사태가 히틀러나 도조(東條)의 전성시대와는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생활 전부에 걸쳐 모든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만 들려질 뿐이다.

5년 전 소련의 농민은 생산에 대한 집단농장제와 국가의 중세(重稅)가 해제 또는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초(超) 집단농장'을 떼어 받게 되었고 세금은 오르고 극히 조금이나마 존속되어 있던 개인 경영의 농장은 일소되고 말았다.

가톨릭교도, 마호메트교도,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등 각종의 소수 단체는 동종(同宗)의 사람들과 해의 동포와 자유로 연락이 취하여지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범 마호메트주의(主義)', '유대 제국주의(帝國主義)', '무향(無鄉) 세계주의(世界主義)'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을 떠맡게 되고 말았다.

소련 시민 가운데서도 가장 실망한 것은 모든 종류의 인텔리 과학자, 작가, 음악대(隊), 예술가 등일 것이다. 그들은 전시(戰時) 중 미국이나 영국과의 동맹에 의하여 해의

의 신진(新進)과 새로운 사상과 자유에 접촉하는 단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들 하였었다. 그들은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쓰는, 보다 많은 활동 범위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소련의 과학원에서는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를 모스크바에 초대하여 극히 정중하게 대접한 위에 국내 연구소와 조사기관을 살살이 보여주었던 것이나, 그러한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전혀 없어졌다. 오늘 날에는 과학자는 '부르주아의 변견(番犬)'시(視) 되고 외국의 비공산주의 인텔리는 '세계적 전쟁도발자'라고 지목되고 있다.

우선 최초로 고(故) 안드레이 즈다노프 이어 스탈린 또 그 후 말렌코프 자신의 지도하에 모든 과학적 예술적 사고 분야에 있어서도 이것을 당의 승인이라는 틀(型)에 끼워서 그 때문에 어떤 때는 소연방 안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적 인텔리를 모욕한다는 것 같은 방법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프라우다지는 소련의 인텔리가 이러한 사상적 구속의(拘束衣)를 환형하고 있다고 쓰여 있으나 다른 세계는 전혀 이와는 반대인 증거를 많이 장악하고 있다.

★ 전쟁공포(戰爭恐怖)라는 것은

최후로 소련 인민은 지나간 동란 시의 쓰라림과 괴로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모두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소련은 평화의 투사로 소련의 외교정책은 전쟁 방지에 향해지고 있다는 것쯤 전후(戰後) 소련이 선전 가운데 거듭 되풀이되며 강조되어 온 것도 없다. 소련 시민은 전쟁의 위험이 서구의 '전쟁도발자'나 '원폭광(原爆狂)'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쓰고 있으나 또 크렘린의 힘(力)과 평화정책이 '제국주의의 광견'의 '건방진 계획'을 방지할 것이라고 항상 안심시켜 주고 있다.

소련 인민이 과연 이러한 선전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 중에도 악마와 같이 권력에 주린 미국이 세계 정패(征覇)의 야망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틀에 박은 문구를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어떠한가는 확실히 모르겠다. 다른 동양(同樣)의 경

세계기풍(世界奇風) 초(抄)

윤규섭(尹圭燮)

☆ 왕관(王冠)보다도 훌륭한 소의 관(棺)

소의 표지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300여 년 전에 베라스 2세가 창설한 것으로서 그 뒤 기원전 7세기의 전반(前半)에 푸사치크 1세가 대규모의 증설을 한 것이다. 그의 소재지인 사카라라는 것은 이집트 고왕국(古王國)의 서울인 데메피스의 서방으로서 지금은 리비아 사막 속에 있다. 따라서 굉장한 지하 분묘(墳墓)는 오랫동안 사중(砂中)에 매몰되어서 그 소재를 잃고 있던 것을 1851년 11월에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 앙리 마리에트 씨(氏)가 발견한 것이다. 발견된 것은 푸사메치크 1세가 증설한 것으로서 이것으로 이집트 여행자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하였다.

☆ 고양이를 살해(殺害)하면 사형(死刑)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 처한 시대가 있다. 고양이에 있어서는 소와

같이 특징이 있는 것만이 특히 존중된 것은 아니다. 백흑(白黑), 반(斑)의 털이라도 고양이일 것이면 한결같이 소중시하였다. 그것은 고양이네 빛을 맡은 신(神)들과 파스토라는 신에 속하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일러 왔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존중하여 온 것은 상상의외로서 기원전 5세기경에 친히 이집트를 여행하여 그 실재를 목격한 희랍의 사가(史家) 헤로도토스⁶⁶⁾의 기사(記事)는 여간 재미있지 않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이집트에서는 어느 집에서 고양이가 죽을 것 같으면 그 가족은 모두 눈썹을 꺾고 조의를 표한다. 화재 때에는 집이 타버리는 것은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고 고양이 구출에 열중한다. 만약에 고양이가 타 죽을 경우의 그 일가의 비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지오루도스도 고양이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를 남기고 있다.

—이들 신성(神聖)한 동물(고양이, 매 등)에는 어느 일정한 토지가 부속(附屬)되어

66) 원문의 '헤로도투스'는 '헤로도토스'임.

우에는 몇 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여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이외의 정보원(情報源)을 가지지 않았으며 서구 제국과 몸으로서 접촉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배하(配下)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액의 차관(借款) 원조에 대한 것 자유와 기회가 많지 않은 미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부단한 선전이 끈덕진 것으로 보아 크렘린의 지도자들은 그 인민에게 전후 미국에 대한 정해진 문구를 떼어 맡기는 것에 성공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주간(數週間) 전(前) 그들은 가장 왜곡된 사실(史實)을 국민 앞에 표시할 필요를 느꼈다.

영화 「밀사(密使)」는 즉 그것이었다. 이 영화는 나치 항복 전 베를린에서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과 히틀러 밑에 있는 중요 인물과 비밀 회견을 하고 나치의 밀정 조직과 그 자료를 미국에 인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영화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은 1944년 12월 공격에서 독일군의 압력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요구하고 나서도 소련의 신(新) 공격 개시일을 고의로 나치에게 밀통하였다는 것이다. 우수한 소련의 첩보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크렘린은 이 배반을 미리 알아차리고 공격 개시일을 다가 올려 워싱턴과 베를린의 밀통을 뒤엎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스크바의 영화 비평에서는 이 이야기가 글자 그대로 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 불만(不滿)이라는 것

현대 소련의 인심이 권태와 환멸과 전쟁 공포로서 성립되어 있다는 판단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불만이 소련 국내에 넘쳐흐르고 있다는 견해도 옳을 것이다. 그 현저한 증거로는 발틱 방면의 토민군(土民軍)이 적군(赤軍)에 반란을 일으킨 사실이나 서부 우크라이나의 농민이 집단농장제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 불만의 현상은 얼음산(氷山)과 같은 것으로 그 대부분은 시계(視界) 바깥에 있다) 귀축(鬼畜)과

있다.

그 토지에서 산(産)하는 것은 그 동물의 사료에 제공한다. 그 토지에는 사양계(飼養係)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양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들은 고기를 잘게 썰어서 고성(高聲)으로 불러서 주며, 또는 고양이로 안고 우유에다 빵을 넣은 것, 또는 나일강의 어육(魚肉) 썰은 것을 준다. 이리하여 각종의 동물은 각각 즐겨하는 먹이를 얻는다. 사양계는 이것을 명예의 직무로 여기며 특별한 휘장(徽章)을 달고 도비(都鄙)를 횡행한다. 그리하여 무슨 동물의 사양계인지는 그 휘장으로서 분간되기 때문에 길에서 만나면 모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다. 만약 신성한 동물이 죽을 경우에는 귀중한 보로 싸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 그리고 방부제를 쓰고 송지(松脂) 또는 방향(芳香)을 가진 보존에 적당한 것을 발라서 신성한 묘지에 장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고의로 신성한 동물을 죽이거나 하면 죽을죄에 처함은 물론 고의가 아니라 잘못하여 '이 버스'라는 새나 고양이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사형은 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왕왕

같은 MVD나 MGB에 대하여 감연(敢然)히 자신의 몸을 폭로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백만 사람들 가슴 깊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소련 인민의 모두가 불만의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압박의 완화나 그 밖의 양보에 의하여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불만의 정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은 최후까지 감연하게 소련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소련의 인민은 반대를 표명하는 하등의 수단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서구풍의 그로테스크한 한쪽으로 치우친 대표제에 의하여 지배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스탈린은 러시아의 국토와 소련의 부녀자를 지키는 것, 자기의 정권을 지킨다는 것을 동일시시키는 선전술에 뛰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당초에 있어서도 탈락하는 자가 있을 거시고 또는 그 기회를 붙잡는다면 탈락자는 그 수를 증가할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Magazine 지(誌)에서

(☆ 137면(面)에서 이음)

★제8장(第8章) 정의(定義)

제61조 '군사(軍事)', '군용(軍用)' 등에 있어서 군이란 어(語)는 본 규칙을 통하여 모든 병력의 종류 즉 육상군대, 해상군대 및 항공군대에 관한 것이라고 해(解)하여야 한다.

제62조 본 규칙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본 규칙 제7장의 규정 또는 국제 제(諸) 조약에 있어서 해상법 및 그 소속의 적용이 지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대행위에 종사한 항공기 승원(乘員)은 국제법의 관례 및 관계국이 가맹한 제 선언 및 제 조약에 의거하여 육상군대에 적용되는 전시(戰時)법규 및 중립법규를 따라야 한다. (끝)

히 군상(群像)이 사방으로부터 모여 들어 재판관을 기다릴 것 없이 가장 참혹히 범죄자를 죽이는 일도 있다. 인민의 심중에 신성한 동물에 대한 존경의 염(念)이 그같이도 깊은 것이다. 실례를 들면 부도레스 마이레스가(家)가 아직 로마와 우의를 맺기 전에 일로서 그 때 이태리로부터 이집트에 오는 자는 이것을 존경하고 로마의 전쟁 원인이 될 것은 이것을 피하려고 전심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로마인이 잘못 고양이를 죽인 자가 있었다. 그러자 인민은 몹시 격앙하여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왕은 그 격앙을 진정하기 위하여 관리를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전부터의 로마인에 대한 존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로마인은 그들을 인민의 복수로서 구출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내가 전문(傳聞)한 일은 아니다. 이집트 체재(滯在) 중에 친히 목격한 일인 것이다. 그러니 만약 신전에 기르고 있는 동물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 나는 이러한 것을 말하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나 이것을 말하더라도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믿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호(號)에 또)

마천루(摩天樓)의 결혼식(結婚式)과 장미(薔薇)들의 탄생(誕生)

이활(李活)

「W-T」의 리얼리즘으로 시간을 매몰시켜 버리던 루네 크렐의 고차원적 영화 조형(造型)은 처음부터 유쾌한 범죄를 필연한 시간의 분묘(墳墓)에 기록해 두는 버릇이 있었다. 이러한 유보장(遊步場)의 시계탑에 대한 지성의 풍자는 그러나 어느 절단선(截斷線)에서 새하얀 권태를 느낀다. 퍼너어드쇼의 사회학적 산문(散文)의 낡은 의미와는 전연 이질적인 바로 '포에지'의 도입을 시각(視覺)에 울동(律動)케 하는 루네크렐의 지성의 연속선은 오늘 이상(李箱)의 회상과 더불어 적도(赤道)의 애정에서 구름처럼 이룩해 간다.

그래서 어느 땐가 우리도 시각 속에 등장하는 지성의 온도보다도 시각이 가견(可見)할 수 있는 음악을 찾아 추리안 듀비에가 베푸는 행카치푸의 초대에 응하여 노와이유 부인이 졸도한 그의 실내로 들어간 일이 있다.

이 30년대의 르네상스의 별관에 무성한 인간 밀림 속에는 애루류 루 넘보처럼 정지를 모르는 속도가 산술(算術)을 타고 정차했다 간 유쾌한 발차(發車)의 경적이 재미있어서 여기에 편승한 무개(無蓋)열차의 차장도 발차 신호에 분주했다. 그럴 때마다 노후(老朽)한 기관차는 몇 사람의 양로원 역군(役軍)들을 부상(負傷)시켜 희극을 공급하는 요란한 뉴스, 영문도 모르고 하차한 노인들은 사건의 주인공을 에워싸고 논쟁타가 이제는 자못 경건하게 기도를 드린다.

여사(如斯)한 생활의 크페르니크⁶⁷⁾적 지동설(地動說)이 양로원의 우주를 매일처럼 회전하고 있지만 아담의 풍경이 에스키모의 가옥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중세에 있을 법한 종교 재판의 공판 공고도 없었고 갈릴레오의 학설이 무지의 학대로 말미암아 비굴해지는 법은 더구나 볼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는 잠시 현실의 추억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터옥이나 계산된 '인생 황혼'속에 등장하는 파우스트의 청춘들의 조소(彫塑)가 루브르 박물관에 자리 잡은 진열품의 배열처럼 정확한 '센스'의 조작으로 훌륭한 카메라 앵글을 입고 물려가는 것을 바라다보는 지성의 흐느낌이 우리들의 두뇌를 황당해가는 이와 같은 상승하는 음악의 양상인 불란서적(的) 클라이맥스는 30년대의 난숙(爛熟)한 영화 정신 위에서 "내 무덤 앞에 그 차디찬 비(碑)들을 세우지 말아다오"하고 유언한 것을 제군(諸君)들은 제군들의 기억을 뚫고 나오면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30년대의 불안은 1933년 나치스의 정권 탈취로 말미암아 점차 폐병 환자의 새하얀 가운처럼 창백해갔다. 병탄(併呑)의 정신은 바그너의 음악을 가장 사랑하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⁶⁸⁾의 르젠벨그적(的) 파생을 예고하면서 그 절망적(的) 행진의 물결은 썰서뭇행을 지나고 있었다.

67) 원문의 '크페르니크'는 '코페르니쿠스'임. Copernicus

68) 원문의 '차라투스트라'는 '짜라투스트라'임. Zarathustra

이베리아 반도에선 프랑코 통령(統領)이 오늘따라 암전하지만 스페인 내란 당시엔 매우 영맹(淸猛)한 동물성 식욕을 갖고 있어 식민지 백성의 불안에 암운(暗雲)을 더했던 것이다. 이 프랑코의 서반아(西班牙)에 술레알리스크 아리우쓰미토가 무사히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신기한 체세술의 덕분이었다. 그래서 한 때 볼셰비즘을 신봉하던 컴미니스크, 앙드레 말로⁶⁹⁾는 몬말톨의 불안한 광장에 비치한 확성기에서 천기예보만 기웃거리던 유니니미즘의 시인군(詩人群)들 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난 줄로맹이 그리워 못 견디겠다는 줄뷰 듀야펠과 샤루루 빌드락 등의 머리의 문학에 파산을 선포하고 이른바 행동적 휴머니즘의 계엄령을 발포(發布)하여 발의 문학으로서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칭기즈칸(成吉思汗)의 경기를 모방했다.

약간 만화 같은 여사한 뉴스가 전파되기에 앞서 1920년대 작품 「왕도(王道)」를 사이에 놓고 세칭(世稱) 멘쉐비키, 크록키와의 멋진 논전을 펴서 쉼 강반(江畔)에서 자살하려던 여대생을 구원한 마루로는 한 때 앙드레 지드의 빈번한 왕래 때마다 가져온 모스크바 선물보다 못지않은 굉장한 영웅처럼 찬탄을 받은 일이 있었다.

망명한 토록키의 머리 위에 소낙비의 천기예보를 방송한 아나운서가 행방을 감춘 비밀을 누구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지나간 세대의 팬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다시 전차병 군복으로 변복한 앙드레 마루로가 마침내 스페인에 등장한 사건은 비행복을 잃은 시인오어텐과 푸로리다에서 낚시질을 즐기던 헤밍웨이의 내도(來到)와 더불어 이 몽고(蒙古)의 장성들은 행동적 휴머니즘의 방탄복을 입고 인간의 새로운 위생(衛生)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 돌아온 마루로는 벌써 수상(首相) 레온 부름의 우매에 머리를 흔들게 되었고 컴미니스트로부터의 탈퇴의 자유를 인간체계의 정통에 종속시키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는 인류를 위하여 기계의 역할에 자신을 예측시킬 사명에서 답보(踏步)하는 운문(韻文)을 사수하기엔 그가 갖는 창조 의식이 역사적 의지마저 통합할 수 있어 오늘 마침내 불란서 반공(反共) 선두에 선 국민연합의 제너럴 드 골 밑에서 현명한 존 포스터 텔레스의 역할을 맡아 본다.

20세기에 들어 과학의 메커니즘에 제일 먼저 종교적 신앙 이상으로 흥분한 것은 투령(鬪領) 마리네티를 선두로 행진하는 이태리 미래파 선언이었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부대가 로마로 행진하는 형식미(形式美)에 탄미(歎美)한 미래파는 어느 아메리카 영화가 갖는 메커니즘의 역학(力學)과 템포에 과탄(過歎)한 나머지 마천루(摩天樓)의 결혼식에 꽃아주어야 한 장미의 이식(移植)을 망각하고 마음과 같은 무솔리니의 연설에 박수를 들고 나왔다.

“오호! 우리들이 양식인 지중해여.” 이렇게 절규하는 무솔리니의 스카아드 속에서 이태리인 휴첼리스트는 마루타 도만(島灣)에서 부과(浮戈)하는 전함 푸린쓰 오브 월쓰 호(號)를 주저(呪咀)했다.

왜! 과학이 가장 그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아메리카에 메커니즘에 대한 문학적 찬미가 될 만한 배경이 더 일층 긍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태리에 이것이 탄생했단가!

69) 원문의 '앙드레 마루로'는 '앙드레 말로'임. André Malraux

시간의 경도(經度)와 공간의 위도(緯度)의 교착을 초월하는 이례(異例)는 늘 문화의 아이러니로써 설명된 것은 러시아에 독재가 성공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군들은 다행으로 생각해 왔다.

우리는 6.25 동란과 함께 한국의 하늘을 쪼개버리듯이 나타남과 함께 사라지는 제트기의 신혼(新婚) 등장과 함께 의표의 차원 양극을 정복하는 너무도 자의(恣意)로운 고속도의 무장에 수천 군중이 혼비백산하여 쥐의 원시 공포증에 환원되는 메커니즘의 위력에 창세기적 인식을 체험한 가장 존경할만한 화가의 이름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사루와야드 다리가 팬싱을 엮고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이 술레알한 유명한 이야기가 된다.

1차 대전의 논리 밑에서 전쟁을 머리 위에 모신 조화(造化)의 모럴과 정치의 미학이 싫었던 루마니아의 토리스탄 차이라는 추리히 캐퍼에서 망명객 레닌을 가장 흥한 이라고 놀려줬던 것이 들어맞아 러시아에 돌아간 이 악한을 러시아의 대지에 풍요했던 휴머니티의 모든 곡물을 불사르고 25시의 게오르규⁷⁰⁾가 가장 조롱하는 기계 인간의 생산은 실로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에 토리스칸 아아라가 다다이즘에 서명하지 않고 다다이즘 장관이 아니었던들 다시 말하면 필립스 포의 말처럼 "DADA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가 아니었던들 차이라는 화가 피카피와 함께 레닌을 사살했을 것이다. 에텐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추방이 냉혈(冷血) 시물(市物)의 기증(奇汁)으로 말미암아 합리화된 것보다도 더욱 큰 불행은 바로 현대시(現代詩)가 갖는 불행인바 이것은 제군들이 차이라는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유쾌한 사건 된다는 것은 현대시의 야경을 상징하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가장 빨리 DADA를 조직하고 운동에 참가한 이 부카레스트에서 온 사나이 차이라는 DADA의 침실에서 잠자는 피카피아 이하(以下)를 웃으면서 버려두고 올퍼가 내려왔다는 하이텔베리대학으로 DADA 종언(終焉)의 강연을 떠났다. 현대의 전위(前衛) 시인들이 현대시의 푸레류드를 왜? 문화의 분수령에서 일견(一見) 역행의 의장(衣裝)을 가진 듯이 외견(外見)되는 DADA로부터 환영해 오는가! 그러나 어느 자연 발생적 니힐미스크의 고석(古石) 보다는 위대한 유기체로 자인할 수 없던 것은 DADA가 갖는 외적 형식의 심화에서 무한의 배수(倍數)를 내용화한 혜지(慧知) 여과(濾過)가 이윽고 프로이트 박사의 보행을 도입하여 우지(愚知)의 저항선을 손쉽게 넘어 섰던 술레알리즘의 바통이 넘어갔던 까닭이다. 바로 술레알리즘이 차원의 전복된 진화의 새로운 시발로서 등장케 될 때 초야(初夜)의 조형적(造型的) 인간에 일어선 물체의 정신은 존립한 위치의 순서와 박자에서 거리의 의장(衣裝)을 순수 혜지의 손가락으로 하여금 갈아입게 한 신화에 이르러 얼마나 놀라운 혁명을 완성했는지 모른다. 제군들을 위하여 본 필자는 루네 마그릿드의 「작품 정신의 결석(結石)」을 전람한 것을 다음과 같은 동포들은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쉬르레알리즘⁷¹⁾이 새로운 레알리즘의 레아렛테로서 형성된 것을 직관하는 공작

70) 원문의 '게올규'는 '게오르규'임. Gheorghiu

71) 원문의 '술레알리즘'은 '쉬르레알리즘'. surrealism

(公爵)의 아들들의 새로운 풍습. 필자는 어느덧 앵스 트랙트 아트(아트)의 시가 생각나서 이 행동의 옛세에서 이탈할만한 이유를 직관하는 영광 앞에 머리를 수그려야 하겠다.

쉬르레알리즘 제3선언으로 「빛나는 지역」의 아라공과 신장(身長)이 간판을 닮아서 철조망 스타일의 시를 쓰던 에류얼 뿐만 아니라 루벤디의 하얀 포석(布石)조차 새 하얀 식탁의 미학에 필요한 모터의 장치가 없다는 투시(透視)에서 메별(袂別)한 앙드레 부루롱은 사루와야드 다리아가 갖고 있는 카니벌리즘을 붙잡고 광희(狂喜)했다. 그래서 한 때 부루롱의 정신 이상(異常)이 오전(誤傳)된 것은 불란서 공산당으로 도망한 패배주의자 아라공에 류얼 등의 일류의 중상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술레알리즘의 운명적 분산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왔다.

새로운 도시의 야경을 제트 방공연습처럼 요새(要塞)하는 다리아의 CANNIBALISM은 밤의 하늘에 반달조각과 칠면조 요리의 구미에 여념이 없는 제군들의 가슴에 별의 현대적 빛깔을 투광(投光)하는 시(詩) 정신을 고차원의 수평 위에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 파카소와 함께 이 스페인 탄생의 화가는 그러나 푸리마티부의 시절부터 피카소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소재를 완전히 소재답게 메커니즘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시간 내에 표현되는 다원론의 동존적(同存的) 큐비즘의 표현은 확실히 현대 회화(繪畫)의 르네상스를 위한 출발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모두가 쇼콘다의 미소처럼 평판(平判)한 레알리즘의 가치 의식 박멸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장식했던 파괴의 다다와 더불어 현대가 등장하는 저항선에 섰던 여명(黎明)의 정신이었다. 우리가 이로서 존경하는 화가 변영원(邊永園) 씨의 현대 회화에 대한 규정에 우리는 일제히 박수를 보내면서 환영을 표시할 영광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퍼비스트, 마치쓰, 드랑 등의 에펠매선이 내추럴리즘의 'FORM'을 기초로 하여 출발된 현상학적 의미에서 또 한편 그 변형의 근원은 내출러리즘의 민족권에 환원될 수밖에 없는 궁극에서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연장이었다. 그래서 마치쓰는 보색(補色) 관계에 자아의 부정곡(不正曲) 취미의 가미(加味)에 전력을 기울려도 결국 성좌(星座)의 에스푸리는 그의 화면(畫面)에 출현한 일 없이 80의 노령을 어느덧 넘게 되었다.

제군들은 로트레아몽의 어두운 신곡(神曲) 취미에 놀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노와이유 부인의 귀족적 화제에 탄복하는 티베트(西藏)의 라마교도여서는 더구나 시의 왕국에서 망명한 램보에 절도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메커니즘에 진동하고 있는 자연의 목조 실내에서 소위 니할의 머리카락을 날린다면 필경 그것은 승무(僧舞)의 기(奇)현상밖에 무슨 다른 운문이 되겠는가? 하고 필자는 현대시의 베라를 살포(撒布)할 준비를 손꼽아 본다. 우리가 식도를 들고 메커니즘의 위력과 싸우려는 무모와 허위를 양기(揚棄)해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이 차지해야 할 세계적 문화 분포를 생각는 진정한 애국심에서 유래한 주장인 것은 너무도 명료한 일이라. 현대시의 아방 갈트의 르네상스를 위한 준비에 최대의 적은 커뮤니즘인 엄숙한 사실을 사회적 인간차원의 비행술에서 추출한 다리아의 카니벌리즘의 통합은 정신 제군들로 하여금 어떻게 커뮤니즘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는 승리의 지성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사(☆ 35면(面)으로 이음)

월탄(月灘)의 시세계(詩世界)

최인옥(崔仁旭)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또 괴로울지라도 이따금 좋은 시 한편을 외어보는 심정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시를 외움으로 하여 흐린 마음을 맑힐 수도 있고 인생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문단의 거장이신 월탄 박종화(朴鍾和) 선생은 30유여년(有餘年)을 문학에 정진하신 분으로 시인인 동시에 소설가이다. 선생의 많은 문학 작품을 이 한정된 지면(紙面)에서 일일이 언급한다는 수는 없으나 그중 몇 편의 시 작품은 언제나 나의 애송(愛誦)하는 바로서 여기 몇 마디의 감상을 적어 보기로 한다.

대불(大佛) I

동해 말랐다고

무엇을 지키리오

산(山) 적적(寂寂) 으름 달

두견새를 지키시오

토함산(吐含山) 뱀은 다랑이

어희 늘어져 휘덮은 낙락장송 지키시오

솔바람 새 소리에

또다시 천년이 갔네

몸부림쳐 임의 무릎에

통곡하고 싶구나

이 시가 세상에 발표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열 몇 해 전 「문장(文章)」지(誌) 창간호라 기억된다.

저 악랄한 왜적들이 태평양전에서 위급 존망에 처했을 때— 이때는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우리 민족에게 오는 것은 박해를 몸소 체험하면서 선생은 이 시를 읊은 것이다.

당시 나는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숨어 살면서 이 시를 읽고 눈물을 쏟았다. 그때의 그 고조된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으며 또한 이 시에서 얻은 감명이 오래도록 나의 처신에 무언의 교훈과 신념을 부여 준 것이다.

선생은 우리 민족의 설움, 나라 없는 슬픔을 석굴암(石窟庵)의 대불(大佛)에도 호소하여 “몸부림쳐 임의 무릎에 통곡하고 싶구나.”하고 외친 것이다.

이 울분 통곡은 무엇을 말함인가?

월탄(月灘)의 시에서 빚어지는 이 울분과 통곡은 당시 민족 전체의 가슴 속에 못 박힌 울분이요 통곡이었다. 그것을 다만 월탄이 시로서 대변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생은 울분과 통곡에서만 그저 버리지 않는데 그의 정말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다.

대불(大佛) II

(전(前) 6행(行) 약(略))

눈감고 고즈녁이 일으는 말쑥

바다 마르거니 물이야 없을 거냐

고요히 침묵을 지키라 하시다.

장할시고 이는 누구의 계시(啓示)런가?

그렇다. 허다한 사람은 울분과 통곡 속에서 치욕의 날을 보냈지만 선생은 그 참을 수 없는 울분과 통곡 속에서도 오히려 빛나는 자부의 침묵으로 새 하늘의 여명을 믿으며 살자한 것이다. 죽음의 구렁텅이⁷²⁾에서도 오히려 불길 같이 내쫓는 시의 광망 민족 불멸의 신념…….

허두 말하기를 일제 36년은 우리 민족사상 기치대옥(奇恥大辱)의 시기라고 한다. 이 36년의 기치대옥에서 이만한 시 한편도 없었더라면 우리의 문학은 너무도 쓸쓸한바 없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 문단에서는 ‘민족문학’이란 구호가 자못 성행하는 판이지만 선생에게는 이 구호가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말았다. (다음 호(號)에 또)

☆ (146면(面)에서 이음)

었다. 그는 아버지 살았을 제는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갑자기 찾아와서 눈물을 띄우며 우리한테 진심으로 동정한다고 했다. 우리의 상실(喪失), 우리의 역경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는 눈치를 보이고 나서 이제 모두 아버지가 나쁜 탓이라고 부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해서 함부로 빚을 진 까닭이야, 아버지가 너무 자기 역량을 과신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부연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고 이때까지의 서먹서먹하던 생각은 서로 씻어버리자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쪽에서는 조금도 무엇 하계 생각지 않는다니가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이’(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렇게 형용했다)를 위하여 추도식을 해주었다. 이것을 기회로 그 여자는 정식으로 어머니와 화해한 것이었다.

장황하게 다른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불쌍한 환경에 떨어진 것과 고아와 같이 된 신세며 의지가 지는 처지며를 과장해서 떠들고 난 다음 안나호오드라브나는 말만은 자기 집으로 오라고 우리를 청했다. 어머니는 그 여자의 호의를 사례는 했으나 오랫동안 그것을 결정짓지 못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 또 다른 수단으로 이 난관을 뚫을 수는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안나호오드르에게 당신의 호의를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우리가 페텔불그 스카야브나에서 와스이라에프스키이 오스도우로프로 옮겨간 그 아침의 일을 오늘 아침에 생전 일처럼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맑게 갠 서리 길은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나는 그저 슬프기만 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말할 수 없는 우수(憂愁)에 무겁게 덮여 있었다. ……참말로 쓰라렸다. 괴로웠다. (완(完))

72) 원문의 ‘주검의 구렁창’은 ‘죽음의 구렁탕’. 구렁창은 구렁탕의 방언.

해아(海牙)[헤이그] 공전법규(空戰法規)

☆ 공전(空戰)에 관한 규칙(規則) ☆

이 규칙은 전시 무전통신 단속 규칙과 함께 해아에서 개최된 '전시법규 개정위원회'(1922년 12월부터 1923년 2월까지)의 보고로서 아직 각국이 채용한 것은 아니나 참고상 제공하는 바이다. 이 위원회는 화부(華府)워싱턴회의(1921년-22년)의 결의에 의거할 것이며 미(美), 영(英), 불(佛), 이(伊), 란(蘭), 일(日)의 6개국 위원으로서 구성된 것이다.

유필우(柳弼宇)

★ 제1장(第一章) 적용범위(適用範圍) 종류(種類) 및 표시(標識)

제1조 공전법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그것이 공기보다 가볍든지 또는 무겁든지 막론하고 또는 수상(水上)에 뜰 수 있든지 없든지 막론하고 이것을 적용한다.

제2조 좌(左)아래에 제시(揭示)하는 것은 공(公) 항공기라고 간주한다.

- A. 군용항공기
- B. 공무에 전용되는 비(非) 군용항공기 기타의 모든 항공기는 이를 사(私) 항공기라고 간주한다.

제3조 군용항공기는 그의 국적 및 군사적 성질을 표시하는 외부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세관용 또는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비 군용항공기는 그가 공무에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우(右)위의 항공기는 그의 국적 및 그것이 비 군용이란 공적 자격을 표시하는 외부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용 또는 경찰용 아닌 비 군용 공 항공기는 전시에 있어서는 사 항공기와 동일한 외부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 본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사 항공기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6조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항공기로서 사 항공기로 간주되는 것을 그의 본국 현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서류를 휴대하고 또 외부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해(該) 표시는 그의 국적 및 자격을 표시할 것을 요한다.

제7조 전(前) 수조(數條)에 정한 외부 표시는 항공 중 변경하지 못하게끔 고착하여야 한다. 우(右) 표시는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상방(上方) 하방(下方) 및 각 측 방향으로부터 보이게끔 하여야 한다.

제8조 각국의 현행 규칙에 의거하여 정해진 외부 표시는 속히 이것을 모든 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전에 제하여 또는 전쟁 중에 있어서는 우 규칙의 변경은 각국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속히 또 최소 늦어도 자국 전투부대에 통지할 때까지는 이것을 모든 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전국 비 군용항공기는 그것이 공유물 또는 사유물을 막론하고 그것을 군용항공기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우 변경은 해 항공기가 속하고 있는 교전국의 관할 안에서 하여야 하며 공해에 있어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제10조 항공기는 하나 이상의 국적을 가질 수 없다.

★ 제2장(第二章) 일반 원칙(原則)

제11조 교전국, 중립국을 막론하고 모든 관할 밖에 있어서는 모든 항공기는 공중 통과 및 착수(着水)에 관하여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전시(戰時)에 있어서는 교전국 중립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그 관할 안에 대한 항공기의 침입 이동 또는 체재(滞在)를 금지하고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3장(第三章) 교전자(交戰者)

제13조 교전권(交戰權)은 군용항공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군용항공기는 나라의 군무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또는 군역(軍役)에 편입된 자의 지휘 하에 있어야 하며 그 승원(乘員)은 군인이어야 한다.

제15조 군용항공기의 승원이 그 항공기보다 이거(離去)할 경우에는 원방(遠方)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고착한 특수 휘장(徽章)을 붙여야 한다.

제16조 교전국 군용항공기 이외의 항공기는 여하한 형식에 있어서는 적대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적대행위라는 용어는 교전자가 직접 사용 목적인 군사정보를 항공 중에서 전달함을 포함한다. 사 항공기는 전시 그 본국 관할 밖에 있어서는 무장을 할 수 없다.

제17조 1906년 제네바 조약 및 전기(前記) 조약을 해전(海戰)에 응용하는 조약(1906년의 제10조약) 중에 정한 원칙은 공전(空戰) 및 구호항공기에 이것을 적용한다. 교전국 지휘관이 구호항공기에 대하여 행사하는 감독에 관하여도 역시 동일하다.

1906년 제네바 조약에 의거하여 위생(衛生)의 이동 기관에 허여(許與)된 보호 및 특권을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구호항공기는 통상의 특제 표시 외 적십자의 특제 기장(記章)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장(第四章) 대적행위(對敵行爲)

제18조 항공기로서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예미탄(曳尾彈) 소이성(燒夷性) 또는 폭발성의 투사물(投射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1698년의 '성(聖) 베 델 폴아 구' 선언의 당사국 및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 허위의 외부 표시를 사용함을 금한다.

제20조 항공기가 행동의 자유를 상실하였을 경우 기상(機上)에 있는 자가 낙하산으로서 피난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그는 그의 하강 중 공격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선전 유포의 목적 항공기를 사용함을 부적합적인 전쟁 수단으로서 취급하면 안 된다. 우 항공기의 승원이 전기(前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서 그는 포로가 될 그의 권리를 박탈받지 않는다.

★ 폭격(爆撃)

제22조 보통 인민을 위협(威嚇)하고 군사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사유 재산을 파괴 또는 비 전투원을 손상하는 것을 목적하는 공중 폭격은 금지한다.

제23조 현물(現物)의 징발(徵發) 또는 취립금(取立金)의 지불을 강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공중 폭격은 금한다.

제24조 A. 공중 폭격은 군사적 목표 즉 그의 파괴 또는 훼손이 명료한 군사적 이익을 교



전자에 부여할 목표에 대하여 행할 경우에만 적법이라고 한다.

B. 우 폭격은 주로 하기(下記)의 목표에 대하여 행할 때만 적법이라고 한다.

a. 군대.

b. 군사공작물(軍事工作物).

c. 군사건조물(建造物) 또는 군사저장소.

d. 병기 탄약 또는 명료한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공장으로서 중요하고 공지(公知)의 중추를 구성하는 것.

e. 군사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교통선(交通線) 또는 운수선.

C. 육상부대의 작전 행동의 직근(直近) 지역 아닌 도시 군면(郡面) 주택 또는 건물의 폭격은 금지한다. B호(號)에 기재한 목표가 보통 인민에 대하여 무차별 폭격을 하지 않으면 폭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는 그 폭격을 피지(避止)할 필요가 있다.

D. 육상군대의 작전 행동의 직근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 읍동(邑洞) 주택 또는 건물의 폭격은 병력의 집중 증대하고 폭격으로서 보통 인민에 줄 위험을 고려하나 폭격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으로 한다.

E. 교전국은 그의 상관 또는 군대가 본조(本條)의 규정에 위반한 결과로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제25조 항공기가 폭격을 할 경우에는 공중의 예배, 기예(技藝), 학술 또는 재산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역사상의 기념 건조물, 병원선(病院船) 및 병자 및 상자(傷者)의 수용소는 우(右) 건물 물건 또는 장소가 동시에 군사상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그들의 건물 물건 또는 장소가 될 수 있는 한 손해를 받지 않게끔 지휘관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 건물 물건 및 장소는 주간에 있어서는 항공기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표시함을 요한다. 전기 이외의 건물 물건 또는 장소를 표시할 목적으로 표식을 사용함은 배신행위로 인정한다.

우 표식은 제네바 조약에 의거하여 보호된 건물이었을 때는 백지(白地)에 적십자를, 기타의 보호 건물에 있어서는 방형(方形)에 대각선으로서 일방(一方)은 흑색, 타방(他方)은 백색의 양(兩) 삼각형으로 구획(區劃)된 것을 사용한다. 전기(前記)의 병원 및 기타 특권을 가진 건물에 관한 보호를 야간에 있어서 확보하려는 교전자는 전항에 기(記)한 특별 표식

을 충분히 인식시키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각국의 영역 내에 있는 중요한 역사상의 기념 건조물에 관하여 일층 유효한 보호를 주기 위하여 당해국(當該國)이 우 기념건축물 및 그 위요(圍繞) 지대를 군사사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피하고 그의 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제도를 수락함을 조건으로 하고 좌의 특별 규칙을 채용한다.

A. 각국은 그가 적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의 영역 안에 있는 해 기념건조물의 일주위(一周圍)에 보호 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우 지대는 전시 폭격을 면할 수 있다.

B. 그 주위에 지대를 설치할 기념건물은 평시에 있어서 외교 수단으로서 타국에 그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해 통고는 지대의 한계도 표시함을 요한다. 해 통고는 전시에 있어서는 철회할 수 없다.

C. 보호 지대는 기념건물 또는 그의 집단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지역 이외 우 지역의 주위로부터 500 너비 미터 이내의 외부 지대도 포함할 수 있다.

D. 교전국 항공기 승원으로 하여금 우 지대의 한계를 확실히 식별시키게끔 주간 야간 공(共)히 항공기로부터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기념건조물 자체의 표식은 제2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며 위요 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식은 본조의 규정을 채용하는 각국에 있어서 그것을 정하여야 하며 기념건조물 및 지대의 통고와 함께 이것을 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F. 제E호에 기재한 지대를 표시하는 표식의 남용은 전부 배신행위로 인정한다.

G. 본조의 규정을 채용하는 국가는 기념건조물 및 그의 위요 지대를 군사상의 목적으로 또는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군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는 우 건물 내 및 우 지내 내에 있어서 군사상의 목적을 가진 모든 행위를 함을 피지(避止)하여야 한다.

H. 제G호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조의 규정을 채용하는 국가에 주차(駐紮)할 3명의 중립국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자로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우 감독위원 중 1명은 대수(對手) 교전자의 이익을 위탁 받은 국가의 대표자(또는 그의 대리자)이어야 한다.)

★ 간첩(間諜)

제27조 교전국 또는 중립국 항공기의 탑승자는 교전국 관할 안 또는 교전자의 작전 지대

계륵집(鷄肋集)

이제희(李濟熙)

☆ 각방(各房) 거처(居處) 못한 나(羅) 사부(士夫) 형제(兄弟)

청풍(淸風) 사부(士夫)에 나재성(羅載晟), 나재욱(羅載旭)의 두 형제가 한집에서 살았다.

집은 좁고 식구는 많아서 두 형제가 각방거처를 못하게 되고 사랑방에는 재성이 형제가 한방에서 자고 안방에는 안으로 두 동서가 한방에서 자게 되므로 두 부부는 좀처럼 한방에서 모일 기회가 없었다.

어느 날 형인 재성의 부인이 남편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여보, 우리는 나이 지긋하니 내외간 서로 오래 못 만나도 관계없지만 시동

생 내외는 아직 젊으나 젊은 터에 몇 달이 되도록 내외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니 그것 좀 적막할 것이요,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윗집에 가서 주무시오. 그러면 동서를 사랑으로 내보내겠소.”하였다.

형 재성은 그 말에 찬성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이웃집으로 가서 놀다가 자기 부인이 이르던 말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방 윗목에서 옷을 벗고 이불을 펴고 자려고 누웠다. 동생 내외는 자기 형이 이웃집에서 자고 아니 오는 줄 알고 그 동안에 사랑방 아랫목⁷³⁾에서 둘이 한 이불 밑에서 자는데 동생 되는 재욱이가 우연히 눈을 떠보니 자기 형님이 들어와서 자려고 하기에 너무나 민망해서

73) 원문의 '아루목'은 '아랫목'임.



분(分)에서 대수 교전자에 통보할 의사를 가지고 은밀히 또는 허위의 구실 하(下) 행동하여 항공 중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수집하려고 한 자 아닌 이상 이것을 간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제28조 항공기의 승원 또는 그가 수송하는 승객이 항공기로부터 이거(離去)한 후 범한 간첩 행위에 관하여서는 「육전(陸戰)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제27조 및 제28조에 기재한 간첩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서는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한다.

★ 제5장(第5章) 적국(敵國) 및 중립국(中立國) 항공기(航空機) 및 그 탑승자(搭乗者)에 대(對)한 군(軍)의 권력(權力)

제30조 교전국 지휘관은 항공기의 존재가 그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작전 행동의 성효(成效)를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의 군대의 직근 지역에 있어서 중립국 항공기가 통과함을 금지하고 또는 이에 일정한 항로를 취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교전국 지휘관이 발(發)한 우 시명(示命)의 통고를 받고 그 시명에 복종하지 않은 중립국 항공기는 사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원칙에 따라서 교전국 점령군이 적의 관할 안에 침입하여 발견한 중립국 사 항공기는 충분한 배상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징발할 수 있다.

제32조 적국(敵國) 공 항공기는 사 항공기와 같이 취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포획 심검(審檢)수속을 하지 않고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 자국의 관할 내를 항공하는 교전국 비 군용항공기는 그것이 공사유(公私有)를 막론하고 적국 군용항공기가 접근할 경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적당한 장소에 착륙 또는 착수하지 않으면 사격을 받는다.

제34조 교전국 비 군항공기는 그것이 공사유를 불구하고 A 적의 관할 내 B 해 관할의 직근 지역이며 항공기 시속국의 관할 외 또는 C 육상 또는 해상에 있어서의 적의 군사 행동의 직근 지역을 항공할 경우에는 사격 받는다.

제35조 교전국의 관할 안을 항공하는 중립국 항공기로서 대수 교전국의 군용항공기의 접근을 경고 받을 때는 가장 가까운 적당한 장소에 착륙 또는 착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만

약 시행하지 않으면 우 중립국 항공기는 사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제36조 적국 군용항공기가 교전자의 수중에 빠진 경우에는 그 승원 및 만약 승객이 있으면 그 승객을 포로로서 취급할 수 있다.

적국 비 군용 공 항공기의 승원 및 승객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비 군용 공 항공기가 승객의 수송에 전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승객은 적의 의무(役務)에 복(服)하고 있는 자 또는 군역에 적(適)하는 적국인(敵國人)이 아닌 한 해방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적국(敵國) 사 항공기가 교전자의 수중에 빠진 경우에는 적국인 또는 적의 의무에 복하고 있는 중립국인(中立國人)인 승원은 이것을 포로로서 취급할 수 있다. 적의 의무에 복하고 있지 않은 중립국인인 승원은 전쟁의 계속 중 적국 항공기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서면(書面)에 서명할 때에는 해방될 권리를 갖는다. 승객 중 적의 의무에 복하고 있는 자 또는 군역에 적(適)하는 적국인에 한하여 포로로 알 수 있으며 기타인은 해방될 권리를 갖는다. 해방은 교전자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연기할 수 있다.

교전자는 여하한 승원 또는 승객이라도 그가 생포될 때 항공 중에 있어서 적에 대하여 특별하고 적극적인 방조를 하였을 때는 그들 포로로서 유지할 수 있다.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면에 서약을 한 후 해방된 개인의 성명을 대(對) 교전자에 통고하며 대수(對手) 교전자는 고의로 우 개인을 그의 서약에 위반한 의무에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교전자가 억류한 중립국 항공기의 승원이 중립국인이고 적의 의무에 복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으로 해방하여야 한다. 만약 우 승원으로서 적국인 또는 적의 의무에 복하고 있을 때는 포로로 할 수 있다.

승객 중 적의 의무에 복하고 있는 자 또는 군역에 적하는 적국인은 포로로 할 수 있으며 기타인은 해방될 권리를 향유한다. 해방은 교전자 측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연기할 수 있다. 교전자는 여하한 승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생포될 때 항공 중에 있어서 적에 대하여 특별하고 적극적인 방조를 한 자는 포로로서 유지할 수 있다.

제38호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승원 또는 승객을 포로로 할 것을 정정한 경우

“형님.”하고 불렀다.

재성이는 대답도 안 하고

“오냐, 나는 윗목에서 잘 터이니 염려 말고 너는 아랫목에서 자거라”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재욱이는 또

“형님.”하고 불렀다.

형은 괴로운 듯이

“잠자코 아랫목에서 자라니까. 왜 자꾸만 부르니. 염려 말고 아랫목에서 자거나. 나는 침지 않다” 할 뿐이다.

“시방 안에서 사랑에 나와 잡니다.”하였다.

형은 그 말을 듣고 놀란 듯이 일어나 앉으며

“어허, 내가 잊었다. 저녁 먹기 전에 안에서 그런 말을 하던데.”

하고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동생은 형이 것처럼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안스러워서 잠이 깊은 자기 부인을 깨워 가지고 시방 형님이 들어 왔다 나간 것을 이야기 하였다. 그 부인도 미안스럽고 부끄러워서 안방으로 나가려고 일어나 옷을 찾으니 자기 고의는 없고 알지 못할 남자 바지가 대신 놓였기에 암만해도 이상스러워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

재욱이는 생각해 보니 다른 남자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고 다만 자기 형님이 들어왔다 나갔으니 필경 창황히 나가느라고 부지중에 바뀐 입었나보다 하고 바지를 들고 형님을 찾아 이웃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서서

“형님”하고 불렀다.

에 있어서는 우 승원 또는 승객으로서 군대의 소속원 아닌 자는 포로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

★ 제6장(第6章) 중립국(中立國)에 대(對)한 교전자(交戰者)의 의무(義務) 및 교전자에 대한 중립자(中立者)의 의무

제39조 교전국 항공기는 중립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중립국에서 저지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중립국 관할 안에서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제40조 교전국 군용항공기는 중립국 관할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제41조 군함(항해 모함(母艦)을 포함함)에 탑재 중인 항공기는 군함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42조 중립국 정부는 교전국 군용항공기가 그의 관할 안에 입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그의 관할 안에 입경(入境)하였을 때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착륙 또는 착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립국 정부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그 관할 안에 착륙 또는 착수한 교전국 군용항공기를 그의 승원 및 승객과 함께 억류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행동의 자유를 상실한 교전국 군용항공기의 승원을 중립국 군용항공기가 중립국 영수(領水) 외에서 구조하여 중립국 관할 내에 송치할 때는 그 승원을 억류할 수 있다.

제44조 중립 정부는 교전국에 대하여 항공기 및 그 부분품 또는 항공기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료, 수품(需品) 또는 군수품을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또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공급할 수 없다.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중립국은 교전자를 위하여 하는 항공기 및 그 부분품 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재료 수품 및 군수품의 수출 또는 통과를 방지할 필요가 없다.

제46조 중립국 정부는 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A. 교전국에 대하여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항공기 또는 “비치하고 또는 이용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구(器具) 또는 재료를 탑재하고 또는 휴대하는” 항공기가 교전국에 대항함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을 한 이유가 있을 때 해 항공기가 자국 관할을 출발하는 것.

B. 항공기의 승원 중에 교전국의 전투부대의 소속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해 항공기가

형은 화를 버럭 내면서

“나는 여기서 편안히 자니 너랑 제수 씨하고 잘 자지 못하고 왜 자꾸만 찾아다니니.” 하였다.

재욱이는 다시

“형님, 아니올시다. 형님 바지는 여기 있고 안에서 입은 고의가 없다고 하니 형님이 혹 바뀐 입지나 않으셨나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하였다.

재성은 크게 깨달은 듯이

“옳지, 옳지 바지를 입고 뛰어올 때 어쩐지 가랑이가 펄펄떨면서 바람이 몹시 들어온다 싶더니 고의 여기 있으니 가져가거라.”하고 벗어서 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 대관(大官)의 어처법(御妻法)

한 명재상(名宰相)이 있었으니 역시 명상(名相)의 사위였다.

출발하는 것.

C. “본조의 목적에 반하여 그가 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대하여 공사(工事)를 하는 것.

중립국 관할 안에 있는 개인 또는 회사가 교전국의 주문(注文)에 의하여 발송하는 항공기가 공로(空路)로서 출발할 때는 중립국 정부는 우 항공기에 대하여 대수 교전의 군사 행동의 부근을 피하는 항로를 시명(示命)하고 또 우 항공기가 시명의 항로를 취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47조 중립국은 타방 교전자에 통보할 의사를 가지고 일방의 교전자의 이동 작전 행동 또는 방어를 자국 관할 안에서 공중으로부터 정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할 의무가 있다. 우 규정은 군함에 탑재 중인 교전국 군용항공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8조 중립국이 본 규칙에 의거하여 그의 권리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병력 또는 기타 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 것을 적대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제7장(第7章) 임검(臨檢) 및 수색(搜索) 포로(捕虜) 및 몰수(沒收)

제49조 사 항공기는 교전국 군용항공기가 임검 수색 및 포로를 할 때는 그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전국 군용항공기는 비 군용항공기 및 사 항공기에 대하여 임검 및 수색을 하기 위하여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장소에 착륙 착수하고 또는 진항(進航)할 것을 명할 권리를 가진다.

취조의 목적으로 전기 장소에 착륙 착수 또는 진항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라고 경고를 받은 후 그것을 거절할 때는 해 항공기는 사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제51조 중립국 비 군용 공 항공기는 사 항공기로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서류 검 증에만 임검을 받는다.

제52조 적국 사 항공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획할 수 있다.

제53조

A. 교전권(交戰權)의 적법인 행사(行使)에 대항할 때.

B. 제30조에 의거하여 교전국 지휘관이 발한 금지의 통고를 득(得)한 후 그것을 범할 때.

그 위인 됴이 매우 경건하고 심중하여 매양 주상(奏上)할 일이 생기면 그 전날 반드시 관대(官帶)를 정제하고 향을 태우며 안좌하여 주사(奏辭)를 한 번 강(講)하는 것이었다. 이 예습이 없이는 한 번도 입주(入奏)함이 없었다.

이와 반대로 그 부인은 성미가 조급한데다가 질투가 심하여 항상 탄식할 뿐 혼자서 속을 태우는 것이었다.

하루는 장인과 사위 간에 연화가 있어 늦게야 돌아 왔는데 부인이 기생과 희롱하였다 하여 시기를 하기 시작하고 야단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부인에게는 아무 말 없이 시녀를 불러

“내일 예결하여 주상할 것이 있으니 향구를 갖추어 놓고 공복(公服)을 가져 오너라.” 명령하고 계속하여

C. 군사적 방조에 종사할 때.
D. 전시 그의 본국 관할 밖에 있어서 무장을 하고 있을 때.
E. 외부 표식을 가지지 않고 또는 허위의 표식을 사용할 때.
F. 서류를 가지지 않고 또는 불충분한 또는 정규 아닌 서류를 가질 때.
G. 그 서류에 기재된 출발지 및 목적지 간의 항로를 명백히 이탈하고 또 교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후 후 항로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제시 못할 때 교전자는 해 항공기를 그 승원 및 승객과 함께 우 조사 후 억류할 수가 있다.
H. 전시 금제품(禁制品)을 수송하고 또는 해 항공기 자체가 전시 금제품일 경우.
I. 정당히 설정되고 또 실력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봉쇄를 침파(侵破)할 때.
단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획의 이유는 해 중립국 항공기가 교전자의 수중에 빠질 때의 항공기 즉 그의 출발지를 이겨한 후 그의 목적지에 도달할 이전에 행해진 행동이어야 한다.

제54조 사 항공기의 서류로서 해 항공기의 국적을 명확히 하지 않고 또 그의 승원 및 승객의 성명 및 국적 항공의 출발지 및 목적지 및 재화(載貨)의 세목(細目) 및 그의 수송의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또는 부(不)정규라고 인정받는다. 우기(右記) 중에는 항공 일지도 포함된다.

제55조 항공기 또는 항공기상에 있는 화물의 포획을 중립자의 청구를 정당히 청취하고 또 판정하기 위하여 포획(捕獲) 심검(審檢) 수속에 회부한다.

제56조 외부 표식이 없다는 이유 또는 허위의 표식을 사용하였다는 이유 또는 전시 그의 본국 관할 밖에서 무장하였다는 이유로서 포획된 사 항공기는 몰수할 수 있다.

제30조에 의한 교전국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서 포획된 중립국 사 항공기는 해 금지 지역 안에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명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포획 심검소(審檢所)는 항공기 그 재화 또는 항공기상에 있는 우편 신서(信書)의 포획에 관한 모든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적선 및 그 재화 또는 적선(敵艦) 안에 있는 우편 서신에 대한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사 항공기로서 임검 수색의 결과 적국 항공기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교전국 지휘

“누구를 물론하고 몰래 엿듣는 사람은 사죄(死罪)로서 다스리렸다.” 엄명을 하였다.

부인이 생각하니 지금까지는 연습하는 일은 많았으나 엿듣지 못하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들으니 이번 주상은 보통 일이 아닌 듯 경솔한 마음이 생겨서 슬그머니 벽에 귀를 대고 엿듣게 되었다.

잠깐 잠잠하더니 방 안에서 은은한 소리가 나는데

“.....소신이 벼슬이 재(宰)에 이르렀사오니 천성이 심히 우열(愚劣)하와 아직 표표한 아내 하나를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질투가 심하오니 이는 재가(齊家)치 못하는 탓이로소이다. 가사(家事)치 못한 탓이로소이다. 가사 이렇듯이 거닐지 못하온 바에야 어찌 감히 국정을 참례하오리까.”

이까지 외우고 그치었는데 조금 있다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니 필경 취침한 것이 분명하였다.

부인이 다시 생각하여보니 남편이 벼슬을 내놓는 주사라 황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모든 탑승자를 안전지(安全地)에 이동하고 또 해 항공기의 모든 서류를 보존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다.

제58조 사 항공기로서 임검 수색의 결과 군사적 방조의 이유로 또는 외부 표식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허위의 표식을 하였다는 이유로서 몰수할 수 있는 중립국 항공기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검정(檢定)의 목적으로 송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전 행동의 성효(成效)를 해(害)할 경우에는 이것을 파괴할 수 있다. 전기의 경우 이외에 있어서는 중립국 사 항공기는 가장 중대한 군사상의 긴급 상태의 이유로서 지휘관이 해방하고 또는 검분(檢分)하기 위하여 송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없다.

제59조 중립국 항공기를 파괴함에 앞서 모든 탑승자를 안전지에 이동하고 또 항공기의 모든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중립국 사 항공기를 파괴한 포획자는 해 포획 사건을 포획 심검소에 제기하고 또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히 이것을 파괴 못하였다는 이유를 우선 변명하여야 한다. 포획자가 우 변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해 항공기 또는 그 재화의 이해관계인은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 포획이 무효하고 검정되었을 때는 파괴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배상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중립국 사 항공기가 금제품(禁制品) 수송의 이유로서 포획된 경우에 있어서 검정을 하기 위하여 송치 못할 때 또는 교전국 항공기의 안전 또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작전 행동의 성효를 해하는 경우에는 포획자는 기상에 있는 절대적 금제품의 인도를 청구하고 또는 해 절대적 금제품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취할 수 있다. 포획자는 해 항공기의 항공 일지에 화물의 인도 또는 파괴의 주지(主旨)를 기입하고 또 □ 항공기의 관계 서류의正本(正本) 또는 등본을 입수한 후 해 중립국 사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의 속행(續行)을 허가한다.

제59조 제2항의 규정은 중립국 사 항공기에 있는 절대적 금제품을 인도하고 또는 파괴함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한다.

(☆ 121면(面)에 이음)

그길로 아버지(장인) 침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오늘 자기 남편(사위)의 주사가 약차하오니 아버지께서는 딸이 소중하오면 남편(사위)의 뜻을 돌리도록 사직을 중지시켜 주소서 하고 애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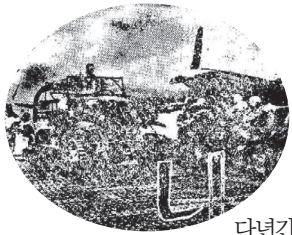
그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꾸짖어 가로되

“급히 중지시키란 말이 무슨 말이고, 너는 이미 가장의 일을 알고 있으니 여자로서 근실할 것을 깨뜨렸다 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집으로서도 큰일이나 그러나 내가 만류한데도 듣지 않을 것이니 네가 직접⁷⁴⁾ 애걸하면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부인(딸)이 허둥지둥 남편(사위) 앞에 나가서 엎드려 사죄를 구하였으니 그 사절이

“지금 이후로 질투를 앓겠사오니 이번 주사만은 정지하소서. 다시 뒤 허물을 거듭하거든 첩을 내보내와도 그 후 무망하옵나이다.”하였다 한다. (끝)

74) 원문의 '즉접'은 '직접'임..



★ 적장(敵長)의 두상(頭上)이 목표(目標)!

나의 초출격(初出擊)

공군중위(空軍中尉) 이관모(李寬模)

다년간 우리들이 숙망하여 오던 출격의 막은 열렸다.

처녀 출격의 날은 왔다. 평소보다 유달리 일찍 잠을 깨고 본즉 12월 13일이다. 이 날이야말로 우리 1기생들이 잊지 못할 날일 것이며 47호기는 또한 나와 같이 처녀 출격을 마칠 깊은 인연을 가진 애기(愛機)이다. 동이 트기도 전에 눈바람을 맞으며 브리핑실(室)에 가서 작전명령을 받았다. 옐로 편대군(編隊群) 바아크 편대의 2번 기! 감격에 넘친 내 얼굴은 이른 햇살에 비쳐 더욱 볼거졌을 것이다. 맑은 날씨가 더욱 내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었다. 처녀 출격에 대한 교육과 경험담을 수일에 걸쳐 여러 선배한테서 귀담아 들어 왔으나 그래도 막상 탑승하려니 그 무엇인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또한 제3자로는 맛보지도 못할 감을 느꼈다. 출격 시까지 내 마음은 하는 일 없이 바빴다. 완전한 전투 준비를 하고 다시 군장 편대장의 세세한 주의를 받고는 각 기(機)로 향하였다. 14시 20분을 기하여 잠자던 비행기들은 폭음을 올렸다. 나를 보내는 정비사들의 눈초리에서도 심각한 그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 미소를 남기고는 마치⁷⁵⁾ 발고랑에서 야채 포기를 쏘아⁷⁶⁾ 내듯 각 기는 제 차례를 찾아 1번, 2번 기 순으로 천천히 시동을 시작하였다. 웅장스러운 폭음은 하늘을 제압하려는 전주곡이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점검하는 동안 벌써 군장기(軍長機)는 이륙하여 Gear를 올렸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신중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였다. 편대장을 따라 복진한 무장을 한 내 비행기도 공중에 떴다. 아무 잡념도 가질 수가 없었다. 완전히 편대를 짜고 편대장을 따랐다. 편대장 현(玄) 중위와 나와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순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 없는 약속을 나도 굳게 명심하였다.

그러나 목표로 완침(完針)하고 항진(航進)대형으로 벌렸을 때는 내 마음은 온통 공격 목표에만 쏠려 있었다. 그러자 문득 내려다보니 바로 나의 집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 이 아들은 용감히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외쳐 보았다. 생각하는 동안 경계하는 동안에도 나는 기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적기에 가까워짐을 느꼈다. 해안 상공을 날아 5분이 지나자 안하(眼下)에 포연에 쌓인 최전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적지라고 써 붙은 듯싶었다. 거기서부터는 적 고사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과히 안심스럽지는 않았다. 또한

75) 원문의 '미치'는 '마치'로 봄.

76) 원문의 '소꾸어'는 '쏘아'로 봄.

비행기 발견의 보고를 들 때마다 그것이 설사 우군기일지라도 그 순간은 전(全) 신경을 거기에도 집중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밤 라인을 넘어서자 폭탄 S, W를 ON으로 하고 전투대형으로 벌릴 때는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오늘의 목표에는 대공화기(對空火器)가 적은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은 스스로 신중하여 졌다. 그러는 동안 목표가 차차 눈 아래서 크게 나타나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격 준비의 한 마디에 나도 만단의 준비를 하였다. 멋들어진 반전(反轉)공격이었다. 제1편대가 공격이 끝나기도 전에 나의 장기(長機) 현 중위님도 “들어간다.”의 한 마디를 남기고 반전을 하였다. 나도 무의식중에 동시 공격을 하고야 말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명중시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편대장을 잃지 않으려는 내 마음 뿐이었다. 또한 그것이 초출격자에 대한 상사의 요구였던 까닭이다. 장기를 따라 Pull up 하는 순간 나는 좌측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당황하였다. 모든 조작을 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결코 떨어지지 않기에 단념하여 버리고 장기를 찾았다.

그러나 벌써 장기는 보이지 않고 제1편대만이 보였다. 그래도 3번 기였던 김(金) 소위는 꾸준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제1편대를 추종하였다. 그러는 동안 좌 상공에 장기를 발견하자 기쁨보다도 부끄러움이 더욱 심하였다. 그것이 지상이었더라면 나는 쥐구멍도 못 찾을 뻔하였을 것이다. 나는 장기에 바짝 붙고서는 폭탄 Check⁷⁷⁾를 하여 달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귀도(歸途)에 오른 나에겐 공포심도 초조심도 나지 않았다. 남하를 계속하는 동안 어느덧 세계에서 이름난 금강산(金剛山) 앞 바다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해금강(海金剛)인 것이다. 장기의 지시에 의하여 거기에서 비상 조작을 하였으나 역시 투하되지 않아 급상승을 하면서 각 조작을 하는 순간 비행기가 가벼워지며 우로 경사지는 것을 느꼈다. 보기 좋게 바다위에 떨어져 가는 그 폭탄이 그 제야 아깝게 생각되었다. 그 후부터는 적지(敵地) 아닌 적지인 북한 상공을 날며 초행길을 살피고 또 살폈다. 노변에 나뭇 탄흔(彈痕)이 마치 부드러운 살결에 남은 한 점의 상처와도 같이 눈에 뚜렷이 띄었다. 7,000피트의 고도가 어느덧 5,000피트가 되자 기지가 전방에 보였다. 전기(全機) 무사 귀환인 것이다. 처녀 출격을 축하하여 주는 정비사와 전우의 인사를 받으며 또한 굳은 악수를 교환할 때 기쁨은 웃음으로 나타나고야 말았다. 첫 출격을 마친 동료들에게서도 이제야 컴파이크 파일럿인 모습을 무언중에 발견할 수가 있었다. 리포트도 하기 전에 나는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나는 결코 이것으로 만심(慢心)할 것이 아니며 백회 출격이 또 한 나의 목표 나의 이상이 아닌 것을……분골쇄신 분투할 것이다. 아직도 내 눈에는 첫 출격 갔다 온 코스가 눈앞에 그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끝)

77) 원문의 check는 check

획기적(劃期的)인 신식지도(新式地圖)

평면(平面) 지도상(地圖上)에 최단거리(最短距離)를 그리는 곡선(曲線)

마이크 환레에

◀사진 설명▶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테레카야브 지도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창안자 웨릭스 롬헬 R은 루우트극(極)인 로스앤젤레스를 나타내고, 그곳을 지나는 검은 곡선은 대권(大圈)으로 최단거리를 나타낸다. 회색의 권선(圈線)은 등거리를 표시하며 왼쪽 검은 의(儀)에는 구형(球形)의 원형이 덮여져 있다. 그것을 평면에 전사(轉寫)한 것이 테레카야브 지도인 것이다.

자유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을 비롯하여 태반의 미군부대에서는, 현재 테레카야브(측원용(測遠用) 곡선) 세계지도라고 하는 획기적인 신식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웨릭스 롬헬이라고 하는 착실한 지리학자의 손으로 창안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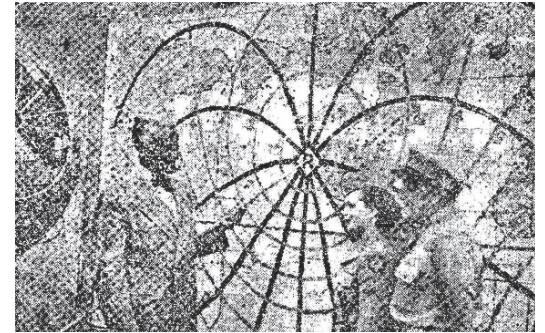
롬헬은 스위스 태생으로 세계 지리에 대하여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늘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는 지도 제작을 취미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지구라고 하는 구체 위에 직선을 긋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세계의 2점을 맺는 최단로(最短路), 최단거리는 곡선으로 재지(측(測)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싼 모릿스의 유명한 호외(戶外)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완전한 곡선을 그리는 술(術)을 체득하고 있던 롬헬은 1911년 스위스 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피겨⁷⁸⁾의 챔피언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해 가족과 더불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태평양안(岸)에다 자리 잡고 살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롬헬은 보험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한편 지도 제작도 부업으로 계속하고 있었다. 중학교쯤에서부터 대학, 다시 군사기지에서 테레카야브 지도가 적년(積年)의 요청에 보답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게 됨을 따라, 롬헬은 점점 하루 온종일의 시간을 통틀어서 그가 창제한 지도에 몇몇 소중한 곳에다 개량을 가하고, 또 테레카야브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군대의 교관용으로 설명이 붙은 교과서를 집필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침략 결과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한 현재에 있어서는 일찍이 롬헬의 취미 내지 부업에 지나지 않았던 그것은 그의 본직(本職)으로 변하여 졌던 것이다.

지구물리학에 관한 것이라곤 조금지도 모르는 수많은 남녀가 지금이야말로 병사

78) 원문의 '휘이까야'는 '피겨'임.

나 화물을 급속하게 먼 거리로 수송하는 일거리를 맡아 직업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만 한 장의 테레카야브 지도만 있으면 세계 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면적, 대권(大圈) 루트, 비행거리, 정확한 방향, 세계 각지의 비교 표준시(標準時) 등의 문제에 대



한 올바른 해답을 누구를 막론하고 틀림없이 즉석에서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것은 마치 역설과 같이 생각 키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은 단일한 방법으로 그려진 오직 한 장의 세계지도가 여행, 수송, 통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계적 규모의 지리적 문제에 대답한다는 것, 즉 그것은 될 수 없는 의논이라고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씀 드린 기본적 요소의 하나하나를 연구하려면, 각각 별다른 방법으로 그려진 지도가 필요하다고 믿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지도를 필요로 하였던 까닭으로, 지구라고 하는 구체의 표면을 평면의 세계지도에다 표시할 때의 비틀어짐을 어떻게 하면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미 복잡한 문제가 다시 더 한층 과장 맞도록 어렵게 되어 질 뿐이었다. 롬헬은 당연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극히 곤란한 장해를 눈치 채지 못한 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르토키코올법(法)의 세계지도 위에다 좌우 상칭(相稱)의 곡선을 대강 대강 그림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었다. 메르토키코올법의 세계지도는 처음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역시 온 세계의 항해자가 가장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이다.

롬헬 자신은 자기는 아무런 새로운 발명을 한 것은 아니다. 대권(구면(球面)상의 원으로 그 중심이 구의 중심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지구와 더불어 오래된 것이니까 라고, 되풀이 하며 말하고는 있지만 교육자, 자연과학자, 미군 당국 등에서는 롬헬이야말로 양극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또한 실제로 응용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 대권(大圈)이라고 하는 생각은 지구와 더불어 오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생각의 완전한 뜻과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항공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이는 절대로 필요하고 불가결한 것으로 되었으며, 지도 제작자 롬헬이 그 테레카야브 지도를 가지고서 성취하였다는 것은 실로 그것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전략, 전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테레키아브 지도가 가르치는 '새로운' 사항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초적인 것으로서 지구를 일주(一周)하고 두 개의 극을 통과하는 완전한 대권을 그리려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펼쳐 마침내는 서로 땀어지는 두 개의 자오선(子午線)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 또 어디든지 좋은 일정한 중심을 공통된 기점으로 한 둘 내지 그 이상의 완전한 대권을 지구상에 그렸을 경우에, 그러한 대권들은 기점으로부터 지구를 꼭 반주(半周)한 대척점(對蹠點)에서 서로 교차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 다시 북극과 남극 사이에 그려진 완전한 대권 루트와 거리 구분선과는 '이동이 가능한 파탄(도영(圖影))'으로서 이상적인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일정한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까지의 최단거리와 항공거리와를 지구의 위도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곧 읽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 북극이나 남극은 지구 자전의 축을 나타내는 부동한 지점인 까닭에 이들 두 개의 지점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는 없다. 그래서 '루트포올'과 '안티포올(대극(對極))' (왜 내가 그러한 감시가 있느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신어(新語)를 부득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두 개의 말은 부동(不動)의 북극, 남극과는 아무런 저촉도 없이 '이동이 가능한 양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地球儀)의 둥근 표면에 구영(球影)의 '원형'을 차지해 하면서 가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지만 이 원영(圓影)을 평면의 세계지도 위에다 그려 옮기려고 하면, 선이 뺄어지든가 너무 뻗어나가든가 하는 것 같은 귀찮은 문제를 일일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실로 이 점에 있어서 룽헬이 세계지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손길을 내밀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구리피스 파아크 천문대 및 푸라네타리움으로 이루어진 극히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테레키아브 지도의 어느 것이든 나타내고 있는 좌우 상칭의 대충 그런 곡선은, 평면 지도에서 피하기 자못 어려운 뺄어짐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 곡선의 모양은 물론, 중심이 되는 지점의 위도에 의하여 틀린다. 그러나 세계지도 그것은 지도상의 어느 곳에 기점(루트극(極))이 있던 간에 여하튼 변함은 없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세계지도를 읽는 방법이 간단화 된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다.

미국의 주요 도시 및 다른 여러 나라들의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각색의 지도가 인쇄에 넘어가 있다. 그 중 어느 것에 의하면, 알래스카의 베링 해협을 사이로 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그 떨어진 간격이 불과 75마일도 채 못 된다는 것이 자세히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심 지점이 바뀌어 집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

☆ (42면(面)으로 이음)

가난한 애인(愛人)들 (완(完))

도스토예프스키 작(作)

임옥인(林玉仁)

수기(手記) 와아링가의 과거(過去)

<1>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나는 겨우 열네 살이었다. 유년 시대의 내 생애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 시기를 보낸 것은 이곳이 아니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숲 깊은 어떤 조그만 촌이었다. 아버지는 P 공작(公爵)의 광대한 소유지의 관리인이었다. 우리들은 공작의 사유촌락(私有村落) 한곳에 살았었다. 조용히 남몰래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지독한 말괄량이였다. 날마다 들과 풀숲과 마당을 돌아만 다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실새 없이 여러 가지 사무에 바빴고 어머니도 가사에 바빴다. 나는 아무한테서도 교훈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는 편이 내게는 고마웠다. 이른 아침부터 흔히 연못가나 풀숲이나 풀 베는 데나 풀 베는 일꾼들이 모인 데로 달려갔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 쪼이거나 풀숲에 몸을 다치거나, 옷을 찢거나 일체 무관심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꾸중을 들어도 그것조차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만약 한평생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었다면 나는 펍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 내가 난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향을 떠나 우리 집안이 폐텔볼그로 이사했을 때 나는 겨우 열두 살이었다. 아아 그 서러운 여행 준비가 얼마나 쓰라린 추억이 되었던가. 친하고 그리운 모든 것들과 이별의 말을 나누었을 때 나는 얼마나 울었던가. 나는 아버지 목에 매어달려 조금만 더 이 마을에 있어 달라고 울면서 애원한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나를 꾸짖는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그럴 수는 없단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무래도 이 마을을 떠나야만 한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늙은 공작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고(解雇)시킨 것이었다. 아버지는 약간의 돈을 페텔불그에 사는 사람들에게 용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운(家運)을 만회하려고 결심한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그리로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 그 후에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우리들을 페텔불그아야로(路)에 집을 정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새 생활에 익숙할 때까지 나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우리들이 페텔불그에 옮겨 온 때는 가을이었다. 정든 고향을 떠났을 때는 맑고 따뜻한 날씨였는데 추수는 끝나고 곡창에는 큼직한 곡식 단이 높다리 쌓이고 여기저기서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하늘에서 열까지 즐겁기만 했는데 이곳은 전혀 달리 거리에 들어서니 비가 구름구름 내리는 것이었다. 음산한 진눈깨비, 거친 바람, 알지 못할 통명스런 사람들의 얼굴. 그러나 이력저력 우리는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허덕거리며 일하고 쉴 새 없이 마음을 써서 새로 시작된 생활의 준비를 한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언제나 집에 계시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잠시도 조용히 쉴 틈이 없었다. 해서, 나는 전혀 잊어버린 존재였다. 새 집에서 하룻밤을 샌 이튿날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정말 슬펐다. 우리 집 창은 남의 집 누런 담벼락을 향해 있었다. 길은 항상 질척질척했다. 길 가는 사람은 드물고 어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모두 옷을 많이 끼어 입어서 뒤통뒤통했다. 모두 추위에 움츠러들어 있었다.

우리 집에는 항상 무서운 근심과 갑갑한 공기가 자욱했었다. 우리에게는 친척이나 친한 이들이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안나 효오도로보나와 절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얼마간의 빛이 있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는 꽤 자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무를 가지고 드나들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투었다. 부산히 떠돌고 육지거리였다. 이러한 방문객이 돌아간 후에는 아버지는 펄 우물해져서 역정을 내기가 보통이었고 이맛살에 어두운 주름살을 진채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저 구석에서 이 구석으로,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성급하게 걸어 돌아다니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때에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소곳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럴라치면 나는 한 구석에서 책을 앞에 놓고 걸터앉은 채 숨을 죽이고 꼼짝을 못했다.

페텔불그에 이사 온 지 석 달 후에 난 어떤 여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낮선 사람들 틈에 들어간 일이 내게는 얼마나 슬펐던가. 모든 것이 무척 냉담하고 무정했다. 사감(舍監)은 무섭고 잔소리 많은 아이들이었다. 생도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업수이 여기는 듯한 패들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전혀 촌뜨기였다. 참 얼마나 자독히 흉만 보려 들었던지. 답답한 시간제도, 다 함께 너죽히 보아 놓은 식탁, 심심한 선생들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잠들 수조차 없었다. 길고 지리한 추운 밤을 밤새껏 울어 새인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밤마다 다른 생도들이 학과의 연습과 복습을 하는 시

간이 되면 나도 남과 같이 프랑스어의 회화나 단어 책을 앞에 놓고 똑바로 앉아서 몸 하나 까딱 안했다. 그렇지만 마음은 집엿 일, 아버지 어머니 나이 먹은 유모와 유모가 들려주던 옛날이야기 같은 데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슬펐다. 집엿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일까지라도 가슴에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이었다. 생각은 끝없이 달린다. 참, 오늘날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마 저 조그만 방에 여러 식구와 함께 사모왈을 둘러싸고 앉아 있겠지.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늑하고 기분이 좋을까. 당장 뛰어가서 어머니를 꼭 끌어안아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는 동안에 못 견디게 슬퍼져서 남몰래 훌쩍훌쩍 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단어 같은 게 머리에 들어올 리 없었다. 내일의 학과 연습을 못해 놓았다. 밤새껏 선생이며 사감 생도들이 꿈에 어른거린다. 꿈속에서 밤새껏 학과의 연습을 한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머리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나는 별로 꿇어앉게 되고 식사는 단 한 접시밖에 못 받는다. 이리하여 나는 몹시 침울한 인간이 되어 버렸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고, 건드리고, 책 읽을 때엔 헛갈리게 만들며, 식사와 차 마시려 줄을 지어 갈 때에는 꼬집고, 터무니없고 하잘 것 없는 일들을 사감에게 낱알이 고자질해서 못 견디게 굴었다. 그 대신 토요일 저녁 유모가 나를 데리려 올 적의 기쁨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대뜸 껴안기는 것이었다. 유모는 내게 외출복을 입히고, 폭신평신했고 따뜻한 방한(防寒) 차비를 해준다. 그리고 짐까지의 길을 날아가고 싶은 내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겨우 따라온다. 나는 유모에게 무에나 함부로 지껄여 들린다. 나는 즐겁고 싱싱한 사람이 되어 집에 다다른다. 마치 십년이나 떨어져 있던 것처럼 꼬옥꼬옥 모두 안아 본다. 별의별 보고와 설명이 시작된다. 여러 사람과 인사한다. 생글생글 낮에 꽃이 핀다. 명랑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흔든다. 껴안고 훌쩍 돌아가며, 그리고 아버지와 점잖은 얘기가 시작된다. 학교, 선생, 프랑스어, 로오몬트의 문전(文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즐겁고 대만족이었다. 그러한 순간의 이것저것을 회상하면 지금도 나는 기쁨에 심장이 뛰는 것이다. 나는 전력을 다 해서 학업을 힘써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최후의 한 푼까지 제공하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곤궁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날로 아버지는 우울하게 성가시게 잘 노여워하는 사람이 돼갔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빛이 산 같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 성미를 건드리지 말라는 조심에서 어머니는 몹시 앓는 몸이 되어 버렸다. 점점 수척하고 이상한 기침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 기숙사에서 돌아와 보아도 항상 슬픈 얼굴들이 가즈런히 있는 것 같지만 보였다. 어머니는 남몰래 울고 아버지는 화만 버럭버럭 냈다. 꾸짖고 야단치고 법석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너는 조금도 기쁨을 주지 않는 아이라고 했다. 조금도 위로가 안 된다, 우리는 너 때문에 최후의 한 푼까지 기우렸는데 너는 아직 프랑

스 말을 못하는 형편이 아니야, 이렇게 야단이었다. 요컨대 모든 실패,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다 나와 어머니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엾은 내 어머니를 왜 그리 괴롭힐 수 있었을까, 어머니를 보면 나는 언제나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뺨은 여위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얼굴 전체가 폐병환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화는 누구에게 대해서보다도 내게 더 하였다. 언제든지 극히 하잘 것 없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막상 시작만 되면 야단이다. 어디까지 튀어 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가끔 내가 무엇 때문에 꾸중 듣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다. 너는 프랑스 말을 조금도 알지 못하니 너는 천치라 거니, 너의 학교 교장은 조심성 없는 밥통이라 거니, 그 교장은 너희들의 덕성(德性)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거니, 아버지는 아직도 취직 못했다 거니, 또는 로오포트 문전(文典)은 나쁜 문전이며 자보이스키이 편이 훨씬 좋니, 너 때문에 이렇게 쓸 데 없는 돈을 썼으니, 너는 마치 냉담하기가 돌 같은 계집애라 거니, 그렇게 나를 책했다. 요컨대 가엾은 나는 프랑스 말의 회화와 단어를 외우려고 전력을 다 해서 애쓰면서도 모든 일에 책망을 당하는 것이었다.

모든 죄를 짊어지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때문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에 대해서 끝없는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 그 런데 이런 형편이었다. 이런 것이 아버지의 성격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근심, 탄식, 실패가 이 가엾은 아버지를 극도로 괴롭힌 것이었다. 아버지는 의심이 많아지고 가혹해 졌다. 깊은 절망의 구렁 속에 빠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었다. 감기가 든 것이었다. 그리고 조금 괴로워하는가 하더니 눈 깜박할 새에 세상을 떠나 버렸다. 우리는 그 타격이 너무나 급격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저 자신을 잃은 채 그저 멍청이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혼 나간 사람처럼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정도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사망팔방에서 빔쟁이가 튀어나왔다. 때를 지어 무지무지하게 밀려들었다. 집에 있던 모든 가재물품을 우리는 전부 제공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 후에 아버지가 사놓은 페렐불그스카야로의 작은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갔다. 나머지 물품들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집도 없고 그날그날의 양식조차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낫지 못할 병에 신음하게 되었다. 우리는 제 입에 풀칠할 아무 대책도 없었다. 생활의 예산이 전혀 서지 않았다. 멸망이 앞길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나는 겨우 열네 살이었다. 여기 훌쩍 안나 효오드 라브나가 우리를 찾아 온 것이다. 그 여자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이래봐도 여지주(女地主)요 게다가 너희들의 친척 되는 사람이야 했다. 어머니도 또한 그 여자를 친척이라고 했다. 그러나 딱 먼 친척이라는 것이 (127면(面)으로 이음)

★ 공군문예입선작(空軍文藝入選作)

소설(小說) 파경(破鏡)

현경호 공군중위(空軍中尉)



부산의 아침은 비교적 조용하다. 아마 아침의 부산거리만을 본 사람은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복잡한 낮과 저녁때의 부산거리를 모를 것 같다.

경식(慶植)이는 급하기는 하나 기운 없는 걸음으로 부산역을 향해 서둘렀다. 어젯밤 잠을 못자서 그런지 얼굴이 창백하다. 아직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걸어가다가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한다.

경식이 부산역에 들어선 것은 아침 6시가 넘어서였다. 역에는 상상외로 사람이 많고 번잡했다. 차표를 사는 사람들의 줄은 행갈가까지 늘어져 있었다. 갑갑을 파는 아주머니, 먼지가 보양게 앉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계집애, 신문팔이 거지 아이. 이 가지각색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경식은 그런 분주한 광경이 보기 싫어 얼굴을 찌푸리고 알티오(RTO)있는 쪽으로 갔다.

“김 중위님, 나오셨어요.” 알티오의 사병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자세히 얼굴을 쳐다본다.

“어디 아프세요?” 경식을 잘 아는 그 사병은 근심스럽게 다시 묻는다.

“아니, 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늦어서 잠을 못 잤더니 그런가 보아. 종이 있거든 한 장만 주지.”

사병이 내어주는 종이를 앞에 놓고 경식은 자기 은사인 서재철(徐在喆) 선생에게 편지를 썼다. 서(徐) 선생은 이번에 경식에게 신상희(申相熙)라는 여자를 중매하여 선까지 보게끔 하여준 분이였다.

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오늘 아침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부산역까지 나왔으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발까지 부들부들 떨리고 골치가 멍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을 생각하면 참 꿈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선생님 계신 XX국을 찾아가던 아침의 일, 그날 오후 N 다방에서의 일, 선생님 모시고 LCI에서 점심을 먹던 일, 또 어제는 초량동(草梁洞) 미스 신 집에서 놀던 일, 이 모든 것이 한데 겹쳐져서 머리 안을 휘돌립니다. 참 분주하던 사흘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어젯밤 미스 신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결과 저희들은 아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확실히 미스 신의 입으로 혼담 거절의 의사 표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공연히 애쓰고 돌아다닌 게 분하기도 하고 해서 어젯밤에는 한

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올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출장 중 관계로 부득이 오늘 아침 꼭 상구(上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편지 올리겠습니다.

13일 아침 6시 김경식 올림

여기까지 단숨에 갈겨쓴 경식이는 이마에 듌은 땀을 수건으로 닦고 흠으로 달려갔다. 동행해 온 D와 M을 만나려는 마음에서였다. 벌써 자리는 뻘뻘하게 차있었는데 다행히 D와 M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또 역 홈에는 경식이의 외삼촌하고 생각지도 않던 상희의 오빠 되는 R이 나와 있었다. 외삼촌도 이번 일에 상당히 애를 썼고 혼담이 성립되기를 원했던 만큼 일이 이렇게 틀어지고 보니 어지간히 실망한 모양이었다. 기운도 없어 보이고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R은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고 상희가 밤새껏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귀담아 들리지도 않았다. 기차는 6시 30분 정각에 부산역을 뒤로 했다. 경식이는 기차가 떠난 후에도 창에다 머리를 비비던 채 멍하니 항구의 기선들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기었다.

올해 스물일곱 살이 되는 경식이에겐는 벌써부터 여러 번 혼담이 있었다. 혼담이 있을 때마다 경식이는 무척대고 거절을 했다. 소개가 된 혼담이 신통치도 않았거니와 아직 장가들고 싶지도 않았었다. 우선 자기가 자립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 문제였다. 군인의 몸인 경식이에겐는 고정된 수입밖에는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엄병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성미였다. 혹 아는 사람이

“군인도 장교쯤 되면 어떻게 먹구 살 수 있지 않아? 다 살길이 있다고들 하던데.”

말을 하면 경식이는 으레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반박을 해주곤 했다.

경식이는 남 보기에도 퍽 순진한 청년이었다. 그와 사귀어 보지 않던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한두 살 아래로 본다. 투지가 강한 그는 친구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우정도 가졌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경식이의 외삼촌이 대구(大邱)에 볼 일이 있어 들렸던 길에 혼담을 가지고 경식이 집을 찾아 왔다.

혼담의 주인공은 정부 ○○부 XX국 국장의 딸인데 S여대 영문과를 마친 여자라 했다. 경식이 집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경식이 나이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좋다고 했고 그 후 사진을 본 후에는 곧이라도 추진시키자고 했다. 집에서도 서둘렀지만 경식이라도 사진을 본 후에는 마음이 끌렸다. 가슴 포켓에다 넣고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꺼내보곤 했다.

선보는 일로 부산에 내려온 다음날 경식이는 XX국을 찾아 갔다. 경식이의 은사인 서재철 선생이 XX국 부국장으로 있었던 까닭이다. 서 선생은 경식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상희의 아버지인 국장에게도 인사를 시켜 주었다. 서 선생의 주선으로 선은 오후 3시 다방에서 보자고 약속이 되었다. 서 선생의 이야기로는 신부 측에서 경식이

를 여러 군데로 알아본 결과 좋다고 하며 상당히 서두르고 있으니까 원만히 되리라는 것이었다.

경식이는 약속 시간 30분이나 앞서 외삼촌, 이모, 외숙모와 같이 N다방에 갔다. 시간을 어기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선수를 써서 다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려는 심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다방 입구가 잘 되는 곳에 잡았다.

상희는 3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3시 10분, 무척 초조한 시간이 지나갔다. 십분이 지나서 서 선생이 왔다. 서 선생의 이야기로서는 3시에 틀림없이 온다고 했으니까 곧 올 거라는 것이었다. 거의 20분이 되어서야 상희가 들어 왔다.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다. 그쪽 일행도 서너 명은 되었다. 상희는 무척 수줍어하는 기색을 보였다. 맑고 커다란 눈이 매력적이었다. 균형이 잡힌 몸매와 수수하게 화장한 것이 더욱 경식이의 마음을 끌었다. 양쪽이 인사를 끝마치고 의자에 앉자 상희의 고모부 되는 사람이 경식이에겐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상희에게 경식이를 충분히 볼 기회를 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경식이는 여러 사람의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됨을 느끼면서 말대꾸를 했는데 틈틈이 상희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식이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너무 긴장한 까닭인지 피곤까지 느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 다들 나가 버리고 경식이와 상희 둘이만 남게 되었다. 잠시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무슨 말부터 꺼내나 하고 망설이다가 얼핏 옆에 앉아 있는 상희를 바라보니 얼굴이 홍조된 채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여자대학까지 다닌 여자가 이렇게까지 수줍을 수도 있는가하고 의심도 해 봤다. 그러나 싫지는 않았다. 인물은 기가 막힐 정도로 미모는 아니었으나 어쩐지 마음이 끌렸다. 경식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족했던 것이었다.

그 다음날의 일이다. 경식이는 서 선생의 초청으로 엘씨아이(LCI 해군장교구락부)에서 해군에 있는 친구 K 중위하고 서 선생을 만났다. 서 선생은 대학 때의 선생이기 때문에 요즘의 동창들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중위는 자기가 미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부산에 사는 젊은 사람들의 동태를 통탄했다.

“없으면서도 있는 착하고 허영에만 떠 있거든.”

그는 누구라도 나무라듯이 연설조로 이렇게 강조했다. 또 최근에 부산에서는 여자 측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경식이는 상희는 이러한 어떤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 여자이리라 싶어 병긋이 만족의 웃음까지 지었다. 서 선생은 어제 선을 본 결과 상희 쪽에서는 오케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김 군한테는 여자가 잘 따르는 모양일세 그러, 약혼 날짜나 빨리 정하지?”

“네, 하루만 더 생각해서 내일 아침 선생님께 가겠습니다.”

경식이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서 선생은 그 이상 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따져 묻지 않았다. 그는 사제지간의 따뜻한 사랑으로서 어떻게 서든지 제자인 경식이가 행복한 결혼을 하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서 선생은 이번 경식이 일로 자기 일은 제쳐놓고

애했다. 경식은 그 마음을 잘 알았었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는 상희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라서 경식은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그려 보았다. 상희 본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 보기에는 얌전한데. 현모양처감이야. 설마 허영에 뜬 여자는 아니겠지? 몰라, 대학까지 다녔고 요즘 부산의 공기가 여자를 허영에 뜨게 하기 꼭 알맞으니까. 경식은 허영에 떠서 돌아다니는 요즘 여자들을 싫어했다. 싫을 뿐만 아니라 경멸까지 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어. 서 선생의 중매인데 그럴 리가 있을라구?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할까? 순희(順姬)를 만나보면 알 텐데. 순희는 경식의 사촌누이 동생인데 역시 K여대 재학 중이다. 부산에 내려와 경식이 집을 찾았으나 최근 집을 이사해서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신부 쪽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무슨 비밀이라도 내포된 듯하여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이튿날 아침 느지막이 일어난 경식은 아침밥을 먹는 등 마는 등 XX국으로 서 선생을 찾았다.

“선생님 작정했습니다. 약혼은 칠월 중 언제든지 좋구요, 결혼은 시월 달쯤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식이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생각해 낸 결론이었다. 경식은 희망에 가득한 사람이 그런 것 같이 희색이 만연이었다. 서 선생은 이제 자기 임무는 끝났다는 듯이

“됐어, 됐어.”하면서 웃어보였다. 경식은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상희를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것과 경식의 사촌누님이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XX국을 나왔다.

경식은 펄펄 날아 보고라도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행복하고 자기만이 행운아인 듯 했다. 아니 무엇보다도 5년 전부터 가슴에 지녀온 상처가 이제야 없어지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5년 전, 그러니까 경식이 스물두 살 때었을 때의 일이었다. 대학예과에 다니던 경식은 영희(英姬)라는 열여덟 살 먹은 여학생하고 사랑을 속삭인 일이 있었다. 그야말로 순진하고 깨끗한 연애했다. 그런데 대길(大吉)에는 항상 대흉(大凶)이 따라오는 법이라더니 그들 둘 사이에도 불행이 왔었다. 사랑하는 영희가 무서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지 한 달 만에 별세하고 말았다. 그 당시 경식은 울기도 많이 울었고 밥도 많이 굶었다. 외로울 때면 영희의 무덤을 찾았으나 그것도 경식의 외로움을 줄여주지 못했다. 영희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하루는 영희가 찾아오더니

“이것을 보고 머리 좀 빗으세요.”

하고 거울 하나를 주었다. 경식의 길고 흐트러진 머리가 보기 안 됐던 모양이었다. 경식은 애인 영희가 사다준 거울을 아끼고 늘 책상 앞에 걸어놓고 영희가 오면 얼굴을 맞대고 같이 그 거울을 들여다 보곤했었다. 영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경

식은 그 거울을 보물보다 더 귀하게 간직해 두고 언제나 아끼며 들여다보면서 영희를 추억했다. 요즘에 이르기까지 경식이 혼담을 무턱대고 거절해 버린 원인도 여기에 있고 상희하고의 이야기가 났을 때 선뜻 선을 보겠다고 한 것도 상희가 영희하고 닮은 데가 있기 때문이었다.

상희하고의 약혼이 결정적으로 된 경식은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후 네 시가 되자 경식은 다시 XX국을 찾았다. 서 선생은 전같이 반겨주었다.

“김 군, 잘 왔어. 그런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집도 알 겸해서 미스 신을 나오라기보다 집으로 가지?”

“네. 집으로 가는 것도 좋으나 저의 누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댁에는 다음에 또 찾아가지요.”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경식이 종내 양보하고 말았다. 누이한테는 부득이 만나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전화를 걸었다.

상희 집에서는 어떤 귀빈이나 온 것처럼 경식을 맞았다. 상희도 나와서 꾸벅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 상희의 오빠 R은 경식이라고 나이가 같은데 벌써부터 안 친구처럼 재미있게 화제를 벌렸다. 상희의 동생인 R여대의 학생인 Y양도 소개해 주었다. 경식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바람에 말대꾸가 바빴다. 좋은 가정이라 생각됐다. R이 펄 마음에 들었다. 씩씩한 호인이었다. 장차 차남이 될 사람이었으나 친구로서도 좋은 친구가 되리라고 생각됐다. 상희 어머니는 잠시도 경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듯이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상희 어머니는 새로 사위가 될 경식이 펄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과자가 들어오고 사이다가 들어오고 했다. 상희도 얼마 후에 들어와 앉았다. 옆방에서는 영감님패들의 술상이 벌여져서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상희는 멍쩍어서 그런지 말을 잘 하지 못했다. 경식은 상희하고 둘이만 있다면 고소한 이야기가 얼마든지 흘러나오리라고 생각해 봤다.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였다. 서 선생이 옆방에서 건너와서 약혼 날짜에 대해서 결말을 짓자고 했다. 경식은 오전에 말한 것 같이 칠월을 주장했고 서 선생은 상희 어머니하고 같이 유월 내로 약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두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긴 있었으나 경식이 볼 때에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종내 결말을 못 짓고 경식이 대구에 올라가 집에서 타협을 짓고 될 수 있는 대로 상희 집에서 말하는 날짜에 가깝게 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상희 어머니는 얼마동안 헤어져 있을 텐데 같이 나가서 이야기나 하다 오라고 했다. 경식은 얼마 후에는 자기 장모가 될 상희 어머니의 말이 무척 고마웠다.

경식은 상희하고 나란히 차를 탔다. 이제는 이틀 전에 느꼈던 갇은 어색한 기분은 조금도 없었다. 말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웠다. 경식은 얼마 후에 자기의 아내가 될 상희를 저속이 쳐다보면서 이상한 충동조차 느꼈다. 상희는 차안에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다가 변화한 시내가 가까워 오니까

“어디로 가실려고 그러세요?”

“다방에나 가지. 어딜 갈까?”

경식이의 말에는 벌써 반말이 섞였다. T 다방 앞에 이르자 경식은 차를 멈추고 조용히 같이 걸어들어 갔다. 경식은 웨딩마치를 연상해서 일부러 상희하고 발을 맞춰 왔다. 다방에서의 이야기는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경식이가 차지했다. 경식은 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까지도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서 그만 두었다. 상희는 한참동안 아래를 보고 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선생은 어떠한 성격이 좋으세요?”

“내가 좀 꼼꼼하니까 활발한 성격이 좋지.”

“저는 그럼 자격이 없게요?”

“왜?”

“저도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못 되니까요.”

그 말을 하고 상희는 또 무슨 말을 할듯할듯 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경식은 상희에게 다짐을 받아보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난 내일 대구로 떠나요. 우리가 만난 것도 그저께나 처음이고 서로 잘 모르니 약 혼하기 전에 서로 털어 놓고 이야기해 둘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둬시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지난 후였다. 상희는 조용히 입을 열더니 말을 이었다.

“김 선생을 모두들 칭찬하고 백퍼센트(%)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나 뵈니까 정말 좋은 분인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 선생은 암만해도 저로서는 만족 못하실 것 같아요.”

경식은 상희가 겸손해서 하는 말로 듣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성격은 서로 길러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맞는 성격이 맺이나 된단구?”

경식은 그렇게 대답하고도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상희의 어조에서 직각적으로 느껴졌다.

(김 선생은 암만해도 저로서는 만족 못하실 것 같아요?)

경식은 상희의 말을 다시 한 번 입안에 새겨보았다. 상희는 다시 주저하는 어조로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경식은 그때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왜 처음 상희가 말했을 때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는가 싶었다. 확실히 그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야유의 말이며 경식이에게 대한 모욕적인 말이었다. 상희는 자기가 경식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의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경식이라도 상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경식이에게 헤어져달라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상희는 자기 비밀을 부모에게도 숨겨왔던 것이 분명했다. 경식은 앞이 캄캄해졌다. 아찔했다.

“알았어요.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식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상희는 서 선생한테 경식이가 약혼을 거절한다고 말해줄 수 없느냐고까지 했다. 경식은 더욱 놀랐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순진한 여자라고 봤던가 싶었다.

밖에 나오니까 밤은 한박 이슬했는데 가로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가로등에 비쳐 보이는 상희의 얼굴은 몹시 예뻐 보였고 차게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식이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 또 길게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상희를 보내고 나서 경식은 멍하니 화석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맥이 풀리고 벽이라도 두들기고 실컷 울고 싶었다. 공연히 이를 동안 마음을 쓴 것이 분했다. 집까지 찾아 갔던 것이 바보의 처사라고도 생각해 봤다.

그저께 선을 봤을 때 내 인상이 좋지 않았었나? 그렇지 않으면 리베(애인(愛人))가 있나? N 다방에 왔을 때 상희가 수줍은 듯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선보는 그것 자체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는가? 상희 집에서 서두른 것은 부모 맘에 들지 않는 상희의 애인을 상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수단으로 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인가?

경식은 길가에서 미친 사람 모양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생각해 봤다. 그러나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후자에 가까우리라는 단정을 내려 보기는 했으나.

“가자. 내일 아침에는 또 대구로 떠나야지.”

경식이가 이렇게 맥없이 중얼거리고 역 쪽으로 두어 걸음 내어 디뎠을 때였다.

“오빠! 웬 일유?”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 순희 아니야.”

“나 그저께 내려왔는데 너희 집 이사 간 집을 알아야 찾아가지?”

“어머! 제가 진작 알려드렸어야 될 걸.”

“이번엔 출장으로 왔어.”

경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괴로움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까지 지우며 이렇게 말했다. 아마 밤의 어두움만 아니었더라도 순희는 경식이의 얼굴에서 경식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빠 언제 대구에 가요? 하루래두 우리 집에서 묵어야지.”

경식이의 사촌동생 순희는 상냥하게 물었다.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 얼마 후에 다시 한 번 들리지. 아저씨 아주머니 다 안녕하시지?”

둘이는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요즘 지내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경식은 무슨 이야기보다도 상희의 말을 물어보고 싶었으나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경식은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순희야, 너희 학교 최근 졸업생인데 신상희라고 아니?”

“영문과 나오지 않았수?”

“그래. 영문과 졸업했지.”

“신상희……왜 그래 오빠.”

“내 친구가 그 여자하고 결혼 말이 있는데 어떤 여자인가 알아보려구.”

“그 언니 라브짱이 있는데 또 무슨 결혼이야?”

순희는 상희에게 애인이 있는 것이 기지의 사실이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따?” 경식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이철수(李澈洙)라고 오빠도 알지 몰라요. 공과 출신인데 S대학을 졸업했지. 아마 대학 때부터 서로 연애했었는데 집에서 반대했었나봐. 물론 그 언니 집에서.”

“이철수?”

경식이는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수, 그 사람은 확실히 경식이의 동기동창에 틀림이 없었다.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도 알맞은 운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분해서 경식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경식이는 상희가 자기의 사랑을 자기 부모에게 고백하는데 이용당함에 지내지 않았다. 경식이는 순희하고 헤어져 혼이 나간 사람처럼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하면서 걸었다.

빙긋이 웃는 철수의 얼굴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경식이는 어두움에서 철수의 얼굴을 지워버리려고 허공으로 손을 저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철수의 얼굴하고 상희의 얼굴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경식이는 실신한 사람처럼 바들거리면서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모른다.

어젯밤을 뜬 눈으로 새운 경식이는 대구에 와서도 잠이 안 왔다. 잠도 자지 말고 이대로 말라 죽었으면 싶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낮부터 고단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버렸던 것이었다.

꽤 밤이 깊은 모양이다. 옆방에서 자는 식구들의 숨소리가 색색 들려왔다. 눈은 점점 말뚱말뚱 하여지고 누가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았다.

“답답해!”

경식이는 침대에서 튀어 일어났다. 동물원에 갇힌 사자처럼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 무엇이든지 던지고 싶고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바들거리다가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고 또 일어나 머리를 움켜 쥐곤 했다. 손으로 주먹을 쥐어 봐도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그러다가 경식이는 책상 앞에 걸려 있던 거울을 두 손으로 쥐었다. 거울에는 옛 애인 영희의 얼굴이 비쳐졌다. 경식이는 거 거울을 살며시 얼굴에다 갖다대었다. 영희가 자기 옆에 있거나 없나 하는 착각조차 느낀 경식이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이다. 영희의 얼굴이 점점 상희의 얼굴로 바뀌어 졌다.

다방에서 나와서 가로등으로 비치어 보였던 그 차디찬 얼굴.

(김 성생은 암만해도 저로서는 만족 못하실 것 같아요.)

상희의 말이 다시금 귀에 울린다.

“앗”하고 소리 지르며 경식이는 쥐었던 거울을 방바닥에 던져버

(☆ 46면(面)에 이음)

공군문고(空軍文庫) 제2집(第2輯)(기간(既刊))

소설집(小說集) 훈장(勳章)

【집필진(執筆陣)】

정비석(鄭飛石) 최정희(崔貞熙) 김영수(金永壽) 박영준(朴榮濬) 허윤석(許允碩)
방기환(方基煥) 최인욱(崔仁旭) 김송(金松) 김이석(金利錫) 유주현(柳周鉉)

(총수룩작품(總收錄作品) 16편(篇))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發行)

공군문고(空軍文庫) 제1집(第1輯)(기간(既刊))

시집(詩集) 창궁(蒼穹)

【집필진(執筆陣)】

조지훈(趙芝薰) 박두진(朴斗鎭) 박목월(朴木月) 이상로(李相魯) 박인환(朴寅煥)
이윤수(李潤守) 김윤성(金潤成) 박훈산(朴薰山) 정운삼(鄭雲三) 김요섭 김기완(金基完)

(총수룩작품(總收錄作品) 23편(篇))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發行)

★ 주간(週刊)

공군의 위클리

다브로이트 판(版) ★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인(發行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서임수(徐壬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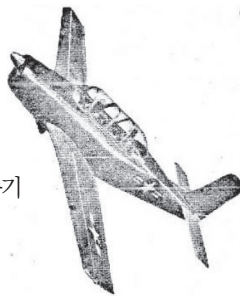
편집인(編輯人) 공군소령(空軍少領) 주정호(朱貞鎬)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空軍本部) 고급부관실(高級副官室) 인쇄소(印刷所)

획기적(劃期的)인 간행(刊行)!

☆ 현대전에 있어서 항공력의 필요와 그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새삼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전쟁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발달과 진보와 행복과에 있어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주로 미국의 각종 항공기를 모아 자세한 설명(현물 사진과 도면에 의하여)을
붙였다. 우리 공군의 발전과 국민 항공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폭격기 공군, 해군 전투기 기타 해군기 수송기

연락기 연습기 헬리콥터 소련의 각 기(機)

☆☆124종 각종 항공기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

공군종군문인단원을 비롯하여 각 신문 통신사의 기자, 군인 그 밖의 인사가 집필한
종군기, 전투실기, 공군전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등 공군에 관한 종군기록의 집대성!

날개의 성지(聖地) 근간(近刊)

공군문고(空軍文庫) 제4집(第4輯)

각 기사에 마다 기록적인 사진 삽입

코메트

THE COMET

